



070 황사일록 黃蛇日錄

제목 표제: 黃蛇日錄,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49년(영조 25)

형태사항 1책(31장) / 가철 / 30.8×21.1cm 소장자

아주신씨오봉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23 나재종선조일기 懶齋從先祖日記

제목 표제: 懶齋從先祖日記, 권수제: 懶齋從先祖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621~1654년(광해군 13~효종 5) 형태사

항 1책(62장) / 선장(4침) / 20.8×20.5cm 소장자

아주신씨인재파전암후손가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32 장사일록 長沙日錄

제목 표제: 長沙日錄, 권수제: 長沙日錄 저자 신흥망

申弘望(1600~1673) 작성연대 1652년(효종 3)

형태사항 1책(30장) / 가철 / 34.5×26.6cm 소장자

아주신씨오봉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시대
朝鮮時代

개인
일기

個人日記
1

대구·경북



국립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일러두기

1. 이 보고서는 대구·경북 소재 조선시대 개인일기 필사본 중 국가지정이 아닌 일기류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이다.
 - 1) 조사처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봉화군 총재박물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주시립 소수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개인 소장자
 - 2) 기록시기 : 조선시대(대한제국기 포함)의 내용을 기술한 일기로 현대 생성물이 아닌 저작물.
 - 기록내용의 연대 상한이 대한제국기 이상이면 하한이 일제강점기라도 포함.
 - 본문에 '작성연대'는 일기의 최초 작성연대를 말함.
 - 3) 개인일기 : 민간의 개인 저작물 중 시기별 기술 등 일기의 형식을 갖춘 기록물.
 - 저자가 유사(有司·담당자)의 성격이라도 문화유산과 관련되거나 소행(疎行)·소청(疏廳)일기 등 중요 정치상황을 반영한 일기 포함.
 - 순수한 일지, 대장의 내용을 수록한 저작물은 제외
 - 전승된 문헌의 내용 중 특정 사건을 옮겨 적은 야사(野史) 성격의 저작물은 제외
 - 4) 필사본 : 후대 전사본 포함, 인간(印刊)된 저작물을 다시 필사한 저작물은 제외.
2. 이 보고서의 체제는 해제편, 목록편으로 나누어지며, 위 조사처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일기 165건을 목록으로 수록하고, 그 중 중요일기 29건을 해제하였다.
3. 해제일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 선정하였다.
 - 일기 작성 시기가 오래된 일기.
 - 일정한 분량(기간·내용)을 가진 일기
 - 가능한 친필 수고본 일기.
 -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정사(正史)와 달리 개인적 관점에서 사료를 제공해 주는 일기
 - 문화유산의 생성, 보존관리 형태, 묘사 등의 내용을 담은 일기. (전통시대 간역, 영건, 기행, 의례포함, 지방제도 등의 실상이 포함된 일기)
4. 일기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명명하였다.
 - 권수제를 제목으로 명명하였다.
 - 권수제가 고유성·차별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 표제를 제목으로 명명하였다.
 - 권수제와 표제가 없거나, 고유성·차별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새로운 제목을 부여하였다.
 - 새로운 제목은 저자와 일기 형태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부여.
 - 새로운 제목에서 저자의 표현은 '호'가 아닌 '이름'으로 함.
 -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미 학계에 통용되었거나, 유사한 주제·내용을 수록한 일기들의 제목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검색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통용된 제목을 따랐다.
5.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원문을 병기하고, 재출자의 경우 한글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인용문 출처의 제목은 한글 혹은 원문으로 표기.
 - 인기(印記)의 경우 원문으로 표기.

차례

펴내는글	005
I. 해제	006
1. 천사일로일기天使一路日記	008
2. 가정경술일기嘉靖庚戌日記	015
3. 해월헌계미일기海月軒癸未日記	023
4. 낙재선생일기樂齋先生日記	030
5. 진사록辰巳錄	038
6. 만취선조예조일기晩翠先祖禮曹日記	057
7. 만취선조관동일록晩翠先祖關東日錄	065
8. 만취선조관동일록晩翠先祖關東日錄(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46호)	075
9. 정간공일기貞簡公日記	086
10. 모당일기慕堂日記	093
11. 계암일록溪巖日錄	104
12. 조성당일기操省堂日記	120
13. 경당일기敬堂日記	132
14. 죽소부군일기竹所府君日記	143
15. 북정록北征錄	156
16. 창구객일록蒼狗客日錄	166
17. 분강서원창원일기汾江書院創院日記	174
18. 백불암역중일기百弗庵曆中日記	179
19. 이상정역중일기李象靖曆中日記	211
20. 춘방록春坊錄	227
21. 경상도하양현일록(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44호, 지정년도 : 2003년)	236
22. 은유일기恩遊日記	242
23. 수사록隨槎錄	251
24. 하와일록河窩日錄	259
25. 봉강영당영건일기鳳岡影堂營建日記	266
26. 행정면례시일기杏亭緬禮時日記	276
27. 권벌승무소청일기權撥陞庶疏廳日記	281
28. 권벌승무소행일록權撥陞庶疏行日錄	281
29. 채범곤일기蔡範坤日記	288
30. 대계집간역시일기大溪集刊役時日記	299
II. 목록	308

펴내는 글

일기는 스스로의 내밀한 시각과 감정을 담아 시간의 순서대로 세밀하게 적어낸 원자료라는 면에서 다른 기록물과 차이를 가집니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이런 일반 성격 밖에도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해 나가는 절차’, ‘외국 사행과정에서의 견문’, ‘전쟁 등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 ‘건물의 영·중건’, ‘문집 간행’, ‘묘소를 옮기는 천장遷葬’ 등 전해되어야 할 내용을 기록한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뜻으로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역사·문화상의 미시적 복원이 가능한 1차사료로서 일찍부터 눈길을 끌어 왔습니다. 때문에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이 일제강점기부터 번역되었고, 역사, 민속, 문학, 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 연구자료로 활용도가 점차 넓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사라진 건축물과 유적의 자취를 찾거나, 보존·복원 기술사의 규명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의 인물사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상의 복원과 문화콘텐츠 작성에도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기자료의 발굴과 번역이 오랜 시간을 요하고 일부 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그 풍부한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동산문화재 학술조사연구 사업으로 조선시대 일기 자료 현황을 파악 공유하고, 중요일기의 해제를 통해 국가지정 검토 대상 문화재를 확보하고자 다년간의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그 첫 보고서로 『조선시대 개인 일기-대구·경북』편을 펴냅니다. 조사 첫 해로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소장기관과 개인 소장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중요 기록유산에 대한 가치의 재조명과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자리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강 순 형

槐潭立享時日記

立享時日記

臨齋日記

先生文集改刊日記

疏行日錄

臨川書堂重建日記

道溪里社陞

彌時日記

乘槎錄

陶淵日記

園泉公日錄坤

천사일로일기

天使一路日記

- 제목 표제: 天使一路日記, 권수제: 없음
- 저자 정사룡 鄭士龍(1491 ~ 1570) 등
- 판사항 필사본
- 작성연대 1537년(중종 32)
- 형태사항 1책(49장) / 선장(4침) / 사주무변, 무계 무어미 / 10항 25자 / 38.8×25.5cm
- 소장자 계명대학교
-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1. 개요

이 책은 1537년(중종 32)에 명나라 사신 공용경(龔用卿), 오희맹(吳希孟) 등이 조선에 올 때 원접사(遠接使)가 된 정사룡(鄭士龍)이 의주(義州)에서 맞이하여 한성(漢城)의 왕궁(王宮)에 도착하기까지의 기록과 다시 이 일행을 요동(遼東)으로 전송(餞送)하기까지 총 48일간의 기록이다. 이 일기는 조·명 외교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2. 저자의 생애

이 책의 기록은 당시 원접사(遠接使)와 반송사(伴送使)를 겸했던 정사룡이 주도한 것으로, 당시 그 일행으로 참가한 종사관 박충원(朴忠元), 홍춘경(洪春卿) 등이 정사룡의 명에 따라 집필한 것이라고 본다.

정사룡(1491~1570)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음(湖陰)이다. 창원도호부사 정광보(鄭光輔)의 아들이고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조카로서 1491년(성종 22)에 태어났다.¹ 19세가 되던 1509년(중종 4)에 별시문과에 병과 4위로 급제하였다. 1514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고, 1516년 황해도 도사(都事)로서 문과 중시(重試)에 장원하였으며 사간(司諫)을 거쳐 1523년에 부제학(副提學)이 되었다. 1534년 동지사(冬至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37년에 명나라의 사신 공용경(龔用卿), 오희맹(吳希孟) 등이 조선에 올 때 원접사가 되어 이들을 맞이하여 동행하였다. 이 일기는 당시의 기록이다. 1542년 예조판서로 승진이 되고, 1544년 공조판서로 다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554년 대제학이 되었으나 1558년 과거의 시험문제를 응시자 신사헌(愼思獻)에게 누설하여 파직되었다. 이해 판중추부사로 복직되고 이어 공조판서가 되었다가, 1562년 다시 판중추부사에 전임되었다.

그는 일찍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문명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동안 중국인과 주고받은 시가 많았다. 중국에 다녀와서 『조천록(朝天錄)』을 남겼다. 1570년(선조 3)에 졸하였다. 저서로는 『호음잡고(湖陰雜稿)』가 있다. 글씨로는 광주(廣州)에 있는 이둔촌비(李遁村碑)가 있다.

명나라 오희맹이 정사룡을 일컫기를 “산수며 동물이며 식물이며 변태(變態)며 토납(吐納)이며 음률이며 요속(謠俗) 같은 것들을 한결같이 읊조리는 데 붙었다. 풍(風)에 능하였으며, 시가 온후하고 화평하여 기괴하지만 잔재주를 부리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사신과 수창(酬唱)한 작품이 천하에 크게 전한다.”고 하였다. 또 미수(眉叟) 허목(許穆)도 “지금 호음의 시로 세상에 행하고 있는 것이 수천 편이다. 호음 당시에 재학(才學)이 많기로 일컬어지던 어숙권(魚叔權)·이봉상(李鵬翔)·임기린(林麟)·노

¹ 정사룡의 생졸년(1491~1570)은 문과방목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함. 다만 허목(許穆)의 「기언(記言)」에 실려 있는 「호음(湖陰) 장음기(長陰遷葬陰記)」에서는 홍치(弘治) 7년 갑인(1494)에 태어나서 1573년에 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년 차이를 보인다.

서린(盧瑞麟)·권응인(權應仁) 같은 선비들이 모두 호음의 문하에서 나와 그때에 올린 명성이 지금까지 전한다.”고 하였다.

3. 『천사일로일기』의 구성과 체제

이 책은 중종 32년(1537)에 명나라 사신 공용경, 오희맹 등이 조선으로 사신 올 때 압록강으로 넘어오던 2월 20일부터 이들을 의주에서 맞이하여 한성의 왕궁에 도착한 3월 10일까지, 그리고 다시 요동으로 전송한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의 일기를 날짜 별로 기록하였다. 날짜 별 문장은 긴 편이다. 일기 말미의 이면지에는 安純 이하 조선 中宗 朝 이전 인물 84인에 대한 간략한 행적을 기록한 명단이 있다.

책의 표지에 3행으로 “가정십육년(嘉靖十六年(1537) 二月 日 / 한림원수찬(翰林院修撰) 공용경(龔用卿) / 호과급사중(戶科給事中) 오희맹(吳希孟)”으로 기록되어 있다.

명나라 사신 공용경 등은 명나라의 황태자 탄생을 알리고자 하여 조선에 사신으로 온 것이다. 명나라에서는 상사(上使) 공용경, 부사(副使) 오희맹과 그 수하에 요동통사(遼東通事) 고숭(高嵩), 두목(頭目)(무역하려고 따라 온 중국 상인) 최충(崔忠), 장전(張全) 등이 참가하였는데 황제가 친히 지은 조칙(詔勅)을 가지고 온 것이다.

조선에서는 원접사(原接使) 정사룡(鄭士龍)이 조칙을 호위하며 왕궁까지 동행하였고, 수행원으로 예관(禮官) 임필형(任弼亨), 통사(通事)[통역관] 이화중(李和宗), 역관(譯官) 훈도(訓導) 돈백형(頓伯衡), 종사관(從事官) 박충원(朴忠元), 홍춘경(洪春卿)과 의원(醫員), 차사원(差使員), 사관(射官) 등이 있었다. 또 영위사(迎慰使)로 김미(金璽), 윤안인(尹安仁), 소세양(蘇世讓), 김인손(金麟孫), 유세린(柳世麟), 박수량(朴守良) 등이 참가하며 영조례(迎詔禮)를 행하였다. 영조례는 명나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맞는 예절인데 참여한 관직자가 동서로 나누어 서서 의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행차 경로의 방백(方伯)은 수령을 대동하고 나와서 영접하였는데 평안도관찰사 이구령(李龜齡)을 비롯하여 황해도관찰사 이억손(李億孫), 경기도관찰사 김희열(金希說), 개성유수(開城留守) 한윤창(韓允昌) 등이 맞이하였다.

4. 『천사일로일기』의 내용

이 일기는 서(序)·발(跋)이 없고, 바로 본문이 시작된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我), 여(余), 오(吾) 등과 같은 자칭대명사(自稱代名詞)가 없는 제3자적 관점에서 문(問)·답(答)과 같이 기록하였고, 집필자의 사건이나 감상(感想), 평어(評語)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1537년(중종 32) 2월 20일부터 4월 8일 요동으로 전송하기까지 48일간의 기록이지만 명나

라 사신들이 한성에 도착한 후 태평관太平館에 머문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어숙권魚叔權의 『고사촬요 攷事撮要』에 의하면 의주義州에서 왕궁까지 13일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이 일기에서는 의주의 의순관義順館에서 왕궁까지 20일이 소요되었다. 이점은 각종 의식과 연회를 행하면서 행차하였기 때문이다.

일기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날짜 별로 청晴, 음陰, 우雨, 조음오우朝陰午雨, 흑청흑음或晴或陰, 대풍우大風雨 등과 같이 48일간의 날씨를 모두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맑은 날씨는 35일이었다.

둘째, 매일 아침에 양사兩使(上使·副使)와 원접사가 대청에서 읍례揖禮와 숙소연宿所宴, 다례茶禮 등을 행하였다.

셋째, 조반朝飯은 대개 대청에서 양사兩使와 원접사가 함께하였다.

넷째, 행차 시 때때로 배신陪臣의 참견과 연도沿途의 영위迎慰, 연도沿途의 설연設宴 등의 절차와 영조迎詔, 개독開讀, 알묘謁廟, 다례茶禮, 주례酒禮, 사례射禮 등의 의례 및 사궁射弓, 투호投壺 놀이 등을 행하였다.

다섯째, 아침의 출행은 주로 진시辰時(07:00-09:00)에 이루어졌고, 도착 지명과 경유 또는 유람한 건물을 기록하였다.

일기를 보면 의주에서 왕궁까지 오면서 경유·유람한 건물과 주요 명승지를 기록하였다. 날짜 별로 들면 2월 20일 의순관義順館(의주義州)으로부터 21일 소곶관所串館, 양책관良策館(용천龍泉), 23일 동림성東林省, 거련관車輦館(철산鐵山), 임반관林畔館(선천宣川), 운흥관雲興館(곽산郭山), 25일 납청정納淸亭(정주定州), 가평관嘉平館(가산嘉山), 26일 안흥관安興館(정주定州), 28일 운암원雲巖院(안주安州), 숙령관肅寧館(숙천肅川), 안정관安定館(순안順安), 29일 부산원斧山院, 30일 대동강루大同江樓(평양平壤), 생양관生陽館(중화中和), 3월 1일 저복원貯福院(황주黃州), 2일 어초천於草川, 극성원棘城院, 사리원沙里院(봉산鳳山), 3일 검수관劍水館, 4일 안성관安城館(평산平山), 5일 금암관金巖館, 흥의관興義館(우봉牛峯), 6일 금교관金郊館(강음江陰), 영빈관迎賓館(개성開城), 8일 벽제관碧蹄館(고양高陽), 10일 홍제원洪濟院(한성漢城), 태평관太平館, 모화관慕華館 등이다. 명나라 사신이 11일부터 17일까지 조선에서 머물 때는 한성의 태평관太平館에 거하였다.

여섯째, 통역은 주로 역관 이화종李和宗이 맡았다.

일곱째, 사신이 출행하면서 양사兩使가 우리나라 건국建國, 세계世系, 역년歷年, 문물文物 등을 질문하게 되면 원접사는 역관을 통하여 답하였다. 판상板上의 시문과 게시된 그림, 정자의 제액題額 등의 평가도 있었다.

여덟째, 관람하면서 양사兩使와 원접사 간의 화답한 시문이 많았다. 명나라 사신들은 화답한 시를 모은 『황화집皇華集』의 편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외에 주요 내용은 명나라 사신이 원접사와 영위사迎慰使의 출신出身(과거급제科擧及第 등)에 대한 질문, 명나라 사신의 평양 기사묘箕子墓 참배와 단군묘檀君墓 읍례揖禮, 평산부平山府에 와

서는 자수산慈秀山에 있는 동월董越²의 비석이 마모된 데에 대한 중국 사신의 질책 등이다. 또 수문(守門)을 담당하는 사람이 상사(上使) 공용경의 두목(頭目)인 장전(張全)을 구타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문인(守門人)을 징벌(懲罰)한 내용, 명나라 사신이 우리 일행 가운데 역관, 의원에게 대학의 서문(序文)와 대문(大文)을 배강(背講)하게 하여 주찬(酒饌)을 내린 일, 과거(科擧) 식년시(式年試)와 별시(別試)에 대한 문답, 음직(蔭職)에 대한 문답, 연회(宴會) 때 여악(女樂)을 사용한 일, 환관(宦官)에 대한 문답, 중국 서적에 대한 문답, 정자(亭子)의 제명(題名)과 개액(改額), 효녀(孝女) 정려(旌閭)에 대한 관심 등이 실려 있다.

사신의 질문 가운데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을 제사지내는 지 물은데 대해, 원접사가 경기도 마전군(麻田郡)(연천군(漣川郡))에 숭의전(崇義殿)을 세워서 향사(享祀)받든다고 답변하니, 아름다운 뜻이라 하였다. 또 경복궁(景福宮) 입궁할 당시의 상황과 조칙(詔勅)에 대하여 오배(五拜) 삼고두(三叩頭)의 예를 취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3월 2일에 어초천(於草川)에 나가서 잡은 잡종어(雜種魚)를 중국사신에게 올리고 원접사에게 올리지 않은 연유를 상사(上使)가 물은데 대해, 선왕(先王)의 기일(忌日)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3월 3일에는 국속(國俗)에 따라 애병(艾餅)을 만들어 먹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풍속의 일단을 본다. 3월 8일 사신 일행이 고양(高陽)의 벽제관(碧蹄館)에 머물 때 상사(上使)의 두목(頭目)이 동헌(東軒)에서 상사(上使)가 지은 절구(絶句) 2편을 전사(傳寫)하고 있었다.

溪水灣灣柳色新 : 시냇물 굽이굽이 버들 빛 새로운데
 驅車鎮日逐紅塵 : 수레는 진중일 흥진을 쫓아가네.
 天涯何事猶奔走 : 하늘 끝에 무슨 일 있어 아직도 분주한지
 語燕流鶯笑殺人 : 지저귀는 체비, 우는 피꼬리가 사람을 비웃네.

山色濛濛晝已昏 : 산 빛 어둑하니 낮인데도 침침하고
 叢林深處鵲聲喧 : 사찰 깊은 곳에는 까치소리 시끄럽네.
 海潮似是春山雨 : 설법 소리[海潮音]가 봄 산에 비 뿌리니
 小浦平添過水痕 : 작은 포구에 보태어 지나간 물 흔적 있네.

통사(通事) 홍겸(洪謙)이 뒤에서 엿보고 기록한 것인데, 시제(詩題)는 기록하지 않았다. 공용경의 『사조선록(使朝鮮錄)』을 보면 「개성태평관차운(開城太平館次韻)」으로 되어 있다.³

이 책의 말미에는 중국의 두 사신이 지은 유별시(留別詩)와 「성사승람(星槎勝覽)」, 「교사주의(郊祀奏議)」, 「시정주의(時政奏議)」 등의 서책을 원접사 정사룡에게 전한 기록이 보인다.

2 성종 20년(1489)에 조선에 왔던 명나라의 사신

3 공용경(龔用卿), 『사조선록(使朝鮮錄)』(중국, 목판본, 1937년 도풍루(陶風樓) 경인본(景印本)), 卷下, 45頁.

5. 『천사일로일기』의 가치

이 책은 국내에 남아 있는 최초의 원접사 기록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원접사의 일기는 이 책보다 60년 뒤에 기록된 이이李珣의 『율곡선생원접사시일기栗谷先生遠接使時日記』(필사본 1책, 일본 천리대도서관天理大圖書館 소장)가 있으나, 이이李珣의 일기는 분량이 16장이라서 간략하고 소장처도 일본이다.

이 책은 본래 명나라 사신을 따르면서 난초亂草로 기록해둔 것을 정사淨寫한 것이므로 내용에 오기誤記가 더러 보인다. 예컨대 책립冊立을 책주冊主로, 제齊나라 환공桓公과 관련이 있는 규구葵丘를 채구蔡丘로, 일수日數를 일여日如로, 거리 의미의 거距를 법도 의미의 구矩로, 초현원招賢院을 조현원調絃院으로, 궁기宮基를 궁묘宮墓로, 고송高嵩(人名)을 고송高崇으로 사운辭云을 사거辭去로, 출판 의미의 침재鋟梓를 침채鋟梯로, 지금의 의미인 금수을 영令으로, 인출한 수본數本을 여본茹本으로, 듣는 의미의 문지聞之를 묻는 의미의 문지問之로, 수료水潦를 수료水僚로, 잘못 표기된 것이 있고, 본문에 누락되어 보충한 것도 보인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는 두주頭註가 있다. 따라서 당초 정사淨寫한 사람은 문장에 밝지 못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책은 권수에 ‘금천박인錦川朴印’이라 날인되어 있어서 후대로 오면서 반남박씨의 가장본家藏本이 되어 후대에 전해진 것이고, 상태는 양호한 유일본이다.

한편 이 책과 관련하여 소개할 자료가 있다. 하나는 당시 상사上使로 참가한 공용경龔用卿의 『사조선록使朝鮮錄』(甲辰字本)⁴이고, 다른 하나는 중종의 명으로 1537년에 간행한 『황화집皇華集』(甲寅字本)인데, 두 자료 모두 계명대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 자료와 함께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조선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례儀禮에 관한 부문인데 출사出使할 때의 영조迎詔의 봉영奉迎, 조칙詔勅의 개독開讀, 알묘謁廟 등의 의례와, 방교邦交의 의례로 국왕 다례, 국왕 연향宴饗, 배신陪臣 참견參見, 연도沿途 영위迎慰, 국왕 접견, 왕세자 연향, 국왕 송행送行, 연도沿途 설연設宴 등의 절차를 수록하였다. 둘째 사직使職의 직무를 수행한 내용인데 수록한 순서를 보면 사신 일행이 지나온 도리道里의 거리를 예컨대 ‘의주 의순관義順館으로부터 소곶관所串館까지 40里’와 같이 32단계로 세분하여 서울까지의 거리를 밝혔다. 사신 일행이 지나온 총 거리를 환산해보면 1,332리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산천, 사적, 누각, 정자, 사찰 등에 대하여 지나온 경로에 따라 읍명邑名과 거리, 내력 등을 간략하게 수록하였다. 넷째 연도沿途의 여러 벼슬아치들이 영송迎送한 예절, 군부軍夫의 체송遞送한 절차, 봉명서奉命書 등이 수록되어 있다.

1537년의 『황화집』은 전체 5권으로 간행하였는데, 동산도서관에는 영본 3권(1책)을 소장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행차行次(出使)하면서 읊은 시문인데, 원운原韻은 상사上使 공용경과 부사副使 오희맹이 지었고 차운시는 대개 원접사 정사룡이 지었다. 그리고 영위사 등으로 참여한

4 이 책은 중종中宗 연간에 갑진자甲辰字로 찍은 것인데 卷上 1책만 남아 있으며 국내 유일본이다.

조선관리의 차운도 이 책에 몇 편 들어있다. 시문의 수를 보면 명나라 사신 공용경의 원운^{原韻} 18편과 오희맹의 원운 31편이 들어 있고, 원접사 정사룡이 원운에 차운한 것이 44편이다. 조선 관리로서 차운을 남긴 사람은 심언광^{沈彦光}, 김안로^{金安老}, 김근사^{金謹思}, 윤은보^{尹殷輔}, 윤인경^{尹仁鏡}, 김인손^{金麟孫}, 오결^{吳潔}, 박홍린^{朴洪鱗}, 황헌^{黃憲}, 허흡^{許洽}, 황기^{黃琦}, 한윤창^{韓胤昌}, 김희열^{金希說} 등이다. 김안로 3편, 심언광 2편 외에는 모두 1편씩 남겼다.

『천사일로일기』는 필사 유일본으로써 특히 16세기의 명나라 사절^{使節}을 영접한데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다. 위에서 소개한 두 자료와 함께 대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朝·明 간의 의례와 외교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장인진】

참고문헌

- 龔用卿, 『使朝鮮錄』, 甲辰字本(계명대 소장본)
- 龔用卿, 『使朝鮮錄』, 木板本(1937년 중국 陶風樓 景印本)
- 中宗 命編, 『皇華集』, 甲寅字本(계명대 소장)
- 許穆, 『記言』, 木板本(계명대 소장본)
- 장인진, 2012, 「천사일로일기 해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선본 고서 해제집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국사편찬위원회, 『朝鮮王朝實錄』 등

가정경술일기

嘉靖庚戌日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嘉靖庚戌日記
저자 이교 李喬(1531~1595)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550년(명종 5)
형태사항 1책(14장) / 가철 / 사주무변, 무계 / 향자수부정 /
31.2×24.3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1. 개요

본서는 이교李喬(1531~1595)가 부친 이해李滢(1596~1550)의 옥사가 일어난 1550년(명종 5) 7월 16일부터 부친을 장사지낸 12월 11일까지 중요상황을 기록한 일기이다. 보존상태는 그다지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일부 종이가 찢겨나가고 떨어진데다 첫 장 같은 경우 손 접촉으로 인한 보풀이 많이 일어 판독이 불가능한 것이 제법 있기 때문이다. 특히 뒷부분의 3~4장은 훼손의 정도가 심하며 마지막 장은 누락이 있는 듯하다. 저자의 수사본으로 추정된다.

2. 저자의 생애

본서의 피전자인 이해와 일기를 직접 기록한 이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해李滢의 자는 경명景明, 호는 온계溫溪, 관향은 진보眞寶이다. 온계의 조부인 계양繼陽이 처음으로 안동에서 예안으로 터를 잡았으며 부친은 식埴, 모친은 춘천박씨春川朴氏이다. 조부와 부친 모두 진사를 지냈다.

숙부인 송재松齋 우偶에게 아우 퇴계와 함께 훈도를 받았으며 1523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5년 뒤 1528년 문과에 급제, 이후 검열檢閱, 정언正言, 이조좌랑吏曹佐郎, 응교應教, 집의執義를 거쳐 직제학直提學으로 승진하였다. 1543년 도승지都承旨, 1544년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며 이듬해 성절聖節使로 중국 사행을 다녀왔다. 이후 황해도·충청도 관찰사,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등을 지냈다. 시호는 정민貞愍이며 연안김씨延安金氏와의 사이에 5남 1녀를 두었다. 1772년(영조 48) 4권 3책의 문집이 간행되었다. 여섯 형제중 막내인 퇴계와 지동도합志同道合하여 당세에 금곤옥우金昆玉友로 칭송되었고 또한 하남백중河南伯仲으로도 일컬어졌다. 일찍 문사文辭를 성취하였고 어렸을 적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그를 보고 기이하게 여기며 송재에게 남다른 그릇이니 잘 보호하라는 말을 건넸다는 일화가 전한다.

이교李喬의 자는 군미君美, 호는 원암遠巖이다. 부친 해와 연안김씨 사이 5남 1녀 중 셋째 아들이다. 즉 위로 형 2명과 누이 1명, 밑으로 아우 2명이 있다. 숙부인 퇴계 이황에게 수학하였다. 음직으로 1578년(선조 11) 남부참봉南部參奉을 시작으로 제용감 봉사濟用監奉事,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을 지냈으며, 1589년(선조 22)에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이듬해 대흥 현감大興縣監에 제수되었다. 초취初娶는 황윤중黃允中의 딸인 장수황씨長水黃氏이고, 재취再娶는 금응석琴應石의 딸인 봉화금씨奉化琴氏로 3남 1녀를 두었다.

3. 『가정경술일기』의 체제

『가정경술일기嘉靖庚戌日記』는 단권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550년(명종 5) 7월 16일부터 12

월 11일까지의 기록이다. 매일의 기록이 아니라 날짜가 이어진 것도 있고 건너뛰고 며칠 뒤의 것도 있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의 중요상황을 적어 둔 것이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옥사와 관련하여 전체적 총평 및 1567년 용경원년(隆慶元年) 이해의 직첩을 되돌려주라는 내용의 글이 추기(追記)되어있다. 필사연대 추정은 이를 따른 것이다.

4. 『가정경술일기』의 내용

본서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사건 전체의 대강을 이해하기 위해 소위 충주옥사(忠州獄事)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듯하다.

1549년(명종 4) 온계가 충청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이다.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사사된 이약빙(李若氷)의 장남인 이홍남(李洪男)은 아버지의 죄에 연좌되어 영월에 유배되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평소 사이가 나빴던 아우 이홍윤(李洪胤)을 역모죄로 고변하였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한 불평을 품고 충주의 몇몇 인사와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를 한 것이다. 이에 충주는 유신현(維新縣)으로 강등되고 이홍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다. 그 때 유신현의 수령이었던 이치(李致)와 감사였던 온계는 이홍남이 모친의 상중임에도 벼슬을 받고 몰수된 아우 홍윤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찾아가자 그를 천하게 여기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 일로 이홍남은 그들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다. 때마침 유신현에 최하손(崔賀孫)이란 자가 의주의 유배지에서 도망쳐 와 이홍남이 이홍윤을 고변하여 귀양에서 풀려나고 관직에까지 오르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여 고변할 것을 꾀하였다. 그래서 유신현 품관(品官)들의 향회문자(鄉會文字)를 몰래 들고 나와 서울로 가 역적의 잔당들이라고 무고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유신의 나졸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당시 유신현의 수령이었던 이치는 이를 감영에 보고하여 신문하기를 청했고 감사였던 온계는 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하손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사실을 두고 평소 온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강력하게 그의 청죄를 요구하였다. 그 중심에 이기(李芑)와 이무강(李無疆)이 있었다. 1545년(인종 1) 온계가 대사헌의 자리에 있으면서 윤원형(尹元衡)의 심복인 이기가 우의정으로 등용되려고 하자 이치와 함께 탄핵하여 저지한 일이 있었고, 이일로 이기는 온계와 이치에게 큰 원한을 품게 되었다. 이무강의 경우 이기를 믿고 세력을 부리며 이기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그를 비루하게 여기고 상대하지 않음에 온계에게 유감을 품게 되었다. 이홍남은 처남인 원호변(元虎變)을 통해 최하손의 일을 이무강에게 말하였고 이에 이무강은 양사를 충동하여 온계를 탄핵하였다. 충주옥사에서 죄인의 몰수 재산을 사사roi 누락시켜 되돌려주었다는 것과 최하손을 장살하여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것 등을 죄목으로 거론하며 역적을 비호했으니 역적과 다름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1548년 대사헌으로서 이기를 탄핵하다 삭직, 유배된 뒤 1550년 사사된 구수담(具壽聃)과 봉비(朋比)라고 탄핵하였다. 그리하여 온계는 이치와 함께 금옥에 갇히게 되어 국문을 받았다. 혹독한 고문 끝에 이치가 먼저 장살되고 온계는 갑산(甲山)으로의 유

배를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 양주楊州 민가에서 55세로 작고하였다.

『가정정술일기』의 날짜별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7월 16일

사헌부와 사간원 양사兩司에서 아뢰는 내용이 헌부憲府 서리 임은손林隱孫을 통해 온계에게 전해지다. 그 내용은 이해가 충청도 관찰사로 재직시 충주 역당을 추쇄첩보推刷牒報하면서 노비와 전답을 누락하여 본 주인에게 되돌려 준 것은 매우 놀라운 일로 추고치죄推考治罪를 청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온계는 식구들을 돌아보며 예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잘 넘어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한다.

○ 7월 17일

충청감사시 도사都事로 있던 류섭柳涉을 만나 당시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도사와 상의하여 모두 법에 의거 처리했고 자질구레한 잡물들은 관가에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담당 관리에게 폐만 된다고 생각하여 목록을 지웠다고 하였다. 있는 그대로 답변하면 된다는 류섭의 말을 따라 세 차례 해명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사간원에서 유신현 영리營吏 석구石球로 하여금 문안文案과 서목書目 등을 가져오게 했다.

○ 7월 22일

석구가 문안을 가지고 온계집으로 바로 찾아가니 온계는 자신을 찾아온 그를 나무라고 곧바로 사헌부에 올리라고 하였다. 사헌부에서 재삼 문서를 살폈으나 환급還給에 관한 문서가 없어 당시 일을 했던 석구를 잡아 물었지만 석구는 자신은 모르는 바라고 하였고 이에 그를 하옥시켰다. 사헌부에서 충청도 감사와 유신현에 환급서목을 찾아 보내라고 문서를 보냈다.

○ 7월 23일

20일 밤 천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기가 수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일을 제대로 못하여 일어난 재변이니 자신을 체직시켜달라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를 온계가 보고는 이기의 전황을 비판하였다.

○ 7월 24일

저자[이교]의 장인인 황윤중이 사촌간인 대간 원계검元繼儉을 찾아가 온계의 일을 이야기하며 구제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와 저자에게 전하자 저자는 부친인 온계에게 다시 이 말을 전하였다. 온계는 송세형宋世珩과 원계검은 자신과 평소 사이가 좋기는 하지만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 자신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 7월 25일

김구사金九思가 와서 송세형이 온계가 자신을 찾아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찾아가 보기를 권하였다. 온계는 그를 찾아가는 것은 구차한 일이 되기에 갈 수 없다고 하였다.

○ 7월 29일

석구의 아들인 석호겸石好謙이 와서 어제 저녁에 유신현 문서가 사헌부에 도착했으나 환급

서목은 없었다고 하였다. 이번의 문서가 올라와 자신의 아버지의 혐의가 풀렸다고 하였고 은계 또한 그 내용에 공감하였다.

○ 8월 2일

충청감사가 보낸 문안을 양사가 모화관慕華館에서 보았으나 전민환급田民還給에 관한 것은 없고 다만 기타 잡물을 효주^{효주}周한 장부뿐이었다. 모두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으나 이무강 혼자 티끌 만한 것도 놓칠 수 없다고 하였다.

○ 8월 3일

의금부에 하옥하라는 전지가 내렸다. 그전에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식구들이 놀라고 울었지만 은계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 8월 4일

사헌부에서 궁추^{궁추}窮推하여 정죄^{정죄}定罪하라는 전지가 내렸다. 또 양사는 전 청홍도사 유섭과 전 유신현감 이치 등을 하옥하여 궁추하도록 계청^{계청}啓請하였다.

○ 8월 5일

은계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는 원정^{원정}元情을 올려 억울함을 밝혔다.

○ 8월 6일

이치를 잡아 의금부로 데려왔다. 당상에서 의금부 단독으로 은계를 추문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여 삼성교좌^{삼성교좌}三省交坐하는 것이 가하다는 전지^{전지}傳旨가 와 관련 인사들이 구성되었다.

○ 8월 7일

은계와 이치에게 원정 내용을 추문하였으나 모두 불복하여 두 번의 장형^{장형}杖刑을 받았다.

○ 8월 8일

세 번째 장형을 받고 난 뒤 임금이 시추조율^{시추조율}時推照律(형벌을 가하지 않고 법률에 비추어 죄를 적용하는 것)하라는 명을 내렸다. 추관이 사형죄인에게 그것은 전에 없던 일이라 함에 그렇다면 내일까지 기다리라는 전지를 내렸다. 은계의 아들이며 저자의 형인 영^영甯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 8월 9일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은계에게 승복^{승복}承服할 것을 권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추관도 심문에서 서명을 하게 하였으나 거부하여 한 차례 장형을 받았다.

○ 8월 10일

이치가 죽었다는 소식을 승지가 전하자 임금이 특명을 내려 사죄를 감하라고 하였다. 의금부가 장형 일백^{일백}에 배소를 갑산^{갑산}甲山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유섭에게는 장형^{장형}杖刑을 내리고 전라도 모처로 유배케 하였다.

○ 8월 11일

의금부 도사 우언겸^{우언겸}禹彦謙이 사람을 시켜 출발을 독촉하자 경비가 마련되지 않아 잡자기 떠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날 저녁부터 신기^{신기}身氣가 평안치 못하였다.

○ 8월 12일

도사가 다시 서리를 시켜 출발을 독촉하여 부득이 말이 끄는 교자轎子로 출발하였다. 5리쯤 갔을 때 잠시 쉬었는데 상태가 점점 나빠 저자가 자연즙自然汁과 소합원蘇合元을 올렸다. 온계의 사위인 최덕수崔德秀가 부족한 행구行具를 많이 보태 주었다.

○ 8월 13일

몸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출발하지 않고 머물렀다. 삼기噎氣[병명]가 무시로 출몰함에 부친과 큰 형님도 이로 인해 돌아가셨음을 상기하며 목숨을 기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저녁이 되면 서부터 말씀을 더듬고 숨이 점점 가빠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양사가 연달아 계를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8월 14일

사경四更에 작고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양사가 처음으로 정계停啓하였다.

○ 8월 15일

관재棺材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하지 않았다.

○ 8월 16일

성무成茂와 억척億斥 등이 예안에서 와 온계의 아우인 찰방察訪 징澄과 풍기군수 황滉이 만약 형님이 큰일을 당하면 형편상 부득이 용권用權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였다. 저자의 형님이 이도사에게 용권은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였으나 이도사는 지금은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하여 그 말을 따르게 되었다.

○ 8월 20일

발인하여 배에 올랐다.

○ 8월 26일

작은아버지 찰방공이 오셔서 곡을 하였다.

○ 8월 27일

육지에 내렸다.

○ 8월 28일

저녁에 장림長林에 도착하였다.

○ 8월 29일

죽령을 넘어 영천榮川 외곽에 다다르니 몇몇 사람이 와서 곡을 하였다. 삼경三更에 흑석黑石에 이르러 조모祖母댁에서 노전路奠을 드렸다.

○ 9월 1일

풍기 작은아버지인 황을 비롯해 식구들이 곡을 하였다. 저녁에 온혜溫惠에 도착하였다.

○ 9월 3일

성복成服하였다.

○ 12월 11일

연곡燕谷 경좌庚座에 장사지냈다.

5. 『가정경술일기』의 가치

『가정경술일기』의 가장 큰 의미는 소위 이해 옥사에 대한 시말을 그의 아들인 이교가 직접 기록한 글이란 점이다. 이 일기를 통해 당시 사건의 전후 상황과 진행을 확대경으로 보는 것처럼 일자별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과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다. 즉 보사적補史的인 사료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이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반적인 일기와 크게 변별되는, 본서의 미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와 함께 이해를 둘러싼 혈연들의 동향 및 정보, 그리고 당시 유배 과정 등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 기타

현재 『가정경술일기』는 본해제의 소장처인 계명대학교뿐만 아니라 문중에서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술일기』가 한국국학진흥원에 화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두 자료간의 간략한 대비가 필요할 듯하다.

두 자료의 상관관계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계명대학교 소장의 자료가 원본(이하 : 원본)이고 이를 후대에 재필사(이하 : 재필사본)한 것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화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이다. 그렇지만 전자의 것을 있는 그대로 모두 전사한 것은 아니다. 간단히 단어를 바꾼 것(예컨대 ‘선군先君’이 ‘가군家君’으로), 몇몇 글자의 가감, 그리고 일부는 내용 전개의 이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변조를 하였다. 원본에서 모두 줄여 다른 글자로 내용을 압축하였다. 대표적으로 7월 22일과 8월 10일 양일의 기록을 대조해 본다. 밑줄 친 부분은 두 자료간 차이점을 표시한 것으로 생략되었거나 다른 글자로 변경된 것이다.

○ 7월 22일

원본

二十二日 石球自惟新 持文案 直來于家 曰還給書目 千搜萬得 終不見之故 其時文案 專數持來 球適以下番在家 遽被召命 未知何事 先君曰汝何不直呈于憲府 … 이하생략

재필사본

二十二日 石球自惟新 持文案 直來于家 曰還給書目 千搜萬得 終不見之故 其時文案 專數持來 家君曰汝何不直呈于憲府 … 이하생략

‘선군先君’이 ‘가군家君’으로 바뀐 것 말고 원본의 밑줄 친 부분이 재필사본에는 모두 누락되었다.

○ 8월 10일

원본

初十日 三省交坐 受刑一次 李致受杖 未半殞絕 … 중략 … 兩司 再以窮推依律定罪 上不允曰

近來如此之事 人多死傷 未安之心罔極 不須改之 夜三更 宥旨乃下 奴義成等 三人入間 奉負而出 以轎子奉輿 止于咸表致家 初欲出依于東大門外金僉事祖母宅 而城門已閉 故未果 先君雖經變亂 縷泄之厄 精神無異平昔 凡上下見知之人 咸共慰賀曰 … 중략 … 子等問曰 昨日欲服何耶 余非爲 一一承服 但不能忍杖 意以謂擇其輕者而服之 而見其供則皆是一罪 故竟不服耳 且余方欲伏之時 仰察推官 或有哀矜不喜之色 故尤勵不服之志 … 중략 … 又曰 余初次 不數杖度之次第 至於從度 未知度之幾何 深用憫焉 自第二次 箇箇屈指 計之至終度 心如曙日 … 이하생략

재필사본

初十日 三省交坐 受刑一次 李致受刑 未半殞絕 … 중략 … 兩司 再以窮推依律定罪啓之 傳曰 近來如此之事 人多死傷 未安之心罔極 不須改之 皆不允 夜三更 宥旨乃下 奴義成等 三人入間 奉負 而出 以轎子奉輿 止于咸表致家 家君雖經變亂縷泄之厄 精神無異平昔 凡上下見知之人 咸共慰賀曰 … 중략 … 子等白曰 屢次酷刑之加 或不收拾精神 誣服其一罪之是懼耳 又曰 余初次 不數杖度之 次第 第二次 至從度 箇箇屈指計數 心如曙日 … 이하생략

원본의 上不允이 재필사본에는 啓之 傳에 이어 皆不允으로 반영되었고, 初欲出~故未果는 재필사본에는 모두 누락되었다. 그리고 問이 白으로 바뀌었고, 이어지는 昨日欲服~不服之志의 내용이 재필사본에는 屢次~是懼耳로 간략하게 변경되어 기술되었다. 그리고 至於~憫焉도 재필 사본에는 누락되었고 自第~終度는 재필사본에 第二次~計數로 일부 변경되었다.

내용의 누락 또는 변경은 일자별로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분량이 많은 일자의 경우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원본에 주석으로 처리된 것이 재필사본에는 그대로 본문으로 기술 된 것도 보인다.

재필사본의 필사 연대는 20세기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 '가 정이십구년경술칠월십육일 嘉靖二十九年庚戌七月十六日' 글자 옆에 같은 필체의 작은 글씨로 '일오오영 一五五〇', '명종오년 明宗五年'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내용상 거의 누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 20세기 어느 시점까지도 원본의 보존이 그런대로 잘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원본 의 일부 훼손은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한 대로 재필사본의 경우 원본을 전사한 것이지만 훼손으로 인해 판독 불가능한 것이 있는 원본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경술일기』는 재필사본을 대본으로 영인과 함께 번역이 이루어져 있다.

【임규완】

참고문헌

- 이교 지음, 『경술일기』(한국국학진흥원 화상 제공)
- 이해 지음, 이익성 역 『국역 온계전집』, 1979, 연곡간행소.

해월헌계미일기

海月軒癸未日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없음
 저자 황여일 黃汝一(1556 ~ 1622)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583년(선조 16)
 형태사항 1책(24장) / 가철 / 항자수부정 / 크기 26.7×29.2cm
 소장자 평해황씨 해월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 개요

『해월헌계미일기(海月軒癸未日記)』는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이 1583년 6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기록한 일기이다. 일기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 부분에는 자신의 빙군(聘君) 병환소식을 듣고 여정을 떠난 내용, 빙군의 임종과 이에 따른 조문과 운구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 뒷 부분은 서울에서의 인물교류와 과거를 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2. 저자의 생애¹⁾

황여일의 휘는 여일(汝一)이고 자는 회원(會元)이며 호는 해월(海月)이다. 증조는 보군(輔坤)이고 성군생원(成均生員)이었고, 조는 우(瑀)이고 성주목사(星州牧使)였다. 부는 응징(應澄)이고 호는 창주(滄洲)며 장예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였다. 비는 숙부인(淑夫人) 영덕정씨(盈德鄭氏)이고 충무위사직(忠武衛司直)인 창국(昌國)의 딸이고 성군사성(成均司成)인 자함(自咸)의 증손이다.

황여일은 병진년인 명종(明宗) 11년에 평해군 사동리(沙銅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창주공(滄洲公)의 관후함을 닮았다. 선조(宣祖) 기사(己巳)에 간성향시(杆城鄕試)에 응시하여 제일을 차지하였다. 20세에 송대(宋代) 유현(儒賢)들의 학설에 진력하여 자세히 연구하기를 생각하니 구봉(龜峯) 김공(金公)이 사위로 삼았다. 처가에 머물고 있을 때 안동(安東)에서 도시(道試)가 있기에 참가하여 장원을 하였다. 그해 가을에 관동감시(關東監試)에서 수괴를 차지하였으며 이듬해 22세 정축에 진사복시(進士覆試)에 합격하고 다음해에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28세인 계미에 학봉(鶴峯) 선생을 찾아뵙고 『근사록(近思錄)』의 강의를 들었다. 다음해 갑신에 별시(別試)인 동당과(東堂科)에 수석을 차지하였고, 을유에는 대책별시(對策別試)에 을과(乙科) 제일을 차지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에 발령받고 출사하였다. 10월에는 예과원(隸槐院)에서 임시로 부정자(副正字)를 맡아 보았으며, 11월에는 호당(湖堂)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정해에는 예문관 대교(待敎)에 발령되었다.

기축에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으로 부름을 받고 입조하였다. 5월에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로 발령되면서 옛 직책을 모두 겸직하고 운학대성(韻學大成)을 하사받았다. 신묘에 다시 예문관봉교로 제수되고 특별히 경악관(經筵官)으로 초대되어 대학전서(大學全書)를 하사받았다. 임진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에 머물게 되고 고산도찰방(高山道察訪)을 제수받았다.

계사년에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에 당도하여 형조정랑(刑曹正郎)을 제수받았고 5월에 해서(海西)에서 황장목(黃腸木)을 감시하게 되었다. 6월에 병조정랑에 옮겨지고 지제교춘추관기주관(知製敎春秋館記注官)을 겸하게 되었다. 7월에 근친(親)을 하고 8월에 행재소에 돌아와서 10월에 대가(大駕)를 모시고 서울에 입성하였다.

1 한국고전번역원 『嘉梧叢略』 「工曹參議海月黃公神道碑」의 원문과 '디지털 올진 문화대전'의 해석을 참고 하였다.

갑오에 다시 형조정랑이 되었고 8월에 다시 병조정랑에 발령되고 다음 해 을미에 진주晉州의 도원수 막하로 부임하였다. 병신에 세자익위사사어世子翊衛司司禦에 제수받고 겨울에 다시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이 되었고 또 다시 권 원수 막하로 가서 작전을 도와주었다.

다음해 정유에 승문원교리崇文院校理가 되었고 무술에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에 제수되었으나 아버지의 노환으로 사양하였고 다시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승진하여 세자시강필선世子侍講院弼善을 겸하였고 다시 성균관사에成均館司藝로 장령을 겸임하고 시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전보되었다.

신축에는 울진 박곡朴谷에 별장을 짓고 그 곳에서 글을 읽었다. 가을에 예천醴泉군수로 발령되었다. 갑진에 금성金城현령에 발령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열성실록낭청列聖實錄郎廳으로 차출되어 갔다. 얼마 후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임명되었다가 조금 후에 사헌부장령으로 다시 발령되어 중학교수中學教授를 겸하게 하였고 7월에 감시監試의 시관試官에 차출되어 동당시東堂試의 시관試官이 되었고 다시 복시의 시관도 되었다. 영천永川군수로 발령되니 토적土賊들이 부임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방으로 달아나서 치적이 훌륭하였다.

무신 2월에 선조宣祖대왕께서 승하하시니 더 이상 벼슬에 뜻이 없었는데 6월에 친병親病으로 사표를 던지고 수락을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10월에 길주吉州목사에 제수되고 통정通政으로 승진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임자에 창원부사昌原府使가 되었다. 임술년 4월 2일에 병이 심하여 가인家人을 모아 훈계를 끝으로 서거하니 67세였다.

3. 『해월헌계미일기』의 구성과 체제

일기의 분량은 총 24장인데 본문은 2면부터이고 1면에는 간찰이 들어와 있다. 앞표지는 없으며 뒷표지만 있는데 거기에 ‘해월헌계미일기海月軒癸未日記’라고 표제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며, ‘해월헌가장海月軒家藏’이라는 주기도 보인다. 권수제 역시 별도로 없으며 단지 ‘계미년癸未年’이라는 년도의 표기로 일기를 시작하고 있다.

일기는 1583년 6월 1일부터 1583년 8월 25일까지 매일 기록되어 있다. 일기의 내용과 날짜는 구별하였는데 날짜가 바뀔 때마다 줄을 바꾸고 높였으며 크고 굵게 써서 구분하였다.

일기의 체제는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장인의 병환과 임종, 그리고 상례 절차중에서 운구에 관한 부분이 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여일이 서울에서 과거를 보거나 여러 인물들과 교유에 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4. 『해월헌계미일기』의 내용

일기의 처음은 황여일이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배경이 나와 있다. 바로 6월 2일 날짜에 빙

군(聘君)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가족들이 크게 놀라서 울음바다가 되는 내용이 이어진다. 황여일은 이날 곧바로 행차 준비를 시작한다.

다음날인 6월 3일부터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인과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내용들이 주로 보인다. 3일에는 남현경(南顯卿) 형제와 남자원(南子元)이 와서 위로를 했고 강직수(姜直秀)도 뒤에 도착하였다. 또 4일에는 별감(別監) 남인중(南仁仲) 어른이 와서 위로를 하였고 오후에 또 다시 남현경(南顯卿) 형제가 와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장군성(張君省)과 장자성(張子省) 역시 도착하였다. 찰방(察訪) 정극청(鄭克淸)은 편지를 써서 위로를 전했으며, 별감(別監) 남우경(南優卿) 어른이 와서 위로한 내용이 일기에 보인다.

행장을 꾸려서 준비한지 4일이 지난 6월 6일에 비로소 길을 떠나게 된다. 이후의 일기 내용은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흐르고 계곡길이 평탄하지 않아 험난한 여정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6일의 일기에는 “길을 떠날 때는 비가 많이 온 후였다. 계곡 물이 넘쳐흘러서 가는 길이 여러 가지로 험난하였다. 풍산(豊山)에 도달했는데 강물이 성대하게 넘실대어서 배로 건너기가 매우 어려웠다. 견현(犬峴)을 지나다가 이정가(李靜可) 아우를 만났는데 그 또한 하천을 건널 수 없다고 말하면서 황여일을 타이었다. 황여일은 자신을 아껴주는 마음을 알고 견현촌(犬峴村) 범이(范伊) 집에 숙박하기로 결정한다.”²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일기에는 “다음날 7일 새벽에 큰 비가 내렸다. 비를 맞고 냇가에 도달했는데 냇물이 한창 흙탕물로 넘실거리고 있어서 아득하게 강나루를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 때 자칭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의 노비라는 사람이 황여일이 도강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곧장 앞으로 나아와 어디에 살며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았다. 황여일은 행차의 급한 뜻을 두루 알려주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대가에 보답하는 것을 가지고 달래었다. 하지만 그 노비는 황여일이 애처러워서 강을 건내주고 싶은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곧장 머리를 풀어헤치고 짐바리를 머리에 이고 물을 건너기 시작한다. 황여일이 뒤를 따르는데 물의 깊이가 양쪽 어깨에 이르러 입과 코가 잠길 정도였다. 이 때 비의 세력이 더욱 맹렬히 뿌리고 있어서 행장이 모두 젖었다. 괴리한 말은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노비의 안색은 푸르락 검으락하여 불쌍하였다. 황여일은 강을 건내준 것에 대해 쌀과 술과 떡으로 사례한다.”³ 라는 기록이 이어진다.

이렇게 험난한 한 차례의 도강(渡江)을 끝내고 안도의 시간을 잠시 보내지만 이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느슨한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빙군의 병세가 위독해짐을 알고서 떠날 준비를 재촉한다. “처음에는 반나절을 머물면서 조리하려고 했는데 매운(梅雲)이라는 자가 서울로부터 집으로 내려오면서 빙군(聘君)의 병세가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식사를 재촉한다.”⁴

2 6월 6일: “時積雨初晴, 溪澗暴漲, 行路萬險, 到豊山, 江水盛漲, 艱艱舟渡, 歷犬峴, 路逢李靜可弟, 川不可渡矣, 引俗歌, 勿謂落日高便食行, 勿謂漲川淺便食涉, 以喻之, 余知其愛我有是言, 退宿犬峴村范伊家.”

3 7일: “曉雨大作, 冒雨到川上, 川水方黃漲, 杳然不知渡口, 余傍水上下, 有一人, 自稱靑陵府院君奴子者, 憫余之難渡, 直前請曰, 子何在, 且何去, 余備陳行急之意, 卽誘以酬其能渡之直, 其人曰, 吾哀之而欲渡, 豈望超乎, 卽披髮戴渡卜馱三四隻, 余隨後, 赤身亂流, 深及兩肩或沒口鼻, 時雨勢猛注, 行裝盡濕, 羸馬戰股, 奴顏青黑, 可矜可矜, 卽以米及酒餅謝渡者.”

4 7일: “初意欲留調半日于亭上, 卽聞梅雲者, 自京下家, 聘君病勢似無可望之語云, 余促食.”

9일에는 조령에서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였는데 조령의 험난함이 형언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황여일이 조령을 지나가는 길은 바위들이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서 사람과 말의 발이 모두 피가 날 정도였다. 당시나 지금이나 조령의 험난한 지세는 크게 다르지 않는 듯하다. 또 그곳에 있던 24개의 작은 다리들도 모두 큰 계곡물에 떠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에 내린 비와 계곡물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새벽에 출발하였다. 문경현 앞의 길을 경유하였으며 아침밥은 조령 위에 있는 주막에서 먹었다. 조령길의 험난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24개의 다리가 일시에 모두 떠내려갔다.”⁵

10일의 일기에는 권문해의 휴가 행차를 만났는데, 거기서 황여일은 빙군의 병세를 물어보았다. 권문해는 매우 위급하고 심각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를 길을 하루에 갈 정도로 빨리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준다.

12일에는 달천에서 배를 띄워서 광흥창으로 내려가서 아침을 먹었다. 이어서 원주의 흥왕창에 도착한다. 13일에는 제천정濟川亭에 정박하였다. 오후가 못되어 탈것을 구입하여 남부동南部洞의 김정金正덕에 들어가서야 빙군이 이미 초 8일 밤 2경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다.

14일에는 려차旅次에 권조權厓(묘지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매장하는 것)하였다.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조문객과 부의聘儀가 속속 도착한다. 15일에 오운이 조문하였고 16일에는 금난수가 조문하고 자단향紫檀香 한 덩어리를 부의하였다. 또 황준원이 조문하고 구효연이 나무 한 필을 부의하였다. 17일에는 장룡과 이홀이 와서 조문하였고, 18일에는 안인좌가 조문하였다. 19일에는 구충윤과 김기보, 이일민, 이홍 등이 와서 조문하였으며, 20일에는 윤경희가 와서 조문하였다. 21일에는 권호인과 김충열, 장경업등이 와서 조문하였다. 22일에 김건이 와서 조문하였고, 23일에는 민종빈이 와서 조문하였다. 24일에 신여회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으며, 25일에는 강적수가 와서 조문하였다.

그리고 7월 초하루에는 상가에서 죽은 사람에게 매달 음력 초하룻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인 삭전朔奠을 행한 내용이 보인다. 그리고 12일에는 장사 지내기 위해 빈소에서 관을 꺼내는 행위인 계빈啓殯을 하였다. 같은 날 진시에는 상구喪柩를 배에 올렸다.

관을 배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는데 인력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게 자주 기록되어 있다. 관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군민軍民이 지원하는 내용이 보인다. 이처럼 관을 운반하는 배가 지나가는 지역에서 인력들이 나와서 배를 끌고 가는 모습이 며칠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일기에는 해당 날짜에 얼마만큼 물길을 이동했는지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일기의 내용으로 13일의 일기에는 “두미에서 배를 출발하였는데 양근楊根의 수령인 정윤조가 군민民軍 10명을 보내서 배를 끌게 하였다. 이날은 양근楊根 모래톱 가에서 잤는데 물길을 거의 50여리를 갔다.”⁶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학봉 김성일과 교유한 내용이 일기에는 자주 보인다. 김성일과 특별한 관계였음을 확인할

5 9일: “曉發, 路由聞慶縣前, 朝飯鳥嶺上酒幕, 嶺路之險, 不可形言, 二十四橋, 一時盡漂.”

6 13일: “斗尾發舡, 楊根守丁胤祚送民軍十名曳舡, 泊宿楊根沙灘上, 水行僅五十餘里.”

수 있다. 7월 2일에는 학봉이 나주목사가 된 소식을 듣는다. 7월 29일 아침에 죽전동에 가서 학봉 선생을 만나 인사드렸다. 8월 6일에 학봉 김성일이 와서 함께 대화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마쳤다. 8월 11일 저녁 식사 후에는 판사 댁에 들어갔는데 판사가 학봉이 장차 나주로 간다는 사실 때문에 이별 술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해서였다. 이 외에 여러 사람이 술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였다. 이날 밤에 화기에애한 이야기를 하면서 낭자하게 술을 마셨고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듣고 서야 마쳤다고 한다. 13일에는 황여일이 아침 일찍 밥을 먹고 판사의 말을 빌려서 남대문을 달려나가서 제천정에 이르렀는데, 이미 학봉이 배위로 올라가 있었다고 기록한다.

황여일과 김성일의 관계는 『嘉梧藁略』의 「工曹參議海月黃公神道碑」에 나타난 기록을 가지고 상세하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공이 28세인 계미에 학봉鶴峯 선생을 찾아 뵈고 『근사록近思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때부터 성리학性理學을 연마하여 상당한 성취를 보였다. 이해 8월에 오현五賢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기를 청하는 상소에 찬성하였던 20여인이 처음에는 같이 하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나 나중에는 호지부지 꼬리를 감추려 하기에 홀로 의연하게 주장하며 말하기를 이 같은 정도正道와 이 같은 공론公論을 그렇게 미적미적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조정에 나가나 사림에 있으나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드디어 소疎를 지어 상소하였고 학봉선생을 한강에서 전송하면서 우복愚伏 정공鄭公에게 말하기를 표연이 동해 바다를 밟고 싶다 하였으니 당시 학봉에게 쏟아지는 여론이 분분하여 곱지 않기 때문이었다.”⁷ 이미 이때부터 황여일과 학봉의 관계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기에서 또 당시의 기상이 평상시와는 매우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매우 덥고 때로는 매우 비가 많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가 많이 온 것과 관련한 내용이 자주 보인다. 내리는 비가 한 번 시작하면 연일 계속되고 내리는 양도 적지 않았다. 그에 따른 강물과 계곡물의 범람 그리고 홍수에 가까운 피해상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수해는 황여일이 있던 지역뿐 아니라 서울에도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이 당시에 많은 비가 온 특별한 시기였던 것 같다.

일기의 곳곳에서 황여일은 자신의 병과 이로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평상시에 더위를 잘 타는 서증暑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위 때문에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면서 밥을 못 먹고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한다. 황여일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병이 생긴 원인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오장육부가 텅 비어서 병이 들어오는 것이 마치 종이와 물을 흡수하듯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병이 결국에는 과거 시험중에도 발생하여 참기 어려웠지만 말도 못하고 지니고 있던 약으로 구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심할 때는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서 땀으로 온 몸이 젖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황여일의 병과 고통들은 여행길에 예상치 못한 차질을 주기도 하였다.

7 한국고전종합DB, 『嘉梧藁略』, 「工曹參議海月黃公神道碑」: “癸未, 謁金鶴峯, 論近思錄, 自是淬磨性理之學, 大有成就, 八月, 將請祀五賢于文廟, 同疏者二十餘人, 事機紛紜, 或有始固終弛, 而公獨毅然不撓曰, 以如是正道, 如是公論, 尙此疑畏, 於朝廷士林何, 遂製疏投呈, 送鶴峯於漢江, 月下語鄭愚伏曰, 令人有飄然蹈海之志, 盖巷議尙譁然也.”

황여일은 자신이 지나간 장소의 명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어디를 출발하여 어디에 도착하였다는 사실부터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무슨 소식을 들었다는 등등의 기록이 곳곳에 보인다. 또한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쉬었는지까지 장소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5. 『해월헌계미일기』의 가치

이 일기는 황여일이 지나가고 머무른 곳들을 통하여 당시 주요 교통로와 숙박시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인의 장례식 기간 동안에 조문을 오고 편지를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황여일과 그의 장인 집안의 인물관계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

장례기간 동안 행해진 의식들을 살펴봄으로써 장례절차를 연구할 수 있으며 특히 보내온 부의들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에 주로 주고받은 물품에 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육지를 통한 관의 운반이 아니라 배에 실어서 운반하는 상강^{喪缸}의 풍습이 특이하다. 아마도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육지보다 빠르고 힘이 덜 드는 편리함이 있었을 것이다.

【김남중】

참고문헌

- 디지털 울진 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 한국고전종합DB, 『嘉梧彙略』, 「工曹參議海月黃公神道碑」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해제, 사진 이미지, 메타정보 원문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낙재선생일기

樂齋先生日記

- 제목 표제 : 樂齋先生日記, 권수제 : 樂齋先生日記
- 저자 서사원 徐思遠(1550~1615)
- 판사항 필사본
- 작성연대 1592~1595년(선조 25~28)
- 형태사항 1책(98장) / 선장(5침) / 사주무변, 무계, 무어미 /
12항 22자 / 31.0×22.5cm
- 소장자 계명대학교
-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成賦八不意辱事之看賦宜哉○十七日開來某十五日
福之慶府使身賦不又至見賦使廣文廣美那亦適安是
陰雨降使府使之委是廣賦中軍卒如列軍管不可勝備
蔚山受陽諸賦通歸六到監錄之矣也○十八日開來
亦路長賦諸部亦實一天軍馬奔潰云 此日使報入女
安古珍與使之視無之故者要陽府使升音修宗子元府
使力賦不又而賦走慶州亦福戶十餘法不現通子本府花
自地賦路之方道會弟行仲出家小道能亦以指有賦將
賦林子府使曾已修草而小賦十九日開來許其進賦出
矣其家事而亦及賦林能使人必以理許其進賦同門身出
子家則諸父及家看諸軍老親修各事使理主撤置又祭傷
其余之前白以賦物留止使各口出州止出之息而諸父

不從節以故優務老親步向子無台使讓家奉委以向人小
節便遂止于某家北日街中內行次而屋橋出向子進京店
舍余亦進向子仕家夕運府中宿于某家○二十日開賦
甚進并急進向科叔書使慶拜老親于仕家北日運進主
入廟總付且修親為上書院宿于幼學香○廿日馳道親德
等見親將論事出使南山將改修其書丹伴物走登之際
望見欲去之人驚奔按吏勢甚吞食僕僕之報六佳賦已進
在遠境鎮將索已開四門適寬官軍大端張天云余乃心落
膳便騎馬馳出子西門外則門豁火添無一人而賦者賦是
京將士支將林幕屏風而已壯門外官香字家亦已火燒
天雖馬馳向子彌勒堂則徐刑監應孫騎馬中止不知進何
座首之再出復伴向子研經則老親及家為素已移上子內

集春借于先生集來○十六日昧爽白粥先生入 關行雷
解于兩飯飽 傳教于政院金昌遠在弘文後進之相見八見
洪慶新來見位辭于鶴溪大監行酒以送進辭于西川為先生
一宴以酒送行過果川李時習呂德龍同行去暮殺宿仁德村
○十七日鷄鳴而起治行行四十餘里未及水原高朝飯朝雷
如雪過水原至沙洪煎心過林城宿羅城地葛院：史若錄夜
現夢顯到○十八日戴星而食朝飯于松竹臺校宿鎮川●十
九日朝露曉告道官而行朝鎮川森店支供出披吹囉赤運奉
來進校宿相城山連天寺不修補付過支惠史○二十日鷄鳴
而起負明行展時上任于大廳校生舉集行禮則始得以後日
讓馬以品官行禮不克察校檢以下堂

112211

1. 개요

이 책은 서사원이 임진전쟁이 시작되던 1592년 4월 12일부터 청안현감에 제수되어 관아에 부임하는 1595년 9월 20일까지 4년 동안(42개월 1,174일)의 견문과 경험을 기록한 1책의 해서체 일기이다. 지역은 저자의 고향인 대구(이천伊川·팔공산 일대), 피난가 있던 거창, 부친이 피난간 합천(삼가), 순찰사가 머물던 진주 등을 비롯하여 성주, 고령 등 영남 일대이다. 전란으로 인한 피난, 의병장으로서의 활동, 가족과 교유 관계, 생계를 위한 농사, 전란에 대한 정보 등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중기 대구의 대표 유학자가 겪은 임진전쟁의 경험과 그 속에서의 일상, 의식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2. 미락재 서사원의 생애

서사원의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행보行甫, 호는 미락재彌樂齋·악재樂齋이다. 1550년(명종 5) 6월 4일에 성주 팔거현八莒縣의 외가에서 전교典教 서흡徐洽과 인천 이씨 익조益祖의 따님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1615년(광해군 7) 4월 7일에 66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선조는 대대로 달성에 살았는데, 7대조인 서침徐枕이 달성을 나라에 헌납하고 대구 남산의 옛 역터로 이주한 이후 대대로 세거하였다. 7세에 백부伯父인 서경徐洞의 양자가 되었으며, 22세에 죽산박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서항徐恒을 두었다.

17세에 송담松潭 채응린蔡應麟에게 나아가 배웠으며, 21세에 퇴계 이황의 부음을 듣고 문하에서 공부하지 못한 것을 통한으로 여겼다. 26세에 향시에서 ‘유덕동천부惟德動天賦’를 지어 장원을 하였으며, 28세에 부친상을 마치고 퇴계의 문하에서 수학한 한강 정구를 스승으로 섬겼다. 30세에 이천정사伊川精舍를 짓고 장현광張顯光 등과 교유하였으며, 35세에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43세에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창의하고자 향병을 모집하였다. 소모관으로 임명되고 의병장에 추대되어 왜적과의 전투에서 전공을 올렸다. 45세에 청안현감에 제수되어 모속차사원募粟差使員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병사와 군량을 모집하는 등 항쟁 활동을 하였다. 50세에 전쟁이 끝나고 주자가 동안으로부터 돌아와 그 도를 더욱 즐긴다는 말에서 뜻을 받들어 이천의 선사仙查에 미락재彌樂齋를 세우고 강학하는 한편, 조모와 생부를 모셔 선영에 장사지냈다. 51세에 퇴계가 이름 붙인 도산서당의 서재인 완락당玩樂堂을 본받아 선사에 완락재玩樂齋를 짓고 장현광·여대로呂大老 등 제현과 금호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주자의 어정시漁艇詩로 운을 나누어 시를 지었다.(금호선사선유도琴湖仙查船遊圖라는 그림이 전함) 이후 연기현감, 호조정랑 등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장현광·곽재겸郭再謙·손처술孫處訥 등 제현과 더불어 강학과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서사원은 30세에 이천정사를 짓고 이언영李彦英(1568~1639)을 시작으로 학교모범學校模範·선사정사학규仙查精舍學規·정사약속精舍約束 등 규칙을 마련하여 이천정사·연경서원研經書院·선사재 등의 장소에서 강학하면서 많은 문인들을 길러냈다. 『낙재선생문인록樂齋先生門人錄』에는 서사

원의 문인으로 113인이 수록되어 있다.

대구의 이강서원(伊江書院), 청안의 구계서원(龜溪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술로는 『낙재선생일기』 이외에 목판본 『낙재선생문집』이 있다. 문집은 1843년에 후손 서택열(徐宅烈)이 증보 재판한 중간본(원집 7권, 연보 3권, 부록)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이보다 앞선 목판본(원집 6권, 부록)이 계명대·대구가톨릭대 도서관에 전한다.

3. 『낙재선생일기』의 구성과 체제

『낙재선생일기』는 단권으로 저지(楮紙)에 목서되어 오침안(五針眼)으로 장정된 필사본이며, 분량은 98장이다. 서발문이나 목차 등이 없이 본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임진·계사년 일기, 임진전쟁 관련 문서의 초록, 갑오·을미년 일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진년 일기는 4월 12일 밤에 연방(蓮房)에서 자다가 꿈에 부산첨사의 상여가 뜰 안에 들어와 놓이는 것을 보고 놀라 깨면서 시작되어 박덕옹(朴德凝)이 메밀 1석과 콩 3두를 보내왔다는 12월 3일까지의 기록이다. 일기의 말미에 ‘자사일지계사이월십사일공(自四日至癸巳二月十四日空)’이라 하여 임진년 12월 4일부터 계사년 2월 14일까지는 내용이 없어 228일 동안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분량은 20장(20.4%, 일 평균 2.1행)이다. 계사년 일기는 2월 15일 한양 승전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 12월 30일 이천의 송추(松楸)에 제사를 지낸 내용까지 윤달을 포함하여 337일 동안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분량은 18장(18%, 일 평균 1.3행)이다. 임진전쟁 관련 문서는 전쟁과 관련된 국왕의 교서, 초유사의 관문, 대구 의병 관련 문서 등 모두 25개이며, 분량은 33장(33.6%)이다. 갑오년 일기는 1월 1일에 지방(紙榜)에 치전(致奠)한 것으로 시작되어 12월 30일 송추에 제사를 지내는 내용까지 353일 동안의 기록이다. 분량은 15.5장(15.8%, 일 평균 1행)으로 임진년 일기와 비교하면 분량이 반 이하로 줄었다. 을미년 일기는 1월 1일에 박자성(朴子誠)이 문병온 것으로 시작되어 청안 관아에 현감으로 부임하는 9월 20일까지 256일의 기록이며, 분량은 11.5장(11.7%, 일 평균 1.1행)이다. 청안현감에 제수되어 사은하고 부임하기까지의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다.

일기의 표지에 원본보다는 후대에 덧붙인 종이에 ‘낙재선생일기(樂齋先生日記) 원(元) // 자임진지(自任進止) 을미(乙未) 壬辰(壬辰) 乙未(乙未)’라는 목서가 있다. 이는 원래 일기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의 4책이 완전하며, 그 가운데 임진년부터 을미년까지를 수록하고 있는 첫 번째 책을 의미한다.

본문의 기록은 월별로 행을 구분하고 일자는 ‘십이일(十二日)’ 등과 같이 간략하며, 날짜가 바뀔 경우에는 권표(圈標 : ‘○’)로 구분하였고, ‘교(敎)·부(父)’ 등과 같이 존대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한 칸을 띄우는 공격(空格)이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다. 보통 개인이 책력에 적은 기록이 후일 일기의 바탕이 되는데, 이 일기도 특정 일자에 무기록(無記錄·공(空)이라 적혀 있고, 필체가 여러 사람의 것이므로 저자가 책력에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후일 문인이 분담하여 옮겨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부분에서 작은 권표를 하고 행의 옆에 글자를 첨입하거나 수정할 글자를 올려내고 종이를 배면에 덧붙여 수정하고 있는데, 글씨체와 먹의 색깔로 보아 해당 부분의 일기를 적은 사

람이 아니라 이후 다른 사람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4. 『낙재선생일기』의 내용

1) 일기 수록 내용 개괄

저자는 대구를 대표하는 유학자로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일자별로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전쟁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알려 준다. 일기별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임진년 일기는 소문으로 들은 부산·동래·경주 등의 함락과 명나라 원병 파병, 곽재우·김면의 의병 활동 등 전쟁 상황, 적의 선봉이 임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무태無台·연경서원을 거쳐 팔공산 일대(내동內洞·부인리夫仁里·동화사·견불암見佛庵 등)에서 피난 생활한 내용, 5년 전에 서울에서 얻은 경첩京妾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 슬퍼하는 내용, 대구에서는 한 사람도 창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의병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와 의병장으로 추대되고 향병도목鄕兵都目·향병입약鄕兵立約 작성 등의 활동 내용, 두통과 팔의 통증 등 병치레에 관한 내용, 조모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른 일, 아버지와 계부는 삼가로 향하고 자신과 가족은 거창에 가게 되어 헤어진 후에 안부를 걱정하고 주변에서 양식으로 도움을 준 기록, 순찰사 김성일을 만날 목적으로 거창을 출발하여 진주에 다녀온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계사년 일기에는 한양 등지에서의 승전 소식과 진주성 함락 등 전쟁의 정황, 생부와 서모庶母의 병세에 호전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생부의 임종과 장례, 장례식 후에 자신이 앓아누워 병치레한 내용, 틈틈이 두시杜詩를 베껴 썼다는 내용, 고향으로 가서 성묘한 이야기, 가조(거창)와 고향에서 목도한 명나라 원군의 횡포, 고향인 이천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갑오년 일기에는 항마恒馬·안자鞍子·송감초宋鑑抄 등을 팔아 식량을 구하거나 성주城主 등으로부터 식량을 얻은 이야기, 기장을 심거나 밭을 가는 등의 농사 관련 내용, 연원록淵源錄·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주자서朱子書 등의 독서와 우인友人과의 강학 기록, 자신의 병세에 관한 내용, 주변의 인사들과 왕래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을미년 일기는 삭망으로 치전한 내용, 작년에 얻은 병환으로 고생한 내용, 논어·태극도설 등 독서와 강학, 주변 인사들과의 왕래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청안현감에 제수되어(7월 26일) 입궐하여 사은하고 청안현에 부임(12월 20일)까지는 내용이 상세하다. 영남의 선비가 관직을 제수 받고 사은하고 현지에 부임하는 과정은 관원 부임의 한 사례로써 의미 있는 기록이다.

2) 임진전쟁 관련 문서

임진전쟁 관련 문서는 모두 25개이며, 전쟁의 전반적인 정황과 함께 대구 의병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유용한 문서들이다. 문서 가운데 ‘초집향병통문’과 ‘향병입약’은 『낙재선생문집』 권6의 잡저에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장서각에 동일한 순서로 장책된 52장 분량의 『진사간과일기辰巳干戈日記』(이하 『간과일기』)가 있는데, 『낙재선생일기』보다 후반부에 문서들이 더 있는

행서체 필사본이다. 이 책은 표제가 '진사간과일기'라 되어 있으나 내용은 문서 등록簿錄이다. 두 번째 장에 소모향병좌단적召募鄉兵左袒籍이라는 글씨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적을 도벌한 사람은 선적善籍에, 숨어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악적惡籍에 기록하고 적에게 빌붙어 길을 안내한 사람은 일일이 별도로 기록하고 잡으면 묻지 않고 벌을 주며, 1건을 초유사에게 올리고 1건은 향중에 두어 후일 상벌의 전거로 삼는다.' 등의 기록이 있다. 임진전쟁 당시 대구 의병의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된 여러 권의 기록물 가운데 전하는 하나로 보이며, 본문의 수정된 것이 『낙재선생일기』에 반영되어 있어 『낙재선생일기』의 모본으로 추정된다.

문서는 영남은 인재의 부고府庫이므로 충의로써 왜적에 대항할 것을 바라는 교종의대소신민한량기로등教中外大小臣民閑良耆老等, 인재의 부고인 영남에서 충의를 일으켜 떨쳐 일어나기를 강좌江左의 여러 고을에 고한 격문(『낙재일기』에는 제목 아래에 작자 표기가 없고 본문에 있으나 『간과일기』에는 제목 아래에도 김좌랑면金佐郎面의 표기가 있음), 좌도의 의병 봉기를 촉구하는 경상 감사의 관문關門, 서사원의 초집향병통문招集鄉兵通文(7월 29일, 『간과일기』는 작성일이 7월 19일로 되어 있음)과 향병 운영을 위한 향병입약鄉兵立約, 서사원을 대장으로 하는 향병 조직 48인의 역할 분담 내역을 적은 향병장유사분정기鄉兵將有司分定記(『간과일기』에는 북산리장北山里將 등 2~3곳의 이름 수정 흔적이 있고 『낙재일기』에는 수정 후의 내용이 적혀 있음), 초유사 김성일이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왜적과 싸우는 일에 힘을 보탬 것을 도내에 알린 관문 등 4개의 문서, 향쟁에 나서지 않는 자들은 군율로 다스리겠다는 겸도순찰사약속兼都巡察使約束, 박이문朴而文 등 경상우도 유생들이 감사 김수金晬·병사 조대곤曹大坤·성주목사 이덕일李德逸 등의 죄상을 적어 임금에게 올린 상소, 초유사 김성일이 의병장 곽재우에게 순찰사[김수]에게 보낸 격문과 관련하여 이를 책망하는 내용의 첩문, 그 첩문과 관련하여 순찰사의 군관[김경눌金景訥]들이 곽재우에게 보낸 두 통의 격문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각 의병소에 보낸 통문,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주성을 지켜낸 내용을 9일간 일자별로 기록한 진주수성절차晉州守城節次 등이다.

3) 피난 생활과 명나라 원병의 횡포

서사원은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선봉대가 대구에 도착할 무렵인 1592년 4월 19일에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무태를 거쳐 팔공산으로 피난을 갔다. 연경서원을 거쳐 팔공산 내동과 부인리, 건불암 등 팔공산 일대를 옮겨 다니며 거창으로 피난지를 옮길 때까지 의병 활동과 가족을 보살피는 피난 생활을 하였다.

서사원은 경상우도에서 곽재우·김면 등이 의병을 일으켜 활약을 하는데 대구에서는 한 사람도 창의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를 부끄럽게 여겨 동화사에서 향병 초집의 일을 의논하면서 창의 뜻을 모았다. 향병 초집 통문의 초고를 작성하고, 정사철鄭師哲이 병이 있어 향병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편지를 보내와 대신하여 의병장에 추대되었다. 초유사 김성일의 (소모관) 차정 문서를 확인하고 경산에 격문을 보내고, 배연背淵에 결집한 향병을 점검하고 경내에 침범한 왜노倭奴를 추격하여 도강渡江을 막는 등의 의병 활동을 하였다. 그 중 8월 8일 밤에 기운이 평안하지 못하다가 다음날부터 두통과 왼쪽 팔의 통증으로 진영에 나아가지 못하고 침을 맞으며 계속 치

료를 받던 중 조모상을 당하였다. 팔의 통증이 심하여 조모의 장지까지 가지 못하였으며 오랜 기간 계속 치료를 받았다. 조모의 장례를 치른 이후부터는 의병장의 역할을 위임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였으며, 10월 말에는 가족과 함께 거창으로 피난지를 옮겼다가 다음해 6월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저자는 전란 중에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는다. 5년 전에 서울에서 얻어 정이 두터웠던 첩을 팔공산 골짜기에서 병으로 잃고 상여를 마련하여 가산의 증조모 무덤 앞에 매장하고 그 슬픔을 적고 있었으며, 청안현감으로 제수되어 서울에 갔을 때는 죽은 첩이 태어났던 장의동(莊義洞)을 찾기도 하였다. 거창에 피난가 있을 때 생부도 돌아가셨는데, 그 때의 임종 기록을 남기고 있다. 생부는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서모(庶母)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서모가 오자 아들을 불러 구두로 재산을 나누었다. 그 가운데 서사원은 서모에게 이미 노비 1명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서모를 불쌍히 여기라는 생부의 유언을 들었다.

서사원은 전쟁 중에도 식망으로 치전(致奠)을 계속하였고, 농사를 짓고 식량을 구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가운데에도 전황의 소식에 관심을 가졌으며, 전란의 와중에도 서책을 구하여 읽고 사람들과 강학하는 학자적 모습을 보인다. 전란으로 남산의 집이 파괴되고 서책 등이 연못에 버려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노비가 수습해온 서책이 고작 20여권밖에 되지 않아 보배처럼 간직하던 1천권 서책을 잃어 애통해 하였다. 피난 생활을 하는 동안 식량난을 겪어 오승무(吳承茂)가 콩 10말과 보리 1섬, 하양의 허광선(許光先)이 쌀 2말, 박덕응이 메밀 1섬과 콩 3말 등을 보내는 등 여러 곳에서 식량을 제공받았으며, 서책까지 팔아서 식량을 확보하기도 하는 등 식량 확보를 통하여 가족과 친지의 생계 유지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낙재선생일기』에는 듣거나 목도하거나 겪은 명나라 원병의 횡포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를 끼치는 당병(唐兵)을 피하여 백성들은 경작을 그치고 피하였고, 당병이 거창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을 제불촌(諸佛村)으로 대피시키기도 하였다. 저자도 당병의 위력에 협박 받아 부득이 기마(騎馬)·책갑 등을 팔았고, 소주를 교환한 당병을 상대로 참으면서 접대하고 부채를 주어 달래기도 하였다. 당병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노비를 폭행하고 술이 없으면 행패를 부리면서 덜 된 술을 단지채로 가져가기도 하였다. 서사원이 ‘당인이 오지 않았다’고 기록할 정도로 명나라 원병은 수시로 민가를 출입하며 행패를 부리면서 술 등 필요 물품을 교환을 빙자하여 수탈을 일삼아 원병(援兵)이 아니라 원병(怨兵)이었던 것이다.

4) 청안현감 제수와 부임길

서사원은 청안현감에 제수되어(1595년 7월 26일) 사은숙배를 위하여 상경하였다.(8월 28일) 점심을 먹고 출발하여 함창(咸昌)·지촌(旨村)·인동(仁洞)·해평(解平)·선산(善山)·우리치(愚里峙)·중모현(中牟縣)·준치(峻峙)·보은현(報恩縣)·청산(靑山)·청안(淸安)·노동(蘆洞(진천))·덕곡(德谷(안성))·곡고촌(谷孤村)·인덕원(仁德院里(광주))·동작진(銅雀津)을 거쳐 9월 8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다음날 사은숙배를 올렸다. 이후 이산해, 최홍원, 최립, 이호민 등을 만나고, 9월 16일에 양전(兩殿)에 숙사(肅謝)를 행하고 승정원에서 전교를 들었으며, 임지인 청안으로 출발하였다. 과천·인덕촌(仁德村)·수원부(水原府)·사계(沙

溪·진위振威·갈원葛院(양성)·송죽대松竹臺·진천·연천사蓮天寺을 거쳐 9월 20일 진시辰時에 청안현에 부임하였다. 저자가 대구를 출발하여 서울에서 사은을 하고 임지인 청안현까지 가는 동안은 일기의 다른 부분보다 이동 경로, 투숙한 장소와 사람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르는 고을의 수령 또는 지역 인사와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청안현감 부임길 부분은 영남의 선비가 관직을 제수 받은 후에 사은하고 관원으로서 현지에 부임하는 하나의 사례로써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이다.

5. 『낙재선생일기』의 가치

『낙재선생일기』는 7권 4책의 문집을 남긴 조선중기 대구의 대표 유학자인 서사원의 임진전쟁 발발로부터 청안현감에 부임하는 4년 동안의 일기로, 저자 개인의 세세한 일상과 솔직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1차적인 자료이다.

이 일기의 가치는 우선 문집에 반영되지 않은 유일한 자료로 서사원의 일상적 삶과 교유 관계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보통 개인의 기록은 사후에 문집이나 실기 등으로 간행되면서 널리 읽히고 전승된다. 그러나 그 기록들은 당시의 가치 기준이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출판 비용 등의 이유로 원래의 원고는 산삭刪削과 변경, 삭제의 과정을 거치며 원형을 잃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일기 또한 분량 등의 이유로 문집 간행 시에 편입되지 못하고 연보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일기에서 보이는 첩에 대한 기록이나 서모에 대하여 생부가 임종 시에 남긴 유언 등의 직접적 서술은 일기가 아니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저자 개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인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대구 지역에서의 임진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 자료로써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전쟁 당시 저자가 듣거나 직접 경험한 대구 지역의 전쟁 관련 내용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왜군의 출몰과 관군의 모습, 인근 지역 의병 활동 소식, 의병을 모집하고 활동하는 과정, 원군으로 온 당병의 횡포 등 당시 사회 지도 계층으로서 경험한 백성 입장의 전쟁 일기이며, 첨부된 20여 건의 전쟁 관련 문서는 대구 의병진에 수합된 것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대구 지역 의병 자료로도 의미 있는 임진전쟁 사료가 된다.

【최경훈】

참고문헌

- 강민구 역. 2008. 『(국역)낙재선생문집』. 이회문화사
- 박영호 역. 2008. 『(국역)낙재선생일기』. 이회문화사
- 박영호. 2006. 『『樂齋先生日記』考究』, 『동방한문학』 30, 131-169쪽
- 박영호. 2012. 『樂齋先生日記 해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선본 고서 해제집 3』, 105-110쪽.
- 서사원 지음, 『낙재선생일기』(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진사록

辰巳錄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없음
 저자 조정 趙靖(1555~1636)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592~1597년(선조 25~30)
 형태사항 1책(72장) / 선장(5침) / 사주무변, 무계 /
 12~13항 28자 내외 / 25.4×19cm
 소장자 상주박물관
 보관장소 상주박물관



抗金應表 道
雖此元珠俗況自步刀推知爾不制出物道極極幸為後鵬雁般手寄
平生信得半今日及朋俸 又 契以輝輝密心因道義親并泥埋寒
路府時也無磷說許存尚余幽期指浩清子全先服立是所與慈因

黔澗先祖家狀草

公諱靖字安仲姓趙氏其先揚州豐城人高麗初有為門下侍中平
章事統合之韓壁上開國功臣太師三重大匡豐城府院君諱五
即始祖也自是以後連世皆效為麗朝大姓入我朝有諱崇官
至嘉嘉靖大夫尚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徒於公為七世祖始家
于尚州尚議士刑曹都官佐郎諱夏佐郎主議政府舍人諱瑞堤舍
人止諱快是為公高祖而早世不仕他高靈中氏府使松舟之女曾王
父通判大夫行春川都護府使諱允寧他淑人仁同張氏領議政顯
孫之女王父通判大夫行司賜守直長 贈通禮院左通禮諱禧他淑人
南陽洪氏都守直長之女自漢京限居于尚考諱允德守叔度承承

血氣者守能處此壞地末活耶又曰苟有材器兼備之人當義持之義執
求善則山谷誌冷之民知有所歸侍以為重擊焉之年見將不日而兵矣
提此敢死之人以攻夕勞之賊則勝昔在我軍容必振陰凶寧情盡在
於斯而朝論作歧世路並險妨賢嫉能之徒竊據城社稍其已輒加
不道之名以為備打之計有智慮者要皆袖手深箴以避手後之嫌莫肯
為首事戰亂七舉時事至此志士途室之踏安得不於此焉輪相也或時深
得批詭不能實食者寧累次五日內子尚州人欲擊雷州賊飛檄山谷請
撥善急丁甘詰朝公糾率千餘人徒步赴難則無一人會者以是無功而
歸七月丁亥公與權察訪景席韓恩仗經世及李知道蔡有喜等將
會于咸昌之黃廟寺將倡義推清州人李達為大將軍韓曰曰義義
即蔡有喜之內弟而有武略者也於是會議以公為佐幕蔡謀無事書
之任運其主持及諸人並向矣拜北服立三章之法曰臨賊先退者斬約後
謀逆者斬違令失期者斬故言獻家者並依軍律論斬軍中皆懼伏於
是子公頗謂左右而歎曰循及之度至臨郡城日為憂慮已決五期而
列邑守軍軍帥兼皆逃遁莫敢有為國事殫賊者臣民此日之痛當如何我
道自自上責乞求助之教稍知大義者莫不揮涕扼腕咸有敵愾之心傷
義討賊之師庚子蜂起而獨我尚州及咸昌間處等地寂無一人為之挺身而出甚
慨然類同志之人得成今日之功私心喜慰有奇策所謀討賊者不遠矣路設
射殺宋賊之科表者身於國家取數與知無益而勢力不達則無可為之端始為
所及焉可以小制於家愛居憂國之寸忱矣聞者莫不感佩為之泣下旬日之
應募者甚眾於是擇形勝設伏兵捕捕功賊頗多咸昌太守李國燭寬甲
匿伏之餘思其成功詎報使使曰李達等年少年少吉生冒粉舉義以官
軍為義兵以官軍所捕首級為己功使與監不得措手云公以為此舉
反覆邪險



1. 개요

『진사록』은 조정(1555년, 명종 10 ~ 1636년, 인조 14)이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 발발로 부터 1597년 정유재란 당시까지 자신이 겪은 피난 생활과 상주와 인근의 전황과 소문, 창의군兵義軍을 중심으로 한 의병활동 등을 기록한 이른바 임란일기이다. 그러나 이 『진사록』은 조정 자신의 자필 수고본이 아니라 후대 어느 때인가 재정리되어 정서된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자필 수고본인 원본의 일부가 일실된 관계로 『진사록』 자체는 부분적으로 원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보물 제1003호로 지정된 <趙靖 壬辰亂記錄 一括>¹의 일부인 보물 제1003-3호 『辰巳錄』²은 다음 아년 상주박물관 소장의 『辰巳錄』³ 가운데 1593년(계사년) 분 기록의 복사본이다. 후대에 정리되고 정서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원본에는 없는 내용이 첨가되기도 하였고, 반대로 원본의 일부 내용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이 점은 뒤에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겠지만, 아무튼 조정의 임란일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정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정의 자는 안중安仲이고, 호는 검간黔澗이며,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임진왜란 중에는 상주尙州와 함창咸昌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진인 창의군의 좌막佐幕과 기록記錄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조정의 임란일기는 개인의 일기인 동시에 창의군의 공식 기록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단순한 개인의 일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조정은 난 직후(1599년)에 천거되어 참봉, 주부 등을 거쳐 늦은 나이에 사마시司馬試(49세)와 증광문과增廣文科(50세)를 거쳐 남해, 청도, 김제 등 지방관과 형조정랑, 내섬시 정(72세)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상박 진사록』은 1책으로 1592년(임진, 선조 25) ~ 1597년(정유, 선조 30)의 기록이다. 총 72장 143면의 분량이다. 그러나 실제 일기의 내용은 1592년과 1593년, 그리고 1597년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기 대부분의 내용은 피난생활과 전황, 다양한 소식과 소문들, 관군과 왜적의 동향, 그가 접촉한 인물들, 창의군의 활동, 군량미 확보, 명나라 군대의 진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박 진사록』을 통해서 임진왜란의 당시의 사족가문이나 농민의 생활과 전황, 의병활동 등의 생생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1 이하에서는 <보물 임란일기>라고 쓴다

2 이하에서는 『보물 진사록』이라 표기한다.

3 이하에서는 『상박 진사록』으로 표기한다.

2. 검간 조정의 생애

1) 가계와 생애

조정趙靖(1555년, 명종 10 ~ 1636년, 인조 14)의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시조 맹孟이 고려 태조를 도와 삼한을 통일한 공으로 풍양부원군豐壤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이로써 본관을 삼았던 것이다. 7대조 승崇은 조선 초에 도평의사사로서 의주목사를 겸하였다. 처음 상주尙州에 이거하여 살았다.

5대조 서정瑞廷은 의정부 사인舍人이었고, 서정의 손자 곧 조정의 증조 윤녕允寧은 춘천부사로 서울에서 살았다. 조정의 가문이 다시 상주로 옮겨 산 것은 조부 희禧였다. 조부 희는 사삼시직장司瞻寺直長으로 서울에서 살았으나 벼슬을 버리고 상주로 돌아왔다. 이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상주사람이 되었다. 부 광헌光憲은 효행으로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고, 어머니는 남양홍씨로 잘방 윤취胤崔의 딸이었다.

조정은 1555년(명종 10) 8월 22일에 서울 연지동蓮池洞에서 출생하였다. 이후 10여 년 서울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세인 명종 20년에 영남의 학자들이 승 보우普雨를 참할 것을 청하는 상소문을 가지고 연지동의 조부 직장공을 찾아왔을 때 어린 나이에 잘 수응酬應함으로써 칭찬이 자자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11세 되던 9월에는 직장공이 상주로 낙향함에 따라 상주에 와서 아우 가휴공可畦公과 함께 승장사勝長寺나 별사別舍 등에서 독서를 하였다.

1570년(선조 3, 16세)에는 한강 정구의 문하에 나아가 소학小學과 심경心經 등을 공부하였고, 1571년에는 서에 류성룡과 청계 김진 등을 찾아보았다. 1572년(선조 5, 18세)에 의성김씨 약봉 금극일 藥峰 金克一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학봉 김성일의 문하에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배웠다. 이 해 가을에 향시鄕試에 합격하였다.

1574년에는 서에 류성룡을 하회로 찾아가 배알하고, 성리서性理書와 심경心經 등에 대해 질정하였다.

1576년(선조 9, 22세)에는 향교鄕校에 나아가 공부하였다.

1581년(선조 14, 26세)에는 남장사南長寺에서 공부하였다.

1585년(선조 18, 30세)에 류성룡이 감사로서 방문하자 시를 지어 자신의 뜻과 회포를 드러내었다.

1588년(선조 21, 33세) 2월에는 조부 직장공의 상을, 12월에는 부친 승지공承旨公의 상을 연이어 당하였는데, 상중의 의식과 절차를 모두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따랐다.

1592년(선조 25, 38세) 2월에 복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호를 검간黔澗이라 하였다. 검간이라 한 것은 묘墓 아래 작은 시내가 있는데 이름이 검黔이므로 이를 취한 것으로 잠시 사이라도 묘역을 잊을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 검은 검儉자와 음이 같으므로 검소절약하는 뜻도 아울러 취하고자 하였다. 앞서 승지공의 유명遺命에 따라 직장공의 묘갈명을 사부인 하락공河洛公에게 청하여 직접 써서 글자를 새겼으나 미처 세우지 못하고 난리를 만났다. 4월에 왜란이 일어나자 모친을 문경 노동 聞慶 蘆洞에 모셨다가 다시 속리산으로 피난시켰다. 이어서 의병활동

동에 참여하였다. 7월에는 소야동蘇夜洞으로 우복 정경세 愚伏 鄭經世를 찾아가 위로하였다. 이 때 정경세의 모부인母夫人이 적에게 해를 당하였다.

1593년(선조 26, 39세) 4월 모부인의 상을 당하여 삼산 궁평 三山 宮坪에 가매장하였다.

1596년(선조 29, 42세) 11월에 왜적의 재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심이 흉흉한데 조정에서는 또 다시 몽진할 생각을 하였다. 이에 월간 이진 月澗 李璵과 친정親征을 청하는 상소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월에는 백의白衣로 진양晉陽에 주둔하고 있던 도체찰사 완평군 이원익 都體察使 完平君 李元翼의 막하에 종사하였다.

1597년(선조 30, 43세) 2월 예천 향교에서 친정소親征疏를 초하여 상경하였다.

1598년(선조 31, 44세) 9월 통제사 이순신과 당장 진린 唐將 陳璘이 순천에서 적을 크게 격파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를 지어 기쁨을 표하였다.

1599년(선조 32, 45세) 천거를 받아 희릉참봉禧陵參奉이 되었고, 6월 종계변무사절宗系辨誣使節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승자陞資되었다. 8월에 양재良才에 가서 선영先塋에 성묘하고 절사節祀를 지냈다. 양재는 경기도 광주廣州 땅인데, 증조 춘천공春川公과 조비 숙인 홍씨 祖妣 淑人 洪氏의 묘가 있다.

1600년(선조 33, 46세) 11월 광흥창 부봉사 廣興倉 副奉事로 옮겨졌다.

1603년(선조 36, 49세) 7월에 6품으로 승진하여 군기시 주부 軍器寺 主簿에 임명되었다. 이때는 난리 후라 문서와 장부가 많이 연체되고, 서리들이 눈을 속여 도적질을 함으로 창고를 굳게 잠고 감시를 철저히 하여 속이지 못하게 하였다. 가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12월에 호조좌랑이 되었다. 이 때 호남지방에 옥사가 많아 지체됨으로써, 조정의 특명을 받고 완산完山에 도착하여 일도一道を 돌면서 만여 건의 옥사를 일시에 해결하였다.

1604년(선조 37, 50세) 3월 한양에서 조직된 영남회嶺南會에 참여하였다. 당시 모인 사람은 오봉 이호민 五峰 李好閔, 백암 김륙 柏巖 金功, 창석 이준 蒼石 李峻, 경정 이민성 敬亭 李民庚 등 영남 제현 38인이었다.

1605년(선조 38, 51세) 4월에 다시 호조좌랑이 되었고, 경사가 있어 연 증광문과에 합격하였다. 이어서 춘추관 기사관 春秋館 記事官이 되었다. 이어 5월에는 사헌부 감찰 司憲府 監察이 되고, 6월에는 북평사北評使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9월에 예조좌랑禮曹佐郎이 되고 정간공약포 정탁 貞簡公 藥圃 鄭琢의 사제관賜祭官으로 명을 받아 남하하였다. 11월에는 대구판관大邱判官이 되었으나 중국인들을 쇄환刷還하는 일로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대구의 부민府民들이 거사비去思碑를 세워 아쉬워했다.

1607년(선조 40, 53세) 4월 경주교수 겸 제독관慶州教授 兼 提督官에 임명되어 8월에 옥산서원 玉山書院 향례享禮에 참석하고 이어서 제생들에게 강론하였다.

1608년(선조 41, 54세) 남해현감南海縣監에 제수되었다. 매월 초하루 보름에 선성묘先聖廟에 배알하고 제생에게 소학을 강론하였다. 향교의 명륜당과 동서 두 재사를 중수하였다.

1609년(광해군 원년, 55세) 2월에 향교에 나아가 몸소 석전을 행하고, 사직제, 성황제, 여제 등을 친히 행하였다. 6월에는 두미법斗米法을 고쳐 정하였고, 가을에는 향사례와 향음주례를 행

하였다. 관직을 버리고 귀가하니 현인縣人들이 유애비遺愛碑를 세웠다.

1610년(광해군 2, 56세) 2월에 만암寓菴 홍洪선생의 묘소에서 여러 곳에 사는 외손들과 만나 제사를 올렸다. 공은 우암의 외손으로 본손이 없기 때문이다. 이어 매년 한 번씩 모여 의례를 행하기로 하였다.

1611년(광해군 3, 57세) 3월 공홍도公洪道(충청도) 도사가 되었고, 12월에 청도군수淸道郡守에 임명되었다. 이 때 모암 김극일 慕庵 金克一, 탁영 김일손 濯纓 金駟孫, 삼족당 김대유 三足堂 金大有를 모신 삼현묘三賢廟를 심방했다.

1612년(광해군 4, 58세) 모암 김극일, 탁영 김일손, 삼족당 김대유 3현을 자계서원紫溪書院에 봉안하였다. 또 학문을 권장하는 과정을 세워 매월 초하루 날에 군중郡中의 제생을 모아 경전과 소학 등의 글을 강습하였다. 또한 고을 내의 모든 노인들을 방문하여 인사하고, 춘추절일春秋節日에는 7,80세 이상 노인을 맞이하여 남녀별로 자리를 따로 하여 음식을 나누고 수건과 지팡이를 주고 위안하는 양로연을 행하였다.

1615년(광해군 7, 61세) 여름에 화악 고사동華岳 高沙洞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서당을 고봉孤峰 아래로 옮겨 세웠다.

1617년(광해군 9, 63세) 청도군수로 6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 마침내 귀향하였다. 고을에 이르러 향중의 여러 벗들과 삭강朔講을 논의하여 정하고, 한강 정구에게 품질하여 도남서원道南書院의 상향일常享日을 춘추 3월과 9월로 정하였다.

1619년(광해군 11, 65세) 청리靑里의 서당에 가서 월간 이진, 창석 이준, 우복 정경세 등 제현과 서에 류성룡의 문집을 교정하였다. 안동 임하臨河의 처가로 이사하였다가 이듬 해 8월에 장천長川 옛집으로 돌아왔다.

1623년(인조 원년, 69세) 5월에 김제군수金堤郡守에 제수되었다. 고을의 폐막弊瘼을 고치고, 학문을 일으키고 노인을 봉양하는 예를 행하였다.

1624년(인조 2년, 70세)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공주公州로 대가를 호종하였다.

1625년(인조 3년, 71세) 고을 토호들이 무고하자 인수印綬를 버리고 귀향하였다.

1626년(인조 4년, 72세) 3월에 형조좌랑 겸 춘추관 기주관刑曹正郎 兼 春秋館 記注官이 되고, 4월에 통례원 상례 겸 춘추관 편수관通禮院 相禮 兼 春秋館 編修官, 10월에 내섬시 정내瞻寺 正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에 병을 이유로 귀향하였다. 양진당養眞堂을 건립하고, 동쪽에 가묘를 세웠다. 이후 한가롭게 지내면서 독서하였다.

1632년(인조 10, 78세) 3월에 군자감 정軍資監 正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636년(인조 14년, 82세) 7월 21일에 정침에서 졸하였다. 11월에 상주 남쪽 용문산龍門山에 예장하였다.

1642년(인조 20년)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었다.

1646년(인조 24년) 11월에 장천 통사동長川 通仕洞으로 묘를 이장하였다.

1730년(영조 6) 사림들이 속수서원淶水書院에 추향했다.

2) 학문과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

일기자료는 기록자의 학문이나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기술된다. 지식인으로서 유자들은 그들의 학문과 사상 등을 일기에 그대로 투영한다. 따라서 일기 자료의 이해를 위해서는 기록자의 학문적 경향과 사상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정의 『상박 진사록』은 임진년과 계사년의 임진왜란 당시의 피란생활과 의병활동을 기록한 것이란 점에서 특히 그의 충군애국의 정신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정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는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여 교육의 진흥에 힘을 쏟았다. 그래서 향교와 서원을 정비하여 학문을 장려했다. 특히 초학의 생도들에게는 소학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 또한 일찍이 소학을 배우고 나아가서는 주자서나 심학心學에 심취하기도 하였다. 조정의 학문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심학을 주제로 한 <수주부數柱賦>이다. 그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나의 한 마음 제어하기 어려워	曰余一心難禦
십년을 공부했네	十年求學
고요할 때는 존양을 생각하였고	靜思存養
움직일 때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했네	動必窮格
탕왕의 반명에는 잘못을 살폈고	湯盤省垢
주께에서 실수를 경계했네	周几警失
<중략>	
마음을 잡는 요령이 있으니	操之有要
공경함이 법이 되네	敬爲之則
이로써 이를 하지 말며	勿貳以二
삼으로써 삼을 하지 말며	勿參以三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唯心唯一
만 가지 변화를 볼 것이다.	萬變是監

마음이 만사를 주재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공부正心工夫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는 오로지 경敬뿐이다. 동정動靜간에 경敬으로 일관하여야 안팎이 모두 일관하게 되며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만 가지 사물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정의 이러한 학문적 열정과 관심은 벼슬의 여가에 상주에 머물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임란 이전시기에 이르기까지 상주에는 서원이 없었다. 그래서 조정은 상주의 제현, 곧 우복 정경세, 우곡 송량宋亮, 월간 이진, 창석 이준, 석천 김각石川 金覺 등과 함께 동방의 5현인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일두 정여창一蠹 鄭汝昌,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퇴계 이황退溪 李滉을 모시는 도동서원道東書院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또 장천 성산長川 城山에 있는 서당을

중건하여 선비들이 학업할 수 있게 하였고, 여씨향약^{呂氏鄉約}의 절목과 ^{慎齋 周世鵬 慎齋 周世鵬}이 마련한 규례를 참고하여 장천^{長川}, 성동^{城東}, 노곡^{魯谷}, 단구^{丹丘} 등지에서 향약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조정 일기에서는 충군애국의 면모를 자주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일기이고, 자신이 의병활동에 좌막^{佐幕}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국난을 당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그저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조정은 이를 몹시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문집과 일기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1597년(정유) 왜적의 재침이 있게 되자 또 다시 몽진에 관한 의문이 그치지 않았는데 조정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이에 조정은 이 같은 조정의 대책 없음을 한탄하면서 도내의 동지들에게 통문을 발하여 예천향교^{醴泉鄉校}에서 모임을 갖고 친정소^{親征疏}를 초하여 상경하였다. 바로 이 통문에는 조정의 충군애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아! 병란이 6년을 계속하여 오랑캐가 대궐을 덮고 있으니, 골수에 사무치는 치욕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하물며, 이제 국서^{國書}를 거절당하고 조서^{詔書}를 받든 사신이 헛되어 돌아왔으므로, 재침의 화가 조석에 박두하여 두렵고 흉흉한 민심이 가라앉을 줄 모른다. … 민심을 수합하고 사기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도성을 굳게 지켜 근본을 확고히 하고, 어가를 받들어 친정^{親征}을 결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큰 계책에는 어두워, 오히려 물러나는 것으로서 애군^{愛君}한다고 하고, 나아가 방어하는 것으로써 나라를 그르친다고 하니, 우리가 일보를 물러나면 적은 일보를 전진하게 되고, 인심이 한번 흩어지면 다시 단합하기 어려워, 마침내 오랑캐에게 제압당하여 금수가 사람을 억박지른 뒤에 끝날 것이다. 만세에 깊은 원수를 장차 어느 때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이 어리석은 분수를 생각지 않고 한번 대궐에 나아가 호소하려 하였으나, 감히 제현들보다 먼저 창^倡의^義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호서사림^{湖西士林}의 통문을 보고 우리들도 모두 이 뜻을 고루 가지고 있을 것이니, 이 거^舉의^義에 호응하는 뜻을 어찌 늦출 수 있겠는가. 아! 종묘사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원수를 갚는 대의^{大義}인 것이다. 이제 성가^{聖駕}가 영호^{嶺湖}의 요충에 진주하여 안으로는 병기를 갖추고 밖으로는 기선을 잡아 수시로 독전^{督戰}한다면 위령^{威令}이 임하는 곳에 사기가 백배나 솟아 앞뒤에 웅위하여 대승을 기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묘당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아직도 정한 대책이 없고 구차히 옛일을 답습하여 임진년의 패전한 자취를 또 밟으려 하니, 이를 보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유럽의 수치이다.” (〈道內 吾黨에 보내는 通文〉 〈黔澗先生文集〉 권 3)

3. 『상박 진사록』의 체제

『상박 진사록』은 단권이다. 표지는 최근에 새롭게 우편철로 선장하였으나 아무런 글자가 쓰여 있지 않다. 옛 표지에는 ‘黔澗○○’로 표기되어 있으나, 검간 이외의 글자는 정확하지 않다. 새 표지와 옛 표지 앞뒤 면에는 각기 흰 한지를 끼웠고, 다시 덧붙인 속지에는 ‘日記’라고만 기록

되어 있으나 그 여백에 일기와는 무관한 몇 줄의 문구가 적혀 있다. 본문이 시작되는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에는 '思泉'이라는 朱印이 찍혀있다. 일기기록이 끝난 마지막 부분에는 <만김응교(죽일) 挽金應教(竹逸)>과 <검간선조가장초 黔澗先祖家狀草>가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간지와 택호 등이 두서없이 쓰여 있다. 이로써 본문만 모두 72장, 143면이고, 본문에는 매 장마다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중간에 한 장을 누락하였다.

본문은 “임진 4월 대경인 삭 壬辰四月大庚寅朔”으로 시작하여 줄을 바꾸어 “14일 맑음 十四日晴 …”으로 계속된다. 처음에는 날짜마다 행을 바꾸었다. 그러나 임진년 7월 17일 이후부터는 몇 일 간 연속해서 기록되다가 한번 씩 행간을 바꾸었다. 행간을 바꾸지 않은 날짜와 내용을 달리하는 문장의 시작에는 권표(“○”)를 하였다.

날씨는 간단히 “맑음晴”, “흐림陰”, “맑다가 흐림晴或陰”, “비雨” 등으로 기록하였다. 날씨에 이어 그날의 사건 내용과 그 처리며 감상들을 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기록문의 분량은 일정하지 않다. 간혹 날짜와 날씨만이 기록된 경우도 없지 않고, 일일 1행정도에 그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서술이 장장 6쪽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월일과 본문의 기록 형식은 달이 바뀌어도 행간의 구분 없이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 줄을 바꾸기도 하는 등 일정하지 않았다. 서체는 주로 행서 혹은 행초로 쓰여 있다. 한 면은 대략 12~13행이고, 1행은 대체로 28자 내외이며, 계선 등의 구분은 없다.

일기는 1592년(임진, 선조 25) 4월 14일부터 시작하여 1597년(정유, 선조 30) 3월 17일까지의 기록이다. 그런데 1592년과 1593년(계사) 11월 7일까지는 거의 매일 기록하였으나, 1593년 11월 8일 이후 1597년(정유) 2월에 이르기까지의 일기는 없다.

현재 전해오는 원본에도 없지만, 『상박 진사록』으로 정리되어 정서되던 당시에 이미 없었다. 그래서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다.

“1593년 10월 : 1일부터 18일까지는 날씨에 대한 기록도 없다.(自一至十八日 無晴陰記事)”

“1593년 11월 7일(末尾) : 이 아래에도 반드시 계속해서 기록한 것이 있을 것인데, 지금 없으니 안타깝다.(此下必有繼錄, 而今無之, 可歎)”

원본 <보물 제1003-1호 임진일기>⁴ 는 현재 상하권 2책으로 분책되어 있다. 상권은 선조 25년(임진) 4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이고, 하권은 6월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다. 상하권 사이의 10일간의 일기는 없다. 그러나 『상박 진사록』에는 6월 6일에서 14일까지의 일기가 온전히 남아 있다.

4 이하에서는 <보물 임진일기>로 쓴다

〈표〉 『보물 임란일기』와 『상박 진사록』 비교

년		1592년											1593년	
보물		〈임란일기(상)〉(4.14-8.24)				〈임란일기(하)〉(8.25-12.27)					〈남행록〉 (8.25-9.23)		〈진사록〉	
상 박	월	4	5	6	7	8	9	10	11	12	중복	중복	1	2
	일	17	29	29	30	29	30	30	24	27			30	30
	날씨	0	0	0	0	0	0	0	3	2			0	0
년		1593년											1597년	
보물		〈진사록〉(1592.12.24. ~ 1593.11.7)											〈일기〉(4)	
상 박	월	3	4	5	6	7	8	9	10	11	2	3	합계	
	일	16	26	30	28	29	30	29	12	7	15	17	544	
	날씨	2	2	1	5	7	7	11	5				45	

비고 : '일'은 일기가 기록된 일수, '날씨'는 날씨만 기록된 일수이다.

〈남행록〉은 임진년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기록이다. 따라서 〈보물 임란일기(하)〉와 중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행록〉과 〈보물 임란일기(하)〉의 동일 일자의 기록은 같지 않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같으나 어순과 문장 자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을 또 『상박 진사록』과 1592년 8월 25일 하루만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물 임란일기(하)〉 “8월25일 晴 朝食而發, 申克亦爲觀親其慈于陝川地, 與之同行, 命兒同時發歸觀于俗離山慈氏之所, 夕投中牟縣金蓋村里止宿”

〈보물 남행록〉 “8월 25일 與李弘道兄同受大將指揮, 朝食後發程, 夕投中牟縣金蓋村假宿, 申克同行爲其觀慈氏于陝川地也”

『상박 진사록』 “8월 25일 晴 朝食而發, 申克亦爲觀親其慈于陝川地, 與之同行, 命兒同時發歸觀于俗離山慈氏之所, 夕投中牟縣金蓋村里止宿”

위의 세 자료 가운데 〈보물 임란일기(하)〉와 『상박 진사록』은 동일하다. 그러나 〈보물 남행록〉과는 문장의 순서와 구성이 크게 다르다. 〈보물 남행록〉이 횡으로 긴 것은 두루마리와 같이 하여 휴대하기에 편리하도록 한 것인지 모른다. 조정이 거창에 주둔하고 있는 경상감사 학봉 김성일을 만나기 위해 떠난 길이었으니 이 부분을 휴대하여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물 남행록〉이 바로 이 기간의 일기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역시 친필 수기본으로 생각되는 〈보물 임란일기(하)〉와는 왜 다른 형식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가 의문이다. 〈보물 임란일기(하)〉는 또 『상박 진사록』과 비교해 볼 때, 이 역시 원본으로 보인다. 이를 일단 정리해 보면, 〈보물 남행록〉은 조정이 남행 당시에 쓴 초록이고, 이것을 돌아와 다시 〈보물 임란일기(하)〉로 정리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상박 진사록』은 〈보물 임란일기(하)〉를 재차 정리하여 정서한 것이다.

『상박 진사록』은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1592년과 1593년의 일기로 총 일수로는 544일의 기록이다. 이 가운데 날짜만 기록된 경우는 45일이다. 전체 분량은 72장 143면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상박 진사록』은 원본인 『보물 임란일기』 가운데 1592년, 1593년, 그리고 1597년의 부분을 재정리하여 정서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물로 지정된 <보물 진사록>의 원본자료가 일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박 진사록』의 1593년(계사) 부분의 복사본이 보물로 지정된 진귀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박 진사록』이 년·월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 이어 필사했던 관계로 계사년이 시작되는 면에는 ‘임진년 12월 24일 말미부분부터 29일’까지가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보물 임란일기(하)>의 해당 날짜의 기록과 중복된다. 아무튼 현재 보물로 지정된 『조정 임란기록 일괄』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상박 진사록』의 내용

1) 왜란 초기의 상주 상황

조정의 임란일기는 선조 25년(임진) 4월 14일로부터 시작한다. 조정은 왜적의 침략 소식을 관보官報를 통해 “왜선 수백 척이 부산·동래 앞바다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7일에 우병사右兵使 학봉 김성일이 본영인 진주로 달려가는 것을 길가에서 맞이하여 듣게 되었다.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1592년 4월 17일) 우병사의 행차가 길을 죽현竹峴으로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 나가 말머리에 선채 문안을 하니 우병사의 말이 ‘어제 저녁에 충주忠州에 있었는데 변란을 듣고 밤새 말을 달려 새벽에 상주尙州에 들어 왔소. 잠시도 쉬지 못하고 본영本營(진주晉州)으로 급히 부임하는 길인데 부산釜山·동래東萊·양산梁山 등의 모든 성이 벌써 함락되고 주장主將은 피살되었다 하오’ 라고 하였다. 나라가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갑자기 이런 변보를 들으니 마음과 담이 함께 무너져 어떻게 비유할 바를 모르겠다.”

이후 19일에는 동래가 함락되고 밀양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날부터 상주민들은 크게 동요되어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으며 민심은 크게 이반되기 시작했다.(4월 22일) 상주 목사 김해金澣, 함창군수 이국필李國弼, 솔영장 김준신金俊臣 등은 북상하는 적을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대구로 향했으나, 석전石田에서 도망쳐 오는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여 싸우지도 않고 흩어졌고, 방어사 조경趙敬 또한 상주 교외로 도망하고 말았다.(4월 20일 ~ 21일)

“(1592년 4월 23일) 구만촌九滿村에 머물러 있으면서 비로소 석전石田에서 아군이 패한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상대는 진짜 왜적이 아니고 곧 그 근처에 있던 피난민들로, 그들은 산골짜기에 모

여 있다가 아군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치닫고 왕래할 때에 아군 쪽에서 먼저 놀라 '왜적이 이곳에 잠복하여 우리 군대의 길을 끊으려 한다'고 말하자 삼시간에 헛소문이 퍼져 그것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마침 한 군졸이 피난민 하나의 목을 베어 들고 이르기를 '이것이 왜적의 나졸羅卒이다.'라고 외치자, 상주목사와 함창군수는 그 진위를 가리려고 하지도 않고 안으로는 마음이 겁에 질리고 밖으로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현혹되어 자기 한 몸만 이 위기에서 빠져 보려는 절실한 생각에서 군대를 버리고 지름길로 도망치는 꼴이 마치 제 무리를 버리고 험준한 곳으로 달아나는 노루와도 같았다. 군중에는 통제함이 없이 무질서하여 병기와 식량을 던져 버리고 일시에 무너져 흩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월 23일에는 순변사 이일李鎰이 함녕에서 상주성으로 들어왔으나, 4월 25일 상주성 밖에서 크게 패하여 이일도 전사하고 말았다. 상주를 점령한 적은 고니시[小西行長]의 부대로 이들의 대부분은 5월 1일 좌도의 수산守山에서 매호梅湖를 건너 북상한 부대와 당교唐橋에서 합세하여 조령을 넘어 충주에서 신립申禔의 군대를 패망시키고 북상하였다.(5월 4일)

서울을 점령한 적의 일부는 5월 말 이후에는 계속 남하하였고, 또 다른 적의 일부는 6월 10일 피산·보은 등지에서 상주로 들어와 죽현에서 상주에 이르는 도로상에 가옥假屋 100여 개소를 건설하였다.(6월 10일) 이들 왜적은 상주를 근거로 하여 주위 촌락뿐만 아니라 용궁龍宮(6월 28일), 가은加恩(6월 29일, 7월 3일), 화령化寧(7월 9일), 달전達田(7월 13일), 소야동·화녕현(7월 14일) 등 주위 군현에까지 진출하여 겁탈하고 있었다. 이리함에도 장수·방백·수령들은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도망하여 농민들의 원망과 규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방행정 또한 완전 공백상태가 되고 말았다.

한편, 상주성 주위의 백성은 일찍 산곡간에 피신하였으나 양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관곡官穀과 장리長利로 연명할 뿐이었고,(5월 5일, 15일 등) 읍성에서 먼 촌락 역시 왜적의 노략질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더욱이 하층민의 상당수는 왜적화倭賊化하여 주위를 횡행하고 있었다.(5월 23일, 6월 27일) 농민의 왜적화는 사족에게 더욱 큰 문제였다. 이러한 왜적화된 농민에 대한 방어의 필요에서 사족을 중심으로 촌병村兵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향소留鄉所 등지에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고하는 격문이 전해지기도 하였고(5월 13일), 또 의병의 창의를 논의되기도 하였으나(5월 1일), 아직 포수·약초꾼이나 각 개인 또는 촌락단위에서 자연발생적이고 개별적인 촌락 방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 질 뿐이었다. 촌락단위의 개별적 항쟁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도리어 왜적의 혹심한 보복을 당하기 일췌였고, 사족의 피해는 더욱 극심하였다.(6월 15일)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사족은 왜적에 대한 항쟁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가령, 전식全淸과 정범례鄭範禮 등이 외서 백야원外西 白也院을 중심으로 토왜討倭활동을 전개하여 크게 전과를 올리자, 상주성의 왜적은 근처를 급습하여 "불지르고 겁탈하고 살육"하여 모곡募谷에서 쌍교雙橋에 이르는 곳에서는 "머리를 거꾸로 매단 것의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혹심한 보복을

자행하였다. 이에 품관 변유경^{下有慶} 등은 이것이 정벌때 때문이라 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토왜활동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全湜, 〈隨手箚錄〉, 『사서집』 권 7) 이러한 사정에서 이제 사족은 왜적과 왜적화한 농민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창의군^{昌義軍}의 조직과 활동

상주지방 사족은 왜적과 왜적화한 농민들로부터의 자기 방어가 절실하였지만, 의병의 조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상주에서 의병이 조직된 것은 다른 지방에 비해 상당히 늦은 7월 말경이었다. 이것은 왜적의 침략과 계속적인 주둔으로 사족을 위시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산곡간에 피난하는 처지여서 의병조직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방세력의 독자적인 활동이 의외의 화를 자초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과 함께 지방수령의 적극적·소극적 방해가 사족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창의^{昌義}를 주저하게 하였다.

그러나 7월에 들어서면서 초유사 김성일의 거의격서^{學義檄書}가 전해지고,(7월 5일) 이어서 각지 의병의 활동,(7월 7일) 명군의 원병,(7월 20일) 수군의 승리(7월 27일) 등의 소식이 전해지고 의병의 궤기를 권하는 국왕의 교서가 전해지면서 상주지방 사족을 분발하게 하였다.(7월 30일) 이에 따라 7월 30일에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봉^{李逢}을 공수 17, 18인과 함께 맞이하여 오고, 상주의 사족과 공수가 여기에 호응함으로써 사족 40여 인과 공수 50여 명으로 구성된 창의군이 조직되게 되었다.(7월 26일, 30일)

창의군의 조직과 참가 인물은 주장^{主將} 이봉, 중위장 이천두^{李天斗}, 좌막 전식^{全湜}·송광국^{宋光國}·조광완^{趙光綏}·조정, 기록 채천서^{蔡天瑞}·홍경업^{洪慶業}·조정이었다. 조정은 좌막과 기록을 동시에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신문숙^{申文叔}, 신추백^{申樞伯}, 김경추^{金景樞}, 권종경^{權從卿}, 권여림^{權汝霖}, 이사확^{李士擴}, 이사회^{李士會} 등 함창과 상주의 상하인 다수가 적극 참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직으로 편제된 창의군은 다음날인 8월 1일에 황령사^{黃嶺寺}에 의병소를 설치하고, 곧바로 가은현리에 복병을 보내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8월 1일) 다음 날에는 “오해를 염려하여” 의병의 기병 사유를 함창군수에게 공문으로 보내 순찰사·초유사에게 전보토록 하였다.(8월 2일) 이후 창의군의 활동을 일기에서 한두 내용만을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1592년 8월 7일) 의병과 포적^{捕賊}에 관한 기별을 듣고 신문숙, 김경추, 정경입^{鄭景任}, 권종경 등과 더불어 급히 황령사^{黃嶺寺}로 달려갔다. 대장 이봉이 병사를 거느리고 송원현^{松院峴} 동구^{洞口}에 복병을 매설하고 있다가 왜적 여섯 놈을 만났는데, 이 때 사수들은 피 맺힌 분한을 품은 지 오래되어 일시에 화살을 날려 눈 깜짝 할 사이에 모두 잡아 목을 베고 놈들이 차고 있던 크고 작은 환도^{還刀} 여섯 자루와 화통, 철환, 화약 등 6종과 서간^{書簡} 이십 여 꾸러미를 노획하였다.”

“(1592년 9월 14일) 의병이 백야원^{白也院} 앞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왜적 8급을 참수하고 5명을 사살했다. 우리 군사도 조총 탄알을 맞고 1명이 죽고, 또 세 사람은 화살을 맞고 죽음에 이르

게 되었다고 하니 놀라움을 이길 수 없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주의병의 활동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관권官權과의 알력이었다. 임란 기간 지방 사족과 수령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다. 그것은 관군의 거듭되는 패전으로 인한 수령에 대한 불신(임진 6월 24일, 7월 4일, 5일 등) 때문만은 아니었다. 재지사족은 난 초기의 패전이 임란 전 수령의 탐학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조정에서는 패주한 이들 수령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의 탐학과 도망을 묵인하고 비호함으로써 더 더욱 민심을 이반시키고 있었다.(임진 5월 28일) 도망수령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의 미비는 관군의 재편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임란의 조기 수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한 기록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 6월 24일) 맑음. 듣자니 상주목사(김해金海)는 일찍이 속리산(俗離山)에 숨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병천사(屏川寺)로 옮겼다 한다. 그는 화령현(化寧縣)의 창곡(倉穀)을 임의로 끌어낸 일로 현리(縣吏) 한 사람을 참하였고, 본주(本州)의 이방(吏房)도 자기 뜻을 거역하고 현신(現身)하지 않는다 해서 형을 가하였으며, 또 담당 아전(諸吏)에게 명하여 군졸들을 거두어 모은다고 한다. 대개 이러한 행위는 지난날 서울에서 전해온 통문(通文)안에 ”서울에 있는 왜놈들 다수를 초멸하였고 서북지방의 장사들도 때마침 흩어진 왜적을 구축하며 추풍령을 넘어 경상도지경에 도착하리니 모든 고을은 각각 군민(軍民)을 취합하여 아군이 내려감을 기다리라“고 한 말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기가 돌아 그들을 지대(支待)하고자 하는 께에서였다. 또 아울러 전날 자신이 군대와 성을 버리고 국가의 은고(恩顧)를 배신하고 살아날 구명만 찾은 죄책을 모면코자 하는 짓으로 매우 가소로운 일이다. 그가 하는 짓으로 그 속셈을 헤아려 보면 당초에 놀래어 겁을 먹고 먼저 도망쳐 숨었으니 그가 변경(邊警)을 걱정한 것은 꼭 왜적과의 충돌만은 아니었다. 행여 국내의 폭도들이 이 틈을 타서 반역하는 경우 나아가 싸우다 가볍게 죽느니 보다는 몰려나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그래서 서서히 뒷날을 기다려 그때에 가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탈바꿈하고 꼬리칠 께를 생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상주 고을 가옥이 파괴되고 마을이 분탕질을 당하였지만 조금도 재난을 당한 백성들을 구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깃숙한 곳에 은밀하게 처박혀 있는 것만이 상책이라 여기고 사람을 만나면 꼭 고개를 숙이거나 외면을 하여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또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곳에 외부인사의 왕래를 금한 것은 오직 저들이 자신의 형적을 엿볼까 두려워서였다. 그러나 이제 와 보니 이 나라에 해를 끼치는 적은 과연 국내의 폭도가 아니며 또 서울에서 내려온 소식도 마침 저와 같은 지라 비로소 상주목사인척 하여 호령을 발하여 전일의 죄책을 엄폐하고자 하니 그 께가 비록 교활하기는 하나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야 그의 폐간(肺肝)을 보는듯하니 어찌 그 허물을 감출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방 백 리의 땅을 봉하여 수령을 삼았으니 그 봉강(封疆)을 지켜야 한다. 당초 성이 함락 될 때의 사세로 보면 무엇보다 먼저 급히 왜적의 수중에 떨어진 백성을 건졌어야 하거늘 어찌서 당시에 자기직분에 급급하여 국은에 보답하고 백성을 구제할 계략은 하지 않고 있다가 문득 수개월이 지난 뒤 그것

도 모든 성이 함몰되어 마침내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은 뒤에야 세자^{世子}의 통문에 의한 지휘로 비로소 몸을 바위틈에서 빠져나와 군사를 모아 적을 방어할 피를 하는가! 이것은 그의 정상이 스스로 탄로 난 것으로 그의 행적과 심사를 헤아려 볼 것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이 알만한 것이다. 오늘날 위기에 처하여 나라를 배신하는 자가 어찌 그 끝이 있으랴 만은 이 같은 무리는 비부^{鄙夫}로서도 특별히 심한 자이다. 조정이 이런 무리로 하여금 관^官을 맡게 하였으니 국가를 망치려 하지 않으려 해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슬프고도 슬픈 일이다.”

아무튼 재지사족에 의해 의병이 조직되자 패주한 주위의 관^官병이 의병진에 가담하였고, 이들을 포함한 의병진이 관^官군을 대신하여 활동하면서 의병진과 수령의 알력은 표면화하였다. 가령, 창의군에는 함창군인으로 가담한 자가 40여 명에 이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함창군수가 이를 허락하였으나 전공을 세우자 심한 반목상을 보이고 있었다. 함창군수 이국신은 의병의 군공을 자기의 공로로 감사에게 보고하거나, 사족가의 공시를 거두어들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궁장과 철장에게 의병의 병기를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병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의병진에서는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수령의 방해를 엄단할 것을 약속받았지만 수령의 방해는 여전하였다.(임진 8월 21일, 9월 12일)

상주와 함창 지역 수령들의 방해와는 달리 경상도 초유사와 감사로 활동하였던 김성일은 격서를 보내 의병의 창의를 독려하기도 하였고, 군량과 무기를 주선해서 지원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경세, 권종경, 신담^{申潭}을 상주, 함창, 문경 소모관으로 임명하여 관^官군이라도 모집하여 향^鄕병으로 삼아 의병대장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임진 7월 5일, 9월 1일 등) 상주·함창 수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상주의 의병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김성일의 지원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3) 〈보물 임란일기〉와 『상박 진사록』의 내용 비교

누차 언급하였듯이 『상박 진사록』의 원본은 보물 제1003호 지정된 〈보물 임란일기〉이다. 물론 그 원본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치되는 경우만으로도 그 상이 함의 정도를 확인 가능하다. 여기서의 전부가 아닌 한두 월·일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보물 임란일기(상)〉

“壬辰 四月 二十九日 晴。一行上下。並五十餘人。所在不靜。殊無深避之意。正字深有慍色。欲余分處。吾亦有此計久矣。只以出家已久。糧物全乏。蠢然諸雛。多室四五。所率奴婢。亦皆孱劣。俱不可以依倚行李。以此心懷尤惡。罔知所處。却悔當初輕作遠避之計矣。與其中路狼貝。僵死於窮谷之中。不若堅坐故里。效死於先廬側之爲愈也。食後。乃決各行之計。點檢行囊。餘糧僅支一炊矣。慈氏分惠五斗之米。此足以供十七人四三日之糧。仍率諸累。登山潛伏。山亦蘆谷之地。而洞府深密。谷谷分處。無異他山矣。帶行者自荆希以下。日基遠榮遠。日弘遠癸未。亭遠乙酉。女無儀丁亥。奴日凡介。日春卜。日得守癸酉。

日莫同乙亥。豆成庚辰。日命來癸未。婢日希德戊午。日別今。日水玉。日雲月。日今春七歲。希德又有乳下息。今十七八人矣。夕有雨微。慈氏下寓于村氓金得春家。吾則寓于瘵零音山家。正字亦別寓于他處矣。此谷所居。幾十餘家。而皆自他邑逃賊役而來者也。村俗淳率。接人甚款。鹽漿蔬菜。比比來餉矣。聞倭奴遍滿諸處。窮村僻居。無不掠抄。登山西望。則烟焰之漲。在在皆然。此乃倭寇焚蕩之火云。處子室女。率皆被拙。淫瀆之事。欲言則長。似聞峽山洪處人之女。亦被虜云。此女素有令譽。擇配有年而未諧。今遭此變。可惜可惜。洪處仁云者。性本愚駘。中年以後。得心恙發狂者頻。近來因避寇用慮。前恙復發。奔走道傍。被拘於巡邊使。推諛之際。妖言亂語。無所不發。至有招涉不道之語。巡邊使始覺其為狂病所使。乃於廿五之朝。行刑。其一家不幸之甚。可謂慘矣。昏下雨達曙不止”

“壬辰 五月 三日 晴。留主家。糧物覓得事 再送奴凡介連石莫同婢雲月于州內。丹密庶姨母及雲龍內外。聞我輩住此。亦來寓隣舍。聞說其在賊中艱苦之狀。不覺墮淚。流聞申稔令公。來主鳥嶺。設柵塞路。以為勦截之計。且設潛機於嶺路。使之陰中致斃云。報恩槐山等地。亦皆屯軍防禦。塞路阻當云云。

『상박 진사록』

“壬辰 四月 二十九日 晴。一行上下。並五十餘人。所在不靜。既無藏蹤之勢。(正字深有慍色。欲余分處。吾亦有此計久矣。只以出家已久) 糧物全乏。且無自活之策。蠢然諸稚。多室四五。手下蒼頭。亦皆孱劣。俱不可以倚倚方便。以此心懷尤惡。罔知所善護之術。却悔當初輕作遠遁之計矣。與其中路狠具。僵死於窮谷之中。不若堅坐故里。效死於先廬側之為愈也。食後。(乃決各行之計) 點檢行囊。餘糧僅支一炊矣。(慈氏分惠五斗之米。此足以供十七人四三日之糧) 奉率諸眷。登山潛伏。山亦蘆谷之地。而洞府深密。谷谷分處。無異他山矣。(帶行者自荆希以下。日基遠榮遠。日弘遠癸未。亭遠乙酉。女無儀丁亥。奴日凡介。日春卜。日得守癸酉。日莫同乙亥。豆成庚辰。日命來癸未。婢日希德戊午。日別今。日水玉。日雲月。日今春七歲。希德又有乳下息。今十七八人矣) 夕有雨微。慈氏下寓于村氓金得春(家。吾則寓于)瘵零音山等家。(正字亦別寓于他處矣) 此谷所居。幾十餘家。而皆自他邑逃賊役而來者也。村俗淳率。接人甚款。鹽漿蔬菜。比比來餉矣。聞倭奴遍滿諸處。窮村僻居。無不分抄。登山西望。則烟焰之漲。在在皆然。此乃倭寇焚蕩之火。而處子室女。率皆被拙。淫瀆云。亦可慘矣。欲言則長。(似聞峽山洪處人之女。亦被虜云。此女素有令譽。擇配有年而未諧。今遭此變。可惜可惜。洪處仁云者。性本愚駘。中年以後。得心恙發狂者頻。近來因避寇用慮。前恙復發。奔走道傍。被拘於巡邊使。推諛之際。妖言亂語。無所不發。至有招涉不道之語。巡邊使始覺其為狂病所使。乃於廿五之朝。行刑。其一家不幸之甚。可謂慘矣。昏下雨達曙不止”

“壬辰 五月 三日 晴。留蘆洞。(糧物覓得事) 又送奴凡介連石莫同婢雲月春梅末叱卜于州內。為覓糧物故也。(丹密庶姨母及)金雲龍內外。聞我輩住此。亦來寓隣舍->말미로 읍김.>聞說其在賊中艱苦之狀。不覺墮淚。流聞申稔令公。來主鳥嶺。設柵塞路。以為勦截之計。且設潛機於嶺路。使之陰中致斃云。報恩槐山等地。亦皆屯軍防禦。塞路阻當云云。金雲龍內外。聞我輩住此。亦來寓隣舍。

위 1592년 4월 29일과 5월 3일 두 사례만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크게 상이함을 볼 수 있다. 그 양상은 첫째, 상당수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첨가되었다. 삭제된 부분은 “不覺墮淚”, “(丹密庶姨母及)”와 같이 표시했다. 그리고 첨가된 내용은 “覓糧物故也”와 같이 표시했다. 둘째는 부분적으로 글자를 바꾸기도 했다. 예컨대 “留主家”를 “留蘆洞” 등이 그것이다. 셋째로는 어순을 바꾼 경우도 있다. “〈金雲龍內外聞我輩住此亦來寓隣舍〉말미로 옮김.”으로 표기된 경우가 그것이다. 물론 이 같은 차이는 날짜에 따라 다양하다. 이상의 경우로만 보더라도 두 자료의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침삭, 수정되거나 문장 구조를 달리하였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검토는 차후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상박 진사록』의 가치

『상박 진사록』은 조선시대 미증유의 대전란이었던 임진왜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한 임란일기이다. 일기자료는 그 기록된 내용의 풍부함에서 그것이 가지는 자료적인 가치가 높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큰 편차를 가진다. 그것은 기록자의 학문적인 수준과 안목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그 못지않게 그가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 학식이 풍부하면서도 견문이 넓은 경우와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록의 내용은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다. 또한 평범한 삶을 산 경우와 어려운 시대를 온몸을 던져 산 경우 또한 아주 다를 수밖에 없다.

임란일기는 아주 많다. 그러나 그것의 상당부분은 후대에 재정리되거나 심지어는 새로 기록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임란일기 자료는 더 엄중한 사료비판을 필요로 한다. 자료는 원형 그대로일 때 그 가치를 더한다.

『상박 진사록』 또한 원 자료는 아니다. 후대에 정리하고 정서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료로서의 큰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원 자료의 일부가 남아 있다. 즉, 현재 보물 제1003호로 지정된 『조정 임란관계 자료』가 그것이다. 원 자료가 있다면 『상박 진사록』은 자료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자료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 자료의 일부가 일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상박 진사록』의 기사년 일기는 현재로서는 원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자료에는 『상박 진사록』의 기사년 일기의 복사본이 〈진사록〉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복사본이 보물의 일부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 복사본의 원본이 다름 아닌 『상박 진사록』이다. 따라서 『상박 진사록』은 원본을 후대에 정리·정서한 것이지만, 원본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이것이 『상박 진사록』이 가지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의 하나이다.

『상박 진사록』이 가지는 또 다른 가치는 일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원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박 진사록』이 원본을 정리·정서한 것이라면 그 원본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현존하는

상당수의 임란일기 자료들은 후대에 정리·정서된 것들이다. 이들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 학술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따라서 『상박 진사록』과 보물로 지정된 그 원본을 일일이 대조해 본다면, 그 상이함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록 간접적이거나 원본과 후대의 정리·정서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점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보물 임란일기와 『상박 진사록』은 차후에 비교·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본화 작업도 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차제에 복사본의 보물지정 문제도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진영】

참고문헌

- 『趙靖先生文集 全』(李鉉淙 編譯, 1977)
- 『黔澗 趙靖先生 壬亂日記』(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1983)
- 정진영, 『임란 전후 상주지방 사족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 1987.
- 金時晷, 『김간 조정 선생의 생애와 사상』, 『동방한문학』 16, 1999.
- 金榮淑, 『黔澗 趙靖의 亂中詩와 憂國, 倡義精神』, 『동방한문학』 16, 1999.

만취선조예조일기

晚翠先祖禮曹日記



제목 표제: 晚翠先祖禮曹日記, 권수제: 丙申正月禮曹佐郎時
 저자 김개국 金蓋國(1548년~1603년)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596년(선조 29), 1598년(선조 31)
 형태사항 1책(4장) / 선장(5침) / 항자수부정 / 크기 25.6×28.5cm
 소장자 영주시(김항회 기증)
 보관장소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丙申正月十九日二月十五日
 戊戌正月廿九日

教中外大小臣僚耆老平民同長人等
 丙申正月十九日 禮部侍郎時
 十九日 丙申正月十九日 禮部侍郎時
 二十日 丙申正月二十日 禮部侍郎時
 二十一日 丙申正月二十一日 禮部侍郎時
 二十二日 丙申正月二十二日 禮部侍郎時
 二十三日 丙申正月二十三日 禮部侍郎時
 二十四日 丙申正月二十四日 禮部侍郎時
 二十五日 丙申正月二十五日 禮部侍郎時
 二十六日 丙申正月二十六日 禮部侍郎時
 二十七日 丙申正月二十七日 禮部侍郎時
 二十八日 丙申正月二十八日 禮部侍郎時
 二十九日 丙申正月二十九日 禮部侍郎時
 三十日 丙申正月三十日 禮部侍郎時

<p>八月 利根前月... 七二</p> <p>七月 天身... 七二</p> <p>六月 後... 七二</p> <p>戊戌年...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	--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p>十月 〇〇... 七二</p>
--	--

1. 개요

지금까지 확인된 만취당^{晩翠堂} 김개국의 일기는 모두 3종이 확인되며 현재 모두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첫째는 『만취선조예조일기^{晩翠先祖禮曹日記}』로 1596년 1월 19일~2월 16일까지 예조좌랑 재임 시의 기록과 1598년 6월 22일, 7월~11월의 충청도 도사 재임 시의 기록이 담겨 있다. 둘째는 『만취선조관동일록^{晩翠先祖關東日錄}』으로서 1596년 2월 28일~12월 29일까지와 1597년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의 일기이다. 이 기간은 김개국의 강원도 도사 재임 때이다. 셋째는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46호 『만취선조관동일기^{晩翠先祖關東日記}』(2003년 지정)로서 1596년 1월 19일~12월 29일, 1597년 1월 1일~2월 13일, 1598년 6월 22일, 7월~12월, 1599년 1월~2월의 일기이다. 이 중 첫째 둘째 일기는 친필본으로 보이며, 셋째 일기는 앞의 첫째 둘째의 일기를 시간 순서대로 재정리 한 것으로 앞쪽에 賦와 論 등의 글이 실려 있고 목판 판식에 필사된 것으로 보아 그의 사후에 문집발간을 위해 후대인이 필사한 것이다.

본 해제일기 『만취선조예조일기』는 위 첫 번째 일기로서 김개국이 예조좌랑 재임 때 선원전^{瀋源殿} 영정^{影幀} 봉안^{奉安}과 1598년 6월~7월 충청도 도사^{都事} 임무 수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저자의 생애

김개국의 자는 공제^{公濟}, 호는 만취당^{晩翠堂}, 양진재^{養眞齋} 또는 노봉정^{蘆峯亭}이고, 본관은 연안이다. 1548년 10월 26일 영천군^{榮川郡}(지금의 경북 영주^{榮州}) 두암리^{斗巖里}에서 태어났다.

고려 명종대 국자감 사문박사^{四門博士}를 지낸 김섬한^{金濕漢}이 시조이다. 5대를 내려와 나복산인^{羅菴山人} 김도^{金濤}와 그의 아들 일계^{逸溪} 김자지^{金自知}는 학행으로 이름을 떨쳤다. 김도는 명나라 제과에 4등으로 합격하여 명나라에서 사환하였으며, 고국으로 돌아오자 공민왕이 직접 '나복산인^{羅菴山人} 김도장원^{金濤長源}'이라는 여덟 자를 써주었다고 한다. 김자지는 목은, 포은, 삼봉이 모두 그의 재주를 몹시 아꼈다고 하며, 일계의 아들 구씨는 사육신의 참변을 겪고 영천 두암리로 입향하였다.² 그 아들인 충순위^{忠順衛} 세형^{世衡}이 김개국의 증조이며, 조부는 진용교위^{進勇校尉} 복흥^{復興}으로, 퇴계의 형인 온계 이해의 장인이다. 김개국의 부친인 몽득^{夢得}은 훈도^{訓導}를 지냈으며 호는 하암^{下巖}이었다. 모친은 공주 이씨로 진사 이극온^{李克溫}의 따님이다.

김개국은 성장하여 소고^{嘯皋} 박승임^{朴承任}과 삼송당^{三松堂} 남몽오^{南夢鰲}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1573년에 생원시^{生員試}, 1591년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

1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소장 『晩翠先祖禮曹日記』, 『晩翠先祖關東日記』, 『晩翠先生逸稿』 수록 「世譜」, 「家狀」, 「墓誌銘」, 「逸事搓錄」 등과 李旭, 2012년, 「의병장 金蓋國의 삶과 사상」(『동아인문학』 제 21집) 참고.

2 또 다른 설에 의하면 김구의 아들 김세형이 부친의 뜻을 받들어 영주 두암리로 입향하였다고 한다.(김혁, 「천리의 거울을 닦은 괴한가 사랑들」(소수서원박물관, 2007), 25쪽 ; 위 이옥 논문 158쪽 각주6)에서 재인용.

장으로 활약하였고³ 그 공적으로 1595년 예빈주부禮賓主簿에 특배되었다. 같은 해 7월 평안도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다시 5품으로 승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간원의 계청으로 철산군수에 임명되었다가, 며칠 뒤 다시 주서主書에 임명되었다. 이후 1696년 1월까지 형조·공조·예조의 낭관郎官을 돌아가면서 역임하였다.

1596년 2월 강원도 도사에 임명되어 당시 감사였던 한강 정구를 도와 업무를 잘 처리하였다. 감사가 약봉藥峯 서성徐滄으로 교체된 뒤에는 조세를 징수하는 일을 전임하였다. 1597년 봄 체임되었고, 가을에 함양군수에 임명되었으나 일본군이 함양군에 집결하고 있어 부임하지 못하였다. 1598년 6월 충청도 도사에 임명되어 명나라 원군을 지원하는 업무를 잘 처리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이듬해 봄에 임기 만료로 체임되었고, 그 이듬해인 1600년 조산대부朝散大夫에 올랐다.

1601년 정월 부친 봉양을 위해 옥천군수沃川郡守를 자원하여 두 달 동안 봉직하였다. 왜란의 뒷 수습을 잘하여 고을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그 해 3월 29일 부친상을 당해 집으로 돌아온 후 옥천 고을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웠다.

그러나 김개국은 부친상을 극진히 지낸 결과 건강을 해쳐 대상을 가까스로 마치고 옛집에 돌아온 후 담사禫祀도 마치지 못하고 1603년 4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였으며 11월 7일에 영주 동남쪽 천상川上의 선영先塋 아래 서향西向 둔덕에 장사지냈다.

1607년(선조 40)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었고, 중직대부中直大夫 사헌부집의겸 춘추관편수관司憲府執義兼春秋館編修官의 증직贈職이 내렸다. 1650년(효종 1)에는 효행이 있다는 향중의 추천을 받아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의 증직이 내렸다. 1654년(효종 6) 삼봉리사三峯里社(1657년 삼봉서원으로 승격)에 제향되었다.

3. 『만취선조예조일기』의 구성과 체제

이 일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 쪽에는 1596년 1월 19일부터 같은 해 2월 16일까지의 기록이 날짜별로 적혀있다. 이후 기록은 1598년 6월 22일, 7월, 8월, 9월, 10월, 11월의 내용이다. 표지에는 ‘만취선조예조일기晚翠先祖禮曹日記’라고 적혀 있고, 내용은 ‘병신정월에조좌랑시丙申正月禮曹佐郎時’와 라는 글귀로부터 시작된다.

표지 내면에는 ‘교중외대소신료기노군민한량인등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의 글이 적혀 있고 일기내용은 두 번째 면부터 시작된다. 맨 처음 시작하는 해와 달은 굵은 글씨로 적었으며, 날

3 임진년 6월까지 경상우도는 합천·초계·의령·거창·삼가·단성·진주·산음·안음·함양 등이, 경상좌도는 영덕·영해·청송·진보·안동·예안·봉화·영주·풍기·예천 등이 왜적의 침입을 직접 받지 않았다. 당시 경상 좌·우도의 초기 의병은 이러한 고을을 중심으로 봉기할 수 있었다.(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1995, 일조각, 461쪽)

짜는 일기 본문보다 한 칸 위로 올려 굵은 글씨로 적어서 구별하였다. 후대에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문(印文)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난초(亂草)로 구성되어 있다.

4. 『만취선조예조일기』의 내용

일기의 처음은 1596년 1월 예조좌랑 재임 때부터 시작된다. 첫 내용은 1월 19일에 아산(牙山)현감 안대진(安大進)이 선원전(瀋源殿)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한 것이다.⁴ 그리고 같은 해 마지막 내용은 2월 16일 강원도 도사로 제수된 것이다. 이어서 정유(丁酉)(1597년)년 한 해를 건너뛰고 무술(戊戌)(1598년)년 6월로 곧바로 이어진다. 이때는 김개국이 충청도사로 부임한 시기로 일기는 당시의 업무를 기록하고 있다.

1598년의 일기는 6월부터 시작되고 있다. 일기에는 “호남이 한 번 왜란을 겪고서 인심이 흩어졌다. 전주와 남원에는 바야흐로 천병(天兵)이 주둔하는 거진(巨鎭)이 있었는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도로에 즐비하였다. 경작할 때를 당하여서 농사도 못 짓고 피난가기 위해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서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손을 잡고 가는 상황이 눈에 가득하여 참담하였다. 머리에 이고 등에 진 짐을 자세히 보니 그저 찌그러진 광주리와 빈 상자뿐이었다. 장차 어디에 가서 밥을 지어 먹을지 알 수 없다.”⁵ 라고 목격한 사실을 적고 있다.

김개국은 당시 아군을 도와주러 온 명나라 군대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일기에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명나라 군대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둔전을 잘 경영하여 군량미를 확보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일체 하지 않고 수많은 병력과 물자를 운반하느라 인적/물적 낭비로 인하여 더욱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태를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김개국은 국가적이고 군사적인 행위들이 모두 백성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고 개탄하고 있다. 1598년 7월의 일기에는 “천병(天兵)이 충주·직산·공주 세 곳으로 나누어 내려왔다. 둔전(屯田)을 경작하니 추수가 끝나고 백성들의 힘이 조금 쉬는 때를 기다려 영남과 호남이 힘을 합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먹을 식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쉽게 남하하여, 겨우 남은 백성들이 군량미를 운반하느라 온 힘을 다 쓰게 하고, 소와 말이 모두 도로에서 죽고, 발이 부르튼고 어깨가 헐어 벌겍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지고 엎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면서도 능히 큰 일을 성사시켰다고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⁶ 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8월에는 “유제독(劉提督)이 지난 달에 만병(萬兵)을 거느리고 남하하였는데 지금 또 위로

4 1596년 1월 19일: “牙山縣監安大進, 瀋源殿影幀奉安”

5 1598년 6월: “湖南一經賊變, 人心渙散, 全州南原, 方有天兵巨鎭, 而流離之人, 連絡道路, 當此耕作之時, 負戴扶携, 滿目慘然, 詳視其所負戴, 則只是傾筐空石也, 不知將就食於何地邪.”

6 1598년 7월: “天兵分住於忠州稷山公州三處, 以爲屯田之計, 待秋成民力稍歇之時, 而合勢於兩南, 則可以收效於萬一, 而不顧糧餉之有無, 輕自南下, 使子遺之民, 盡力於轉運, 牛馬皆斃於道路, 肩輹足躄人多顛仆而死, 如此而能濟大事, 未之聞也.”

갔다 오래지 않아 또 다시 돌아오니 마부와 말이 견딜 수가 없다.⁷ 라고 기록하였다. 불필요한 군사행동으로 인해 백성과 국가의 인적·물적 낭비가 극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연재해도 백성들이 감당해야만 했다. 9월 16일의 일기에는 “우뢰와 비가 홍천 청양등지에 오는데 우박이 거의 새의 알과 같이 컸다. 추수한 곡식이 다 상해서 사람들이 빈 벼짚을 붙들고 도로를 가득 메우고서 하소연 하였다.”⁸ 라는 내용이 보인다. 전란 중으로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어려운 형편에서 자연재해까지 겹쳐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0월의 일기에는 당시 작전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자신이 지휘하는 임무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크게 세 곳에서 이루어진 작전과 각각의 성과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는 유제독이 약속을 어기고 수군을 참여시키지 못하여 작전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을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다. 김개국은 ‘배약背約의 죄가 유 제독을 죽이고서도 부족할 정도’라고 표현하였다.

일기의 기록에는 마麻제독이 경주로부터 병사를 진출시켜서 서생西生의 적을 포위하였고, 동董제독은 성주로부터 병사를 진출시켜서 사천의 적을 포위한 내용과 유劉제독은 순천으로부터 병사를 진출시켜서 예교曳橋의 적을 포위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또 9월 20일로부터 성을 포위하는 과정에서 유제독이 먼저 퇴병退兵하였는데 보졸步卒이 모두 죽고 군기와 식량은 모두 적의 소유가 되었다는 내용과 마 제독은 퇴병하였으나 적의 목을 벤 것이 매우 많았고 군졸들도 사상자가 없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제독이 약속을 배신하여 주사舟師를 병진竝進하지 않은 죄는 이루 주벌誅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다고 통탄한 내용으로 끝난다.

임진왜란 막바지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일기 내용도 보인다. 각각에 진을 치고 있던 왜적들이 이동하는 상황을 기록하였고, 특히 이순신에 관한 기록이 조금 보인다. 11월의 일기에 “서남쪽에 머물던 적이 일시에 달아났으며 서생포의 적은 먼저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통제사 이순신이 대첩에 이르지 않았는데 총탄에 맞아 누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5. 『만취선조예조일기』의 가치

본 해제 일기는 임진왜란 당시의 전황과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왜군과 명나라 군대의 활동과 군사작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군대가 어디에 얼마정도 주둔하고 어디로 이동하였으며 또 어느 통로를 따라 갔는지, 이동한 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는 등 전쟁사를 연구하는 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진법이라든가 활 쏘는 시험과 포 쏘는 시험 등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모습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7 1598년 8월: “劉提督前月率萬兵南下, 今又上去, 以迎候邢軍門也, 不久又將還下, 一路夫馬支持之勞, 不可形言.”

8 1598년 9월 16일: “雷雨洪州青陽等地, 雨雹如鳥卵, 秋穀盡傷, 人持空囊, 號訴盈路.”

대산 이상정은 김개국의 문집 『만취당일고^{晩翠堂逸稿}』 서문에서 그를 ‘능력도 있고 덕도 있어서 안팎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 ‘군자의 채용을 겸하여 갖추어 온전히 하였던 아름다운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극찬하였다. 그러면서도 “하늘이 이미 재주와 덕을 주었으면서도 유독 수복^{壽福}은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함양하여 천부적인 재능을 확충함으로써, 안으로 닦은 덕이 더욱 넓어지고 재주를 펼 기회가 더욱 넓어지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는 후학들로 하여금 매우 한탄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도다.”라며 한탄하였다.⁹

김개국의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는 현재 그가 남긴 일기는 임진왜란 시기에 의병장과 관원을 거치면서 전란 극복을 위해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 갔던 김개국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고 재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명은 임진왜란의 전개와 결과를 이해하는데도 또 하나의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김남중】

9 이욱, 2012년, 위 논문, 157쪽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 李旭, 2012년, 「의병장 金蓋國의 삶과 사상」, 동아인문학 제 21집.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해제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만취선조관동일록

晚翠先祖關東日錄

제목 표제: 晚翠先祖關東日錄, 권수제: 없음
저자 김개국 金蓋國(1548~1603)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596~1597년(선조 29~30)
형태사항 1책(44장 1면) / 선장(5침) /
사주무변, 무게 항자수부정, 무어미 / 30×22.9cm
소장자 영주시(김항희 기증)
보관장소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七日
 八日
 九日
 十日
 十一日
 十二日
 十三日

七日 在... 十日 在... 十一日 在... 十二日 在... 十三日 在...

十四日
 十五日
 十六日
 十七日
 十八日
 十九日
 二十日

十四日 在... 十五日 在... 十六日 在... 十七日 在... 十八日 在... 十九日 在... 二十日 在...

Handwritten Japanese text on two pages of aged paper. The right page contains a large section of text with a prominent heading '早稲' (early rice) and '早稲' (early rice) written vertically. The left page contains a large section of text with a prominent heading '早稲' (early rice) and '早稲' (early rice) written vertically. The text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likely a form of 'sōsho' or 'kyōka'.

Handwritten Japanese text on two pages of aged paper. The right page contains a large section of text with a prominent heading '早稲' (early rice) and '早稲' (early rice) written vertically. The left page contains a large section of text with a prominent heading '早稲' (early rice) and '早稲' (early rice) written vertically. The text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likely a form of 'sōsho' or 'kyōka'.

Handwritten Japanese text in two columns on aged paper. The right page contains a date '五日' (5th day) and a date '八日' (8th day). The text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typical of Edo-period documents.

Handwritten Japanese text in two columns on aged, damaged paper. The right page features a large character '百' (100) at the top. The text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with some ink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1. 개요

지금까지 확인된 만취당^{晩翠堂} 김개국의 일기는 모두 3종이 확인되며 현재 모두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첫째는 『만취선조예조일기^{晩翠先祖禮曹日記}』로 1596년 1월 19일~2월 16일까지 예조좌랑 재임 시의 기록과 1598년 6월 22일, 7월~11월의 충청도 도사 재임 시의 기록이 담겨 있다. 둘째는 『만취선조관동일록^{晩翠先祖關東日錄}』으로서 1596년 2월 28일~12월 29일까지와 1597년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의 일기이다. 이 기간은 김개국의 강원도 도사^{都事} 재임 때이다. 셋째는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46호 『만취선조관동일기^{晩翠先祖關東日記}』(2003년 지정)로서 1596년 1월 19일~12월 29일, 1597년 1월 1일~2월 13일, 1598년 6월 22일, 7월~12월, 1599년 1월~2월의 일기이다. 이 중 첫째 둘째 일기는 친필본으로 보이며, 셋째 일기는 앞의 첫째 둘째의 일기를 시간 순서대로 재정리 한 것으로 앞쪽에 부^賦와 논^論등의 글이 실려 있고 목판 판식에 필사된 것으로 보아 그의 사후에 문집발간을 위해 후대인이 필사한 것이다.

본 해제일기 『만취선조관동일록』는 위 두 번째 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개국이 강원도 도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자신의 관할 지역을 순행하면서 군적과 군기, 군량미 등 전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한 내용이다. 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2. 저자의 생애

김개국의 자는 공제^{公濟}, 호는 만취당^{晩翠堂}, 양진재^{養眞齋} 또는 노봉정^{蘆峯亭}이고, 본관은 연안이다. 1548년 10월 26일 영천군^{榮川郡}(지금의 경북 영주^{榮州}) 두암리^{斗巖里}에서 태어났다.

고려 명종대 국자감 사문박사^{四門博士}를 지낸 김섬한^{金濕漢}이 시조이다. 5대를 내려와 나복산인^{羅菑山人} 김도^{金濤}와 그의 아들 일계^{逸溪} 김자지^{金自知}는 학행으로 이름을 떨쳤다. 김도는 명나라 제과에 4등으로 합격하여 명나라에서 사환하였으며, 고국으로 돌아오자 공민왕이 직접 ‘나복산인^{羅菑山人} 김도장원^{金濤長源}’이라는 여덟 자를 써주었다고 한다. 김자지는 목은, 포은, 삼봉이 모두 그의 재주를 몹시 아꼈다고 하며, 일계의 아들 구^俱는 사육신의 참변을 겪고 영천 두암리로 입향하였다.² 그 아들인 충순위^{忠順衛} 세형^{世衡}이 김개국의 증조이며, 조부는 진용교위^{進勇校尉} 복흥^{復興}으로, 퇴계의 형인 온계 이해의 장인이다. 김개국의 부친인 몽득^{夢得}은 훈도^{訓導}를 지냈으며 호는 하암^{下巖}이었다. 모친은 공주 이씨로 진사 이극온^{李克溫}의 따님이다.

김개국은 성장하여 소고^{嘯臯} 박승임^{朴承任}과 삼송당^{三松堂} 남몽오^{南夢鰲}의 문하에서 학문을

1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소장 『晩翠先祖禮曹日記』, 『晩翠先祖關東日記』, 『晩翠先生逸稿』 수록 「世譜」, 「家狀」, 「墓碣銘」, 「逸事搓錄」 등과 李旭, 2012년, 『의병장 金蓋國의 삶과 사상』(『동아인문학』 제 21집) 참고.

2 또 다른 설에 의하면 김구의 아들 김세형이 부친의 뜻을 받들어 영주 두암리로 입향하였다고 한다.(김혁, 『천리의 거울을 닦은 괴한가 사람들』(소수서원박물관, 2007), 25쪽 ; 위 김옥 논문 158쪽 각주6)에서 재인용.

익혔다. 1573년에 생원시(生員試), 1591년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장으로 활약하였고³ 그 공적으로 1595년 예빈주부(禮賓主簿)에 특배되었다. 같은 해 7월 평안도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다시 5품으로 승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간원의 계청으로 철산군수에 임명되었다가, 며칠 뒤 다시 주서(主書)에 임명되었다. 이후 1696년 1월까지 형조·공조·예조의 낭관(郎官)을 돌아가면서 역임하였다.

1596년 2월 강원도 도사에 임명되어 당시 감사였던 한강 정구를 도와 업무를 잘 처리하였다. 감사가 약봉(藥峯) 서성(徐瀄)으로 교체된 뒤에는 조세를 징수하는 일을 전임하였다. 1597년 봄 체임되었고, 가을에 함양군수에 임명되었으나 일본군이 함양군에 집결하고 있어 부임하지 못하였다. 1598년 6월 충청도 도사에 임명되어 명나라 원군을 지원하는 업무를 잘 처리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이듬해 봄에 임기 만료로 체임되었고, 그 이듬해인 1600년 조산대부(朝散大夫)에 올랐다.

1601년 정월 부친 봉양을 위해 옥천군수(沃川郡守)를 자원하여 두 달 동안 봉직하였다. 왜란의 뒷 수습을 잘하여 고을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그 해 3월 29일 부친상을 당해 집으로 돌아온 후 옥천 고을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웠다.

그러나 김개국은 부친상을 극진히 지낸 결과 건강을 해쳐 대상을 가까스로 마치고 옛집에 돌아온 후 답사(禫祀)도 마치지 못하고 1603년 4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였으며 11월 7일에 영주 동남쪽 천상(川上)의 선영(先塋) 아래 서향(西向) 둔덕에 장사지냈다.

1607년(선조 40)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었고, 중직대부(中直大夫) 사헌부집의(諫官) 춘추관판수관(司憲府執義兼春秋館編修官)의 증직(贈職)이 내렸다. 1650년(효종 1)에는 효행이 있다는 향중의 추천을 받아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旨)겸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春秋館)의 증직(贈職)이 내렸다. 1654년(효종 6) 삼봉리사(三峯里社)(1657년 삼봉서원으로 승격)에 제향되었다.

3. 『만취선조관동일록』의 구성과 체제

이 일기는 1책으로 1596년 2월 28일부터 같은 해 12월 29일까지와 1597년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의 내용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간은 김개국의 강원도 도사 재임 기간이다. 표지에는 『만취선조관동일록(晩翠先祖關東日錄)』이라 되어 있으며, 권수제는 앞 부분이 훼손되어 알 수 없다. 일기는 1596년 2월 28일부터 시작되는데 『만취선생일고(晩翠先生逸稿)』권2 일기(日記) 「관동록(關

3 임진년 6월까지 경상우도는 합천·초계·의령·거창·삼가·단성·진주·산음·안음·함양 등이, 경상좌도는 영덕·영해·청송·진보·안동·예안·봉화·영주·풍기·예천 등이 왜적의 침입을 직접 받지 않았다. 당시 경상 좌·우도의 초기 의병은 이러한 고을을 중심으로 봉기할 수 있었다.(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1995, 일조각, 461쪽)

東錄]에는 2월 16일~18일, 25일의 일기 내용이 있다.⁴ 그러므로 본 해제 일기는 앞 부분이 낙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해제 일기에는 8월 28일 내용이 있으나, 『만취선생일고』에는 28일 내용이 없다. 문집 간행 과정에서 분량 조정 등의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일기는 총 44장 1면이며 전체적으로 난초亂草로 쓰여졌다. 현재 배접처리 되어 있는데 앞 6면은 찢겨진 부분이 있고 배접지에 보사補寫한 부분도 있다. 마지막 3면도 일부 훼손되어 내용을 알 수 없다. 그 외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다.

1596년 2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날짜와 날씨를 윗부분 여백에 큰 글씨로 쓰고 그 아래에 내용을 적었으나, 6월 3일부터 1597년 정유丁酉년 2월 8일 마지막 장까지는 날짜와 날씨를 일기 내용 중간에 이어서 적되 내용보다 조금 크고 진하게 적어 구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가 바뀌는 부분에서 ‘丁酉’자를 한 칸 올려 해를 구분하였다.

4. 『만취선조관동일록』의 내용

김개국은 1592년 5월 조정에서 파견한 경상도 안집사 김륵金玞에 의해 영주 지역 의병장으로 임명된 후 지리에 밝은 이점을 적극 활용한 유격전으로 죽령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군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⁵ 이러한 경험은 강원도 도사 임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도사 봉직기간에는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와 그에 따른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력하였다. 우선 군사 훈련 내용이 일기의 곳곳에 보인다. 강원감사였던 한강 정구와 함께 각 군을 순행하면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진법을 연습하고 포와 활을 쏘는 시험을 하는 등 전투기술을 익히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1596년 3월 7일부터 진법陣法을 연습한 기록이 자주 보인다. 3월 7일에도 진법을 연습했으며, 12일에는 냇가에서 진법을 연습했고, 3월 15일에는 군郡에 머무르면서 진법을 연습하고 포를 시험하였는데 솜씨가 매우 정밀하였다고 하였다.

같은 달 19일에는 군안軍案을 살펴보았는데 뒤죽박죽 섞여서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시 바르게 쓰게 하고 강릉 감영에 추가해서 올렸다. 23일에도 군안을 살펴보았으며, 4월 12일에도 군안을 비교한 기록이 이어진다. 4월 13일과 4월 30일에도 군안을 비교하고 바로잡는 내용이 보인다.

군안과 진법연습을 하는 한편 전투기술을 시험하는 내용도 보인다. 5월 1일에는 진법을 훈련하고 포를 시험하며 사살射殺 솜씨를 보았으며, 같은 달 3일에도 포 시험과 사살 솜씨를 보았는

4 『晩翠先生逸稿』권2 日記 關東錄 “丙申二月十六日 政除授江原道都事 夜與金都事悌男 金參奉德源 講同姓會 ○ 十七日肅拜謝恩 以未署經留邸 ○ 十八日 前都事來見 聞本道板蕩之狀 ○ 二十五日 陞辭發行”

5 김륵, 『백암선생문집』 부록 「연보」 二十年壬辰 五月 “啓褒列邑守令及義兵將守成討賊事 (중략) 榮川義將金蓋國 副將李興文 多方措置 遮絕賊路”; 李旭 위 논문 164쪽 각주 22) 재인용.

데 '한 사람도 적합한 자가 없었다. 이런 것들은 쓸데가 없을 것'이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진법과 전투기술을 시험하는 내용은 일기에 계속해서 나타난다. 5월 7일의 일기에도 진법을 연습하고 활쏘기를 시험했으며, 5월 11일에도 진법을 연습하였는데 수십 명이 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5월 17일에는 전교前郊에 가서 진법을 연습하고 돌아와서 사정射亭에서 재주를 시험했다. 같은 달 20일에 진법을 연습했으며, 21일에 군안을 비교하였고, 24일에는 진법을 연습하고 평강의 군안을 비교하여 보았다. 27일에도 진법을 연습하였는데 백 명이 되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6월 1일에도 소양昭陽강가에서 진법연습을 보았으며, 4일에는 낭천狼川의 군안을 비교하여 보았다. 7일에 진법 연습이 계속되고 12일에도 연습하였다. 21일에는 성을 순찰한 기록이 보이며, 25일에는 야외에 나가 진법을 연습하였다. 7월 16일에는 순찰하면서 금화에서 진법 연습하는 것을 보았다. 윤8월 1일에는 재주를 시험하였으며, 16일과 9월 2일에는 활쏘기를 시험하였다 9월 9일에는 군기와 군량을 점검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사상使相과 함께 활쏘기를 시험하였다.

이렇듯 김개국의 일기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강원도사로 제수된 이후 관할 지역을 순회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개국은 가는 곳마다 병사들의 훈련 상황을 체크할 뿐만 아니라 군안軍案을 비교 대조하였다. 병사들의 훈련상태와 병력의 현황, 물자와 식량 등 전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김개국은 전투에 필요한 군량미 확보에도 노력하였다. 장기전을 치루기 위해 필요한 둔전屯田 운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596년 2월 29일에는 원주에 머무르면서 저녁에 부리府吏를 불러다가 둔전屯田의 일을 물어보았다.⁶ 6월 1일에는 사창司倉에 들어가서 군량미를 점검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들도 많이 보인다. 피해복구와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져야 한다는 관료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1596년 3월 2일에는 태화역太和驛에 도착하였는데 역관驛館이 퇴폐하고 현장縣倉이 텅비어 있었다고 기록하였고, 초옥역草屋驛에서는 물과 밥으로만 끼니를 해결했다. 저물녘에 진부역에 도착하였는데 파괴된 것이 태화역太和驛과 다름이 없었다고 기록하였고, 5월 8일에는 조사제弔死祭를 행하고 흙곡관사歙谷官舍에 도착하여 파괴된 관사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5월 11일에는 회양부淮陽府중에 도착하였는데 모두 분탕되어서 참혹하기가 차마 볼 수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며, 진법을 연습하였는데 수십 명이 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기록하였다.

8월 20일에는 동산東山에 도착하여 능지陵址를 살펴보았는데 단지 돌덩이가 무너진 곳만 있었으며, 또 험한 재를 넘어가서 마동磨洞에 도착하였는데 또한 그러했다고 기록하면서 옛 자취가 어지럽게 희미해져서 상고할 수 없는 형편이라 기록하고 있다.

조정의 인사발령과 전쟁 상황 관련 등의 기록도 보인다. 7월 16일에는 토적이 충청도 홍산과 임천 등지에서 일어나서 다섯 군을 함락하여 경외京外가 놀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하였고, 17일에는 토적이 모두 이미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10월 11일에는 사상使相의 편지와 조보朝報를 보고서 사상使相(강원 관찰사 정구)이 체차遞差됨을 알고서 마음이 매우 서운했다고

6 1596년 2월 29일: "留原州, 夕招本府戶吏, 問屯田之事."

기록하였으며, 11월 14일에는 유지有旨가 내려왔는데 복병伏兵과 파절把截 등에 관한 일이었다고 적고 있다. 또 11월 28일에는 사상使相이 체직되고 신사新使 서성徐滄이 대신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기록하였으며, 1597년 1월 19일에는 청적淸賊(가등청정加藤淸正)이 이미 부산에 도착하였음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쟁의 시기이지만 일기에는 관리의 교체라든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각종 의식과 행사의 시행이 기록되어 있었다. 관료가 교체됨으로써 새로 부임하거나 진출하는 인물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3월 30일에는 알성講聖하였고, 같은 달 14일에는 아침 일찍 숙배 축향香祝하고 인하여 알성講聖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 4월 17일에는 사상使相에게 절하고 체찰사를 만나보았다는 내용이 있으며, 4월 21일에는 노산릉魯山陵을 지나면서 알講하였다고 기록한다. 5월 1일에는 사제死祭에 참가하여 조문하고 망궐례를 행한 기록이 있으며, 5월 15일에는 조사제를 행하였으며, 6월 1일에는 망궐례를 행하였다. 같은 달 4일에는 남청南廳에서 제사를 행하였고, 7월 2일에는 금응훈琴應樞이 환영하면서 술을 권하였는데 밤이 깊어서 동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6일에는 원천석의 묘소를 지나면서 제사지냈는데 묘가 치악산에 있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9월 21일에 연곡으로 갈려는 참에 사상使相이 연정蓮亭에 송별잔치를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그 모임은 7현인의 고사를 모방하였고, 칠현회七賢會는 서천군西川君이 이도의 방백으로 있을 때에 부사와 도사와 찰방, 노경복, 김덕장, 최운윤과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배경까지 자세하게 적고 있다. 이 모임을 사상使相이 뒤를 잇고자하여 이루고자 한 것인데 성대한 일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10월 11일에는 사상使相의 편지와 조보朝報를 보고서 사상使相이 체차遞差됨을 알고서 마음이 매우 서운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10월 14일에는 신사使行 행차가 대령大嶽을 경유하여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횡성을 향하여 말을 타고 달려간 내용이 이어진다. 24일에는 사상使相에게 들어가서 작별하였는데 사상使相이 술을 주면서 서로 이별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11월 1일에는 신사新使가 안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출발하고, 이후 신사新使를 가서 맞이한 내용이 보인다.

바쁜 업무 중에도 집안을 걱정하여 자주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자주 보인다. 5월 27일에는 가서家書를 보고 부모의 건강상태가 평안함을 알았다고 기록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집에서 온 편지를 보았다고 기록한다. 7월 27일에는 집안에 문안을 보냈으며, 11월 3일에는 본가에 사람을 보낸 기록이 보인다. 11월 12일에는 집에서 편지가 와서 평안함을 알았으며, 12월 20일에 집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고단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건강도 나빠졌다. 눈병이 나고 휴가를 얻어 집에 다녀오는 일도 기록되어 있다. 5월 12일에 눈병 때문에 조리를 해야 했으며, 6월 19일에는 말미를 받아 장차 떠나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11월 18일에는 말미를 올렸는데 허락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김개국이 관직에 재임했던 시기, 특히 지방관으로 봉직했던 기간은 2년 남짓에 불과하였지만,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찬사처럼, 목민관으로서의 ‘체용體用을 아울러 갖추어 온전히 하였던’ 인물로 평가되었다.

5. 『만취선조관동일록』의 가치

이 일기는 임진왜란 당시 강원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도사의 순행지역을 통하여 관할 구역과 범위를 짐작할 수 있고, 군적과 훈련하는 병사들에 대한 기록에서 행정구역의 크기와 당시의 인구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전란 중 강원도 지역의 피해상이 어떠했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진법^{陣法} 훈련과 활 쏘는 시험과 포 쏘는 시험 등은 전쟁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시 상황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김개국이 처리한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도사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책임 한계를 짐작해 볼 수도 있다.

김개국은 의병장으로서 또 전란 중 관료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인물이지만,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한 인물이다. 김개국의 관련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는 현재 그가 남긴 일기는 임진왜란 시기에 의병장과 관원을 거치면서 전란 극복을 위해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 갔던 김개국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고 재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명은 임진왜란의 전개와 결과를 이해하는데도 또 하나의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김남중】

참고문헌

- 李旭, 2012년, 「의병장 金蓋國의 삶과 사상」, 동아인문학 제 21집.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만취선조관동일록

晚翠先祖關東日錄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46호, 지정년도:2003년)

- 제목 표제: 없음, 내제: 嶺東日錄始於春官終於湖西佐幕
- 저자 김개국 金蓋國(1548 ~ 1603)
- 판사항 필사본
- 작성연대 1596~1599년(선조 29~32)
- 형태사항 1책(49장) / 선장(5침) / 사주쌍변, 유계,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 / 10항 자수부정 /
32.7×22.1cm(23.0×16.8cm)
- 소장자 영주시(괴현고택 기증)
- 보관장소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日也... 甲申七月初二日啟本
 一... 水...
 為... 一...
 和...
 樹...
 休...

九夫... 之... 全... 志... 不...
 上... 之... 王... 大...
 君... 抗... 外... 脫...

賦表受抄

洗金書帖紙

大門之令橋同壽之聲新地起屋其子仍其之文成
 洗金之書帖自是計於西軍程奇走步亦能前看家
 之以士持亦且打斜月懷南山之鶴隱其浮圖之龍得成
 何敢以叙之伴技意行知看卷幸涉打三辰應吉橋

病夫... 可... 今... 惟... 其... 唐... 十... 時... 實... 江...

代... 忘... 去... 十... 周... 七... 今... 五... 述...

運漸轉機創仗林
 于天地理皆奇同念今胡替日深別情深幾何志
 同行石道絕楓林
 游踪江閣漫浪空相送
 本破偷閑野竹林
 十宵士在道外本無抱野野深幾何時
 莫言身世何山林
 瘴疾王侯更誰守
 能銀翅：出山林
 志派胡詩去派於尋宜深幾何時

於唐活官月五林
 吟皇制仗竹野
 許宮無事今走竹年宮宮無事
 檢同銀米夫亦無事
 天介：相連至年
 歸計二首
 居情忽起千任竹
 情則不堪
 廷惟星：無使舊裝

又上吉以遊候時
 可引家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十一月
 十二月
 十一月
 十二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十一月
 十二月
 十一月
 十二月

皆是方叔之往說又何意得伸之不遂其人乎伏願
 殿下公為 殿下之問曰既未味其有六種然以此
 殿下之所以未為者而實之而稍未安其能也非其
 即若之於殿之四山始多至十分始能見焉 於此五處
 殿下第才之歐如清以職之一子以為第於殿之大職者其實
 世要之何事之出誤之要也故謂其能如世此則同而殿下
 賢如無此則則小人聞之而能為此殿於方寸之中而能此
 為其人其然則建國之所持者此至十九年身古者聖王之
 之上系據此不可化水以而 殿下自以自之能言如想之勿
 以殿下之德言而計之其在清地之至佳此上卷焉

山頭宋日錄林打會信於於國在位
 本月十九日山縣盛天進 橫濱殿對唯奉安上憲吹用
 生事可乎也日無事請上江流雲集之人喜妙於此屬山
 將使之再制賢誠以時代才行宜以為後意亦用人如符也為
 金之人謀謀其心而備不虞即此一日以文信以清日無金使清以
 清室不春誠道備於夕請及夜封山殿以不士改地日山東
 寺畫像也言平安道安州日愛國則上皇地日宮清德也
 於而不分其身其官而清德在德也乃後此若君之若不是
 首非也日備選日其津身守守守守守守守守守守守守
 關於南宮之仙來神也此水之也日其國也其起後事 佛子

郭公于丹谷三詩 詩友錄

楚有才子兮今伏寸草以生其生也其生也其生也
 猶於非不至非少知而不飲道以承人知可想其自
 之為而大有才氣其高其廣也其在文於我學
 我之何承此其清於南山其清其清也

1. 개요

지금까지 확인된 만취당^{晩翠堂} 김개국의 일기는 모두 3종이 확인되며 현재 모두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첫째는 『만취선조예조일기^{晩翠先祖禮曹日記}』로 1596년 1월 19일~2월 16일까지 예조좌랑 재임 시의 기록과 1598년 6월 22일, 7월~11월의 충청도 도사 재임 시의 기록이 담겨 있다. 둘째는 『만취선조관동일록^{晩翠先祖關東日錄}』으로서 1596년 2월 28일~12월 29일까지와 1597년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의 일기이다. 이 기간은 김개국의 강원도 도사 재임 때이다. 셋째는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46호 『만취선조관동일록^{晩翠先祖關東日錄}』(2003년 지정)로서 1596년 1월 19일~12월 29일, 1597년 1월 1일~2월 13일, 1598년 6월 22일, 7월~12월, 1599년 1월~2월의 일기이다. 이 중 첫째 둘째 일기는 친필본으로 보이며, 셋째 일기는 앞쪽에 부^賦와 논^論 등의 글이 실려 있고 목판 판식에 필사된 것으로 보아 그의 사후에 문집발간을 위해 후대인이 필사한 것이다.

본 해제일기 『만취선조관동일록』은 위 세 번째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46호로서 『만취선조예조일기^{晩翠先祖禮曹日記}』와 『만취선조관동일록^{晩翠先祖關東日錄}』의 내용이 시간 순으로 합쳐져 있다. 그리고 두 일기에 없는 시기의 내용도 있다. 본 해제 일기의 내용은 김개국 본인이 일기를 재정리 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그의 일기를 정리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필사 시기는 그의 사후임이 분명하다.

2. 저자의 생애¹

김개국의 자는 공제^{公濟}, 호는 만취당^{晩翠堂}, 양진재^{養眞齋} 또는 노봉정^{蘆峯亭}이고, 본관은 연안이다. 1548년 10월 26일 영천군^{榮川郡}(지금의 경북 영주^{榮州}) 두암리^{斗巖里}에서 태어났다.

고려 명종대 국자감 사문박사^{四門博士}를 지낸 김섬한^{金溫漢}이 시조이다. 5대를 내려와 나복산인^{羅菴山人} 김도^{金濤}와 그의 아들 일계^{逸溪} 김자지^{金自知}는 학행으로 이름을 떨쳤다. 김도는 명나라 제과에 4등으로 합격하여 명나라에서 사환하였으며, 고국으로 돌아오자 공민왕이 직접 '나복산인^{羅菴山人} 김도장원^{金濤長源}'이라는 여덟 자를 써주었다고 한다. 김자지는 목은, 포은, 삼봉이 모두 그의 재주를 몹시 아꼈다고 하며, 일계의 아들 구^俱는 사육신의 참변을 겪고 영천 두암리로 입향하였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김구의 아들 김세형이 부친의 뜻을 받들어 영주 두암리로 입향하였다고 한다.² 그 아들인 충순위^{忠順衛} 세형^{世衡}이 김개국의 증조이며, 조부는 진용교위^{進勇校尉} 복흥^{復興}으로, 퇴계의 형인 은계 이해의 장인이다. 김개국의 부친인 몽득^{夢得}은 훈도^{訓導}를 지냈으

1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소장 『晩翠先祖禮曹日記』, 『晩翠先祖關東日記』, 『晩翠先生逸稿』 수록 「世譜」, 「家狀」, 「墓碣銘」, 「逸事採錄」 등과 李旭, 2012년, 「의병장 金蓋國의 삶과 사상」(『동아인문학』 제 21집) 참고.

2 또 다른 설에 의하면 김구의 아들 김세형이 부친의 뜻을 받들어 영주 두암리로 입향하였다고 한다.(김혁, 「천리의 거울을 닦은 괴헌가 사람들」(소수서원박물관, 2007), 25쪽; 위 김욱 논문 158쪽 각주6)에서 재인용.

며 호는 하암下巖이었다. 모친은 공주 이씨로 진사 이극은李克溫의 따님이다.

김개국은 성장하여 소고嘯阜 박승임朴承任과 삼송당三松堂 남몽오南夢鰲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1573년에 생원시生員試, 1591년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장으로 활약하였고³ 그 공적으로 1595년 예빈주부禮賓主簿에 특배되었다. 같은 해 7월 평안도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다시 5품으로 승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간원의 계청으로 철산군수에 임명되었다가, 며칠 뒤 다시 주서主書에 임명되었다. 이후 1696년 1월까지 형조·공조·예조의 낭관郎官을 돌아가면서 역임하였다.

1596년 2월 강원도 도사에 임명되어 당시 감사였던 한강 정구를 도와 업무를 잘 처리하였다. 감사가 약봉藥峯 서성徐滄으로 교체된 뒤에는 조세를 징수하는 일을 전임하였다. 1597년 봄 체임되었고, 가을에 함양군수에 임명되었으나 일본군이 함양군에 집결하고 있어 부임하지 못하였다. 1598년 6월 충청도 도사에 임명되어 명나라 원군을 지원하는 업무를 잘 처리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이듬해 봄에 임기 만료로 체임되었고, 그 이듬해인 1600년 조산대부朝散大夫에 올랐다.

1601년 정월 부친 봉양을 위해 옥천군수沃川郡守를 자원하여 두 달 동안 봉직하였다. 왜란의 뒷 수습을 잘하여 고을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그 해 3월 29일 부친상을 당해 집으로 돌아온 후 옥천 고을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웠다.

그러나 김개국은 부친상을 극진히 지낸 결과 건강을 해쳐 대상을 가까스로 마치고 옛집에 돌아온 후 답사禫祀도 마치지 못하고 1603년 4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였으며 11월 7일에 영주 동남쪽 천상川上의 선영先塋 아래 서향西向 둔덕에 장사지냈다.

1607년(선조 40)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었고, 중직대부中直大夫 사헌부집의겸춘추관편수관司憲府執義兼春秋館編修官의 증직贈職이 내렸다. 1650년(효종 1)에는 효행이 있다는 향중의 추천을 받아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검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의 증직이 내렸다. 1654년(효종 6) 삼봉리사三峯里社(1657년 삼봉서원으로 승격)에 제향되었다.

3. 『만취선조관동일록』의 구성과 체제

본 해제 『만취선조관동일록』(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46호)는 총4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96년 1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29일까지의 기록과 다음해 1597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날짜별로 적혀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각각 한 차례의 기록으로 1598년 6월 22일, 7월,

3 임진년 6월까지 경상우도는 합천·초계·의령·거창·삼가·단성·진주·산음·안음·함양 등이, 경상좌도는 영덕·영해·청송·진보·안동·예안·봉화·영주·풍기·예천 등이 왜적의 침입을 직접 받지 않았다. 당시 경상 좌·우도의 초기 의병은 이러한 고을을 중심으로 봉기할 수 있었다.(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1995, 일조각, 461쪽)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99년 1월, 2월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일기의 앞쪽에는 문집을 작성하기 위해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부賦와 논論 등의 글이 실려 있다. 일기의 내용은 이 글 뒤에 15장 짜부터 시작되고 있다.

연도와 달은 광곽 밖에 적혀있는데 일기의 처음 부분에는 ‘병신정월丙申正月’로 표시되어 있다. 이후 일기의 날짜는 일기 본문과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적고 있으나 약간 굵게 표시하여 구분해 놓고 있다. 특히 광곽 밖에는 해당 달 뿐만 아니라 김개국이 이동했던 해당 지역까지 확인해서 표시해 놓고 있다. 이를 통해서 김개국이 구체적으로 해당 날짜에서 활동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이 표시되고 있는 곳으로는 2월의 원주를 시작으로 평창, 청심대, 강릉, 삼척, 울진, 평해, 간성, 고성, 금강산, 통천, 흡곡, 금성, 이천 등이다.

4. 『만취선조관동일록』의 내용

전쟁기간에 맡은 관직생활은 매우 힘들었다. 1596년 3월 3일의 기사에는 “오늘이 답청절踏靑節(삼짓날)인데 답청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답설踏雪의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벼슬살이의 쓴맛을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 더욱 경험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자신이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겪는 참상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을 고쳐하였다. 특히 농사철이 다가오면서도 불구하고 전란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보면서 깊어 가는 그의 고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었다.

“호남이 한 번 왜적의 변란을 겪고서 인심이 환산되었다. 전주 남원에 바야흐로 천병天兵의 거진巨鎭(절제사)의 진영陣營이 있었는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도로에 즐비하였다. 경작할 때에 머리에 이고 등에 짐을 지고 서로 서로 붙들고 손을 잡고 가는 피난민들의 상황이 눈에 가득하여 참담하였다. 머리에 이고 등에 진 짐을 자세히 보니 기울어진 상자에 텅 빈 섬이었다. 장차 어디에서 가서 밥을 먹을지 알 수 없다.”⁴

“회현檜峴을 넘어 안흥역安興驛을 지났는데 단지 쭉대밭의 아무것도 없는 빈터를 보았다. 운교역雲交驛에 도착하였는데 단지 두 셋의 덧집뿐이었다. 방림역芳林驛에 도착하니 평창平昌 수령이 나와서 기다렸다. 평창군의 피폐함을 심하게 말하였다. 늙은 몸으로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려는 책임이 마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듯하여 불쌍하였다.”⁵

임란 끝나가는 시점에서 전라도와 충청도의 전황과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보인다. 특히 유 제독이 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남하했다가 다시 올라갔

4 1598년 6월: “湖南一經賊變, 人心渙散, 全州南原, 方有天兵巨鎭, 而流離之人, 連絡道路, 當此耕作之時, 負載扶携, 滿目慘然, 詳視其所負載, 則只是傾筐空石也, 不知將就食於何地邪.”

5 1596년 3월 1일: “踰檜峴, 過安興驛, 但見蓬蒿沒墟, 且到雲交驛, 只有茅屋兩箇, 馳到芳林驛, 平昌倅出待, 昌倅極言其郡之殘弊, 見其爲人老拙.”

다가 또다시 서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청도에 끼친 물질적 피해와 이로 인한 농민들의 처참한 광경을 불만스러운 생각으로 적고 있다.

“천병이 충주 직산 공주 세 곳에 나누어 주둔하여 둔전의 계획으로 삼았다. 추수가 끝나고 백성들의 힘이 조금 쉬는 때를 기다려 양남兩南이 힘을 합치면 만에 하나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먹을 식량의 유무를 돌아보지 않고 가벼이 스스로 남하하여 겨우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운반하는데 온 힘을 다 사용하게 하고 소와 말이 모두 폐사하고 도로에 발이 부르뜨고 어깨가 혈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상황이 심각한데도 능히 큰 일을 성사시켰다고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⁶

“천조天朝의 장관將官이 서남쪽으로부터 모두 철회撤回하였고 일행의 마부와 말이 거의 삼백여에 이르렀다. 충청도의 일을 목도하니 참담하여 차마 보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저 남방은 어떻게 견디어 내겠는가? 간혹 접반사接伴使를 위하여 쇠마刷馬(지방에 배치했던 관청용 말)를 사용하는 것이 10번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니 무슨 물건을 실어야 할지 모르겠다. 인민의 생활이 이 때문에 거의 다했다.”⁷

1599년 2월의 기사에도 충청도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한 김개국의 마음 씀씀이가 잘 드러나 있다. 천장天將이 서쪽으로 내려갈 때 사용할 마부와 말을 조정 또한 충청도에서 뽑아 보내라고 명령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서 충청도의 백성이 장차 붙잡고 하소연 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동정하고 있다.

둔전 경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수취에서 빠져 있는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그는 충청도사 재직 시 명나라 군대에 군량미를 제공하는 부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할 수 있었다. 당시 명나라 군대는 일본군을 쫓아 해변까지 가서 그들에게 군량미를 공급하는 부담이 컸으나, 김개국은 밤낮으로 운송을 독찰하여 군량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충청감사가 병 때문에 모든 공무를 그에게 위임하였는데, 마침 명나라 군대가 서남지방으로부터 세 길로 나누어 철수하였다. 그런데 그 철수하는 노정이 모두 충청도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에 김개국은 동분 서주하면서 세 부대의 접대 등에 최선을 다해 조치하여 차질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의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⁸

일기에는 후반부에는 이순신의 전사 내용과 왜적들이 몰러가게 된 내용도 언급되고 있다. 1598년 10월의 기사에는 마麻제독이 경주로부터 병사를 진출시켜서 서생西生의 적을 포위한 내용과 동董제독은 성주로부터 병사를 진출시켜서 사천의 적을 포위한 내용이 보이며, 류劉제독은 순천으로부터 병사를 진출시켜서 예교曳橋의 적을 포위하여서 세 곳이 일시에 거행한 내용이 보

6 1598년 7월: “天兵分住於忠州稷山公州三處，以爲屯田之計，待秋成民力稍歇之時，而合勢於兩南，則可以收效於萬一，而不顧糧餉之有無，輕自南下，使子遺之民，盡力於轉運，牛馬皆斃於道路，肩輿足繭人多顛仆而死，如此而能濟大事，未之聞也。”

7 1599년 1월: “天朝將官，自西南盡爲撤回，而一行夫馬，幾至三百餘，目視忠清道之事，慘不忍見，況彼南方，何以堪過，或有爲接伴使者，用刷馬，多至十餘，不知載何物邪，人民之生，以此而盡矣。”

8 李旭, 2012년, 「의병장 金蓋國의 삶과 사상」, 동아인문학 제21집, 171쪽.

인다. 일기는 이어서 9월 20일로부터 성을 포위하였는데 동 제독이 먼저 퇴병하면서 보졸이 모두 죽고 군기와 식량은 모두 적의 소유가 되었으며, 마 제독은 퇴병하였으나 적의 목을 벤 것이 매우 많았고 군졸들도 사상자가 없었다고 기록하였다. 일기의 후반부에는 유 제독이 약속을 배신하여 주사舟師(수군)를 병진하지 않은 죄는 너무나 크다는 내용도 보인다.

1598년 11월의 일기에는 서남쪽의 둔거하는 적이 일시에 달아났고 서생포의 적은 먼저 갔다는 내용과 통제사 이순신이 대첩에 이르지 않았는데 총탄에 맞아 누웠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어서 하늘이 순리를 돕지 않아 이순신으로 하여금 한참 싸우는 도중에 죽게 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5. 『만취선조관동일록』의 가치

의병장으로서의 김개국의 활동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기록도 많지 않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활동에 대한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해제 일기는 크게는 임진왜란 중후반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고 작게는 김개국이 활동하였던 강원도와 충청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당시에 사용하였던 진법이라든가 활 쏘는 시험과 포 쏘는 시험 등 다양한 전투기술을 전쟁사의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개국의 관련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는 현재 그가 남긴 일기는 임진왜란 시기에 의병장과 관원을 거치면서 전란 극복을 위해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 갔던 김개국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고 재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명은 임진왜란의 전개와 결과를 이해하는데도 또 하나의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김남중】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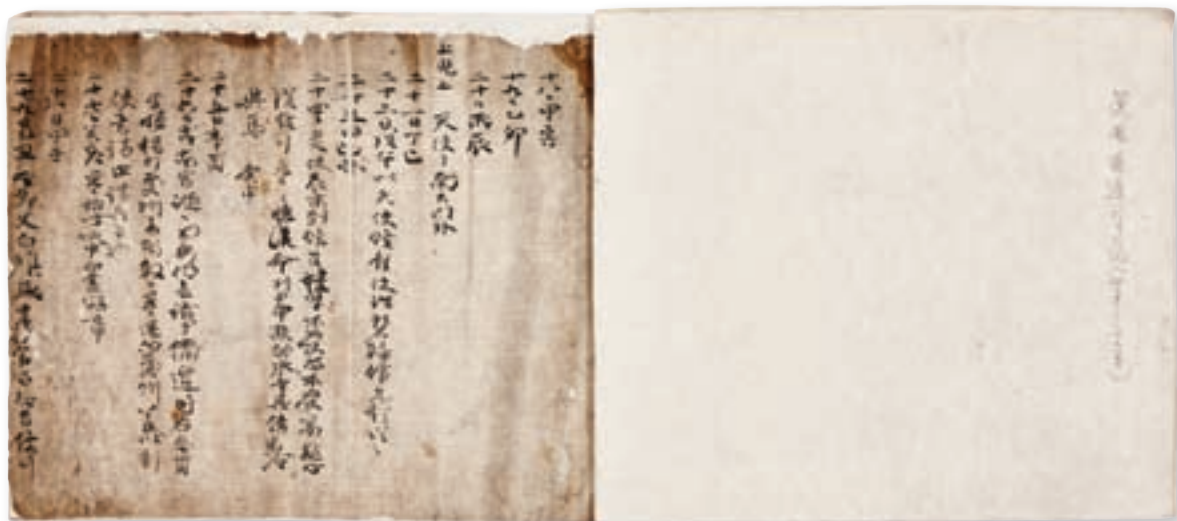
- 李旭, 2012년, 「의병장 金蓋國의 삶과 사상」, 동아인문학회 제 21집.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해제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정간공일기

貞簡公日記



제목 표제: 貞簡公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정탁 鄭琢(1526 ~ 1605)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596년(선조 29)
형태사항 1책(17장) / 선장(5침) / 항자수부정 / 24.2×30.4cm
소장자 청주정씨 고평종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西中七日 在... 領計卷... 黃... 糧... 廣政... 年... 申... 廣... 廣... 廣...

1. 개요

『정간공일기(貞簡公日記)』는 정탁(鄭琢)이 당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159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기록한 일기이다.

2. 저자의 생애¹⁾

정탁의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백곡(柏谷)이다. 현감 정원로(鄭元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생원 정교(鄭僑)이고, 아버지는 정이충(鄭以忠)이며, 어머니는 한종결(韓從傑)의 딸이다. 정탁은 이황(李滉)과 조식(曹植)의 문인이다.

1526년 10월 8일에 외가(外家)인 예천군(醴泉郡) 금당곡(金堂谷)에서 태어났다. 1534년 12월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1538년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과 금사사(金沙寺)에서 독서하였으며 1542년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하에 들어갔다. 1546년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1548년 가을에 거제반씨(巨濟潘氏) 충(沖)의 딸과 혼인하였다.

1552년 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1553년에는 소수서원(紹修書院)에서 독서하였다. 1558년 겨울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였다. 1560년에는 정자에 보임되고 같은 해 향실(香室)에 속직할 때 불사(佛事)에 향(香)을 올리라는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명을 거절하였다.

1561년에 성천(成川) 교수(教授), 진주(晉州) 교수(教授)가 되고, 1565년에는 전직, 정언이 되었으며, 1566년에는 예조 정랑이 되었다. 1567년 봄에 부수찬이 되고 이어 병조 좌랑, 예조 정랑, 헌납, 지평이 되었다. 같은 해에 수찬, 부교리, 교리가 되었다. 1568년에는 헌납, 지평, 병조 정랑이 되었다.

1571년 3월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장사에 참여하였으며 이황(李滉)의 사제문(賜祭文)을 지었다. 1572년에는 이조 좌랑이 되고, 1573년에는 이조 정랑, 사인, 장령, 사간, 집의가 되었다. 1574년 가을에는 부응교를 거쳐 동부승지가 되었다. 1575년에는 도승지 겸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이 되었다.

1577년에 대사성과 예조 참의가 되었고 같은 해 겨울에 강원도(江原道) 관찰사(觀察使)가 되었다. 1579에 다시 도승지가 되고, 1581년 4월에 대사헌이 되었다. 같은 해 이조 참판이 되었다가 윤의중(尹毅中)의 천거문제로 체직되었다. 1582년에는 한성(漢城) 판윤(判尹)이 되고 같은 해 겨울에 사신으로 중국에 갔다.

1583년 4월에 대사헌, 공조 판서가 되고, 1585년에 예조 판서, 대사헌, 이조 판서가 되었다. 1588년에 형조 판서가 되고 같은 해 10월에 이조 판서가 되었다. 1589년 9월에 병조 판서가 되고, 같은 해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국문에 참여하여 승정대부(承政大夫)에 올랐다. 같은 해 우의정의 가함(假銜)을 띠고 중국에 갔다.

¹⁾ 한국고전종합DB의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인물연표(人物年表)와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 해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590년 최영경崔永慶의 아우를 의망擬望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고 같은 해 예조 판서,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591년 7월에 우찬성 겸 지경연춘추관사가 되었다. 1592년 4월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어가御駕를 호종하여 서북으로 피난하였다. 같은 해 7월에 동궁東宮의 분조分朝를 따라가서 서무庶務를 재결하고 대조大朝와의 연락을 맡았다.

1595년 1월에 기축옥사己丑獄事의 억울함을 논하고 같은 해 2월에 우의정이 되었다. 같은 해 4월에 황정옥黃廷彧 부자父子의 옥사獄事를 다스렸다. 1596년 2월에 김덕령金德齡을 구하고, 일기가 작성된 시기에 포함되는 5월에는 중국사신의 전위사로 벽제관碧蹄館에 갔다. 같은 해 유성룡柳成龍의 방문을 받았다.

1597년 3월에 이순신李舜臣을 체포하여 국문하자 변호하는 차자를 올렸다. 1598년 12월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599년에 고향 예천醴泉으로 돌아왔다. 1600년 2월에 좌의정이 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에 머물렀다. 1602년에 권옥權旭과 「심경心經」을 강講하고 같은 해에 정유일鄭惟一의 제문을 지었으며 정곤수鄭崑壽의 부음을 듣는다.

1603년 6월에 영중추부사가 되자 치사致仕한다. 1604년 7월에 호종공신扈從功臣으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지고 같은 해 9월에 충훈부忠勳府에서 화공을 보내 화상畫像을 만들게 하였다. 1605년 9월 19일에 예천군醴泉郡 고평리高坪里에서 졸한다.

1606년 2월에 예천醴泉 남면南面 위라곡位羅谷에 장사 지내고, 1613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635년에는 ‘정간貞簡’의 시호가 내린다. 1700년에 예천醴泉 사림士林이 도정서원道正書院을 세워 제향하였으며, 1760년에 왕명에 의해 5대손 정옥鄭玉이 문집을 간행하고, 1818년에 후손 정광익鄭光翊, 정필규鄭必奎 등이 속집續集을 간행한다.

저서로 『약포집』·『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 등이 있다.

3. 『정간공일기』의 구성과 체제

일기의 내용은 모두 17장이며 뒤에는 부록으로 「추국청참감록推鞠廳參監錄」과 「추국청수종록推鞠廳隨從錄」, 「추국청병신추공사록推鞠廳丙申秋供事錄」, 시고詩稿, 전교傳教, 품첩稟帖, 장계狀啓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개정된 표지에는 ‘정간공일기貞簡公日記’라고 적혀있고 권수제는 별도로 없으며 곧바로 일기 내용이 적혀 있다. 날짜별로는 새로운 행을 시작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달이 바뀔 때는 해당 월을 한 행의 중간에 적기도 하고 날짜보다 한 칸 높여서 적어 구별하였다. 임금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 역시 한 칸 올려서 기록하고 있다.

일기는 1596년 4월 18일부터 시작되어 같은 해 12월 11일에 끝난다. 일기의 처음 이틀은 간지만 적혀있고, 내용은 20일에 임금이 천사天使를 남대문 밖에서 접견한 것부터 기록되어 있다. 일기의 마지막인 12월 11일은 대전大殿의 탄일에 문안하고 안송검安崇儉이 돌아온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날짜별로 간지는 꼭 적고 있으나 날씨는 적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같은 날짜에 일기의 내용이 길어져서 구별이 필요할 때는 권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글자가 틀렸을 때에는 수정하고 다시 쓴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일기의 행자(行字)는 일정하지 않다.

4. 『정간공일기』의 내용

이 일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4년이 지난 때의 기록이다. 일기의 주요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기의 첫 내용은 4월 22일에 천사전위사(天使錢慰使)로 벽제관(碧蹄館)에 갔으며 윤목(允穆)이라는 사람이 따라온 내용으로 시작한다. 같은 달 24일에 천사(天使)가 벽제관에 도착하고 예단(禮單)을 바쳤는데 받지 않았고 잔치도 받지 않고 점심을 먹은 후에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26일에는 동궁탄일(東宮誕日)에 문안하고 비변사에 갔는데 우참찬(右參贊) 이항복(李恒福)이 경주로부터 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7일에는 성안에서 처음으로 두견새가 대낮에 운 소리를 들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5월의 첫 날인 1일의 일기에는 군기시(軍器寺) 주부(主簿) 이대용(李大用)이 와서 만나보았고, 서에 유성룡(柳成龍)이 지나가다 들렀으며 대사헌(大司憲) 이개(李壘)도 내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일에는 경기감사(京畿監司) 류근(柳根)과 병조참판(兵曹參判) 한효순(韓孝純)이 내방하였으며, 3일에는 임금이 대신과 비변사, 유사(有司)등을 인견한 내용이 보이는데 조선왕조실록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원에 분부하였다. ‘내가 심한 감기가 들어 아직 낫지 않았으며, 오래 경연(經筵)을 열지 않으면 바깥 사람들이 의혹하게 될지도 모르고 논의할 일도 있으므로 내일 조강(朝講)을 하려 하였으나, 조강은 그만두고 오늘 비변사 유사 당상과 대신을 인견하겠다.【대신은 유성룡(柳成龍)·윤두수(尹斗壽)·김응남(金應南)·정탁(鄭琢)이고, 유사 당상은 윤선각(尹先覺)·노직(盧稷)이다.】”라고 임금이 대신들을 인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5월 7일에는 조강(朝講)에 입시한 인원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11일에는 왕이 침을 맞았는데 2품 이상 관원이 문안했다고 한다. 같은 날짜의 조선왕조실록에도 임금이 침을 맞은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약방 제조(藥房提調) 김응남(金應南), 부제조(副提調) 오억령(吳億齡), 의관(醫官) 양예수(楊禮守)·허준(許浚)·이공기(李公沂)·박춘무(朴春茂)·심발(沈發)·김영국(金榮國)이 입시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상의 증후를 자세히 알아야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왼쪽 귀가 심하게 울리고 들리지도 않으므로, 침을 맞지 않으면 낫지 않을 듯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하고, 또 이르기를, ‘전에 머리가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지난 가을에 침을 맞은 뒤부터 아픈 증세는 덜한 듯하나 귀울림은 여전하다.’하고, 또 이르기를, ‘왼손의 손등에 부기가 있는 듯하고 손가락을 당기면 아파서 침을 맞으려 한다. 왼쪽

2 『선조실록』 75권, 29년 5월 3일 2번째기사: “上敎政院曰: ‘予重得感寒, 時未差復, 而若久不經筵, 則慮或外人致疑, 且有論議之事, 茲以欲於明日朝講矣, 朝講則勿爲, 今日, 備邊司有司堂上及大臣引見.【大臣, 柳成龍, 尹斗壽, 金應南, 鄭琢, 有司堂上, 尹先覺, 盧稷.】’”

무릎도 시고 아파서 잘 걷지 못하므로 침을 맞아 맥을 트려고 한다.’하였다.³라는 기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병의 증상과 침을 맞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6일에는 청적靑賊이 철병한 문서가 도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실록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는 “임금이 수교手敎로써 황신에게 하유하기를, ‘네가 이달 10일에 작성한 서장에, 청적靑賊이 이미 이달에 도해渡海했다고 하였는데, 웅거하던 적이 하루아침에 까닭 없이 급하게 철수할리는 만무하다.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장차 다시 공격하려고 청적을 불러들여 함께 피하는 것이 아닌지, 네가 상세하게 탐지하여 그 정상을 꼭 알아내어 치계馳啓해야 한다. 또 네가 나라의 일 때문에 적의 소굴에 오래 머물러 있어 고난이 견줄 데 없으니, 내가 염려하여 마지않는다.’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6월 1일에는 비변사에서 모인 기록이 보이고, 이어서 4일과 5일에도 비변사에서 회의한 기록이 보인다. 6월 8일에는 임금이 섭유격葉遊擊을 남별궁南別宮에서 접견하였는데, 같은 날짜의 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보인다. “임금이 남별궁南別宮에 거둥하여 섭유격葉遊擊을 접견하였다. 섭 유격이 말하기를, ‘먼저 와 주시니 현왕賢王께 매우 감사합니다.’하자, 상이 말하기를, ‘일로一路의 지방이 잔과殘破하여 대인大人이 나올 때에 지대支待하는 일에 삼가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으니, 매우 황공합니다.’하니, 섭 유격이 말하기를, ‘손노야孫老爺가 보냈으므로 왔는데 현왕의 분부가 계시니 매우 감사합니다.’하였다.”⁵

6월 19일 오후에는 임금이 대신과 당상 등의 관료들을 인견한 내용이 보인다. 일기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실록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된 부분만 옮겨보면, “임금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변사備邊司의 당상堂上 및 삼사三司를 인견引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 사신이 도해渡海한다는 말은 무엇 때문인가?’ 영돈녕領敦寧 이산해李山海가 아뢰기를, ‘근래 병이 심하여 비변사의 좌기坐起에 참여하지 못 했으므로 왜적의 곡절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나, 오종도吳宗道의 글에는 아직 도해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갑자기 들어간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유성룡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관백關白은 교화를 받지 못하여 매우 사납고 패역한 자이므로 협박하는 명령이 폭풍이나 열화烈火와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 사신은 그의 형편이 항거할 수 없음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⁶라고 말한 내용이 보인다.

3 『선조실록』 75권, 29년 5월 11일(정축) 2번째기사: “上御別殿, 受鍼, 王世子入侍, 藥房都提調金應南·副提調吳億齡·醫官楊禮守·許浚·李公沂·朴春茂·沈發·金榮國入侍, 應南曰: ‘必詳知自上證候, 然後可以進鍼.’ 上曰: ‘左耳甚鳴, 且不聽知, 若不鍼則不瘳, 故如是爲之耳.’ 上曰: ‘前此頭痛, 無日不痛, 自前秋受鍼之後, 痛勢似歇, 而耳鳴則如前矣.’ 上曰: ‘左手背上, 似有浮氣, 乎指牽引作痛, 欲受鍼矣, 左膝亦酸痛, 不利行步, 亦欲鍼達之.’”

4 『선조실록』 75권, 29년 5월 16일(임오) 2번째기사: “上手敎下諭于黃慎曰: ‘見爾本月初十日成(帖)書狀, 淸賊已於本月渡海云, 雄據之賊, 一朝無端急撤, 萬無是理, 得非秀吉將欲更肆, 召淸賊入來, 與之謀耶, 爾須十分詳探, 期得其情馳啓, 且爾爲國事, 久留賊窟, 艱苦無比, 予念之不置.’”

5 『선조실록』 76권, 29년 6월 8일(갑진) 2번째기사: “上幸南別宮, 接見葉【鑾】遊擊【孫軍門差官】遊擊曰: ‘先屈賢王多謝.’ 上曰: ‘一路地方殘破, 大人出來時, 支待之事, 多有不謹, 惶恐惶恐.’ 遊擊曰: ‘孫老爺【鑾】送之故來, 而致有賢王之教, 多謝.’”

6 『선조실록』 76권, 29년 6월 19일(을묘) 5번째기사: “上御別殿, 引見大臣·備邊司堂上及三司, 上曰: ‘楊天使渡海之說, 何故耶.’ 領敦寧李山海曰: ‘近來病甚, 不參於備邊司坐起, 倭賊曲折, 絕不聞知, 而吳宗道書中, 時無渡海之說, 而何如是遽爾入去云耶.’”, 領議政柳成龍曰: ‘關白, 化外桀逆之甚者, 脅迫之令, 如暴風烈火, 故如是也, 楊天使知其勢, 不可抗而去也.’”

7월 12일에는 호서의 죄인 한현(韓絢)의 일로 추국청(推鞠廳)에 나아갔고 친국(親鞠)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 7월 말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추국청에 나간 일을 기록해 놓았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8월 2일에는 사직의 큰 제사 때문에 국문(鞠問)을 정지했다가 밤에 친국했다고 한다. 추국청에 나간 일은 다시 5일부터 이어지고 8일에는 죄인 최담령(崔聃齡)을 잡아와서 친국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는 “임금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죄인을 친국(親鞠)했다. 최담령(崔聃齡)은 나이 33세였다. 추국하기를, ‘김덕령(金德齡)의 심복으로서 호서(湖西)의 흉악한 역적들과 결탁하여 함께 반역을 모의(謀議)하고 오가며 약조를 맺고서 번갈아 기세를 조성하여 몰래 불궤(不軌)를 도모한 실상이 여러 역적들의 공초에서 드러났다. 역적 도모를 한 절차를 하나하나 바른대로 진술하라.’”⁷⁾라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2월 8일에는 급한 변보(邊報)를 들었는데 황신(黃愼)의 장계(狀啓)가 왔고, 다음날 9일에 여러 대신들이 소대(召對)했다. 일기의 마지막인 11일은 대전(大殿)의 탄일(誕日)에 문안하고 안송검(安崇儉)이 돌아온 것으로 끝나고 있다.

5. 『정간공일기』의 가치

추국청(推鞠廳)에서 이루어지는 국문(鞠問)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부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추국에 관련된 인원들의 명단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를 추측할 수 있으며, 일기에 나타난 일정을 통하여 국문이 어느 정도 기간으로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조정에서 근무하는 관원이 기록한 일기와 관찬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상호 대조하여 비교해 보면서 같은 사건에 대해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보충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김남중】

7 『선조실록』 78권, 29년 8월 8일(계묘) 1번째기사: “上御別殿, 親鞠罪人, 崔聃齡年三十三, 推曰: ‘以金德齡腹心之人, 締結湖西兇賊, 相通謀議, 往來結約, 迭爲形勢, 潛圖不軌之狀, 現出於諸賊之招, 逆謀節次, 一一直招.’”

참고문헌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인물연표(人物年表)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해제
- 조선왕조실록

모당일기

慕堂日記



제목 표제: 慕堂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손처눌 孫處訥(1553~1634)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600~1630년(선조 33~인조 8)
 형태사항 6책(462장) / 선장(5침) / 상하쌍변, 좌우단변,
 유계, 무어미 / 10항 자수부정 / 30×20cm
 소장자 일직손씨 대구종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五日謁先祠荅行甫書在堂

六日謁先祠諒春秋夕後見可和借朱書十張書次

七日大風寒謁先祠在堂院人來不可風諱春秋氣怒

八日寒謁先祠向研經過見益甫雖不出門氣則尚完

進家鹿烹炙肉及三盞露可以禦寒療飢夕到院擇仲

病未入來可恨

九日兩院戲皆來見行甫荅書又書行甫議奉安時節

日而來過話問廷老別榮洞負皆來見人皆苦時政作

贈作飲勤以清酒過客之過福過堂汝蓋江鮮尺許見貽

可喜至日節祀之薦矣東月還堂

十日謁先祠行節祀儀先欲薦時事而物不能具

十一日謁先祠市得一疋饋在堂致齊

十二日謁先祠在堂致齊夜分陳設

十三日鷄三鳴始行薦事虞約及深李應棋楊四知助事

朝後二水孫吉甫自伊川宿可和家歸駮過聞訪行甫奇

在堂致齊

十四日行外祖忌事謁先祠任院武傳乘行甫荅書皆文

已草云先生觀矣門人讓於行甫何意行甫亦不固辭於

先生亦何意也夕洒雪風起朝始在氣彌留遲緩午始苦

鷄曉向歌頭痛兼作

豫金善慶在夜小亭

十九日温希魯未見謁 先祠痰喘更作

二十日謁先祠氣怒 二十日氣怒 二十二日氣怒

二十三寸氣向蘇 二十四日氣怒

二十五日氣怒伐銀杏一枝於全地地為重 二十六日氣怒

二十七日氣怒鄭嗣明鄭觀水川楊泗來

二十八日氣怒送楊景泗金善慶問飯先生魚里威時未餅在

二更泗及善慶運報先生平否拜先生復書又得李愈知

有慶古煉錫門人許出入鄭公信來見去 二十九日氣怒見呂仲

其書兼荷感賞 三十日氣怒有相成一首立香一律

丁巳
庚申

慕堂日記

丁巳年正月

一日晨謁 先祠行祭終日待客

二日謁 先祠終日待客將夕崔廉侯妻來見訪宿諸阻嫌

稍路送金善慶問飯先生

三日夜大風寒謁 先祠廉侯近梁山兼行錢林石別或

有客來 四日謁 先祠或有客來添兒入山請書

五日謁 先祠寄書蟹山伴希魯浮板時而雲門

六日謁 先祠鄭好仁來謀七日大雪謁 先祠

八日大晴謁 先祠朝李可和來話鄭 仁向泗濱

一日寒謁先祠行朝暮二日謁先祠蒼汝幹率其子之海
 來宿鄧寧甫為龜山做將碧魚寄未鍾漢官有國恩也
 三日謁先祠致齋鄧復立未見受言都事從叔及希魯皆以
 疾未入寮可恨初夜李耀履始未與而後以盤山朴廷奎其
 子請教以齋不見四日謁先祠行曾王母忌事祭罷見朴
 公寄書鄧好仁即奉故袁高裡未見五日謁先祠夕楊景四
 未宿六日夕復謁先祠李士緯未見七日謁先祠夕學可未
 柳梓夫茶吉仲皆有約而未希魯夜八夜梓夫行酒夜分罷
 八日謁先祠朝學可行酒奇甚甚傷徐送文上舍為
 請方伯故也縣內二三負亦來醉罷吉仲先啟

九日謁先祠朝戲學可清道全上舍一之致三亦自何方主
 醉倒客去不知十日謁先祠十一日謁先祠十二日謁先祠
 十三日謁先祠楊姓家迎李即道致齊希魯事
 十四日謁先祠行王母忌事十五日謁先祠行望祭
 十六日謁先祠十七日謁先祠十八日復寒謁先祠十九日寒
 大雪謁先祠二十日謁先祠二十一日謁先祠習禮夢不吉出
 寓乾方云今夕出寓小川二十五日在小川希魯未見學徒分
 番來學二十三日復在小川三十四日復晴寒在小川李應拱
 徐震龍及溫未見二十五日在小川二十六日在小川朝村老持酒
 來饋二十八日在小川李松齡等三人故村人持酒來饋哀

慕堂日記

慕堂日記
 辛酉正月
 一日在小川客來希魯自洞行朝暮而來見
 二日陰夜雪在小川客來希魯書李謹思李茂倫
 三日在小川客來四日在小川夕得謹思茂倫蒼書
 五日在小川請禮客來六日小川在客來請禮
 七日在小川聞營風失火無事被刑書于金晦仲
 八日在小川請禮客來九日在小川請禮客來
 十日在小川請禮金晦仲未見希魯未見李謹思李松
 齡等客來

墓堂日記

庚子正月

八日清暖多新春意思在昌山古基有枯銀杏命伐之可材也
 修寺置在判官仲父飲在康侯酒亭德鵬負笑來通書且詩書
 又多傳集借教卷積乾卦闕名臣錄
 九日寒午風全寂動來訪酒三巡村敬甫楊元之健至更酌移時
 姑管飲飲動別業乘舟夕久兼有酒
 十日風早朝尚建觀來見朝淡向來陽路上日候甚緊將昏入姑
 母家姑母及家姑母夫老甚感淚自流
 十一日寒窗全君補通書來見閣武陵集其人可尚
 十二日晴留朝淡往拜昌山大人酒三巡君輔乘月來話夜分

辛丑正月

一日小雪是日難鳴揚 聖平明肥未春謁 先祠朝淡
 送向城中約在迎使謁城王品官儒生皆未會設小酌與柳
 歌會向山陽拜祭念和文淵人嘗會于向解趨謁郭郭並
 有老先難鳳拜洪念知文哭柳念知歐文表次飯會家田見
 柳裏幸再東見夕曾言還同
 二日大風寒感冒呻吟李敬德未拜
 三日東風晚朝語希無家酒二迎與希魯原徒叔○○○○
 遊已決見楊嘉言話白酒謁全和瑞內初時初還存基謁目
 此二無非感德日暮入山金和瑞啟
 四日晴寒在山洞內四五人未見晚訪在康侯時時酒話
 五日小温在山語遊君保
 六日温晴在山在康侯未語飲村人酒有人自京來言徑引之
 夜失火燒屋屋柱僅免云時中戲述談遊君保
 七日温晴向河莫小野火自東連起 泰山與陽老才僧人舍故未
 或然烟風自南倚入其於勝前縣縣撲滅是知去堂其去根一
 遊者亦去後汝後作可不而於
 八日朝雨晴晴春東輝夕入度城與梅友五六人同席
 九日大風寒晚朝轉楊城主駱訪慈換仲油話時時入拜城主適
 張王張大難以漢鈞作自帶未看同成道城長小亭

慕堂日記

慕堂日記

甲寅正月

一日大風寒燈暫向蘇主緒行朔參

二日大風寒 三日大風寒

六日自元朝至此時而待客

七日自此啞而待客不出房外

十日遣楊四喻賀狀 先生及行甫兄

十一日行甫晚間呻吟之苦

歲月始還扒先生復仗亦荷樂兄答書

十三日晚始大雪晚朝晴大風 十四日寒

空委效慰答還四喻

十二月

一日寒卧呻吟痰喘內外俱病未得朝發楊泗來

二日卧呻

三日卧呻楊泗出齋上舍家明日曾王母忌事不得行

于此處約行之 四日甚寒卧呻 五日寒

六日寒送深兒于玉山外舅氏嫂氏果一箇酒一盞東西一東

七日寒氣向蘇痰喘未止 八日臣仲翼來見去

九日濕始勝運來傳嫂氏平安之奇

十日畢納運上及極粗米太見楊泗書楊九之瘰癧汗云

楊冬蘭來

十一日深為親設青鶴病不以風人事已矣

十二日始梳頭有人事語科舉之不公金山寺三省出身能文

者欲觀重試入洛見知舊高官人曰何所聞而未敢觀

重試人笑曰渠知已出榜而未邪言未前已否亦云爾也

十三日希普八齋楊泗鄭行仁來行仁自京八日始來三月

姑母主言見寧用古

十四日大寒日氣甚和鄭行仁歸

十五日謁 先桐氣未全蘇季可和未見多深具酒肴未餉

十六日謁 先桐伐水 十七日謁 先桐酌水八十丈

十八日謁 先桐鄭嗣明兄弟呂過由兄弟楊冬蘭徐知

十日某甚不調夕嘗蘇深見李禮羅疏及負舟未會崔安
 立未拜即去
 十一日雨餘夜氣不調全行違始夫士百兩有時驟雨大雨臨先祠
 十五日謁先祠讀心經十四日晴謁先祠讀心經
 過金唐侯士春在山雀唐侯未讀讀心經七日狂讀心經
 大雨登諸心十九日終雨大水朝後還堂謁先祠
 二十日雨謁先祠讀心經二十日晴謁先祠讀心經
 二十一日謁先祠讀心經二十三日謁先祠讀心經齊前尊場
 二十四日謁先祠讀心經齊前尊場二十五日謁先祠讀心經

此下五月記詳次卷

慕堂日記

二十日謁先祠讀心經亦可把書歸通判出矣
 二十一日謁先祠午向府通判通判帶多肥所經地多為水收
 依道日暮到院向首司及徐連亦未得
 二十日雨夕雨午入內洞僧人於院訓及兩占浮板事也官雨甯慕
 仲家
 二十九日大晴午洞潭八力赴役而他奴任意一束一板僅得六板
 三十日得兩力役板與孫景徽曾超益前日暮渡江夜深還堂
 八月
 一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二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三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四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五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六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七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八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九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十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十一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十二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十三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十四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十五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十六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十七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十八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十九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二十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二十一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二十二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二十三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二十四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二十五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二十六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二十七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二十八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二十九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三十日謁先祠並信日氣甚涼

1. 일기 개요

『모당일기』는 손처눌(孫處訥)(1553~1634)이 임진왜란 직후인 1600년부터 1630년까지의 30년 동안을 기록한 생활일기이다. 그의 나이 48세부터 61세까지의 기록이다.

2. 저자의 생애

손처눌의 자는 기도(幾道), 호는 모당(慕堂), 본관은 일직(一直)이다. 1553년(명종 8) 6월 25일 대구부 도호부 수성리에서 태어나, 1634년(인조 12) 6월 15일에 졸하였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대구지역 유학의 기틀을 새롭게 연 학자로 평가된다. 손처눌은 한강 정구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당시 대구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하여 많은 공적을 쌓았다. 전쟁으로 폐쇄해진 대구향교를 재건하고 동문인 서사원(徐思遠)과 함께 강론을 하며 학문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당시 양친을 연이어 잃고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겨, 황청동(黃靑洞)(오늘날 황금동) 묘소아래 집을 짓고 평생 시묘살이를 한다는 뜻으로 당호를 '영모당(永慕堂)'이라 붙였다. 이곳에서 평생 공부와 강학에 힘썼기 때문에 그를 모당(慕堂)선생이라 칭하였다. 1685년(숙종 11)년 황청동에 그를 기리는 사당을 지었고, 1694년(숙종 20) 청호서원(靑湖書院)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그의 저서 중 『한강예설중찬(寒岡禮說重纂)』, 『가례의절전서(家禮儀節傳書)』는 소실되었고 다만 후세에 자료를 모아 편집한 『모당집(慕堂集)』 3권과 『모당일기(慕堂日記)』만이 전한다.

부친은 선무랑(宣務郎) 손수(孫遂)(1523~1598)이고 어머니는 한산(韓山) 이씨 이단(李但)의 딸이다. 1569년 3월 17세로 광주 이씨 송암 이원경(松巖 李遠慶)(1527~1571)의 딸과 결혼하였다. 장인 이원경은 한강 정구(1543~1620)와 망년지교를 맺고 있었다. 손처눌은 35세 되던 해(1587)에 후사 없이 아내를 잃었다. 이듬해 하성(夏城) 조씨 조응의(曹應義)의 딸과 재혼한다.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나이 47세(1599)가 되어서야 첫아들 손침(孫添)을 얻고, 50세 되던 해(1602) 둘째 아들 손잠(孫潛)을 얻었으며, 55세 되던 해(1607) 9월 셋째 아들 손침(孫沈)을 얻었다. 이후 67세가 되던 해(1619) 조씨 부인을 잃게 되는데, 그 사이에 딸 3명을 두었다. 맏아들 손침은 서희득(徐熹得)의 딸과, 둘째 손잠은 전귀당(全歸堂) 서시립(徐時立)(1578년생)의 딸과, 막내 손침은 권기중(權起宗)의 딸과 혼인을 했고, 세 딸은 순서대로 장선득(張善得), 이경진(李景鎭), 김순대(金順大)와 결혼했다.

부친 형제 중에 손회(孫廻), 손적(孫迪)은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세 명의 고모는 순서대로 호수 정세아(湖叟 鄭世雅)(1535~1612), 이운배(李雲培), 이례복(李禮福)에게 시집갔는데, 모당의 일기에는 영천에 사는 첫째 고모부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복례는 '팔거(八葛) 고모부'로 추정된다. 손처눌의 형제는 동생 1명뿐이다. 3살 아래인 오매정 손처약(五梅亭 孫處約)(1556~1618)으로, 모당과 상당히 긴밀한 형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613년(광해군 5년) 진사에 급제하였고, 형제가 함께 한강 정구에게 수학하며, 동생으로서 친구로서 제자로서 손처눌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이외에도 언급할 만한 친지는 손린(孫隣)(1566~1628)으로 손처눌보다 13살 연하의 숙부이다.

자는 계진季進, 호는 문탄聞灘으로 동강 김우옹(1540~1603)과 한강 정구 의 문인이다. 1606년(선조 39) 식년문과에 급제한 이후 저자와 함께 회재 이언적과 퇴계 이황을 위해 「부정척사문扶正斥邪文」을 써서 내암來巖 정인홍鄭仁弘(1535~1623)을 논척하여 벼슬길이 막혔다가, 1615년 안동교수安東教授가 되고, 1618년 예문관봉교를 거쳐 1623년 인조반정 뒤 예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 병조좌랑, 단성현감을 지내면서 손처눌의 강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따랐다. 또한 아우 손처약의 사위인 이응기李應祺 또한 손처눌을 측근에서 모시며 따랐다.¹⁾

3. 『모당일기』의 구성과 체제

원래는 필사본 7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후 후인들에 의해 6책으로 편집되었다. 1책은 1600년(48세) 1월 8일부터 1605년(53세) 7월 25일까지의 기록인데, 1600년은 4월 3일까지만 남아있고, 1603년(51세)의 기록은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2책은 1605년 7월 26일부터 1610년(58세) 12월 29일까지 기록이다. 3책은 1611년(59세) 1월 9일부터 1613년(61세) 11월 19일까지이다. 4책은 1614년(62세) 1월 1일부터 1616년(64세) 12월 30일까지이다. 5책은 1617년(65세) 1월 1일부터 1620년(68세) 12월 29일까지이다. 6책은 1621년(69세) 1월 1일부터 1630년(78세) 1월 26일까지이다.

10행의 계선 위에 반듯하게 정서되어 있으며 간혹 행서로 쓴 부분도 보인다. 년과 월은 독립된 한 행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사는 대체로 날짜별로 줄을 바꾸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짧을 경우 죽 달아 쓴 경우도 상당부분 보인다. 자간의 여백을 두어 높임을 표현하는 것도 잘 지켜지고 있지만, 생각이 나지 않거나, 민감한 내용인 경우 오려 내거나 비워둔 경우도 있다. 교정부호, 오른쪽에 추가한 글자, 음가音價의 혼동으로 인한 오기도 있다.

이 일기가 친필 필사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임인년壬寅年(1602)년의 일기는 12월 5일로 끝나는데, “이하는 기록을 잃어버렸고, 계묘년癸卯年의 일기도 모두 잃어버렸다.[已下失錄, 癸卯日記亦全失]”라고 하였고, 제 1책이 끝나는 시점인 을사년乙巳年(1605) 7월 25일의 마지막에는 “이 다음 다섯 달 일기는 다음 권에 상세히 기록했다[此下五月記詳次卷].”라는 부연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하지만 제 2책이 끝나는 곳과 제 3책이 끝나는 곳에서는 이러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저자가 산재된 일기 자료들을 수합하여 다시 편집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낙질된 부분을 추가하여 다시 필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1612년(60세) 하반기부터 자신의 일기를 꾸준히 편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 필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대로 썼을 것이기 때문에 필체가 다르다 해서 친필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1 저자의 생애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 해제(박세욱)의 관련내용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내용을 편집하여 옮겼다.

유로 이 일기가 저자의 친필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다.²

4. 『모당일기』의 내용³

1) 배움과 강학

『연보年譜』에 따르면, 손처눌은 이미 9살 때부터 『소학』을 읽기 시작하여 13세에는 『대학』을 읽었다. 14세(1566) 가을부터 계동溪東 전경창全慶昌(1532~1585)에게 수학하였고, 16세에 처음으로 향시에 합격하였다. 이후 스승을 따라 팔공산 파계사에서 수학하였고, 20세(1572)에 임하 정사철林下 鄭師哲(?~1593)과 학문을 강론하기도 하였다.

31세(1583)에는 인동仁同에서 한살 아래인 여현 장현광旅軒 張顯光(1554~1637)과 경학을 강론하였다. 1855년 스승 전경창이 죽고 낙재 서사원樂齋 徐思遠(1550~1615)과 심학을 강론하며 한강 정구寒岡 鄭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비록 정구와의 만남은 늦게 이루어졌지만, 깊은 사제의 정을 나누고 있었음을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보』에는 1602년(50세) 2월 “한강정사寒岡精舍에 가서 정구鄭述 선생을 뵈었다”고 하였으나, 일기에는 2월 7일 기사에 가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기에는 1604년(52세)에 4월에 정구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존경심이 나타나 있다. 1605년(53세) 3월의 일기에는 스승(정구)을 모시고 선사재仙查齋에서 강론하고 부강정浮江亭을 중심으로 선유仙遊했던 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스승의 움직임들 모두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다(3월 8일에서 12일까지).

1599년에는 임진왜란으로 폐쇄해진 대구 향교의 재건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1601년 영모당 곁에 두 칸의 재사齋舍를 두어 동쪽은 ‘산택재山澤齋’, 서쪽은 ‘풍뢰헌風雷軒’이라 이름 지어 강학의 장소로 삼았다. 『연보』에 따르면 ‘3월 영모당의 협실인 산택재山澤齋와 풍뢰헌風雷軒을 증축했다고 하는데, 일기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듬해 2월에는 경산 동학산動鶴山에 있는 암자를 중수하고 강학장소로 활용하여 임진왜란 이후 황폐화된 강학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1602년 대구의 연경서원研經書院 중수로 결실을 맺게 된다. 당시 전경창의 계동정사溪東精舍, 송담 채응린松潭 蔡應麟(1529~1584)의 압로정狎鷺亭, 정사철의 선사서당仙查書堂이 있어 소규모의 강학활동을 이어갔지만, 연경서원은 향교와 더불어 대구를 대표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므로 그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일기에는 이 해 연경서원 중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1604년부터는 연경서원을 중심으로 한 강학이 중요한 일과로 나타나는데 이 해부터 강학하는 일정과 방식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었다.

2 『모당일기』의 구성과 체제'의 마지막 단락은 위 해제(박세욱)의 내용을 옮겼다.

3 『모당일기』의 내용'은 위 해제(박세욱)와 위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내용을 편집하였다.

2) 충효의 실천

임진왜란 와중에 연이어 잃은 부모님에게 자식으로서 상례를 다하지 못한 마음에 1600년(48세) 묘소아래 평생 시묘살이를 한다는 뜻으로 영모당永慕堂을 지어 못 다한 효를 종신토록 실천하였다. 이로서 사람들은 그를 '모당선생'이라 일컬었다. 영모당은 2월에 낙성되었는데 일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난 때문에 영천의 고모댁에 맡겨 두었던 조부모의 신위를 1월에 가져오는 기사들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영모당 영건이 거의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그의 일과에는 제사뿐만 아니라, 선조의 사당에 배알하는 것, 부모의 생신제사, 계절제사까지 한 차례의 거스름도(역병이 돌 때에는 제례를 그침) 없이 정성을 다한 모습이 그의 일기에 여실히 남아있다. 1605년(53세)에는 전란으로 불효했다고 생각하며 제사를 지내는 축문에서 '효'자를 빼기도 하였다. 지산 조호익芝山 曹好益(1545~1609)과 의례에 관해 논한 기록, 정구에게 제례에 관해 질의한 내용 등 역시 그의 이와 같은 삶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대구 수성지역의 의병대장을 맡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나 1593년 2월 19일 부친을 잃었고, 이듬 해 1594년 2월 14일에는 모친상까지 당하여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정유재란에는 다시 의병을 일으켜 달성達成지역을 지키는데 공을 세웠으며, 광재우郭再祐를 따라 아우 손처약孫處約을 화왕산으로 보내 창병활동을 돕게 했다.

일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대체로 당시 의병활동을 함께한 사람들로 끈끈한 인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후 1624년 무신란 때에도 72세의 노구를 이끌고 군량조달에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1627년 정묘호란 때에도 의병을 일으키고, 군량 조달에 힘썼다.

3) 교우관계

손처약은 비교적 많은 친족 구성을 가지지도 못했고,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과 실천에만 전념했으므로 그의 지리적 활동범위는 대체로 거주지인 대구 황금동·과동, 팔공산·금호강·연경동·불로동, 경산, 영천, 인동, 청도, 고령, 성주, 밀양, 안동, 상주, 창원 등 영남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 등 전란 시 의병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경상좌도 도유사都宥司(1602년, 50세)를 지냈으며, 정구의 문인으로 영남 전역에 걸쳐 폭 넓은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모당일기』에는 서사원, 장현광, 조호익, 학암 박정번鶴巖 朴廷璠(1550~1611), 태암 이주蒼巖 李翬(1555~1604), 괴현 광재겸槐軒 郭再謙(1547~1615), 투암 채몽연投巖 蔡夢硯(1561~1638), 석담 이윤우石潭 李潤雨(1569~1634) 등이 학문과 강학활동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남간 최흥국南澗 崔興國은 일상에서 가장 오래 시간을 함께한 친구로 나타난다. 또한 낙포 이종문洛浦 李宗文(1566~1639), 전계신全繼信(1562년생), 이경배李景培(1558년생) 등과도 교유하였다.

5. 『모당일기』의 가치

『모당일기』는 대구지역에서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유학의 학풍을 재건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몇 안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향교의 재건과정과 이전 상황, 연경서원의 건립과 운영, 기타 주변의 강학장소의 활용과 형식 등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한강 정구의 학문적 영향력이 대구지역에 미친 정황과 학맥 형성 과정 속에서 손처눌의 역할을 조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일기는 임진왜란 직후 이 지역 한강 학맥의 결집과 분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모당 손처눌의 소실된 자료를 보완하고 확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평가된다.

임진왜란 이후 한강 정구의 학문적 영향력이 대구지역에 강화되는데 있어서 손처눌과 서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 일기에는 손처눌을 중심으로 한 대구지역 사림의 동향과 학문적 경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손처눌은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소학小學』·『주역周易』·『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등의 성리서적을 열심히 탐독하고 아울러 『소학』을 열심히 탐독하였다. 이는 성리학적 이론을 깊이 탐구하는 동시에 이를 실천과 연결하려는 이 지역 학자들의 학문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대구지역의 저명한 학자들과 교류한 사실, 특히 정구, 장현광, 서사원 등과 교류한 기록을 통해 당시 대구지역 사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김남중】

참고문헌

- 박세욱(해제자),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 해제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계암일록

溪巖日錄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20호)



제목 표제: 日錄, 권수제: 없음
 저자 김령 金鈴(1577~1641)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603~1641년(선조 36~인조 19)
 형태사항 8책(467장) / 가철 / 사주무변, 무계, 행자수부정 / 33.4~36.2×22.6~23.2cm
 소장자 광산장씨 설월당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 (left page text) ...

... (right page text) ...

同治四年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十一月... 十二月...

十二月...

十二月... 正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正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十一月... 十二月...

十二月...

1. 개요

『계암일록』은 김령이 27세이던 1603년(선조 36) 7월 1일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641년(인조 19) 3월 12일까지의 분량이 전한다. 중간에 몇 달씩 빠진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근 39년간의 기록이다. 현재 『일록日錄』 8책이 남아있는데, 후대에 원본을 편집하여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령의 친필일기로 추정되는 『정미일록丁未日錄』 1책이 남아있다.¹ 본 해제에서는 우선 일록 8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일기는 17세기 전반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영남남인으로서는 정체성을 가진 사대부이자 지역의 유력 사족이 쓴 생활일기다. 그 속에는 개인, 사회, 국가를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모습과 사회상이 풍부하게 담겨있다.

2. 저자의 생애²

김령은 경상도 예안현 오천리烏川里(지금의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출신으로 자는 자준子峻, 호는 계암,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부친은 퇴계 이황의 고제高弟로 널리 알려진 설월당雪月堂 김부륜金富倫(1531~1598)이다. 김령은 부친이 전생서 참봉을 지내고 있던 1577년(선조 10) 서울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은 서울과 부친의 임지인 전라도 동복 등에서 지냈다. 그러나 1590년(선조 23) 부친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줄곧 광산김씨의 세거지인 예안 오천에서 지냈다.

오천의 광산김씨는 고려말 재경관인으로 활동한 가계로, 조선초 김무金務가 안동 풍산으로 내려온 후 그 후손이 안동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김무는 4남 2녀를 두었는데, 그의 4남인 김효지金孝之가 예안 오천에 살던 황재黃載의 사위가 되어 예안과 인연을 맺었다. 김효지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의 사후 종손從孫인 김효로金孝盧(1455~1534)가 그의 계후자繼後子가 되어 예안으로 이주하였다. 이로부터 김효로의 후손들이 오천에 세거하게 되었다.

김효로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그 중 아들 김연金緣과 김유金綏, 사위 금재琴粹가 오천에 함께 거주하였다. 김연의 아들 김부필·김부의, 김유의 아들 김부인·김부신·김부륜, 금재의 아들 금응협·금응훈은 모두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 때문에 오천은 ‘군자리君子里’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김령은 설월당 김부륜의 1남 3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김령의 외가와 처가에 대해서는 그리 알려진 바가 없다. 김령의 어머니는 이웃한 함창 출신의 평산신씨 신수민申壽民의 딸로 김부륜

1 『정미일록』은 1607년(선조 40)의 일기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록이다. 김령이 직접 기록한 원본으로 추정되는데, 본문의 곳곳에 수정하거나 삭제한 흔적이 남아 있다. 월별로 구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기록하였는데, 간혹 날씨만 적거나 날짜만 기록한 경우도 있다. 김령은 모든 날짜의 일기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듯하다. 『일록』의 해당 부분과 비교해 보면 『정미일록』의 기록 중 상당부분이 『일록』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일록』에는 『정미일록』의 기록과 달리 빠진 날짜가 많으며, 내용의 일부만을 발췌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일록』에도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후대에 원본을 등사하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내용은 제외하여 분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박현순, 『계암일록』, 『계암일록』, 한국국학진흥원, 2013.), 15쪽)

2 『계암일록』은 위 박현순의 해제(2013)에 이미 상세하게 해제되어 있다. 본 해제는 위 박현순의 해제 내용을 전재하였다.

의 재취 부인이었다. 김령이 외조부모의 기제사는 물론 절제節祭까지 다 지낸 것을 보면 신씨 가에는 후손이 없었던 듯 하다.

김령의 처가는 봉화 내성의 남양홍씨 가문이었다. 장인 홍사제洪思濟(1539~?)의 선대는 고려 때부터 벼슬살이를 한 가계로 서울에서 세거하였는데, 부친 홍인수洪仁壽가 안동 유곡에 살던 충재冲齋 권벌權撥의 사위가 되어 안동 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홍사제는 1577년(선조 10)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승문원 권지정자로 요절하였고, 윤진尹諄의 딸인 부인 윤씨가 자손과 함께 내성에 거주하였다.

김령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오천리 광산김씨들의 가세나 부친·숙부들의 이력을 보면 상당히 다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김령은 어려서부터 학문과 문장으로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하듯 1591년(선조 24) 15세의 어린 나이에 총각으로 도산서원 원생이 되었다. 이는 도산서원의 역사를 통틀어 최연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가 어린 시절에 이미 상당한 명망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듬해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김령은 열여섯 살의 나이로 예안 의병에 보병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의병 대장은 김령의 6촌형인 한림 김해金垓였으며, 그의 중형제들도 군관, 부장, 저작, 보병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의병에 참여하였다. 또 부친 김부륵과 표숙 금응협은 곡식을 바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쟁이 소강기에 든 1594년(선조 27) 김령은 18세로 봉화 내성에 살던 홍사제의 딸과 혼인하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즈음 부친과 모친을 연이어 여의고 스물 둘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김령이 언제부터 일기를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전하는 일기는 27세이던 1603년(선조 36) 7월 1일의 기록부터 시작된다. 일기를 통해 확인되는 이즈음의 생활은 매년 과거를 보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1604년(선조 37)부터 촉발된 5현의 문묘중사 상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생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령은 여러 차례 생원·진사시 초시나 문과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번번이 회시에서 고배를 마시다가 1612년(광해군 4) 9월 34세의 나이에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1614년(광해군 6) 2월 승문원 권지정자로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건강을 이유로 3개월 여 근무 후 낙향하였고, 이듬해 11월에는 승정원 주서가 되었으나 2개월 정도 근무하고 다시 낙향하였다. 서울에 머물면서 벼슬살이한 기간은 다섯 달 남짓에 불과하였다.

그는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그 후 대북정권의 독주가 노골화되어 계축옥사가 일어나 영창대군이 살해되고 인목대비 폐모론이 제기되는 상황에 전개되자, 퇴계 이황의 학통을 계승하였다고 자부하던 김령은 스스로 대북정권에 동조하기를 거부하고 낙향을 선택하였다.

고향에 머무는 동안에도 북인정권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예안과 그 인근지역에서는 월천 조목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인 집단이 중앙의 권력을 등에 업고 향교와 도산서원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김령은 이즈음 도산서원 원장이 되어 주변 인물들과 함께 향교와

서원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 김령은 1623년(인조 1) 12월 중5품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어 상경 길에 올랐으나 중원 나천에 이르러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이듬해에는 의주 판관에 제수되어 약 5개월간 근무하고 돌아왔다.

김령은 낙마 이후 오랫동안 통증에 시달렸으며, 1년여가 지난 때부터는 병으로 바깥출입도 할 수 없게 되었다. 49세 때의 일이다. 이로써 김령의 벼슬살이는 사실상 끝나고 말았다.

김령에 대한 평가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인조반정 이후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당대인들은 그가 인조반정 이후에 출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광해군에 대한 군신의 의리를 지킨 지조 있는 인물로 평가한 듯 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가 병을 가장하고 인조정권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일기에는 낙마한 후에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 고통을 호소하거나 바깥출입이 불가능하여 좌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가 병을 가장하였다는 것은 당대의 의구심과 후대의 미화가 빚어낸 결과라고 하겠다.

하지만 김령은 퇴계의 고향 예안에서 정통으로 그 학통을 이은 인물로, 17세기 전반 퇴계학과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는 영남에서 소회(疏會)를 개최할 때마다 소임(疏任) 후보로 추천되는 등 청년시절부터 상당한 명망을 얻고 있었다. 또한 예안 출신의 조목 제자들이 광해군 정권에 참여하였던 것과 달리 그 반대편에서 어렵게 얻은 벼슬을 포기하고 낙향하였으며, 예안에서도 친북인 세력을 견제하며 그들이 도산서원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행적을 보면 그가 영남의 퇴계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주목받은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한편 김령이 살던 당시, 퇴계학파는 조목과 유성룡의 불화 이후 두 계열로 나뉜 것으로 평가된다. 예안 출신이 중심을 이루는 조목의 제자들은 광해군대 대북정권에 참여하였다가 인조반정 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인조대에는 광해군대 견제를 받았던 유성룡의 제자들이 영남 남인을 대표하며 활동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경세(鄭經世), 이준(李峻) 등 상주 출신이었다.

오천의 광산김씨는 혼맥으로 보면 조목과 유성룡 양쪽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목과의 관계는 그리 원만하지는 못했던 듯하다. 광해군 초 조목의 제자인 김택룡(金澤龍) 등이 나서서 그 스승을 도산서원에 중향하였는데, 김령은 이를 끝까지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반대 여론을 부추긴 배후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택룡은 오천 사람들이 조목에게 밭보였기 때문에 중향에 소극적이었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유성룡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으며, 유성룡의 아들인 유진(柳軫)(1582~1635)과는 매우 절친한 사이이기도 하였다. 김령은 이황을 제향한 안동의 여강서원(廬江書院)(뒤에 호계서원)에 유성룡과 김성일을 중향하는 데도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김령을 완전한 유성룡 계열의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유진과는 절친한 사이였으나 정경세나 이준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유성룡·김성일의 문하로 서인정권 하에서 활동한 김영조(金榮祖) 형제들에게도 비판적이었다. 또 여강서원에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유성룡과 김성일을 배향할 때에는 극력 반대하였다.

학맥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김령의 계보를 따진다면 부친인 설월당 김부륜과 숙부들을 통

해 이어진 ‘오천학맥’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흔히 이황 사후의 퇴계학파를 논할 때는 조목과 유성룡을 중심으로 계보화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황의 문하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자손들은 자신의 부조(父祖)를 통해 이황을 접하였다. 특히 김령은 이황과 동향으로, 부친과 숙부들이 모두 그 문하에서 수학한 대표적인 제자였다. 김령과 이황, 퇴계학파와의 관계도 그 부친과 숙부들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많은 듯 하다.

김령은 두문불출한 이후 잠시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곧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예안의 향정(鄕政)이나 향교·서원 및 영남남인의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비록 몸소 집을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과 조카들이 충실하게 그를 대변하였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직접 이야기를 듣고 갔다. 그는 몸에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회 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의 활동은 세상을 떠나는 1641년(인조 19)까지 계속되었다.

인조대의 행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1635년(인조 13) 윤방(尹昉), 최명길(崔鳴吉) 등이 탐전에서 이황을 비방하였다는 소문이 퍼지자 영남에서 유소를 올린 사건이다. 당시 김영조, 장현광 등 영남의 다수 인사들은 품문 외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소를 반대하였다. 이 때문에 사회의 진행도 지지부진하여 소행(疎行)이 상경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김령은 서인들이 고의로 이황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정인홍이 이황을 공격한 것에 비견되는 무현(無賢)이라고 주장하며 상소를 독려하였다. 이 때문에 상소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령은 영남남인 가운데서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3. 『계암일록』의 구성과 체제

『계암일록』은 김령이 27세이던 1603년(선조 36) 7월 1일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641년(인조 19) 3월 12일까지의 분량이 전한다. 중간에 몇 달씩 빠진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근 39년간의 기록이다. 현재 『일록(日錄)』 8책이 남아있는데, 서로 다른 필체가 섞여 있고 중간 중간에 ‘결(缺)’ 또는 ‘차하결(此下缺)’이라고 하여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기록하지 않은 듯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일록』은 후대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책의 수록 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서	기간	규격(cm)
1책	계묘(1603, 선조36) 7월 1일 ~ 경술(1610, 광해군2) 10월 1일	24.0×24.2
2책	경술 10월 8일 ~ 병진(1616, 광해군8) 4월 21일	24.0×24.2
3책	병진 4월 22일 ~ 임술(1622, 광해군14) 12월 30일	24.0×24.7
4책	계해(1623, 인조1) 정월 1일 ~ 정묘(1627, 인조5) 2월 16일	25.2×23.5
5책	정묘 2월 17일 ~ 신미(1631, 인조9) 10월 7일	25.0×22.7
6책	신미 10월 8일 ~ 을해(1635, 인조13) 11월 2일	24.5×22.5

순서	기간	규격(cm)
7책	을해 11월 3일 ~ 기묘(1639, 인조17) 8월 27일	24.7×23.0
8책	기묘 9월 1일 ~ 신사(1641, 인조19) 3월 12일	25.7×20.2

『계암일록』은 설월당 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8책을 1944년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서 탈 초하여 15책으로 등서한 바 있다. 1997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등서본과 종가 소장본을 대 조 교열하여 ‘한국사료총서 제40집 『계암일록』상·하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종가에서 소장하던 일기를 기탁 받아 수년간에 걸쳐 번역을 진행하여 일기국역총서로 간행 하였다.

4. 『계암일록』의 내용

1) 공간적 배경과 주요 등장인물

김령의 생활공간은 일차적으로 자신이 거주한 예안현 오천리가 중심이 되었다. 특히 1624년(인조 2) 건강이 악화되고 난 이후 17여년 동안 이곳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기록은 오천을 배경으로 한 자신과 광산김씨의 일상이 주를 이룬다.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 및 그들과 나눈 대화, 집안의 제사, 친척들의 동향에 대한 것들이다. 반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아내 홍씨와 네 아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출타할 때나 병이 나거나 출산할 때 등에만 간간히 등장한다. 그에게는 가족을 넘어 오천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광산김씨 일가가 일상생활의 기본 단위였다고 하겠다.

김령의 생활공간을 보다 확대하면 예안이라는 고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실제 김령이 예안의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령은 행정적으로 예안현에 소속된 민으로서, 경내의 주민들과 함께 부세를 부담하고 향약을 시행하며 지역공동체에 참여하였다. 김령은 또한 도산서원과 예안향교를 근거로 활동하는 예안의 유생이기도 하였다.

생활공간을 넘어선 활동공간은 예안, 영주,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남인의 세계다. 이 지역은 퇴계학파의 산실이자 이황의 사후에 각기 도산서원, 이산서원(伊山書院), 여강서원을 건립하여 퇴계학파의 구심이 된 곳이다. 이 지역은 17세기 전반에도 퇴계학파의 중심지로 서로 연대하여, 영남남인의 활동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김령은 그 속에서 영남 사림의 일원이 되어 유소(儒疏)나 유회(儒會)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른 서원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중앙정계는 직접적인 활동 공간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찰한 곳이었다. 그는 문과에 급제한 관료 출신의 사대부이자 영남남인의 일원으로서 중앙정계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집에 칩거하게 된 이후에도 조보(朝報)나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중앙정계의 동향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김령은 생애의 대부분을 오천에서 지냈으며, 그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도 오천

에 거주한 친척들이다. 위로는 표숙(表叔)인 금응훈(1540~1616, 제천 표숙)과 종형인 김호(金壕, 1534~1616, 상주 형), 김지(金址, 1551~1619, 판사 형), 김기(金圻, 1547~1603, 북애 형), 김평(金坪, 1563~1617, 생원 형, 또는 평보 형)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김령을 이끌어 주었다. 특히 김령은 어린 시절 김기에게 수학하여 그에게 남다른 정리를 갖고 있었다. 서숙(庶叔)인 김부생(金富生)도 김령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였다.

김령이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한 인물은 연배가 비슷하거나 보다 어린 재종질과 종질들이 중심을 이룬다. 재종질인 김광계(1580~1646)·김광실(金光實, 1585~1651)·김광보(金光輔, 1587~1634)·김광악(金光岳, 1591~1648) 형제와 종질인 김광도(金光道, 1563~1622)·김광적(金光績)·김광찬(金光縑, 1564~1613)·김광재(金光載)·김광업(金光業)·김광운(金光運, ?~1633), 표숙 금응협의 양자인 금발(琴撥, 1573~1642), 그리고 종질 김광찬의 아들인 김확(金確, 1583~1665)이 그들이다.

이들은 혈연과 오천이라는 지역을 통해 결속하고 예안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족들과 경쟁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존재하였다. 그중에서도 김광계와 김확은 김령과 더불어 오천의 공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예안 내에서도 명망을 갖추고 예안의 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은 김령의 아들과 함께 김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예안 내에서는 향안과 도산서원, 향교를 통해 활동하는 사족들이 김령과 일상적으로 얽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이룬 것은 온계의 진성이씨, 부포의 봉화금씨, 분천·오천(沔川)의 영천이씨들이다. 이 세 가계는 오천의 광산김씨와 마찬가지로 여말선초에 예안에 정착하여 주도적으로 사족으로 성장한 가계이다. 이들은 혼인과 학연으로 얽혀 있으며, 대외적으로 공조하는 관계에 있었으나 예안 내에서는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였다.³

온계는 퇴계 이황의 집안인 진성이씨가 세거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영도(李詠道, 1559~1637)는 이황의 손자이자 원주목사를 지낸 인물로 당시 예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부포는 봉화금씨의 세거지로 이황의 제자인 금난수의 아들 금경(琴憬, 1553~1633), 금업(琴業, 1557~1638), 금개(琴愷, 1562~1629) 삼형제가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진성이씨와 봉화금씨는 이황의 후예와 제자라는 관계를 넘어 혼인관계를 통해서도 끈끈한 유대를 유지하였으며, 광산김씨와 함께 도산서원 원장직을 분점하였다. 이외에 조목의 제자로 도산서원 원장을 지낸 김택룡과 그의 아들들도 일기에 자주 등장한다.

분천·오천에는 영천이씨가 세거하였다. 분천에는 농암 이현보의 우예들이, 오천에는 이덕홍의 자제들이 거주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영천이씨들은 예안의 토착 사족으로서 주로 유향소(留鄕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중 이덕홍의 아들들은 광해군대에 친대북계로 활동하며 도산서원에서도 세력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인조반정 후 쇠락의 길을 걷고 만다. 이들과 함께 부세운명을 담당한 유향소의 향임(鄕任)이나 향리(鄕吏)들도 『계암일록』에 자주 등장한다.

예안 내에서 김령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인물들의 한 축에는 예안 수령들이 있었다. 예안은

3 17세기 예안 사족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박현순의 글(2006) 참조.

퇴계 이황의 고향으로 '추로지향'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으나 사족세력이 강하여 '난치지향(難治之鄉)'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선조대 이래 문관 수령을 파견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이 한사(寒士)들로 예안 사족층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령은 관료 출신일 뿐 아니라 예안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광산김씨 집안의 맏 어른이었고, 영남남인 내에서도 상당한 명망을 갖춘 인물이었다. 따라서 수령들도 김령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런 탓에 수령들은 관정(官政)에 대한 협조와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김령을 자주 방문하였다. 물론 김령이 수령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만은 아니었다. 김령은 토착사족으로서 수령의 정사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수령들은 오천사족들의 위세를 꺾으려고 시도하는 한편, 김령을 관정에 대항하는 호강으로 의심하기도 하였다. 한편 안동부사나 감사들 중에서도 김령을 찾는 인물들이 종종 있었다.

김령이 예안을 넘어서 맺는 관계들은 혈연이나 혼인에 기초하기도 하였으나, 그 보다는 학연과 영남남인이라는 정체성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 관계는 때로는 사적인 관계로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원과 향교의 연계를 통한 사림의 활동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김령은 연례적으로 과거시험이 치러지는 과장(科場)이나 소회(疏會), 유회(儒會), 여러 서원의 모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또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교류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원과 향교의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그 범위는 당시 안동·영주 지역에서 활동한 영남남인들을 거의 다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가정사와 집안사

김령은 일상적으로 제사, 자신이나 가족·친척의 신병(身病)이나 출타, 동네 친척들의 방문이나 모임 참석 등과 같은 일을 기록하였으며,⁴ 친족 구성원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또 광산김씨는 안동김씨와 지리한 산송(山訟)을 치르게 되는데, 김령의 일기에는 후손인 감사 김시양(金時讓)의 방문 후 묘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양반가에서는 적서간에 갈등을 빚는 일도 흔히 있었다. 오천에도 조부인 김유의 서자 김부생과 그 자손들이 함께 거주하였다. 적서의 차별이 엄연하게 존재한 시대임에도 김령은 서숙이나 서사촌 아우들과 거의 모든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고 참여하는 등,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인간의 애환을 하께 했다. 그러나 김령이 전하는 기록에는 인근에서 적자와 서모·서자 간의 불화로 저주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기록하고 있다.

3) 과거와 관직생활

김령은 1612년(광해군 4) 36세의 나이에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정자로 벼슬 살이의 첫발을 내디딘 후 승정원 주서로 근무하였다. 성인이 되어 본격적으로 과거에 응시하기 시작하여 급제하기까지 근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4 김령자는 논문에서 『계암일록』의 제사 기록을 분석한 바 있다.

『계암일록』에는 그가 27세 때부터 문과에 급제할 때까지 10년간에 걸쳐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행을 하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과 과장에서 벌어진 사건 등에 대한 기록이 소상히 남아있다. 그리고 문과에 급제했을 때와 승문원 정자가 된 후 면신례(免新禮)를 행하는 모습, 정자와 주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4) 民民으로서의 부세부담

김령과 그 주변인물들은 위세 등등한 사족이지만 수령의 통치를 받고 부세를 부담하는 민의 한 사람이었다. 김령이 살았던 시기는 임진왜란 후 점차 경제가 회복되어 가는 한편, 국가가 민과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시도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전후의 궁궐 영건 비용이나 중국과의 외교 관계, 청나라와의 전쟁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민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이 시기 조정에서는 분병을 늘리기 위해 낙강교생(落講校生)을 충군(充軍)하는 교생고강(校生考講)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본격적으로 토지 과약에 나서 갑술양전을 시행하였다. 두 정책은 결국 사족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피한 것이었다. 김령의 일기에서는 이런 정책의 시행 양상과 함께 국가의 공권력 앞에서 극히 나약한 존재로 선처를 희망하는 사족층의 일면이 잘 드러나 있다.

김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보다 일상적으로 경험한 것은 전세(田稅)나 대동세(大同稅) 등 부세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김령도 때로는 부세 부담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주변의 친척들과 고을 사람들이 겪는 고초들을 보고 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령과 유향소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하기도 하지만, 이른바 선정(善政)을 베푸는 수령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5) 향회(鄉會)와 향약(鄉約)

예안 사족들은 국가의 과도한 부세 책정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수령, 유향소, 향리들을 제어함으로써 수납 과정에서 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막고자 하였다. 지역 내에서 불만이 팽배해지는 상황이 오면 사족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향리나 관노(官奴)를 징치하기도 하였으며, 수령·유향소와 부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 공론이 수합되면 향회(鄉會)를 열어 유향소의 향임이나 향리, 관노를 징치하여 수령의 관정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향임·관속 처벌은 일회적이고 사후적인 처벌에 그칠 뿐 지속적인 효력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향회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수령이 다시 중용하는 경우도 허다하였고 새로운 향임을 선임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안에서는 1633년(인조 11) 가을부터 향약을 시행하여 향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수령·유향소·향리의 부세 운영과 전횡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김령의 일기에는 부세 운영에 대한 담세자 개인의 불만 뿐 아니라, 부세 운영을 둘러싼 지역 내의 갈등 구조나 예안 사족들이 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양상 등이 잘 드러나 있다.

6) 지방관에 대한 평가

향촌사회에서 수령과 사족의 관계는 상당히 미묘하였다. 국가의 공권력을 대변하는 수령 앞에서 사족은 일개 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토착사족의 지역 지배력이 강하거나 다수의 관료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고을에서는 수령의 입지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예안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잔읍殘邑이었고, 17세기에는 고위 관료 출신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퇴계학파의 산실로서 영남남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토착 사족들의 고을에 대한 지배력도 강했다. 또 도산서원을 등에 업고 수령의 통치에서 빗겨 가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예안 사족과 예안 수령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경계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겠다.

김령은 사족들이 수령을 예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일기 속에는 예안 수령이 부임할 때의 동정에서부터 재임기간 동안의 치적, 이임할 때의 행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수령에 대한 기대와 실망, 치적에 대한 평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세간에 전하는 인근 지방관과 경상 감사에 대한 평가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안동부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김령의 평가는 때로는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는 주변을 통해 전해진 세간의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통해 향촌사회에서 사족과 수령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또 사족 또는 민의 입장에서 수령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7) 서원·향교와 사림의 활동

김령의 사회활동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도산서원의 원생이자 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도산서원을 대표하는 유생으로 유회儒會나 소회疏會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문과에 급제한 후 향교 일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향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 가운데 김령은 서원과 향교의 활동은 물론 서원의 원임과 원생 선발, 향교의 상재上齋와 교생의 선발 및 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하여 소상히 기록하였다.

사족층은 서원·향교를 통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사림士林'으로 불리는 공론 형성층으로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또 다른 면모도 갖추고 있었다. 17세기 초 영남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유소儒疏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서원의 설립과 추향 문제, 특히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과 유성룡·김성일의 여강서원 배향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보다 일상적으로는 유벌儒罰이라는 자율적인 처벌을 통해 서원·향교의 연계망 속에서 유생층의 행위를 규제하기도 하였다. 이런 활동은 사림의 이름으로 수행되었다. 또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에는 신속하게 의병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사림'은 통시적으로 사용된 개념으로 그 범주는 유동적이다. 그러나 『계암일록』을 통해서 성균관·서원·향교를 매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유생층이 사림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그 범주는 전국이나 영남 전체로 확대되기도 하고 때로는 영남남인 내부로 국한되기도 하였다.

8) 영남남인의 시각에서 본 중앙정계의 동향

김령이 살았던 시기는 정치적인 굴곡이 많았던 시기이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이어졌고, 광해군 정권의 정치전횡과 인조반정, 이괄의 난 등 정치적 위기도 이어졌다. 김령의 입장에서 보면 광해군대의 대북정권과 인조대의 서인정권 하에서 영남남인들이 점차 그 입지를 잃어가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김령은 자신이 접한 중앙정계의 동향들도 소상히 기록하였는데, 그 아래에는 북인정권과 서인정권에 대한 경계심이 주된 정서로 깔려 있다.

김령은 퇴계학통을 계승한 영남남인이 조선 성리학의 적전^{嫡傳}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계암일록』의 초반 기록에 해당하는 선조대 후반은 지속적으로 오현의 문묘종사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로, 영남남인이 조선 성리학의 중심으로 인정받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해군, 인조대를 거치면서 영남남인은 점차 외곽으로 밀려났다. 특히 인조대 후반 서인 유생들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를 제기하는 시점부터는 영남남인이 조선 성리학의 적통이라는 인식도 위기를 맞이하였다.

김령의 생애를 통하여 영남남인의 입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한때 ‘추로지향’으로 칭송되던 안동과 예안은 서인 관료들의 견제 속에서 호강^{豪強}으로 지목되어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그리고 서인 유생들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 퇴계 이황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령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냉소하며 자신의 입장에서 중앙정계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5. 『계암일록』의 가치

『계암일록』은 17세기 전반 사족층의 다면적인 삶의 모습과 이를 둘러싼 시대적·공간적 환경들을 매우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 일기는 17세기 전반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영남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대부이자 지역의 유력 사족이 쓴 생활일기다. 그 속에는 개인, 사회, 국가를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모습과 사회상이 풍부하게 담겨있다. 당대 역사상을 재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료라고 하겠다.

【박상규】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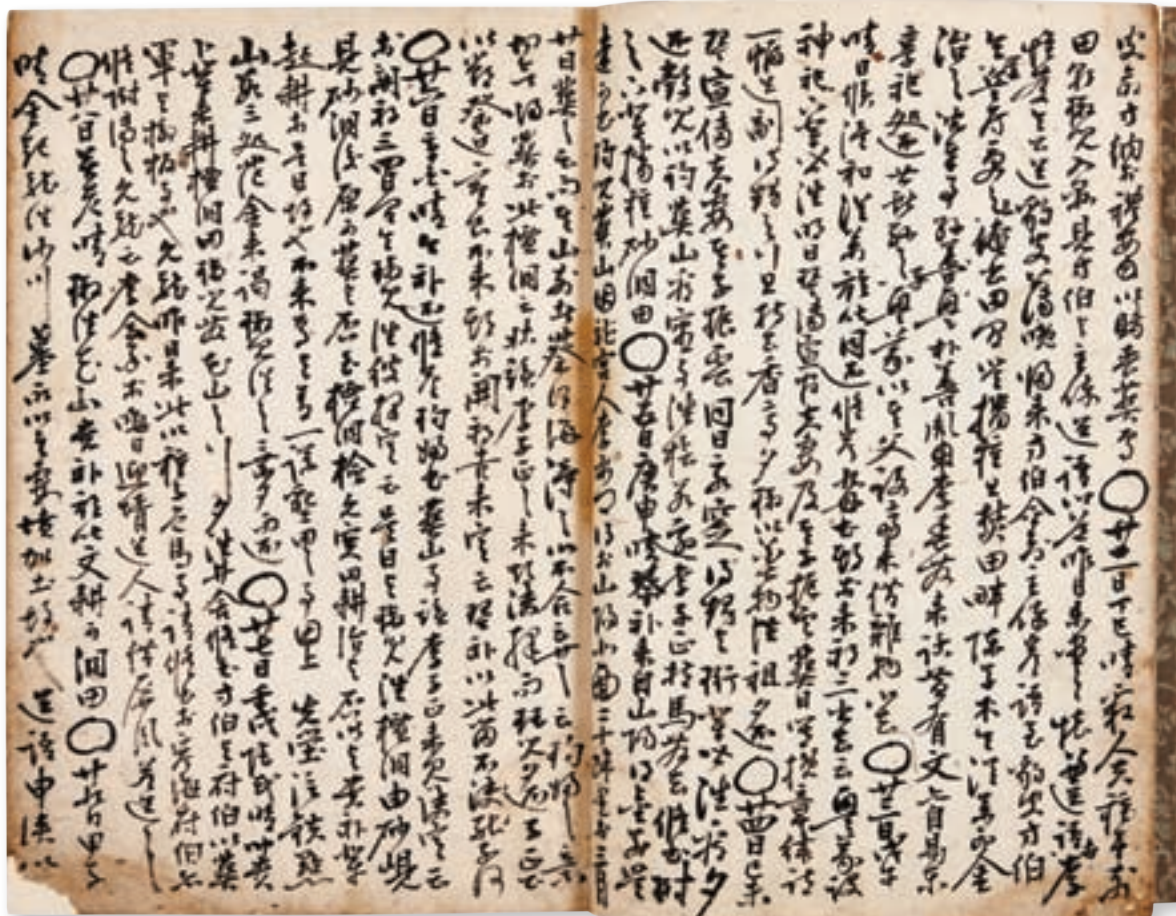
- 박현순, 『『계암일록』 해제』, 『국역 계암일록』, 한국국학진흥원, 2013.

조성당일기

操省堂日記



제목 표제 : 없음, 권수제 : 없음
 저자 김택룡 金澤龍(1547 ~ 1627년)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612년(광해군 4), 1616~1617년(광해군 8~9)
 형태사항 3책(116장) / 선장(5침) / 사주무변, 무계 /
 13~15항 25~32자 / 29.3~30×21.6~23.2cm
 소장자 의성김씨 평장사공파 삼대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 개요

『조성당일기』는 조성당^{操省堂} 김택룡^{金澤龍}이 쓴 생활일기로 각 날짜의 기사^{記事}는 특별한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그날 그날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분량도 일정하지 않아 날짜 이외의 기사가 아예 없거나 한 두 문장으로 쓰여진 날도 있고, 기사가 많은 날은 15~20여 행에 걸쳐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문장은 대체로 사실만을 간단히 기록한 건조한 서술형 문장들이나, 자신의 감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낸 부분들도 적지 않다. 또한 자신이 창작한 사부^{詞賦}와 시작^{詩作}들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2. 저자의 생애¹

김택룡^{金澤龍}은 1547년(명종 2)에 태어나 1627년(인조 5) 6월 26일에 81세의 나이로 졸하였다. 자는 시보^{施普}, 호는 조성당^{操省堂} 또는 와운자^{臥雲子}이며,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김택룡의 집안은 그의 4대조인 김효우^{金孝友}가 예안^{禮安} 한곡^{寒谷}에 복거^{伏巨}한 이후로 그곳에 세거^{世居}하였다. 조부는 김몽석^{金夢石}이며 부친은 김양진^{金楊震}이다. 김양진은 택룡, 현룡^{見龍} 두 형제와 정효렴^{鄭孝廉}에게 시집간 딸을 두었다. 김택룡은 그의 나이 17세이던 1563년 고양 이씨^{高陽李氏} 경릉 참봉^{敬陵參奉} 사의^{思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 아내는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해에 죽었고, 진성 이씨^{眞城李氏} 의강^{義綱}의 딸을 계비^{繼妃}로 맞이하였다. 그는 적자로 5남 6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숙^淑, 적^積, 각^穀, 영^映, 박^珀이었다. 박^珀은 흥량^{興良}의 후사로 출계^{出系}하였다. 그리고 6녀는 각각 김학^{金鶴}, 김광찬^{金光燦}, 장세언^{張世彦}, 권근오^{權謹吾}, 김일신^{金日新}, 남효각^{南孝愨}에게 시집갔다. 이상의 자녀들은 『의성김씨대동보』에 근거한 것인데, 『조성당일기』에는 이 밖에 대평^{太平}, 대생^{大生} 등의 아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소실의 아들인 듯하다.

김택룡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고제^{高弟} 중 한 명인 월천^{月川} 조목^{趙穆}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그는 학문적으로 퇴계 이황과 월천 조목의 적통을 계승하였다. 1611년에 정인홍^{鄭仁弘}이 회재 이언적과 퇴계 이황을 편취하는 상차^{上筈}를 올리자 도내^{道內}에 통문을 돌려 도산서원에 유생들을 모아 변무^{辨誣}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고, 조목의 사후에는 그를 도산서원에 종향^{從享}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택룡은 1576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경릉 참봉^{敬陵參奉}을 제수 받았다. 42세 때인 1588년(선조 21)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하고 통사랑^{通仕郎}이 되어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에 보임되었다. 1589년 승의부위 호분위 부사맹^{承義副尉虎賁衛副司猛}, 1590년 적순부위 행용양위 사맹^{迪順副衛行龍驤衛司猛}을 제수 받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까지 호가^{驅駕}하였다. 1594년 6월 승순랑^{承巡郎} 행승문원 박사

¹ 본 해제 중 저자의 생애, 일기의 구성과 체계, 내용, 가치는 하영휘, 『조성당일기』 해제, 『조성당일기』, 2010, 한국국학진흥원, 11~29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하영휘 해제 내용을 부분적으로 편집했을 뿐 전제하였음을 밝혀 둔다.

承順郎行承文院博士가 되었고, 8월에 봉직랑 행봉상시 직장奉直郎行奉常寺直長으로 승진되고, 승문원 박사로 승차되었으며 이어서 호조 좌랑戶曹佐郎이 되었다. 8월에는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어서 종묘 서령宗廟署令이 되고 병조 정랑兵曹正郎으로 승차되었다. 동년 9월 세자시강원 문학世子侍講院文學, 이어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이 되었고, 12월에는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이 되었다. 1596년 1월 충의교위 충좌위 사어忠毅校尉忠佐衛司禦, 2월 세자시강원 사서 겸 춘추관기주관世子侍講院 司書兼春秋館記注官이 되었고, 7월 조산대부 행병조 정랑朝散大夫行兵曹正郎으로 승차되고 세자시강원 사서도 계속 겸직하였다. 1597년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가 되었다. 1600년 봄에는 진주 제독晉州提督으로 파견되었으며, 그해 가을에는 접반배신接伴陪臣으로 유격장군 가상賈祥의 영하營下에 파견되어 겨울에 명나라 군에 군량을 공급하는 직책을 맡았다. 1601년 4월 명나라 군대를 따라 평안도로 갔으며, 6월 봉렬대부 행공조 정랑奉列大夫行工曹正郎으로 승진되었다. 7월 울산도호부 판관蔚山都護府判官, 9월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이 되었다. 1602년 안동부 교수安東府教授가 되었다. 1604년 12월 통훈대부 강원도 도사 겸 춘추관 기주관通訓大夫江原道都事兼春秋館記注官이 되었다. 1606년 선무공신 2등宣武功臣二等, 청난공신 1등淸難功臣一等에 훈작되었다. 1607년 7월 전라도 도사, 1608년(광해군 즉위년) 10월 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 12월 영월 군수가 되었다. 이 영월 군수를 마지막으로 관직을 역임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문집으로는 『조성당집操省堂集』이 있는데, 이것은 1863년에 후손인 경일敬一이 유고를 정리하여 둔 것을 1912년에 11대손인 종벽宗璧·윤원胤元 등이 간행한 것이다.

3. 『조성당일기』의 구성과 체제

『조성당일기』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1612년(만력 40년 입자, 광해군 4년, 김택룡 66세), 제2권은 1616년(만력 44년, 병진, 광해군 8년, 김택룡 70세), 그리고 제3권은 1617년에 썼다. 제1권은 앞부분이 탈락되어 1612년 1월 5일 기사의 중간부터 시작되고, 7월 25일 중간부분 이후도 역시 탈락되어 전하지 않는다. 제2권은 161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12월 24일의 중간 부분 이후는 탈락되어 있다. 제2권에는 시작되기 이전 책 날개 부분에 일기의 기사가 아닌 내용이 필사되어 있는데, 이는 태조 이성계의 가계와 혁명 당시의 사건이 중국 사서史書 및 문집들에 잘못 기록되어 문제가 된 부분들, 즉 소위 '중계변무宗系辨誣 사건' 관련 기록들을 필사하여 놓은 것이다. 1616년 4월 9일의 기록에 따르면 김택룡이 훗날의 고증에 대비하여 '중계변무宗系辨誣'의 대상들인 『황명경세실용편皇明經世實用編』·『엄산별집兪山別集』의 「사승고오史乘考誤」·『여씨오학편黎氏吾學編』·『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작애집灼艾集』·『대정기大政紀』 등의 중국 서적들에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을 직접 필사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제3권은 앞부분이 탈락되어 1617년 1월 25일 기사의 중간부분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1617년 12월 19일의 기사 이후도 역시 탈락되어 있다. 각 권은 후대에 정리·장정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 종이가 헤어져 탈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종이의 모서리 부분과 아랫부분의 탈락이 많은데, 특히 제3권인 1617년 일기 후반부의 탈락이 심하다.

일기는 날짜와 날씨만 적어 놓거나 나중에 추기追記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

이 매일 기록되어 있다. 일기는 원칙적으로 김택룡이 자필로 기록한 듯하나, 중간 중간 다른 사람의 대필인 듯한 곳도 눈에 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매일 매일의 기록을 반드시 남기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노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전래하는 3권의 일기는 전체 일기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추론 가능하다. 매일 날씨가 바뀔 때마다 권표(圈票: “○”)를 하고 날씨를 적은 뒤(예: 초일일, 십사일, 이십팔일 등) 해당 날씨의 간지(干支)를 적고, 극히 일부의 누락된 날을 제외하면 반드시 날씨를 기록하고 있다. 날씨는 간단히 “맑음[晴]”·“흐림[陰]”·“맑고 후 흐림[晴或陰]”·“비[雨]” 등으로 기록하거나, 기상현상 및 날씨의 특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예: “바람이 세차고 몹시 추움[大風大寒]”). 춘분(春分) 및 중복(中伏) 등의 절기, 혹은 지진 등의 자연재해도 기록하고 있다. 달이 바뀔 때에는 행을 바꾼 후 권표를 하고 그 달이 큰 달인지 작은 달인지의 여부와 월건(月建)을 기록하고 있다(예: 2월 작은 달 계묘 건[二月小癸卯建]). 새해가 시작되면 일기의 권을 바꾸고 연호, 간지를 기록한 후 정월의 정보들을 기록하고, 행을 바꿔서 초하루의 기사를 적기 시작하였다(예: 萬曆四十四年丙辰正月大庚寅建).

각 장은 대체로 13~15행, 1행은 25~30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선(界線) 등의 구분선은 없다. 필사 원본은 종이의 변색과 훼손이 많은데, 후대에 배접·정리되어 장정되었다. 필사 원본은 뒷면의 글씨가 비치고 군데군데 관인(官印)으로 추정되는 도장도 비치는 것으로 보아, 관청이나 서원 등에서 한 번 사용했던 휴지(休紙)를 활용하여 그 뒷면에 일기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조성당일기』의 내용

1) 가족관계 및 교유관계

일기에는 김택룡이 일상적으로 혹은 특별히 만났던 매우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일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와 교유 범위로 볼 때 당시 김택룡은 매우 높은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택룡이 일상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인물들은 우선 가족 및 혈연·혼맥으로 맺어진 친족들이다. 김택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농사일의 감독·관청에 내는 서류의 작성·토지거래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숙(淑) 등의 아들들·조카인 덕룡(德龍)·생질인 정득(鄭得) 등을 시켜서 해결하고 있다. 또한 김택룡은 산양(山陽)에 떨어져 살고 있던 둘째 아들 적(積), 도촌(陶村)·유촌(柳村) 등에 살고 있던 딸들을 방문하면서 그때마다 며느리 및 사위, 그리고 사돈 집안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다. 그리고 일기에는 많은 수의 노비들이 등장하고 있다. 편지의 전달·장시(場市)에 물건을 사러 보낼 때·가옥의 수리·밭의 경작 등의 일을 시키면서, 또 심부름 온 다른 집안의 노비들을 만나면서 등장하는 노비들의 이름이 일기에 다수 기록되고 있다. 혼맥으로 맺어진 인척들 중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의 예로는, 일기에서 ‘심인(沈仁) 아재’, ‘심지(沈智) 아재’ 등으로 지칭되는 의령 심씨(청송심씨) 일문의 심광좌(沈光佐)의 아들들인 심신(沈信)·심인(沈仁)·심지(沈智) 등과 그 손자들인 심학해(沈學海)·심달해(沈達海) 등을 들 수 있다. 심광좌는 김택룡의

증조부인 김승조의 딸과 혼인하였다.

김택룡은 월천 조목의 적통 제자 중 한명으로서, 학맥으로 맺어진 인물들과의 교류도 많았다. 학맥을 통한 인물들과의 교류 주무대는 주로 서원이었다. 그는 역동서원(易東書院)과 도산서원(陶山書院) 내에서 존장(尊丈)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서원 내의 여러 가지 일들, 즉 제사·서원의 전적(典籍) 및 문서 관리·서원의 인사 등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조목의 아들들과 조목 문하의 제자들 및 서원의 유사(有司) 등을 많이 만나고 있다.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학맥으로 맺어진 인물들의 예로는 퇴계의 문인이었으며 경주 부윤을 지냈던 고창 오씨의 오운(吳濤) 및 오운의 사촌인 오윤(吳瀛), 오윤의 아들인 오여강(吳汝樞), 오윤의 아들인 오여방(吳汝枋) 등을 들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점은 김택룡의 학맥과 혼맥이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조목과의 관계를 보면 조목의 장자인 조수봉(趙壽朋)과 차자인 석봉(錫朋)은 조목의 후실인 의성 김씨(=선성김씨)의 자녀들인데, 이들은 조목의 본부인인 안동 권씨의 아들 귀봉(龜朋)이 일찍 죽고 안동 권씨도 죽자 나중에 허통(許通)되어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들의 어머니인 의성 김씨는 김택룡의 아버지인 김양진의 사촌 김봉령(金鳳齡)의 딸이다. 또 일기에는 퇴계의 문인이었던 봉화 금씨 금난수(琴蘭秀), 금응상(琴應商)의 자손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금난수의 아들들인 금경(琴暿)(자: 언각(彦覺))·금엽(자: 언신(彦慎))·금개(琴愷)(자: 언강(彦康)), 금응상의 아들인 금결(琴潔) 및 금결의 아들인 금진운(琴振雲)·금수운(琴秀雲)·금달운(琴達雲) 등이 그들이다. 그런데 금난수는 월천 조목의 막내 여동생과 혼인하였고, 금수운은 김택룡의 계부(季父)인 김양근(金楊根)의 딸, 즉 김택룡의 사촌과 혼인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김택룡은 월천 조목의 황성 조씨 및 퇴계의 문인인 금난수의 봉화 금씨와 혼맥과 학맥으로 얽힌 긴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김택룡은 주된 생활 근거지였던 예안 및 영천(榮川)으로 파견되어 온 수령들-일기에는 '주취(主悴)' 및 '성주(城主)'로 지칭된다-과도 끊임없이 접촉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령들은 도산 서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되곤 했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김택룡과 만나게 되었다. 또 김택룡이 직접 예안현 및 영천군으로 들어가 수령들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수령들이 행차하면서 김택룡의 집을 지날 때 들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안동 부사 및 경상도 관찰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런 인맥은 토지 매매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노비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건 해결에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그 밖에 김택룡은 중앙 및 지방의 명망가였던 이호민(李好閔)·유근(柳根)·정창연(鄭昌衍)·송순(宋淳), 당시 예학(禮學)의 권위자였던 한강(寒岡) 정구(鄭述) 등과도 교류하였다. 이들과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으나, 편지를 교환하여 교류를 유지하였다.

2) 경제활동

김택룡 경제활동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역성'과 '가족 경영'을 들 수 있겠다. 김택룡은 세거지인 예안 한곡 이외에 영천(榮川)과 구미(龜尾) 지역에 '산장(山莊)'으로 불리는 생활 근거지가 있었다. 그는 이 '산장'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일대 토지의 경작 상황을 감독하곤 하였다. 이 밖의 중요한 지역으로 그의 선영(先塋)이 있는 가동(槓洞)이 있었는데, 이곳에도 전답이 있었다. 이 토지들은 집안의 노

비들을 보내 직접 경작시켰으며, 그 노비들은 다시 주로 아들들을 보내 감독하게 하였다. 경작했던 작물은 벼, 콩, 메밀 등이 있다. 일기에는 이양^{移秧}, 경작^{耕作}, 김매기, 수확, 타작 등의 토지경작 절차가 그때그때 기록되어 있으며, 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이 기록된 부분도 있다. 그 밖에 구고^{九阜}에는 대평^{大平}과 그의 어머니 - 김택룡의 소실로 추측된다-가 살고 있었는데 이곳도 또한 중요한 경제적 근거지 중 하나였다. 또 산양^{山陽}에는 둘째 아들인 적^積이 살고 있었고, 딸들도 도촌^{陶村} 및 유천^{柳川} 등지에 살고 있었다. 이들에게 양식이 필요하면 김택룡이 보내주기도 하였고, 거꾸로 김택룡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이들에게 조달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일기의 기록을 통해 김택룡의 주요한 경제적 소득은 토지에서 나왔으며, 그 토지들은 김택룡 본인 및 집안 식구들의 생활 근거지에 산재되어 있었고 그 관리는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생산 이외의 교역 상황을 살펴보면, 혼인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는 노비를 장시^{場市}에 보내 곡물을 내다 팔기도 하였다. 그리고 영해의 수령이 전복 등 해산물을 보내 주었고, 이것을 집안 제사에 사용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물건의 거래는 주로 가족 및 친지들 간에 이루어 졌다.

3) 장례, 제사 및 회합

『조성당일기』에는 많은 제사 기록이 등장한다. 제사는 크게 증조고비^{曾祖考妣}·조고비^{祖考妣}·고비^{考妣}에 대한 제사, 외가의 제사, 처가의 제사 등 집안 내부의 사적^{私的}인 제사와 서원 및 향교에서 지내는 공적^{公的}인 제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친족들끼리 모여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함께 선영을 참배하여 묘소를 정비하는 등 사적인 제사는 집안 내부인들의 결속의 장이 되었다. 서원의 춘향^{春享} 및 추향^{秋享}, 향교의 석전제^{釋奠祭} 등은 공적인 만남의 장으로서 특별히 중시되었다. 특히 1612년 1월에 월천 조목의 부인이 사망하여 그녀를 장례 지내는 데에 김택룡이 여러 가지로 관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같은 해 월천 조목을 도산서원에 중향하는 문제로 많은 회의를 하는 모습도 일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도산서원은 사액서원이기 때문에 월천 조목을 중향하는 문제는 중앙 조정에 보고되었으며, 당시 예학의 중주였던 한강 정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퇴계 학파의 주요인맥이었던 봉화 금씨의 인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중향 시 제기 등의 진설 문제, 중앙에 보고하는 문제 등에 김택룡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일기를 통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일기에는 동네의 회합에 대한 기록도 자주 등장한다. 함께 사는 동네의 인사들이 모여 규약^{規約}을 정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616년 3월 4일의 기사를 보면, 동네에서 분란을 일으킨 남산곡^{南山谷} 및 그 부자 형제들을 삭적^{削籍}하고 모임에서 배척하는 조치를 동헌^{洞憲}에 따라 취하고 있다. 그 밖에 칠석^{七夕} 모임 등을 동네에서 열어 함께 잔치를 벌이는 모습도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교육

김택룡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손님이 찾아오거나 혹은 남을 방문하는 등 교류로 바쁜

일상을 보냈다. 그럼에도 약간의 틈이 생길 때면 그때마다 집안의 자제들을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가 내리는 장마철의 일기에 자제들의 교육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제들의 교육은 주로 문장 및 시의 작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한유韓愈의 문장과 시가 많이 가르쳐졌다는 점이다. 시작법을 가르치는데 한유의 〈원화성덕시元和聖德詩〉가 사용되는 식이다.

자제들 이외에 외부에서 김택룡에게 직접 가르침을 구해 찾아오기도 하였다. 그들에게는 주로 시와 문장의 작법, 『대학』 등의 경서, 『한서漢書』 등의 사서史書를 가르쳤다. 1616년 6월 5일의 기록을 보면 김진성金振聲과 홍회가 와서 두보杜甫의 시를 배우고 있으며, 다음날인 6월 6일에는 ‘풍소(風騷: 『시경』의 『國風』과 굴원의 『이소離騷』, 詩文을 총칭하는 말)’를 가르치고 있다. 김진성은 『대학大學』을 배우기도 하고 『한서漢書』의 「항적전項籍傳」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였다.

자제들과 찾아온 제자들의 교육에서 보이는 특징은 문장 교육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장 교육에서도 후세에 중시된 『고문진보古文眞寶』나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문장보다도 두보, 한유의 시와 ‘풍소’가 중요한 텍스트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대학』이외의 성리서性理書가 교육의 자료로 그다지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또 유생들이 자신들이 지은 시부詩賦에 대한 평가를 구해서 찾아오는 일도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1612년 3월 21일의 기록을 보면 “향교의 거접 유생居接儒生이 지은 시부詩賦가 와서 박선장·금복고·김경진·김도와 함께 평가해서 보냈다”는 구절이 있으며, 이 밖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향교의 거접 유생들이 지은 시부詩賦 40여 편이 보내져 왔는데, 평가하고 순위를 매겨 줄 것을 구하였다. 이점李蒞에게 대신 비점批點을 매기게 하여 보냈다. 거접 유생들이 며칠 전에 나에게 시부들의 주제를 정해줄 것을 청해서 내가 부賦는 ‘양산군자梁上君子’, 시詩는 ‘풍비천고표충비豐碑千古表忠碑’로 주제를 정해 써서 보내 주었다. 그래서 내게 평가를 구하러 온 것이다.” -1612년 3월 27일 : “홍회와 이위가 시부 지은 것을 가지고 왔기에 평가[科次]를 내려 주고 돌려보냈다.” -1616년 3월 29일 : “유감이 역동서원에서 와서 만나, 과차에서 지은 부 한수를 물었다.” -1617년 12월 17일).

5) 여가 활동 및 산수의 유람

교유 및 공적인 활동을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김택룡은 주로 독서 및 산보로 시간을 보냈다. 일기에 책방冊房이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집안에 독서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읽은 것은 주자朱子の 글(『근사록近思錄』등), 명초明初의 유학자였던 설선薛瑄의 글, 『한서漢書』등의 사서史書 등 다양하였다. 또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산장山莊에 있었던 완심당玩心塘을 산보하거나 시내가나 누대樓臺에 올라 자연을 완상하기도 하였다. 이럴 때 종종 『논어論語』에 나오는 증점曾點의 고사를 인용하거나, 퇴계 이황의 ‘술이 있으면 곧 신선이 될 수 있음이라[有酒能成卽是仙]’라는 시구(1612년 3월 18일의 기록), 장남현(장남현 : 南軒 張栻)의 「풍우정사風雩亭辭」를 인용하여 읊조리기도 하였다(1616년 3월 20일의 기록),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소박한 초탈의 경지를 추

구한 김택룡의 정신세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1612년 4월에는 친지들과 함께 소백산小白山 유람을 떠나기도 하였다. 퇴계 이황도 소백산을 유람하고 「유소백산록遊小白山錄」이란 기록을 남긴 바 있는데, 퇴계의 영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김택룡도 소백산 유람 후 여정에 대한 기록과 동료들과 창수한 시작詩作들을 남기고 있다.

6) 풍속

『조성당일기』에는 김택룡이 직접 경험했던 당시의 풍속에 대한 기록도 충실하게 담겨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선 과거에 급제하여 새로 부임한 ‘신래新來’를 맞이하여 잔치를 벌이고 희롱하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1612년 1월 6일의 일기를 보면, 선전관이 된 금결琴潔(자: 척경澈卿)을 위한 잔치에 초대되어 간 김택룡이 ‘새로 합격한 사람을 부르면서 장난치는[呼新設戲]’ 광경이 등장한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새로 급제한 진사 김주우金柱宇가 서울에서 왔다. 새로 합격한 진사를 부르며 신고식을 하였는데[呼新設戲] 날이 저물어 흡족하게 다 못하고 곧 돌려보냈다(1612년 3월 21일).”는 구절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신래新來를 불러내어 희롱하는 잔치를 ‘도문경연到門慶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이날 김주우의 도문경연을 다시 차리고 나를 와서 참가하라고 초청하였으나 어제 먹은 술로 너무 피곤하다고 사양하였다.” -1612년 3월 22일).

민간 풍속의 예를 살펴보면, 돌을 맞은 아이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광경, 칠석 맞이 동네 연회에서 무고武鼓를 치면서 노는 모습 등등의 기록을 볼 수 있다(“칠석七夕 모임을 풍우대風零臺에서 하루 늦게 가졌다. 숙부, 심신·심인·심지 세 아재와 김순金洵 아재 이하 20여 명이 함께 모여 매우 단란하였다. 새로 만든 무고武鼓와 장고長鼓를 시끄럽게 치니 매우 즐거웠다.” -1612년 7월 8일). 1612년 4월 15일 일기를 보면, ‘활과 화살, 붓과 벼루, 시서詩書 등을 늘어놓고 아이를 기롱했다’는 광경이 나온다. 요즈음 돌잔치의 ‘돌잡이’와 비슷한 풍습이 당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인 등의 행사를 위해 길일을 점치거나 말을 도둑맞았을 때 길흉을 묻는 등 직업적인 ‘점쟁이’에게 자문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김택룡 자신은 『영기경靈棋經』을 이용하여 점을 쳐서 그 점괘를 일기에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7) 역사적 사건의 기록

『조성당일기』는 사적인 일기이므로 주로 자신의 일상생활 및 주변 인물들과 지역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나, 종종 중앙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도 보여서 정사正史의 기록을 보완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612년 발생했던 김직재金直哉 역모 사건이다. 이 사건은 봉산 군수 신율申律이 군역을 회피하기 위해 관인을 위조한 김제세金濟世라는 인물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김백합金白緘과 그의 아버지인 김직재가 주도한 전국적인 규모의 역모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자백한 데서 시작된 역모 사건이다. 김제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단순 무고 사건으로 처리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사건을 키워 공을 세워보려 한 신율의 노력과 이 사건을 소북파를 제거할 정치적 기회로 삼아 옥사를 강경하게 이끌었던 당시 대북파의 수장이었던 이이첨李爾瞻의 주도로 인해 대규모 역모사건으로 확장되었다. 이때 유팽석柳彭石·김

직제·김백함의 공초로 인해 조정의 명사들이 대거 연루되었는데, 무리한 고문과 마구잡이식 공초로 인해 무고하게 연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때 김택룡과 친분이 있었던 김록(金玠)-일기에서는 ‘강릉 영공(江陵令公)’으로 지칭되고 있다. 김록이 강릉 부사를 지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과 류성룡의 아들인 류진(柳珍,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던 정경세(鄭經世)가 잡혀가는 등 지역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이 때문에 김택룡은 김록을 체포하러 온 도사(都事)에게 묻기도 하고 편지로 정보를 모으기도 하여 알아낸 중앙의 옥사 소식을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당시 기록 중 하나인 1612년 3월 9일의 일기를 보면, “정호서(丁好恕)도 엮어 넣었는데, 정호서는 본래 역괴(逆魁)(김직제)와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 정문(廷問)하는 날 다른 사람을 가짜로 정호서로 만들어서 잡아다 놓고 진짜 정호서는 국문하는 열에 서 있게 했다. 가짜 정호서가 역괴를 힐문하게 하니 역괴는 역모를 꾀한 과정에 대해 묻고 답하면서도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몰랐다. 옆에 진짜 정호서가 있으면서도 역괴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래서 조정이 그가 무함(誣陷)으로 엮어 들어갔음을 알았다.”라는 구절을 볼 수 있다. 이 구절은 당시 옥사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사건에 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시에, 이 옥사가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된 옥사라는 사실도 아울러 간취해 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5. 『조성당일기』의 가치

김택룡의 『조성당일기』는 현재 많은 양이 전래되고 있지 않은, 조선 중기의 사대부의 일기이다. 날마다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고, 특히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한 편집을 거치지 않은 자필 수고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의 사실성과 충실도가 매우 높은, 중요한 사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일기는 우선 조성당 김택룡 개인의 일상사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김택룡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이 일기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행적 기록은 각각 영남 유학의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각 인물의 전기(傳記)를 복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며, 경북 안동·예안·영천(榮川 : 현재의 영주) 일대의 지방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일기는 김택룡의 인적 교류·경제 활동·사회 활동 등 외적인 활동, 질병·음주·음식 섭취·주거·의복 등과 관련된 신체적 환경, 독서·문학 창작·자연의 완상·감정의 기복 등의 정신적 활동, 그리고 역모 사건·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한 사건·풍속 등의 사회적 환경 등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1612년·1616년·1617년을 산 한 개인의 모든 측면을 공시적(共時的)이고 미시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1차 사료라 평가할 수 있다.

【박상규】

참고문헌

- 『조성당일기』, 김택룡 지음, 하영휘 역, 2010, 한국국학진흥원.

경당일기

敬堂日記



제목 표제: 敬堂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장흥효 張興孝(1564~1633년)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614~1625년(광해군 6~인조 3)
 형태사항 2책(126장) / 선장(5침) / 사주무변, 무계 / 항자수부정 / 28.8~29.5×24.2~24.3cm
 소장자 안동장씨 경당고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 개요

『경당일기』는 성리학적 도학자로서 장흥효 자신의 치열한 삶에 대한 기록이다. 이 일기는 개인적 사색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문답한 교학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보기 드문 공부일지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찰적 자아가 되어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2. 저자의 생애

장흥효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행원行源, 호는 경당敬堂이다. 1564년 12월 4일 안동 금계리金溪里에서 부장部長 팽수彭壽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이다. 김성일金誠一·유성룡柳成龍을 사사하고, 뒤에 정구鄭述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문명이 높았다.

관계진출을 단념하고 후진의 교도에 전념하여 제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다. 특히, 역학易學을 깊이 연구하여 호방평胡方平의 『역학계몽통석易學啓蒙通釋』의 「분배절기도分配節氣圖」를 보고 오류를 의심, 이를 고증·연구하여 20년 만에 「십이권도十二圈圖」를 추연推演하였다.

1608년(선조 41) 45세에 경광서원鏡光書院 원장을 역임했고, 54세인 1617년(광해군 9) 12월을 배열하고 24절후를 분배하고, 또 '원회운세元會運世'와 '세월일진歲月日辰'의 수를 그 위에 더하여 「일원소장도一元消長圖」를 만들었다. 같은 해 학봉 김성일의 행장을 정구에게 부탁하기 위해 성주星州 신안新安으로 가서 「일원소장도」에 대해 질정을 받고, 『심경心經』 등을 강하였다. 이때의 기록이 『남행록南行錄』이다.

1633년(인조 11) 봄 70세에 창릉참봉昌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2월 7일 교지가 도착하기 전에 졸하였다. 같은 해 4월 천등산天燈山에 장사지냈고, 1649년(인조 27)에 춘파리사春坡里社에 위패를 봉안하였다. 1653년(효종 4)에 외손 이휘일李徽逸이 행장을 지었고, 안동의 경광서원에 옮겨 배향하였다.

1665년(현종 6) 조석형趙碩亨이 「일원소장도」의 발문을 짓고, 아들 조철건趙鐵堅이 간행하였다. 1669년(현종 10)에는 홍여하洪汝河가 묘지墓誌를 지었다. 1691년(숙종 17)에 지평持平에 추증되었고, 외손 이현일李玄逸이 『경당선생문집敬堂先生文集』을 간행하였다.

1809년(순조 9) 5대손 장익한張翊韓, 장세규張世奎 등이 비석을 세우고, 이우李瑠가 묘갈명을 썼다. 1818년(순조 18) 장세규張世奎 등이 『경당문집』 속집續集을 간행하였고, 1848년(현종 14) 경광서원 서쪽 기슭에 천장遷葬하였다.

『경당선생문집』과 후대학자들의 평가에 의거해 볼 때, 장흥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스승은 학봉 김성일과 서애 유성룡 그리고 한강 정구이다. 장흥효는 퇴계의 3고제高弟로 평가받는다. 이 세사람으로부터 모두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한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퇴계학退溪學을 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장흥효의 외할아버지 권덕기(權德麒)는 김성일의 장인 권덕봉(權德鳳)과 형제이다. 그러므로 장흥효의 어머니와 김성일의 아내는 사촌 간으로 장흥효가 김성일을 스승으로 삼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흥효는 12세에 부친의 권유로 김성일의 문하에 들어갔고 비록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17년간 가르침을 받게 된다. 장흥효의 초기 학문세계는 김성일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유성룡과의 만남은 김성일이 죽은 후 이루어진다. 유성룡은 1598년 북인들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안동 화회로 돌아왔다. 장흥효는 이 때 36세로 유성룡의 문하에 들어가 1607년 유성룡이 죽기까지 9년을 그의 문하에 있었다. 그리고 정구와의 만남은 1607년 정구가 안동부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루어졌다. 당시 장흥효는 인근 유림의 명망있는 선생으로 평판이 자자하였으며 마흔을 넘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구의 문하생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경당일기』에는 꿈을 기록한 것이 대단히 많다. 꿈속에서 만난 인물은 가족, 스승, 동료, 제자, 이웃 등 주로 주변인물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전혀 만난 적이 없는 공자와 그 문하생, 주자와 정자 그리고 퇴계 이황까지 등장한다. 그의 꿈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김성일·유성룡·정구이다. 이들이 등장할 때는 항상 학문적 내용을 함께 강론하거나 장흥효가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장흥효에게 지경(持敬)의 삶을 책려(策勵)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꿈의 내용을 보면 장흥효가 평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리학적 문제, 그리고 선생으로부터 받았던 주요 가르침의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퇴계문인으로서 장흥효가 거주하던 서후(西後) 지역의 정신적 사표가 되었던 안동을 대표하는 처사(處士)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에게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당일기』에서 권호문은 장흥효의 꿈속에 4번 등장하여 그에게 가르침을 준다. 권호문은 경광서당(鏡光書堂)의 이름을 지었고, 권호문 사후 장흥효가 경광서당을 꾸려 나갔다.

『경당선생문집별집』에 수록된 「경당급문제현록(敬堂及門諸賢錄)」을 통해 장흥효의 문인(門人)들은 주로 그가 거주하던 안동 서후를 중심으로 한 향반(鄕班)의 자제들이며 안동부 전역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 일대에 포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인록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 중에서 『경당일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무려 100여명이 넘으며,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문인록에 등재되지 않은 인물도 상당수 있다. 연령대는 1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다양하며, 거주지는 안동 서후와 안동 풍산 출신이 약 70%에 달한다. 그리고 임하의 전주류씨 오천의 광산김씨 자제들이 입문하였고, 상주·의성·영해·영주·영양·봉화·예천 등지 재지사족들의 자제들이 몰려들었다.

이들 중 가장 주목할 집단은 학봉 김성일의 후손들이다. 숫적으로도 가장 많고 일기에 등장하는 횟수로도 압도적이다. 학봉의 손자대에 이르러 후손의 대부분이 경당의 문하에 나아간다. 서애의 후손 역시 학봉의 후손에 비해서는 열세이지만 상당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문하생 중에는 친인척간이 상당수이다. 사위 석계(石溪) 이시명(李時明)과 그 아들 이상일(李尙逸), 이휘일(李徽逸)이 함께 경당의 문하에 들었는데 이상일은 유성룡의 아들 유진(柳珍)의 사위이다. 즉 이상일을 중심으로 본다면 부자, 장인-사위, 사돈 간에 동문을 이루었다. 특히 이시명은 이황의 학통을 이은 장흥효에게서 이학(理學)을 전수받아 아들 이휘일(李徽逸), 이현일(李玄逸)형제에게 전하여 주리학

통_{主理學統}의 전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장흥효는 주로 45세 이후 제자들을 받아들였으며 학봉과 서애 사후 경북 북부지역 최대의 학단_{學團}을 이루었다. 그의 문인들은 스승의 교육방침에 따라 과거를 통한 관료지향의 삶보다는 유학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사색하고 삶 속에 실천하고자 애썼다.

2. 『경당일기』의 구성과 체제¹

『경당일기』는 현재 중권과 하권 총 2권 2책이 남아있다. 갑인년_{甲寅年}(1614년(광해군 6), 저자 51세)에서 무오년_{戊午年}(1618년(광해군 10) 저자 55세)까지가 중권, 기미년_{己未年}(1619년(광해군 11) 저자 56세)에서 을축년_{乙丑年}(1625년(인조 3) 저자 62세)까지가 하권이다. 그런데 하권 표지 내의 5대손 장세규의 발문을 통해서 이 일기는 원래 상·중·하 총 3권 3책으로 편집되었으며, 상권은 경인년_{庚寅年}(1590년(선조 23) 저자 27세)에서 계축년_{癸丑年}(1613년(광해 5) 저자 50세)까지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세규 편집 당시 『경당일기』는 저자 27세인 1590년부터 62세인 1625년까지의 일기였으며, 현재는 51세인 1614년 5월 5일부터 62세인 1625년 10월 28일까지 도합 11년 6개월간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중권 표지 내면에 ‘경광서원’이라 적혀 있어 이 일기가 경광서원 장서본임을 알 수 있다.

일기는 당해년 아래 달을 적고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누락된 날이 많고 때로는 빠진 달도 많다. 중권은 52장이며, 하권은 74장인데 이중 71장까지가 일기이고 72장째에는 번곡_{樊谷} 권창업_{權昌業}이 기록한 장흥효의 ‘고종기_{考終記}’가 실려 있다. 이는 계유년 1월 26일에서 임종일인 2월 7일까지의 기록이다. 장흥효는 이 해 1월 20일 쯤에 자리에 누워 2월 7일에 임종하였다. 그 외에 제자 권원길_{權元吉}이 지은 시 두 편과 배익겸_{裵益謙}이 지은 시 한 편, 우암 송시열이 지은 ‘번곡처사권공묘표_{樊谷處士權公墓表}’, 저자 미상인 ‘단계_{丹溪} 이척_{李戚}에게 주는 편지(상희_{相羲} 병진년 3월 15일)’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장흥효는 거의 평생 일기를 써 왔다. 하지만 그의 사후 5대손이 일기를 편집하여 성책할 때 까지 많은 부분이 유실된 듯 하며, 위 부록들도 권창업의 고종기를 제외하면 이 일기와는 직접 관련 없는 내용들이 합철되었다.

¹ 본 해제의 「경당일기」의 구성과 체제, 내용, 가치는 「국역 경당일기」(한국국학진흥원, 2012.)의 해제 내용을 일부 수정, 편집한 상태로 전재하였음을 밝혀둔다.

3. 『경당일기』의 내용

1) 독서록과 교육서목록, 그리고 교학방법

『경당일기』의 가장 큰 특징은 공부록工夫錄이라는 점이다. 즉 자신의 수행과정과 독서록,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시킨 방법과 내용 및 교육서목록教育書日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몇 월 며칠에 제자 누구누구가 찾아와서 무슨 책을 얼마 정도 읽었고, 그때 누가 어떤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기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독서록과 교육서목록은 그 사람의 학문적 관심과 사유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한다.

- 『중용中庸』을 읽음.(1614, 51세)
- 『소학小學』을 펼쳐봄.(1614, 51세)
- 홍하량洪河量이 와서 『대학大學』을 익히게 함.(1614, 51세)
- 『역학계몽易學啟蒙』을 읽음.(1615, 52세)
- 홍하량洪河量과 함께 『중용中庸』을 강론함.(1615, 52세)
- 김자중金子中(시권是權), 김자고金子高(시절是稅)로 하여금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을 두 세 번 읽게 함.(1615, 52세)
- 안우安遇가 와서 『심경心經』, 『심경석의心經釋疑』, 『서산독서기西山讀書記』, 『황돈부주 篁墩附註』등에 대해 묻다.(1615, 52세)
- 안우安遇와 함께 『역학계몽易學啟蒙』「계사상전繫辭上傳」을 강론함.(1615, 52세)
- 오경허吳景墟(여벌汝撥)가 와서 『주역周易』을 익힘.(1615, 52세)
- 『주역周易』「계사繫辭」를 읽음.(1616, 53세)
- 유인배柳仁培가 와서 『심경心經』을 익히게 함.(1616, 53세)
- 김자고金子高(시절是稅)와 함께 『중용장구中庸章句』를 강론함.(1616, 53세)
- 『심경발휘心經發揮』를 읽고 한강에게 질문함.(1617, 54세)
- 김여탁金如鐸 등이 와서 『심경心經』을 읽음.(1618, 55세)
- 여러 유생儒生들과 함께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론함.(1618, 55세)
- 권경원權景元이 찾아와서 『중용中庸』을 묻다.(1619, 56세)
- 홍하량洪河量 등과 함께 난계 범씨蘭溪范氏의 「심잡心織」을 읽음.(1620, 57세)
- 김자고金子高(시절是稅)와 류장경柳長卿이 찾아왔다. 이어서 『맹자孟子』와 『논어論語』를 강론함.(1621, 58세)
- 홍군수洪君受(하량河量)가 찾아왔다. 이어서 『주서절요朱書節要』를 강론함.(1622, 59세)
- 『주역周易』의 「정진서程傳序」를 읽음.(1623, 60세)
- 여러 유생儒生들과 함께 『근사록近思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역학계몽易學啟蒙』에서 의문나는 뜻을 설명함.(1624, 61세)
- 권창업權昌業 등에게 『심경心經』을 가르침.(1624, 61세)

- 제자들에게 『심경발휘心經發揮』를 보라고 권함(1624, 61세)
- 홍군수洪君受(하량河量)가 찾아왔다. 이어서 『서경書經』 「서문序文」을 강론했다(1624, 61세)

이상의 독서록과 교육서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 된다.

첫째, 자신을 위한 독서목록과 제자들을 위한 교육서목록이 대부분 일치한다.

둘째, 문학서, 역사서, 예학서보다는 철학서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셋째, 고대 유가경전보다는 성리학 이론서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넷째 고대 유가경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학』과 『중용』을 중요시하였다.

다섯째, 성리학 이론서 중에서도 정주계열程朱系列의 기본서적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여섯째, 성리학 이론서 중에서도 존심양성存心養性의 수양을 언급하는 심학계열心學系列의 서적을 중요시하였는데, 『심경』, 『심경발휘』 등이 특히 그러하다. 심학계열의 독서기록은 일기 전반보다 후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삶의 후반부에 이르러 심학계통의 서적을 집중적으로 독서하고 강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역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주역』 「계사전」, 『역학계몽』이 자주 등장한다. 장홍효가 역학에 능통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점은 장홍효의 역작 『일원소장도一元消長圖』가 다름 아닌 주역의 64괘로써 천지의 변화하는 이치와 사시四時의 변동, 일월日月의 소장消長을 설명한 역학서임에도 나타난다.

한편 장홍효의 문하에는 1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제자들이 함께 수학하였다. 그러므로 교학방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일기에는 장홍효의 교학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우선 15세 전후의 어린 제자들에게는 문답식의 토론식 공부보다는 기초 수학 과정상의 습자習字, 구독句讀, 독송讀誦의 방법이 주로 행해졌다. 이재욱李再燾을 예로 들어보면, 그는 15세인 경신년(1620) 10월 21일 일기에 처음 등장하여 19세이던 갑자년(1624) 12월 11일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와서 공부하였다”(경신년 10월 21일), “여기에 머물며 책을 읽었다”(신유년 10월 22일), “글자를 물었다”(신유년 10월 24일)라고만 되어 있다. 그렇지만 4년 후인 갑자년의 기록을 보면 “이재욱군과 함께 『심경心經』을 강론했었다”(갑자년 3월 13일), “퇴계 선생의 편지를 통독하였다”(갑자년 12월 11일)라고 하며 교육서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명기된다. 그리고 수업방법도 점차 토론 위주의 수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재욱의 형인 이재환李再煥의 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다르다. 이재환이 일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경신년(1620)이다. 당시 이재환은 동생 이재욱보다 2살 연상으로 17세였다. 이재욱은 19세에 비로소 성리서性理書를 공부했지만, 이재환의 경우는 처음부터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다섯 장 반을 읽었는데 두 번을 마쳤다”(경신년 11월 6일)고 되어 있다. 장홍효의 교학법은 나이에 따른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학업수준에 따른 수준별 학습이었다.

일정 수준의 학업수준에 도달한 제자들은 장홍효의 거처에서 함께 기숙하거나 매일처럼 정기적으로 학업을 연마하지는 않는다. 부정기적으로 장홍효의 처소를 방문하여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성리학적 묘미를 깨달아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선생은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한다. 어떤 경우에는 선생이 제자들의 깨우침을 돕기 위해 질문하고 제자들이 이에 답하기도 한다.

2) 일상생활의 기록

『경당일기』에는 장홍효의 삶이 구체적 생활일기로 드러난다. 일기의 발문을 쓴 장세규의 말처럼, 장홍효는 모든 일상사와 문인이나 친구들과 왕래하고 대화한 것 또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각종 제사와 질병 및 장사(葬事)에 대한 기록이 많고, 이 외에도 집안과 마을의 풍속, 유자(儒者)와 관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많다.

그렇지만 경당일기에는 정치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신년에 중국 명나라 황제의 부음을 전해 듣고 애통해 하는 기록과 신유년에 “변방의 기이한 소문이 날로 들린다”라고 하며 당시의 정세를 걱정한 기록, 그리고 갑자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을 맞아 이를 대처하는 지역사회의 풍경과 정치적 추이를 언급하는 기록 정도가 정치적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생활일기로서의 몇 가지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정사에 관한 내용이다. 오랫동안 병환을 앓고 있는 아내에 대한 염려, 첫 부인이 죽게 되자 애통해하는 딸의 모습 등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새 아내를 맞을 당시의 기록도 남아 있는데, “학산 기슭에서 친영례를 행하였다.”(경신년 12월 24일)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자주 등장하는 가족사의 기록은 사위와 외손들에 대한 것이다. 비록 자신은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지만, 사위의 급제소식에 대단히 기뻐하며, 손녀의 부음을 듣고서는 비통해 한다. 특히 새 아내가 연달아 두 번 딸을 낳자 실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속내를 털어낸다. “해시에 딸이 태어났다. 아들 낳기를 바라는 마음 지극한데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속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래도 뒷날을 기약하며 허전한 마음을 달랠 뿐이다.”(계해년 10월 8일)라고 하였다. 그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외손을 얻었다. 외손의 영특함과 학자적 자질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일기 곳곳에서 외손에 대한 칭찬과 자랑스러움을 밝혔다 “손자가 태어 난지 겨우 4일인데, 울음소리는 마치 한 살 된 아이와 같다”(기미년 10월 24일)고 자랑하였으며, “수재(秀才) 이삼달(李三達)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며, 자신의 손자를 수재로 칭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향교의 향임(鄕任)을 맡고 향약(鄕約)을 집행하고, 또한 서재 및 학당의 학무(學務)를 관리하는 등 향촌사회의 크고 작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강신례(講信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를 비롯하여 각종 마을회의에도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마을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도 관여하였다. 그는 날씨와 농사일에도 민감했으며 가뭄이 심할 때에는 매일 일기에 그날의 날씨를 기록하며 농사일을 염려했다.

3) 경예를 실천한 도학자(道學者)로서의 삶

『경당일기』에는 호학자(好學者)로서 장홍효의 삶이 잘 드러나 있다. 그에게 있어서 벗은 함께 책 읽고 토론하고 도(道)를 즐기는 도반(道伴)이었다. 그러므로 그 대상이 누구이든 글을 알고 학문을 함께 논할만하면 항상 더불어 학문을 즐겼다. 그 대상으로는 아우, 매서(妹婿), 사위, 외손 등 친

인척은 물론 자신을 찾아오는 거의 모든 식자층이 망라되었다. 심지어는 사돈인 이함李涵의 회갑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돈댁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사돈과 함께 며칠을 이어가며 종일토록 책상을 마주하고 함께 학문을 논하였다.(임술년 4월 1일~8일)

그는 누구에게라도 가르침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가 마흔을 넘긴 나이에 한강 정구의 문하생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사례는 너무나 유명하다. 심지어 어린 손자에게 답하는 편지에서도, “너의 편지를 보았다. 네 할아버지의 나약한 것도 깨우치게 해주었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장흥효에게는 모든 사람이 배움의 대상이었고, 그러한 면에서 『정당일기』는 배움의 과정을 그려나간 진솔한 공부록工夫錄이었다.

장흥효는 유학과 성리학의 기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평생을 애썼다. 일기에 유독 자주 나오는 표현이 “마음을 놓은 지가 오래되었다[心放之遠]”, “말을 함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였다[言信口說]”, “길을 감에 발이 가는데로 걸었다[行信足步]”라는 구절이다. 이것은 그가 평소 생활에서 끊임없이 마음공부를 수행하였다는 증거이다. 말을 할 때, 심지어는 걸음을 걸을 때도 공경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경당은 특히 걸음걸이에 많은 주의를 하였다.

그는 부모를 모시고 형제와 더불어 지내며 아내를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였다. 일기가 기록된 시절에는 이미 부모와 동생이 모두 죽고 난 후여서 그들을 대하는 실제 모습을 알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꿈에서 아버지를 만나 가르침을 받거나(병진년 10월 28일, 임술년 1월 13일·5월 10일·12월 17일) 어머니를 만나고(무오년 9월 4일), 심지어는 죽은 동생을 만나서 그에게도 가르침을 청하는 모습에서(경신년 8월 20일) 이들을 대하는 경당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읽어볼 수 있다. 그는 일기에 꿈이야기를 성실하게 기록해 두었으며 항상 말미에 “이 무슨 꿈인가?”라며 꿈의 의미를 새겨보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였다.

일기를 살펴보면 그의 모든 생활이 경敬을 지키려는 수양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제멋대로 말하는 것과 함부로 걷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했지만, 술에 취해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를 가장 후회하고 반성하였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있는 그대로 일기에 기록하며 스스로를 반성하였다.

장흥효의 일상은 전형적인 ‘선비’의 삶 그 자체였다. 배움에 충실하였고, 배운대로 실천하는 일에 항상 정진하는 지경持敬의 삶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날을 마땅히 아껴야 하니 죽기 전에는 한 시각도 한가할 수 없다”(병진년 3월 26일)라고 고백하고 있다. 『정당일기』는 장흥효 자신의 지경持敬의 삶을 기록한 ‘체험기’였다.

4. 『경당일기』의 가치

장흥효가 활동했던 시대는 영남학과와 기호학과의 대립이 현실화되고 남인세력이 서인정국과 격렬하게 대립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이다. 다시 말하면, 퇴계 3고제로 대표되는 직전제자直傳弟子이후부터 갈암 이현일 형제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이전의 시기까지로서 17세기 전반부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퇴계학이 ‘학과’로 형성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시대이다. 『경당일기』는 이 시기 경북 북부지역의 주요 성리학자들과 그들의 기본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퇴계학이 학파로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그 이론적 특징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경당일기』는 내용이 소략함에도 불구하고 장흥효의 학구생활의 고뇌와 즐거움이 함께 녹아 있어서 그의 삶의 참 모습을 살피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일기에 간헐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자기반성과 수신에 관한 기록을 통해 한 도학자의 고뇌하는 절제된 생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그가 속한 향촌사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양반이나 기층민의 생활사 자료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제사와 관련된 기록은 충분한 분석의 가치가 있다. 장흥효는 제사에 관련된 내용은 비록 짧더라도 빠뜨리지 않고 거의 일기에 기록하였다. 따라서 50대의 장흥효가 어떤 제사를 주관하였으며, 어떤 제사에 참가하였는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흥효 가문의 봉제사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7세기초 경상도 안동지역 제사 모습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하나의 준거로 이용될 수 있다.

『경당일기』는 초야에 묻혀 학문에만 평생을 바친 순수한 학자의 일기로서, 학구생활의 고뇌와 즐거움이 함께 녹아 있고, 저자가 속한 향촌사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양반이나 기층민의 생활사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아울러 조선후기 성리학사의 큰 맥을 이은 대학자가 남긴 공부일기로서 한국 사상사의 전개과정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박상규】

참고문헌

- 『국역 경당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2.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인물연표(人物年表)

죽소부군일기

竹所府君日記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170호, 지정년도 1983년)

제목 표제: 竹所府君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권별 權龜(1589~1671년)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625~1626년(인조 3~4)
 형태사항 1책(34장) / 선장(5침) / 사주무변, 무계, 무어미 /
 16행 자수 부정 / 28×24cm
 소장자 예천권씨 초간종택
 보관장소 개인소장



1. 개요

『죽소부군일기』는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의 아들인 죽소竹所 권별權躡이 37세와 38세에 쓴 친필본 생활일기이다. 이를 연도로 환산하면 1625년(을축년) 1월 1일부터 1626년(병인년) 12월 30일까지인데, 1626년에 윤6월이 끼어 25개월간의 일기가 된다. 생활일기의 특성상 단지 2년 동안만 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가 쓴 일기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현재 나머지 일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일기에서 권별은 자신이 경험한 일상의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이 일기는 그날 벌어졌던 일을 그날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기 서술방식은 날짜를 먼저 쓰고, 간지를 쓰며, 날씨를 적고, 그날의 일을 적었다. 일기의 내용을 대강 분류해보면 집안의 일상적인 일이나 제사·장례에 관한 것, 권별 자신이 병에 걸렸던 것, 철에 따라 씨를 뿌리고 수확하였던 것, 향교나 서원에 출입한 일에 관한 것, 매사냥에 관한 것, 천렵에 관한 것, 유람에 관한 것 등이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기록들을 추려보면, 죽소 자신이 걸린 병에 대하여 그 병증과 치료과정을 상세히 적고 있다는 것, 향교의 인원구성에 대한 것, 스승의 죽음과 관련하여 해당 인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였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강원도 유람에 관한 기행문을 실고 있다.

권별은 문집이나 연보가 전하지 않아 정확한 행적을 알 수 없다. 이에 이 일기는 그의 행적 일부를 추적할 수 있고, 그의 삶과 학술적 경향을 살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1983년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 170호로 지정되었다.

2. 저자의 생애

권별權躡은 1589년 11월 29일에 태어나 1671년 12월 3일에 졸하였다. 자는 수보壽甫이고, 호는 죽소竹所이며, 본관은 예천禮泉이다. 아버지는 사간司諫·공주목사公州牧使·대구부사大丘府使·좌부승지左副承旨 등을 지낸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이고, 어머니는 함양咸陽 박씨朴氏로서 박지林芝의 딸이다.

권별은 단군조선 이래 고려 말까지의 왕실의 일들과 조선 광해군 이전까지의 인물 1,074명에 대한 전기를 집대성한 『해동잡록海東雜錄』14권을 편찬했다.

권별의 아버지 권문해는 권별이 세 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권별의 가문은 영남에서도 저명한 가문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전통의 유학儒學을 익히면서 자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관심을 가졌던 역사학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나이가 들면서 학문은 점차 성숙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대동운부군옥』을 읽고 정리하면서 아버지를 이어 『해동잡록』을 편찬한 것이다. 그는 벼슬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학자로서의 삶을 걸었던 인물이다.

3. 『죽소부군일기』 구성과 체제

『죽소부군일기』는 초서체와 행서체로 쓰여졌다. 겉표지에는 ‘죽소부군일기竹所府君日記’라는 한문 표제가 있다. 원본은 38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쪽마다 16행으로 되어 있고 행마다 글자 수는 일정하지 않다.

이 일기는 날짜·날씨·기사로 구성된 권문해의 『초간일기草間日記』와 달리 각 달의 크고 작음을 밝히고, 매일 그날의 간지 및 절기를 밝혀주고 있다. 혹 그날의 기사가 없다 하더라도 매일 날짜와 간지는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날짜·간지만 기록된 날이 70일이고, 날짜·간지·날씨만 기록된 날이 70일이나 된다. 따라서 이상의 날짜를 빼면 2년 중에서 실제로 그 내용이 실린 날은 586일이 된다. 그리고 절기를 표시할 때는 이월절二月節, 삼월절三月節, 사월절四月節, 정월중正月中, 이월중二月中, 삼월중三月中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우수雨水·경칩驚蟄·춘분春分·청명淸明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한 날짜 뒤에는 간지를 넣어 표기하였고, 간지 뒤의 첫 언급은 대부분 날씨에 관한 것이다. 날씨에 관해 기술할 때는 맑고 흐림 정도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렸다면 그 양이 얼마인지를 농사와 연관 지어 밝혔다.

4. 『죽소부군일기』의 내용

1) 병증과 치료 과정

권별은 을축년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여 개포開浦에서 우곡愚谷 누이의 집으로 부친의 차례를 지내러 갔다가 병에 걸린다. 이후 권별은 자신의 병증에 대해 ‘1월 2일’자부터 한 달이 넘도록 자세히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리미를 따뜻하게 하여 배를 눌러주는 율법灸法, 땀을 내어 치료하는 한법汗法, 냉약冷藥을 써서 열병熱病을 치료하는 법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병증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아프며 오한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방으로 들어가 엎어져 누워서는 인사불성이 되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으레 상한傷寒을 앓아 왔으니, 이 병은 애써 땀이 나는 날까지 기다릴 밖에 도리가 없다고 여겼다. 밤이 되어서는 답답하고 괴로우며 갈증이 심하여 찬 것을 무절제하게 마셨더니 계속하여 헛구역질이 새벽까지 한결같이 몹시 괴로웠다. (‘1월 3일’자)

증세는 전날과 비교해 보아 더욱 심해졌다. 숨은 차고 입은 말랐으며, 몸은 불덩어리처럼 열이 났다. 먹은 것은 콩죽뿐이었으나 전보다 배는 더 마셨다. 비록 얼음조각을 삼켰지만 이가 시린 줄을 몰랐다. 대체로 이 병은 땀을 내는 것이 좋으므로 갈근탕葛根湯을 두 차례 마신 후 구들장을 따뜻하게 하고 이불을 두겹게 덮어서 두 번 땀을 내었으나 별달리 나으려는 기미가 없었다. 가슴은 늘 답답하고 두 무릎에는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하여 성립性立에게 때때로 밟도록

하였다. 답답하고 괴로우며 머리가 아픈 것은 밤이 새도록 마찬가지였다. (‘1월 4일’자)

권별은 이때까지 자신이 앓고 있는 증상에 대해 일반적인 상한(傷寒, 감기)이라고 진단하고 상한에 대한 처방으로 발한법(發汗法, 땀을 내는 방법)과 갈근탕을 쓰고 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실린 상한의 증상과 갈근탕의 적응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한양독(傷寒陽毒) ○ 상한(傷寒)일 때 삼양경(三陽經)의 병이 심해지면 반드시 양독(陽毒)으로 변한다. 혹 땀을 잘못 냈거나 설사를 잘못 시켰거나, 혹 본래 양증(陽症)인데 열약(熱藥)을 잘못 써서 열독(熱毒)이 깊이 들어가게 하였다면 미친 듯 날뛰고 얼굴빛이 붉어지며 눈에 핏줄이 서고, 몸에 반진·황달이 생기거나 피가 섞인 설사를 하며 육맥(六脈)이 홍대(洪大)해지는데, 이것을 ‘양독발반(陽毒發斑)’이라고 한다. 『의감』 ○ 양독(陽毒)이 병이 나면 얼굴이 붉고 비단무늬 같은 반진이 돋으며, 목구멍이 아프고 농혈이 섞인 가래를 뱉는데, 5일을 넘지 않은 것은 치료할 수 있으나 7일이 넘은 것은 치료할 수 없다. 이때는 양독승마탕(陽毒升麻湯)·양독치자탕(陽毒梔子湯)·갈근탕(葛根湯)을 쓰고, 곁으로는 수지법(水漬法)을 쓴다. 『활인』(『東醫寶鑑』「雜病篇 卷二·寒(上)」)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죽소가 앓고 있었던 병은 넓은 의미에서는 상한에 속하는 것이나 좀 더 세분하였을 때는 상한열병(傷寒熱病)에 속하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기 ‘1월 5일’자에서는 마침내 그 병증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1월 8일’자에는 이와 같은 증상의 병을 알아보았다는 권별의 아내의 권고에 따라 냉약(冷藥, 찬 성질의 약물)을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아내가 …… 들어와 보고는 “어찌 냉약(冷藥)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이뿌리는 이미 드러났고 혀 위에는 누런 설태(黃苔)가 이미 생겼으니, 약을 쓰기는 늦었습니다. 제가 이 병에 걸린 적이 있어서 이 병의 근본을 잘 아니, 열이 오를 때마다 수시로 냉물을 쓴다면, 일시에 많이 투약하는 폐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한 열이 갑자기 치오를 우려도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월경수(月經水) 세 증발을 썼더니 가슴을 막고 있던 것이 일시에 사라져 인사를 조금 알게 되었고 말은 평상시와 같아졌다. (‘1월 8일’자)

위의 내용에 따르면 냉약, 곧 냉물의 구체적인 처방은 ‘월경수(月經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에 언급된 월경수의 적응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월수(婦人月水) ○ (남자가 열병을 앓고 난 뒤 여자와 교접하여 재발한) 여로복(女勞復)과 음경(陰經)에 열(熱)이 있는 것을 풀어준다. 『본초』(『東醫寶鑑』「雜病篇 卷三·寒(下)」)

월경수 외에 석고(石膏)는 그 성질이 몹시 찬 것으로서, 냉약의 대표적인 약재 가운데 하나인데, 역시 ‘부인월수(婦人月水)’가 수록되어 있는 『동의보감』「잡병편 권3·한(하)」에 실린 ‘석고’조를 보

면 다음가 같다.

석고石膏 ○ 상한열병傷寒熱病으로 땀이 난 후에 맥이 홍대洪大하고, 머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며 갈증이 심한 것을 치료한다. 석고를 부수어 1냥을 물에 달여 먹는다. 『본초』

이상의 예에서 본 대로 '월경수'와 '석고'의 적응증을 볼 때 권별이 앓고 있었던 병은 상한열병傷寒熱病이었고, 그에 따라 '1월 18일, 20일, 21일'자 등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냉약인 월경수를 복용하고 차도를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월경수를 복용한 예는 『초간일기』 '1588년 4월 9일'자에도 수록되어 있는 바, "밤에 몹시 아파서 탕약을 연이어 복용하였으나 조금도 차도를 보지 못하였다. 월경수月經水를 하루에 3~4사발 마시고나서 답답하게 나던 열[煩熱]이 줄어드는 듯하였다. 라고 하였으니 권문해 역시 열병熱病에 냉약冷藥인 월경수를 써서 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의 의학사를 연구하는데 참고 자료로 삼을 만하다. 아울러 자신의 병으로 인해 누이와 아내, 노비들이 걱정하는 정황, 더구나 사돈댁에서 병을 앓고 있을 때에 누이의 시어머니께 누를 끼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심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 죽소의 인간적 면모를 짐작해 보는데도 참고가 된다.

2) 향교의 인원구성

이 일기는 아주 소략하지만 향교의 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죽소는 향교의 장의掌議로서 활동하는데, '을축년 10월 2일'자 일기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액내額內(정원의 안)와 액외額外(정원의 밖)를 수정修正할 일로 향교에 들어갔다.

향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교생이라고 불렀는데, 교생의 정원은 향교가 있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리고 교생은 신분에 따라 액내 교생과 액외 교생을 두었던 바, 양반의 자제들은 액내 교생으로 정원 내의 교생이었고, 서얼과 평민은 액외 교생으로 정원 외의 교생이었다. 죽소는 이날 액내와 액외의 정원에 문제가 생겨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향교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10월 6일'자에 죽소는 향교의 장의가 되었다는 고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향중대회가 있어 향교에 들어갔다. 정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오늘은 향중대회鄉中大會가 있는 날이라 장의掌議가 없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억지로 내려갔다. 병사兵使가 오후에 (예천)군郡으로 들어왔다. 유장儒將 이창운李昌運 어르신을 액내額內로 할지 액외額外로 할지 수정하지 못하였다.

이창운을 액내 유생으로 할 것인지 액외 유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거기

에 대한 답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대략적으로 향교에 입학했던 나이가 열대여섯 살이었음을 볼 때 이창운은 장년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향교에 입교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한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창운이 양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액내 정원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액내와 액외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10월 11일’ 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정안正案을 써냈는데, 액내額內 270여 인, 업유業儒 70여 인, 액외額外 60여인이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 날의 짧은 일기를 통해 액내와 액외의 교생과 더불어 업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액내는 양반의 자제였고, 서얼과 평민을 업유와 액외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원의 수를 통해 향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여 일에 걸쳐 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모임을 가진 내용으로 보아 향교의 정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권별은 향교의 임원으로서 유생들의 제술에 관여하거나 기우제의 축문을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3) 스승의 죽음에 대한 기록

권별은 또한 산음山陰 함장函丈(스승), 즉 이개립李介立의 죽음에 대해 이 일기에서 을축년 9월 20일'자에서 병인년 '1월 20일'자까지 여러 날에 걸쳐 기록하고 있다. 조정趙綱이 지은 이개립의 「묘갈명墓碣銘」에 따르면, “이개립은 행실이 독실한 군자君子로서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조금 자라서는 하는 말에 진세塵世의 기운이 없어서 선배 소고嘯臯 박승임朴承任 같은 분이 유독 훌륭하게 여겨 입이 닳도록 추장推獎하여 사림士林 사이에 명성이 자자하였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항병 대장鄉兵大將으로 활동하였는데, 병사兵使의 무함誣陷을 받게 되면서 향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공은 이때부터 문을 닫고 찾아오는 사람을 수십 년 동안 물리쳐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얼굴을 본 것이 드물었으나 오직 옛날의 문도門徒들이 학업 강론을 청하여 문밖에 항상 신발이 가득하였는데, 이렇게 만년까지 지냈다.”라고 한다. 이러한 이개립의 죽음에 대해 이 지역의 지식인들은 그의 장례를 치름에 있어 크게 공력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 일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오후에 산음山陰 함장函丈(스승)의 부음이 왔다. 즉시 내려가서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곡을 하였다. (을축년 9월 20일'자)

산음山陰 함장函丈의 귀빈일歸殯日이다. 중기병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였다. (9월 28일'자)

오늘은 회를 굽고, 함장函丈의 장사 때 모든 유사有司가 일제히 모이는 날인데, 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10월 12일'자)

이 함장函丈의 장사에 참석했을 때 부물賻物을 보내지 않은 인원에 대해 죄를 논하는 일로 광원廣院 시냇가에 모였다. (부물을) 보내지 않은 인원은 모두 한 달간 자격을 박탈하는 벌(朔損)을 받았다. ('병인년 1월 20일'자)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병인년 '1월 20일'자의 기록이다. 곧, 이 함장의 장사에 부물을 보내지 않은 인원에 대해 모두 한 달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벌인 삭손朔損을 시행하여 엄히 징치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해당 인원에게 일정 정도 부조물품을 내도록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대에서 존경받던 스승에 대한 예를 다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4) 강원도 유람

이 일기에서 가장 정채精彩를 발하는 부분은 그가 관동지방을 유람한 대목이 아닌가 싶다. '1626년 8월 7일'자에 보면, 권별이 강원도 관찰사가 된 그의 고종사촌 자형 최현崔峴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일기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때 최현은 권별에게 강원도 유람을 권하였던 듯싶다. 이것은 이후 권별이 강원도를 유람하면서 최현을 만나고 그의 지원을 받는 것을 볼 때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부터 2개월 뒤인 '10월 4일'에 권별은 관동 유람길에 오른다. '10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그 여정이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가보면 다음과 같다.

10월 4일 관동關東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남 → 갈산高山·청암정靑巖亭(10월 5일) → 춘양春陽·살내현殺乃峴·어대령於臺嶺·고선촌점高善村店(7일) → 초재草站·근현謹峴·동점銅店·천천穿川(8일) → 어읍령於邑嶺(9일) → 마차평麻叉坪·이촌점里村店·십이탄十二灘·삼척부三陟府·오십천五十川의 하류(10일) → 죽서루竹西樓·연근당燕謹堂·평릉平陵·우계羽溪·불노현不老峴·울현栗峴·안인역安仁驛(11일) → 강릉江陵·구산서원丘山書院·구산역丘山驛(12일) → 횡계橫溪·오대산五臺山 월정사月井寺(13일) → 진부珍富·대화굴大和窟·대화역大和驛 → 방림芳林·운교雲郊(15일) → 안행安行·오원烏原 → 횡성橫城·창봉역蒼峯驛·홍천洪川(17일) → 천정역天定驛(춘천)(18일) → 유선각遊仙閣(19일) → 청평사淸平寺(25일) → 식암息庵·견성암見性庵·영지影池·송대松臺·소양강昭陽江·소양루昭陽樓(26일) → 인제麟蹄(27일) → 유선각遊仙閣(30일) → 원정元定(11월 1일) → 홍천洪川·창봉蒼峯(2일) → 횡성橫城·반구정伴鶴亭·보안역保安驛·(춘천)부府(3일) → 보안역保安驛(15일) → 신림역新林驛·제천堤川(16일) → 단양현丹陽縣·후평後平(17일) → 운암雲巖·천주사天柱寺(18일) → 19일 금곡金谷에 도착함.

위와 같은 여정 속에서 권별의 감회와 경관 묘사가 가장 빼어나게 표현된 곳은 월정사('병인년 10월 13일'자)와 청평사를 방문했을 때였다. 그 중 이 일기의 백미라고 평가할 수 있는 청평사에 대한 묘사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상린祥麟과 함께 오후에 청평사淸平寺를 향해 길을 나섰다. 한 바위를 지나서 자리를 옮겨 골짜기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니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너른 바위는 평평하게 펼쳐져 있었다.

키 큰 소나무 그늘진 길을 걸음걸음 아끼며 감상하자니 기쁘기가 마치 몸이 청도(淸都)(옥황상제가 사는 천상의 궁전)에 들어온 것 같아서 말에 안장을 □□줄도 몰랐다. 절 앞 몇 리쯤에는 위아래로 폭포가 있는데, 모두 열 길은 되는 듯하였고 마치 흰 비단을 □□□에 늘어뜨린 것 같았는데, 날이 저물어 조용히 살펴 감상하지 못하였다. 절 문 앞에는 영지(影池)(사물이 비치는 연못)가 있는데, 연못의 물이 맑고 깨끗하여 서산(西山)의 모든 □□이 이 연못에 비쳤다. 비록 물결이 흔들려 (물속에 비친 그림자가) 없어졌지만 드나드는 미세한 자취가 모두 하나하나 비치기 때문에 못이 이런 이름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향나무와 이깔나무가 그 뒤에 어지러이 심겨져 있다. 하나의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 절문 앞에 이르니 월대(越臺)가 위아래로 있는데, 상대(上臺)의 양쪽 곁에는 네모난 연못이 있다. 연못가에는 각각 한 개씩의 비석이 서 있는데, 동쪽의 것은 중수사적비(重修事蹟碑)이고 서쪽의 것은 진락공사적비(眞樂公事蹟碑)이다. 갑인년(甲寅年)(1554)과 을묘년(乙卯年)(1555) 사이에 보우(普雨)대사가 이 절을 중창(重創)하였다고 하는데, 규모와 단청은 지극히 광대하고 사치스러웠다. 문루(門樓)는 강선각(降仙閣), 전문(前門)은 이환문(離幻門), 외문(外門)은 청평사문(淸平寺門), 법당(法堂)은 □□□라고 이름하였다. 동서 선승당(東西禪僧堂)과 동서상실(東西上室)에는 방榜이 있고, 서상실(西上室) 뒤에는 극락보전(極樂寶殿)이 있는데, 모두 진채(眞彩)를 사용하였다. 불상(佛像)과 좌상(座床)은 정교하기가 비할 데가 없었다. 계단과 담장의 축대는 다듬은 돌을 사용하였는데, 다 평생 보지 못하던 것이었다. ('10월 25일'자)

이 외에도 '10월 26일'자에 실린 '식암(息庵)·견성암(見性庵)·소양루(昭陽樓)에 관한 묘사는 볼 만하다.

이상의 기록은 당시 영남지방에서 강원도 지방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어떻게 되는지, 청평사의 당시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5. 부록의 구성과 내용

이 책에 부록으로 실은 「중계를 바로 잡은 일로 죄인을 석방하며 내리는 글[改宗系赦文], 「영남지지(嶺南地志), 「설부(說郛)-동인방언(東人方言) 등의 기록들은 원래 권별의 아버지인 초간 권문해가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97년 권문해의 일기인 『선조일록』·『초간일기』·『신묘일기』 등 세책을 하나로 합쳐서 『초간일기』로 간행하였고, 그의 아들인 권별의 『죽소부군일기』까지 합본하면서 이 '부록'의 글들은 원래 『초간일기』 뒤에 실려야 했겠지만, 편집의 편의상 『죽소부군일기』 뒤에 실은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된 『초간일기』와 『죽소부군일기』는 한 질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권문해가 정리하여 실어둔 이 세 종류의 글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래에서 이것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1) 종계변무와 관련된 작품들

우선 「종계를 바로 잡은 일로 죄인을 석방하며 내리는 글[改宗系敕文]」등은 200년 동안 끌어 오던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이 1588년에 이르러 완전히 마무리됨에 따라 임금과 여러 신하들이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은 글들이다.

『초간집草澗集』에는 종계변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우리 태조의 종계宗系를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이라 하고, 또한 연이어 네 왕을 쫓아내고 나라를 얻었다:……'라고 실려 있다. 대개 인임仁任은 고려조의 역신逆臣이고, 네 왕은 우禎·창昌·요瑤·석奭을 가리킨다. 공정恭定(태종) 때에 처음으로 그 무고를 알고 열성列聖께서 누차 사신을 파견하여 바로잡아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끝내 개정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금상今上 때에 마침 『대명회전』을 고쳐 짓는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갑신년(1584)에 사신 황정옥黃廷彥이 개정한 신본新本을 등사하여 왔으며, 몇 해를 지나 유흥俞泓이 인본印本 1책을 얻어 왔다. 산해관 주사山海關主事가 유 판서俞判書에게 시를 주어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주상께서 크게 기뻐하여 친히 그 운韻에 따라 제술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보여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만조滿潮의 명사名士들이 모두 교지를 받들어 화답시를 지어 바쳤다. (『草澗集』「雜記」)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초간일기』 '무자년(1588) 윤6월 13일'자에서 “전날 감역監役 서사원徐思遠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시 두 수를 입으로 전하기에 이곳에 기록해 둔다.”라고 하며, 산해관 주사山海關主事의 시와 유흥俞泓의 시를 실어두었다.

이 당시 권문해는 대구 부사로 있으면서 당시 최대의 외교적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종계변무에 대한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인데, 이러한 기록 정신은 그가 26세 때 아우 감정공監正公 문연文淵과 용문사龍門寺에서 글을 읽으며 아우에게 밝혔던 다음과 같은 포부가 그의 인생 말년까지 지속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감정공에게 이르기를 “동국의 풍속은 박루朴陋하고 문헌은 갖추어지지 않아 사자士者들이 중국의 일과 역대의 치란·홍망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어제의 일과 같이 분명히 알고 있지만 동국의 일에 미치어서는 전후 수천년이 마치 문자가 없던 때처럼 막연하다. 이는 눈앞의 사물을 보지 않고 천리 바깥의 것에 주목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강독하는 겨를에 널리 동국의 여러 사실史實과 사적事蹟이 다른 책에 나타나 있는 것을 고찰하였다. 또한 사가史家가 허황되고 식견이 좁은 것을 병통으로 여겨 자술自述하여 야승野乘을 갖추어 볼 뜻을 가졌다. (『草澗集·草澗先生年譜』)

이러한 역사의식과 기록정신은 이하에서 살펴볼 「영남지지嶺南地志」, 「설부說郛-동인방언東人方言」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데, 이 점은 『대동운부군옥』과 연관시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즉,

「영남지지」와 「설부-동인방언」은 초간이 『대동운부군옥』을 편찬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리해 둔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2) 「영남지지」

「영남지지」는 영남 각 고을의 풍토와 민속을 적은 일종의 백과사전식 기술이다. 그 서술 방식은 토지, 물, 기후, 사람들의 성향을 차례대로 기술하는 식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경주慶州 : 토지는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서로 비슷비슷하며, 샘은 깊고, 기후는 따뜻하다. 사람들의 성향은 순박하고 검소하며, 농업에 힘쓰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안동安東 : 토지는 척박하고, 샘은 얕으며, 기후는 춥다. 사람들의 성향은 농사일과 누에치는 일에 힘쓰고, 예의를 지켜 사양하는 것과 아껴 쓰는 것을 중히 여긴다.

「영남지지」는 또한 각 지역을 기술하고 그 지역에 뛰어난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된 인물들은 상당수 고려 시대의 사람들이나 조선 시대 사람들도 있다. 즉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 인물의 인명사전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영남지지」와 권문해의 역작인 『대동운부군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사례를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밀양密陽 : 영정산靈井山 아래에 석담石潭이 있는데, 신훈神龍이 있는 곳이다. 가뭄이 들었을 때 기도를 하고 호랑이 대가리를 담그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 [靈井山下, 有石潭, 神龍在所, 旱則祈禱, 沈虎頭, 則必雨.] (「영남지지」)

石潭 : 密城靈井山有石潭, 神龍在所, 旱則祈禱, 必雨.[地志] (『대동운부군옥』 247쪽 '석담 石潭')

의성義城 김용초金用超 : 무예가 출중하였다. 태조太祖 조의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서 벼슬은 도총제都總制에 이르렀다.[金用超, 武藝出衆, 太祖朝原從功臣, 位至都總制.] (「영남지지」)

金用超 : 義城人, 武藝出衆, 我太祖朝, 官至都總制. (『대동운부군옥』 150쪽 '김용초 金用超')

그런데 「영남지지」는 권별이 편찬한 『해동잡록』에도 사용되었다.

박위朴葢(?~1398) : 지략이 출중하였다. 고려 말에 왜구가 크게 치성하여 남방의 백성들은 부모처자가 서로를 지켜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피살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때 공公이 장수가 되어 싸울 때마다 이겨서 왜구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였다. 백성들은 그의 은덕을 받아 지금까지도 '지장智將'이라 칭송하고 있다. 벼슬은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이르렀다. [朴葢, 智略出衆, 高麗之季, 倭寇孔熾, 南方之民, 父母妻子, 不能相保, 被殺擄者, 不知幾何. 于時, 爲公將帥, 百戰百勝, 使倭不得肆. 民受其賜, 至今稱之爲智將. 位至門下評理] (「영남지지」)

朴葢 : 密陽人, 麗季爲金海府使, 破倭兵于黃山江, 累遷至知門下府事, 四爲守令, 三鎮南服, 寇

戰民安, 蔚有聲績, 後仕于本朝. ○ 麗季倭寇方熾, 朴葦有智略, 時爲將, 百戰百勝, 使賊不得肆. 人至今稱之爲智將.[地志] (『해동잡록』 「본조·박위(朴葦)」)

이처럼 「영남지지」의 내용은 이후 『대동운부군옥』을 편찬하는 자료로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동잡록』에도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영남지지」는 단순히 모아둔 자료가 아니라 이후 『대동운부군옥』에 사용할 목적으로 초간이 미리 준비해두었던 것을 『초간일기』 후반부에 실어둔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는 권문해가 소심적에 지냈던 ‘널리 동국의 여러 사실(史實)과 사적(事蹟)을 고찰하고, 자술(自述)하여 야승(野乘)을 갖추어 보겠다’라고 한 생각을 꾸준히 유지해온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학술을 계승한 것이다.

3) 「설부-동인방언」

「설부(說郛)-동인방언(東人方言)」은, 북송(北宋)의 손목(孫穆)이 1103년에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사신을 수행하고 고려에 와서 당시 고려의 관제(官制)·풍속(風俗) 등과 함께 고려어(高麗語) 약 360어휘를 채록하여 분류·편찬한 『계림유사(鷄林類事)』를 원나라 말 명나라 초기의 학자 도종의(陶宗儀)가 1,000여 종 서적을 초록(抄錄)하여 편찬한 총서인 『설부(說郛)』에 『계림유사』의 내용을 절록(節錄)하였는데, 권문해는 이 『설부』에 실린 『계림유사』의 내용 중에서 앞쪽 절반 정도의 131개를 다시 『초간일기』 뒤에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어휘들이 다시 『대동운부군옥』에 실리게 되는데, 그 구체적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天曰漢捺 하늘(天)을 ‘하·눌(漢捺)’이라고 한다. (「설부-동인방언」)

(漢捺)東人呼天曰漢捺方言也.(說郛)(『대동운부군옥』239쪽)

雲曰屈林 구름(雲)을 ‘·구름(屈林)’이라고 한다.(「설부-동인방언」)

(屈林)高麗方言雲曰屈林.(說郛)(『대동운부군옥』239쪽)

風曰孛纜 바람(風)을 ‘·뵤(孛纜)’이라고 한다.(「설부-동인방언」)

(孛纜)高麗方言風曰孛纜.(說郛)(『대동운부군옥』526쪽)

현재 『계림유사』는 중세국어 형성기를 대표하는 현존 유일한 구어자료(口語資料)로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인 고려어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부분은 원래 한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동인방언」의 번역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음을 사용하였다. 이는 국어사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번역은 훈민정음의 음가대로 표기하였다. 이에 번역본에는 장음과 단음 및 성조, 아래아와 반시옷 등을 모두 사용하였다. 초간이 이러한 자료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 역시 그의 자국 문화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자료의 번역도 그 정신에 맞춰 한 것이다.

이상에서 부록으로 실린 세 종류의 글을 살펴본 대로 권문해가 수록해둔 「영남지지」, 「동인방언」은 권문해가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리·풍속·인물·언어에 대하여 보인 관

심의 표출이었으며, 종계변무와 관련된 「개종계사문」이하의 글 또한 자국 왕통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중대사와 관련되었던 기록이었던 까닭에 권문해에게는 훗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자술^{自述}해볼 자료로서 빠뜨릴 수 없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실제로 「영남지지」, 「동인방언」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대동운부군옥』편찬에 활용되었다. 다만 종계변무와 관련된 글들은 『대동운부군옥』편찬 이후에 지어진 글들이라 이후 어떤 기회에 어떻게 쓰려고 모아서 수록하였는지는 밝힐 수가 없다.

6. 『죽소부군일기』 및 부록의 의의와 가치

『죽소부군일기』는 죽소 권별이 쓴 친필본 일기이자 생활일기이다. 다만 ‘부군^{府君}’이라는 단어가 제목 속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후손이 이 책의 제목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권별은 자신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일기에 담았고, 자신의 속마음까지 털어 놓았다. 그는 향촌의 처사로서 삶을 살았지만 일기를 볼 때, 그는 향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지니면서 학문과 생활에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나 때에 맞춰 농사를 짓고 향교나 서원 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가학과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은 그의 저술 『해동잡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초간 권문해는 일찍이 “동국의 풍속은 박부^{朴陋}하고 문헌은 갖추어지지 않아 선비들이 중국의 일과 역대의 치란·흥망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어제의 일과 같이 분명히 알고 있지만 동국의 일에 미처서는 전후 수천 년이 마치 문자가 없던 때처럼 막연하다. 이는 눈앞의 사물을 보지 않고 천리 바깥의 것에 주목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며, 마침내 사가^{史家}가 허황되고 식견이 좁은 것을 병통으로 여겨 자술^{自述}하여 야승^{野乘}을 갖추어 볼 뜻을 가졌다.”(『초간선생연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중시했다. 권문해는 조선의 인물을 우러러 보았고, 조선의 국토를 아름답게 여겼다. 그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실증적으로 보려고 하였다. 이것을 고찰하여 연구한 것이 바로 백과사전식 저술로 나온 것이다. 그의 아들 죽소 권별 역시 아버지의 이러한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이미 그들의 역사의식은 자기 주체, 국가 정체성의 확립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놓고 볼 때 죽소 권별이 일기를 쓴 것은 매우 실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삶 하나하나를 실증적으로 관조하여 기록하였다. 이러한 일기 쓰기를 볼 때 『죽소부군일기』는 시대적 배경 등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대인이 쓴 일기와 거의 유사하다. 특히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을 서술할 때는 자기가 자신에게 쓴 것인 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다. 치질에 걸렸고, 그 때문에 중기가 났고, 아파 오줌도 새었다는 것은 분명 명문가의 일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권별은 이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또 여종들과 담소하며 놀았던 이야기, 술병을 종종 앓았던 이야기, 개천에서 천렵하였던 이야기, 심지어 유람을 다니며 기생과 놀았던 이야기 등은 사실에 대한 엄밀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엄밀성과 사실성 때문에 이

일기는 문자가 살아 있는 듯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이 일기가 비록 2년간의 짧은 기간을 기술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일기를 통해 17세기를 살아간 한 인물의 소박한 초상과 그 소박함에 묻어나는 우리의 참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다.

【박상규】

참고문헌

- 권별 지음, 장재석 옮김, 국역 『죽소부군일기』, 2012, 한국국학진흥원.

북정록

北征錄

제목 표제: 北征錄, 권수제: 行中記事
 저자 신유 申澗(1619 ~ 1680)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658년(효종 9)
 형태사항 1책(25장) / 선장(5침) / 사주단변, 반곽 26.8×19.3cm,
 유계(오사란) / 12행 22자 / 31.8×21.8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初八日晴遜營初九日晴初十日晴以大馬殿考事往會
寧是夕遂來十一日晴十二日晴十三日晴十四日雨十
五日陰十六日陰慶源停錢行十七日晴十八日晴與相
親錢十九日晴裝向會寧與相送別于西門外川盡二十
日午晴作兩留會寧二十一日晴往南門樓設款來時見
府向卦大崇金命吉來二十二日晴留會寧別官議酌款
日而羅柳應天來二十三日晴通官不來留待甚苦遷于
營下二十五日晴二十六日晴二十七日晚二十八日晴
二十九日晴三十日晴未明高嶺帳清差昨日戌時過水
鎮越遠直向會寧云：即向會寧到官門五里程清差始
入東門馳入客舍與之相見則通官請以師期已迫明當
渡江云是日林駒太平運板大道官全大憲次通官守字

差官丹必善云：

五月初一日晴朝往見大通官謂曰行期甚促軍卒等如
未食等物或有不及備者今日越江極為可憫去則通
官答云師期迫在六日汝雖一刻淹滯軍兵等則今日越
宿于江邊領得與使等朝早渡江無妨云聞日渡江則丁
卯亥初二日晴夕作雨辰時渡江騎古琴耳宿于法順
初三日晴朝食于者弓越豐源伴可吐而江宿于伴可吐
江邊初四日雨朝食于一乘非源宿于弓既也洞終日冒
雨道發泥濘人馬顛仆物盡濕初五日晴朝騎一窺做
飯于承日坪暮騎舍也之窺宿于湖之江邊差人橋以師
期迫實令馳行日黑渡軍卒及夫馬猶未齊到初六日
晴朝食于河橋樓踰羅汗嶺宿于成可道居是日道逢李

春住湖山寧古塔四遷者問之則以今日丁寧出師大將
一人以我軍等侍多恐留去：初七日晴朝食于拓子窺
志午騎窺：之內外幾六十餘里而拓增奈夫而敵日窺
之得石蓋以是也宿于蘆田洞初八日晴朝食于宋古里
洞口午到湖之可江：首馬高五隻蟻侍而一隻僅容二
駝終日度溪猶未過半自騎古羅牙嶺之後道路泥濘人
馬不能行人傷馬傷百幸于苦是日魏川到馬一匹致策
初九日晴午渡人為單渡暮入寧古塔則使之止提於止
門外野次大通官李夢先次通官李乾榮先在其處即與
相見通官等以為大將出師已久不可淹滯然饑寒事已
為整待速為林上載送去：且曰今日以帝命設慰宴與
使等入住春宴可也去因與同入衙門則可謂城上者引

接立於庭中行叩頭禮設烹肉酒三盃而羅出則日已向
黑達曙捧盤不能接日累日懸馳之餘因停不可言曰可
事情行色甚忙無暇復問而可謂西洋國人已為見影去
初十日雨早朝清將一人已為出軍列于門外與之冒雨
偕行三十餘里雖微朝飯午後到前門則大通官李設帳
幕於此處大將者駐於彼處通官等與之偕越至大將幕
次引立於庭中行相見禮亦設茶禮而羅十一日晴晚于
二百名八高山各領二十四名大通官李亦領二十名只
餘八名合為二哨是日軍探卜物分載船隻十二日晴晚
頭行船者後下達止宿沿江上下未嘗有人居地石與道
里遠近諸人亦不詳知而船則極其輕快曰可之視亦能
善轉一船行二百餘里去船隻俱是曰可之船機學亦

是日可之人前門以下盡是河地地方云十三日晴日可地
方僅表大船十隻卸下高山分派軍六十人旗幟此船
蓋以船小載重也是日相川砲手五在河騎馬而下灘之
際觸石傾覆可載衣者輾轉為斃蓋為漂失而為斃然
以換出十日時午後四可八石同時一馬高自水下上未
問上未之由則所謂賊人已到黑龍江口今惟前常為相
達云十五日而午前到宋如羅江口載船下物輾轉甚危
卸下高山分派砲手亦為一處列陣發待戰船來泊之期
也戰船五十餘隻新造於江上北京瀋陽諸將穿石塔高
山四人與瀋陽中軍北京潛水軍共騎是船而待未到泊
故留此等侍女屏前水上絕無人居今日行過之地十
里五里之間連有村落而兩江合流乎汝汝汝廣野無莊
朕怪天際去國之懷思親之淚正不能堪十六日晝晴夜
二更大風雨雷震是日大侍者趙興相見杜其某次則石
不知大魚長可二把大可兩圍置諸其前余觀之曰為
觀此魚遊來矣余可歸歎云：即為辭出幕次十七日晴
知大侍者差手二隻余饋軍卒大進官等試放得中者四
十石所增北京潛水軍多數出來云觀向出來之由於通
官且問若穀矣詳則谷云潛水軍乃五蜀之人名數則一
百石而能增行三十餘里身付船底以登于俄着船穿鑿
云：十八日晴留宋如羅江口大侍者試放每名各一柄
得中者六十五名因搗軍卒十九日晴留宋如羅江口夕
驟雨清得送牛一隻合饋軍卒二十日晴留宋如羅江口
戰船新造於江上北京八將瀋陽八將穿石塔副將一人

高山四人領率瀋陽中軍北京砲手以本月初六日發船
而留待已過累日尚無消息發緣早餘水淺大船碍淺之
致云且自水下來人言前日現形之賊蓋為遣去清人
與通官等桂以為落兵若或終始道避不現則動兼速赴
殊甚可惜云其無處捕獲穴之舉藥可知矣甲午我軍征
程之時雖無差次交戰之事彼賊不能抵當且多死傷而
逃走故其後賊人至猶大頭人甚可畏云所謂大頭者我
國之人皆着七笠故謂之大頭云此言藥出於大頭者我
人而大頭者即曰可地方遠東最遠之寨若就其地蓋頭
而論之則漸于瀋陽雖此亦不下數三月程其地之人不
知耕作只與魚田而在於賊人往來初頭故賊來則付於
賊、退則付於此向背無常軍前方馬到來之人亦多有
之而不歸順者頗多云：曰可之醜化大頭落之人亦是
一種不知果之非歲且不知年月日而性甚惡小有所
便則多而射之至於手劍其父兄者滿、有之故清將
者亦畏而待之云清人或去虜者無言大頭人為可與今
看朝鮮砲手請赴之事大頭落人無不知之而大頭落人
付賊者頗多必是滿漢之鼓去難難取必而彼人之云：
則或如此矣清人指彼賊為虜苗云：北京砲手初不知
出來之事數日前始得聞之就問名數於通官李廷傑則
以為今番赴征砲手北京穿石塔通可數百人云穿石塔
砲手則再昨我軍試放時亦為試放名數則一百餘名而
出球者過半其中得中者亦或有之以彼而且其砲才真
可謂常而莫者也砲則則非我國之砲亦非日本之砲不

知河國之物而自兵部出送云夫二十一日時留宋加羅
江口通官等立長一把餘廣三寸許標本於六十步之各
試放三柄左哨得中者六十七人而三十三人二十八人
右哨得中者五十六人而三十二人二十三人慶源砲
十卦七立試放之際為說見：製砲至其傷者不至於病廢
傷人亦無被傷者誠可事也去十六日時留宋加羅江口
一隻十九日又送時胡由陸偵探而俱無自白可謂遁去
之說似非浪傳也二十二日時留宋加羅江口大胡者法
言曰黑狐船度乃是禁物今付軍中切勿買賣云：二十
三日時留宋加羅江口二十四日時留宋加羅江口大胡
者送言曰大葉載去我船而尚未到寧古塔砲手一百
九名每名各收寶丁云係其言即為火給二十五日情
大卸落人四十餘名分時三船乘油陣前而不為格入於
大博等次清人持杖圍繞使役此不得出入有若拘係者然
問其所由則此輩乃是付賊者今聞大舉先聲上采旬數
然如此云：且曰賊人去留形止此輩去何去爾則清人
答曰賊船十一隻先行方到黑龍江下流十一隻後行上
乘去而此人等曾為付賊不可准能相當詢問可得實狀
而偵探船而亦未其間事情無以詳知云：此與前日
所聞遁去之說相背而此報似是真的也是日上流居胡
七十餘名所騎船未油軍前此相乃是匪事蒙古之人而
居在不甚遠之地故滿載中酒米餉云：二十六日留宋加
羅江口夕時大風驟雨乍下大卸落人云賊船一隻為骨
間人所奪十一隻先行上乘探殺大卸落人八十一隻後

行上來而不及葉船並可五日程不久當到近地而官言
累年交兵只被死傷且依之食今看定款納降云：可謂
骨間未知何許地方而款降之說遂發於未交戰之前似
無是理其間情態有難料度而大卸落人一向拘禁使不
得出入清人之不為能信亦可知矣賊船暗境北京消息
軍卒所時戰船了無消息大胡者極以為同莫知所為云
耳且聞通官之言則賊中一人曾為被擒自北京高厚其
官謀命番北京八得中其人亦參其一而乘蓋款以此為
招降之資云今此細詳之說出於大卸落人之清人雖未
之信而亦不無希望之邑矣二十七日時留宋加羅江口
偵探時胡二名行到黑龍江口而絕無賊船形止問諸自
下上來之人則方在大卸落地方而船為大卸落人所奪
行賊故不為上來方行物探人物被殺者十餘名云葉等
聞知先乘四石留在其處云：此與昨日所聞賊船一隻
為骨間人所奪之說相背未知何報為真的也大卸落之
人不為別類或有去下而耳後結為角者有未發於後如
我國鬼漢之結角者服色與曰丁一般言語則清人亦不
能洞解使曰可人為之傳詳云賊可謂別種也二十八日
賊兩船慶留宋加羅江口曾送馬尚一隻往探水上戰船
形止日暮時四乘言數三日後當為乘油云留寧砲手金
友一項自箭門行船下來之時因下陸做飯帳帳火藥火
火重傷一御康烟藥至死城數日未漸向生道誠可事也
二十九日時留宋加羅江口會寧砲手姜應方慶慶大奴
行中傾無治蕪之勢勢付生而待化甚可憐也此人此疾

1. 개요

이 책은 청나라 요청으로 나선(羅禪: 러시아) 정벌에 참여한 신유(申澗)가 1658년(효종 9) 4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전투 상황을 일자별로 기록한 일기이다. 청나라에서 원병을 요청한 경위와 외교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유일본으로써 가치가 있다.

2. 저자의 생애

신유(申澗)(1619-1680)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景淑), 호는 봉하(鳳下)이다. 공조참의에 추증된 신우덕(申祐德)의 아들이고 고려 개국공신 장절공(莊節公) 신승겸(申崇謙)의 후손이다.

1619년(광해군 11)에 경상도 인동부(仁同府) 약목리(若木里)의 집에서 태어났다. 1637년 문화인(文化人) 류우립(柳宇立)의 딸과 혼인하였다. 27세가 되던 1645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 비변사낭청(備邊司郎廳), 강진현감(康津縣監),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 경력(經歷), 훈련부정(訓練副正) 등을 거치고 1656년에 함경도의 혜산첨사(惠山僉使)가 되었으며, 이듬해 북도병마우후(北道兵馬處侯)가 되었다.

40세가 되던 1658년 4월에 청나라에서는 차한(車漢[나선, 러시아]의 적 토벌(討伐)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그간 청나라에서는 차한적(車漢賊)과 10년간 교병(交兵)을 하였으나 여러 번 패하였다. 그는 영장(營將)이 되어 함경도 포수(砲手) 200명, 화병(火兵) 20명과 초관(哨官) 2, 군관(軍官) 2, 통사(通事) 2, 수솔(隨率) 38, 구인(驅人) 39명 등을 거느리고 나선정벌(羅禪征伐[車漢征伐])에 참가하고자 흑룡강의 영고탑(寧古塔)까지 출병하였다. 그리고 그해 6월 24일에 그는 러시아의 스테파노프(Stepanov) 선대 10여 척을 불태우고 적장 스테파노프 이하 270명을 살해, 그 패잔병을 전멸시켜 이 지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 일기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인데, 이 전투에서 전승(戰勝)의 공로를 인정받아 그해 9월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되었다.

1659년에 선천부사(宣川府使), 김해부사(金海府使)를, 이듬해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를, 1666년에 동지중추부사, 이듬해 부총관(副摠管),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등을 역임하였다. 다시 1669년에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 1671년 장단부사(長湍府使), 1674년 황해병사(黃海兵使) 겸 황주목사(黃州牧使),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등을 역임한 후 1677년 포도대장(捕盜大將)에 이르렀다. 1680년(숙종 6)에 졸하였는데, 이해에 옥사(獄事)가 크게 일어나서 관작이 추탈(追奪)되었다가 기사환국에 의한 남인의 재집권으로 1690년에 복관이 되었다. 경상도 약목의 숭무사(崇武祠)에 제향되었으며, 이현일(李玄逸)이 지은 묘비명(墓碑銘)이 있다.

3. 『북정록』의 체제와 내용

이 책은 필사본으로, 1658년 4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나선정벌(羅禪征伐)에 참여한 사실

을 날짜 별로 기록하였다. 날짜 별 문장은 짧은 편이다.

책의 표지에는 ‘북정록北征錄’이라 하였고, 권수제卷首題는 ‘행중기사行中記事’라 하고 아래에 “무술4월 위시戊戌四月 爲始”라 표기되어 있다.

일기의 내용에 앞서 기록한 소서小序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쪽 바닷가에 한 떼의 도적 무리가 있는데, 그 소혈巢穴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오직 배[船]로 집을 삼고 흑룡강黑龍江 상하를 오르내리며 왈가曰可 지방을 약탈하였다. 청나라 사람들은 이를 맞아 여러 번 싸웠으나 모두 패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청국은 지난 갑오년(1654)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원병을 청해왔으며, 이번 또한 원병을 요청해 온 것이 다. 조정에서는 부득이 북우후北虞侯에게 출정하도록 특명을 내렸다. 나는 출정 명령을 받고 도내의 포수砲手 중에서 길주吉州 35명, 명천明川 16명, 경성鏡城 22명, 부령富寧 13명, 회령會寧 26명, 종성鐘城 25명, 경원慶源 23명, 온성穩城 30명, 경흥慶興 10명 등 200명을 가려 뽑고, 그 밖에 화병火兵 20명과 초관哨官 2명으로 신성일申誠一·박세웅朴世雄, 군관 2명으로 박대영朴大榮·유응천柳應天, 통사通事 2명으로 김명길金命吉·엄애남嚴愛男, 수솔隨率 38 명과 짐을 싣고 갈 왜마刷馬의 구인驅人 39명 등으로 부대 편성을 마치고 출동을 대기하고 있었다.

위 인용문에 의하면 북도병마우후北道兵馬虞侯 신유를 포함하여 총병력 265명을 파견한 것이다.

김지남金指南 등편, 『통문관지通文館志』의 효종 9년(1658) 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¹

통관通官 이일선李一善이 가져온 칙유에 대략 이르기를, “이제 나선羅禪이 또 준동하여 우리 변경을 침범하여 백성을 어지럽히고 해치니, 정벌해야 하겠다. 그래서 만주 군사를 징발하여 보내니, 조창鳥鎗을 잘 쓰는 자 2백 명을 곧 뽑아 보내되, 모두 사용할 물건을 가지고 관원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여 5월 초까지 영고탑寧古塔으로 보내라.” 하고, 북우후北虞侯 신유申澗를 영장領將으로 차임差任하여 초관哨官 2원과 조창수 2백 명 및 표하標下 기고수旗鼓手·화정火丁 모두 60명을 인솔하여 석 달 양식을 지니고 국경에 가서 기다리게 한 다음, 행사직行司直 이분李芬을 전차專差하여 예부禮部에 자보咨報하였다.

신유의 이 필사본 일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소서小序에 이어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

1 『효종실록』 효종 9년(1658) 3월 3일(庚子)의 기사를 보면, “청차清差 이일선李一善이 칙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영의정 정태화 등이 상 [임금]에게 교영郊迎할 것을 권하니, 승지 서원리徐元履도 그 말에 적극 찬동하였다. 상이 서교西郊에 나아가서 맞이하고 회정당熙政堂에서 접견하였다. 일선이 말하기를, ‘대국이 군병을 동원하여 나선羅禪을 토벌하려는데, 군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본국[朝鮮]에서도 군병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국에서 다섯 달 치의 군량을 보내 주시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의 형세는 어떠한가?’ 하자 일선이 말하기를, ‘적병은 1천여 명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저희들이 이처럼 달려오게 된 것은 북로北路에 비축한 것이 없음을 염려한 나머지, 내지內地의 곡물을 수송하여 군량을 이어대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먼 지역에 군량을 운송하면 형세상 매우 어렵기는 하겠으나, 어찌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겠소.’ 하였다.

은 4월 6일부터 시작하였다.

문체는 1인칭 대명사를 생략하고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하였다.

4월 6일(날씨 맑음) “회령부^{會寧府}에 가서 출병 군사들을 점열^{點閱}한 다음 조총^{鳥銃} 시방^{試榜}을 한 결과 총 51명이 적중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마지막 날은 다음과 같다.

8월 27일(날씨 맑음) “아침 전에 군인 등이 도장을 마쳤으나 길주의 포수 박선^{朴先} 등 4명은 강을 건널 때 말^馬이 경복^{傾覆}되었으므로 박선 등이 어렵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소지하고 있던 조총^{鳥銃}과 함께 물에 떠내려갔다. 이날 저녁에 행영^{行營}으로 돌아왔다.”라 하였다.

이 기록 다음에는 ‘출병 중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두었다.

날씨는 날짜 별로 청晴, 음陰, 우雨, 청석사우^{晴夕雨}, 대풍^{大風} 등과 같이 4개월 21일간 모두 기록하였다.

주요 일자별로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유 부대가 5월 2일 두만강^{豆滿江}을 도강^{渡江}하여 원정길에 올랐고, 목적지 영고탑성^{寧古塔城}에 도착한 날짜는 5월 9일이었다.

그리고 5월 10일에 청군^{淸軍}과 합류하였으며, 5월 12일에 조^朝·청^淸 연합군이 탑승한 전체 선단^{船團}이 출발, 목단강^{牧丹江}을 하항^{下航}하여 5월 15일에 목단강과 송화강^{松花江}의 합류점^{依蘭}에 도착하였다.

다시 연합군은 6월 5일에 흑룡강으로 향진하였는데 선단의 규모를 보면 기함^{旗艦} 등 초대형 선 4척, 대·중형선박 36척, 중·소형선박 12척 등 52척으로 편성되었고, 병력은 갑병^{甲兵} 1,000명, 화기병^{火器兵} 400명, 수병^{水兵} 600명 등 약 2,000명이었다. 여기서 지휘관^{指揮官}, 수솔^{隨率} 등을 합하면 2,500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당시 러시아 측은 함선^{艦船}으로 대형선박 11척, 병력 약 5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6월 10일 연합군이 흑룡강 본류^{本流}에 들어서자 소항^{溯航} 중이던 러시아 선단과 만나서 크게 조우전^{遭遇戰}을 벌였는데, 처음 전투에서 연합군은 조선 총수^{銃手}를 주축으로 한 맹렬한 사격 전^{射擊戰}을 펴서 러시아군을 압도하였다. 이에 러시아군은 전의^{戰意}를 상실하여 배속으로 들어가 숨거나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치기도 하였다. 중반 이후에는 접근전과 화전^{火箭} 공격으로 러시아군을 격파하여 러시아 선단의 선박 11척 중 10척이 불타고 겨우 1척만이 도망을 가게 되는 대전과^{大戰果}를 올렸다.

이 전투에서 신유 지휘하의 조선 소총부대의 결정적 기여로 인하여 러시아 부대를 궤멸^{潰滅}(사령관 Stepanov 戰死)시키는 등 흑룡강에 진출한 러시아 세력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²

2 이 전투에서 러시아 측 피해는 사령관 Stepanov와 까자크부대 270명이 전사하고 황제皇帝에게 바칠 국고소유^{國庫所有}의 단비가족과 대포^{大砲} 6문, 화약^{火藥}, 납^{彈丸}, 군기^{軍旗}, 식량^{食糧}을 실은 배가 파괴되었으며, 겨우 성상^{聖像}을 실은 배 1척이 95명을 태우고 탈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연합군측 희생자는 조선군 전사戰死 8명, 부상 25명이고, 청군淸軍은 전사 120여 명(갑군甲軍 90여 명, 수병水兵 30명), 부상 200여 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유는 빛나는 전승戰勝을 거두어 115일 간의 원정遠征을 마치고 그해 8월 27일에 개선凱旋하였다.

한편 조정에서는 신유의 공을 치하하여 같은 해 9월 18일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특가特加시켰다.

신유의 실기에 의하면 그가 나선정벌에 참가하여 전승戰勝을 올리고 난 후에 지은 술회시 2수가 실려 있다.

客船無寐聽胡笳 : 객선에 잠 못 이루어 호가 소리 들으니
故國茫茫萬里賒 : 고국은 아득히 멀고 먼 만리 길이네.
惟有此心頃刻去 : 오로지 이 내 마음 경각 간에 달려가서
玉階朝罷又還家 : 임금님께 조회마치고 그리운 내집 돌아가리.
萬里成功世所稀 : 만 리 이역 공 이루기 쉬운 일 아니니
客心何事復長唏 : 나그네 마음 무슨 일로 다시 긴 한숨인가.
今行自異瀋河役 : 이번 걸음 스스로 심하瀋河의 역役과는 다른 것
却羨金公死未歸 : 죽어서 돌아가지 못한 김공金公이 부럽구나.

신유의 전승戰勝은 국사와 세계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전투로 인하여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고, 중로中露 분쟁이 조선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조선군朝鮮軍의 계속 주둔을 강요하는 청나라의 외압을 배제하고 조기 철군을 실현한 것이다.

4. 『북정록』의 가치

이 책은 1658년에 청나라의 요청으로 나선정벌에 참여한 신유의 필사본 일기로써 당시의 전투 사실이 날짜 별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북정일기北征日記』의 원본으로서 가치가 있다.

신유의 북정록은 이 필사본과는 별도로, 그의 6대손 신호응申顯應이 1869년(고종 6)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통상공실기統相公實紀』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실기는 본래 신유의 증손 신능申功이 1760년에 편성해둔 것을 이 때 간행한 것이다. 신능이 편성한 『북정일기北征日記』는 신유의 부

장(副將)으로 참가했다는 배시황(裨是愷)³의 『북행일록(北行日錄)』을 참고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필사본 일기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이 필사본의 4월 6일자 내용을 보면 출병 군사의 점열(點閱)과 조총(鳥銃) 시방(試放)을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기(申顯應 간행)에서는 출병 군사의 점열(點閱) 외에 영고탑(寧古塔)의 부용국(附庸國)인 왈개(曰介), 개부락(大部落), 팍개(復介) 등 3나라의 연혁과 차한국(車漢國: 러시아)의 침범 사실, 청군(淸軍)이 차한(車漢)의 적과 교전하여 수차 패한 사실, 갑오년(1654)에 우리나라에 원병을 청한 사실, 차한(車漢)이 천하의 강적이라는 사실 등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이 필사본에서는 원정 병력이 265명인데, 실기의 4월 10일 조를 보면 5,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술한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수록된 원정 병력은 이 필사본의 내용과 같다. 실기의 내용에서는 이처럼 숫자가 크게 과장되어 있다.

셋째, 이 필사본에서는 6월 10일 하루 동안 전투를 하였으며, 조선의 총수(銃手)를 주축으로 사격전, 접근전, 화전(火箭) 공격을 하여 적 함대 11척 중 10척을 파손시키는 큰 전과를 올렸고, 조선 군사와 청국 군사는 약간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실기에서는 6월 10일부터 6일간 전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6월 10일에 적함(賊船) 25척이 흑룡강에 나타나고 300여 척이 뒤따라오며 청국(淸國)이 정병 15,000으로 적을 공격하였으나, 순식간에 전멸하고 생존자는 100여 명 정도라 하였다. 이에 청나라의 원수가 크게 두려워하여 40,000명의 군사로 400척의 함선에 나누어 태워서 친히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남은 병력은 7,300명에 불과하였으며, 두 차례 교전에서 50,000명을 잃었다고 하였다. 6월 11일에도 정병 20,000명을 뽑아서 공격하는 등 총 3차례 전투에서 잔병 3,000명뿐이라 하였다. 6월 14일에 신유가 통솔하여 소수의 군사로 화공법을 사용하여 적함 300여척을 섬멸, 수십만의 적병이 순식간에 불타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원정병의 규모나 흑룡강의 지리적 여건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넷째, 피해규모에 대하여 이 필사본에서는 연합군 측 희생자가 조선군 전사 8명, 부상 25명이고, 청군은 전사 120여 명(甲軍 90여 명, 水兵 30명), 부상 200여 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 실기에서는 3차례 전투에서 67,000명이 죽은 것으로 과장되어 있다.

다섯째, 이 필사본 4월 14일에는 비 내리는 날씨만 표기되어 있는데 실기의 같은 날에서는 비 내리고, 신유의 조카 선전관(宣傳官) 신명전(申命全)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배시황(裨是愷)의 일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배시황은 『북행일록』에서 신유의 부장(副將)으로 참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필사본에서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이 필사본 『북정록』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원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실기의 내용에서는 병력과 전황이 과장되고, 전투 일자가 연장되어 있는데, 이 점은 일종의

3 부장(副將) 배시황(裨是愷)은 이 필사본 『北征錄』에서는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 학계에서는 가공 인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北行日錄』을 보면 1658년 1월에 원병 6,000명이 참가하여 12월 15일에 귀국하는 등, 내용에 허구가 들어 있어서 군담 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군담소설(軍談小說)이라 할 수 있는 배시황의 『북행일록』을 참고한 것이어서 허구적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다.

한편 이익(李穡)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 실려 있는 「차한일기(車漢日記)」는 배시황의 『북행일록』을 저본으로 하여 지은 것이다. 다만 원정 병력에 대해서는 『북행일록』에 기록된 숫자 6,000명이 아니고, 이 「차한일기」에서는 “북변(北邊) 9읍의 총수(銃手) 200명과 표하(標下)·기수(旗手)·화정(火丁) 60명을 선발하여 3개월 군량을 가지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역사적 사실에 맞게 조정되어 있다.

끝으로 번역본 가운데 『국역 북정일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는 이 필사본을 중심으로 번역한 것이다. 1977년 당시 박태근 씨가 이 필사본을 발굴하여 「원본 북정일기」라고 학계에 소개하였는데, 1980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출판하였다. 따라서 이 필사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신기석 역저, 『북정일기』(탐구당, 1979)는 『통상공실기(統相公實紀)』를 중심으로 번역한 것이다.

【장인진】

참고문헌

- 申顯應 편, 『統相公實紀』, 木板本
- 『(國譯)北征日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申基碩 譯著, 『北征日記』, 탐구당, 1979.
- 장인진, 2012, 「친사일로일기 해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선본 고서 해제집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국사편찬위원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등 仁同邑誌, 嶠南誌 등

창구객일록

蒼狗客日錄

제목 표제: 蒼狗客日錄, 권수제: 蒼狗客日
 저자 이재 李裁(1657 ~ 1730)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694년(숙종 20)
 형태사항 2책(159장) / 선장(5침) / 사주무변, 무계, 무어미 / 10행 자수부정, 12행 자수부정 / 28.2×19.7cm, 28×19.6cm
 소장자 재령이씨 존재파 간송문고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蒼狗客日下

甲戌八月十六日辛未金吾即尹有孫將復路臨別
握手意甚動學余亦覺嗚咽揆拭欲作洛下親舊書
但到神思茫然不暇及邑中任事諸人多來見者
十七日壬子八見地王見侍頻歎
十八日癸丑邑中父老子弟相繼來問
十九日甲寅總城府使宦楊委伴致問鮑米魚各種
二十日乙酉炊爨婢病卧倩鄭繼供朝脯艱窘不可
言地主送一官婢來助問曰供魚菜各種
二十一日丙辰婢病漸苦可慮可憫
二十二日丁巳疾從杉及諸奴將以數日後還巖柳觀
內外書

1. 개요

이 일기는 퇴계학의 적통을 계승한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의 셋째 아들인 밀암密庵 이재李裁가 부친이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죄를 얻어 함경도로 유배 갈 때 부친을 모시고 가면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이다.

2. 저자의 생애¹

이재는 1657년 9월 10일에 영해寧海 영양현英陽縣 수비촌首比村에서 태어났다. 1661년에 조부 이시명李時明이 소자小字를 '성급聖及'이라고 지어주었다. 1670년 9월 14일에 저곡楮谷에서 존재선생存齋先生을 모시고 『맹자孟子』를 배웠고, 1672년 11월 16일에 존재선생存齋先生을 곡뜻하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인古人들의 은둔한 자취를 채록采錄하여 <상우편尙友編>을 엮었다. 같은 해 12월에 모친상을 당하고, 1674년 8월에는 조부상祖父喪을 당하였다. 1675년에 모친의 삼년상을 마치고, 두울원兜率院에 가서 복상服喪중인 친부父親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을 모셨다. 이 해에 숙부叔父 항재恒齋 이송일李嵩逸에게 편지를 올려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 중용장구中庸章句,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 사상견례士相見禮 등에 대해 물었다. 1676년 11월에 관례冠禮를 행하였다. 그해 즐암처사拙庵處士 김학규金學達의 딸과 혼인하였다.

1680년 7월에 조모상祖母喪을 당하고, 이듬해 10월에 장자長子 이지환李之煥, 1683년 9월에 2남 이지번李之燾, 1686년에 3남 이인환李寅煥, 1688년 6월에 4남 이지온李之燾이 태어났다. 1689년 4월에 소명召命을 받고 서울로 가는 부친을 수행隨行하였다가, 1690년 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1691년에 다시 부친을 모시고 서울에서 지냈으며, 1693년 여름에 역시 부친을 모시고 서울로 갔다.

일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1694년 4월에 영북嶺北의 홍원洪原으로 유배가는 부친을 수행하고 5월에 서울로 압송되는 부친을 배종陪從하였다. 7월에 종성부鍾城府로 유배가는 부친을 수행하였다가 1695년 2월에 고향으로 돌아온다. 1697년 5월에는 광양현光陽縣으로 이배移配되는 부친을 배종하고 백운산白雲山 아래 옥룡동玉龍洞에 우거寓居하였다. 8월에 부친을 모시고 옥룡사玉龍寺를 유람한 후 9월에 고향으로 돌아왔고 12월에 함안咸安의 모곡茅谷에 있는 선조先祖의 유허遺墟를 다녀온다. 1698년 권두경權斗經과 곤양昆陽에 있는 서봉사棲鳳寺를 유람하고 11월에 숙부 항재공恒齋公을 곡한다.

1699년 2월에 부친에게 방귀전리放歸田里의 명이 내려져 모시고 돌아오던 도중에 명령을 중지하라는 대계臺啓가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진주晉州의 악양동岳陽洞에서 대명待命한다. 그해 4월에 전염병이 치성하여 지리산 쌍계사雙溪寺로 피하고 여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1700년 2월에 대계臺啓가 정지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부친을 모시고 함안咸安과 밀양密陽에 있는 선조先祖의 묘

1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인물연표人物年表의 행력을 참고하였다.

소墓所를 성묘省墓하고, 용화산龍華山 아래서 뱃놀이를 하였다. 4월에 부친을 모시고 안동安東의 금소역촌琴韶驛村에 우거하였으나, 1704년 10월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게 된다. 1705년 1월에 장례를 마치고 유문遺文을 수습收拾하고 가전家傳을 찬차撰次한다. 같은 해 겨울에 권두경權斗經이 내방하여 함께 유문遺文을 교정校正하고 편차編次하고,

1707년 봄에 청암정靑巖亭으로 하당荷塘 권두인權斗寅을 찾아가 선친 이현일의 행장行狀을 칭하였다.

1705년부터 1708년까지 그에게 불운이 계속되었다. 1705년 부친상과 부인상夫人喪을 당하였고, 1707년에는 아들 이지은李之燾과 이지번李之燾, 그리고 두 딸을 잃었다. 이듬해 1708년 1월에는 아들 이지환李之煥을 잃게 된다. 이 해에 선친의 「갈암선생연보葛庵先生年譜」를 편차編次하였고, 같은 해 봄에 추월촌秋月村으로 이거移居하였다가 겨울에 다시 오대촌梧臺村으로 이거移居하였다.

1709년 4월에는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撥을 모신 삼계서원三溪書院의 동주洞主가 된다. 같은 해 5월에 셋째 아들 이인환李寅煥이 우거寓居하고 있는 상산商山에 가서 권두경과 함께 「도산언행통록陶山言行通錄」을 편차編次한다. 1710년 4월에는 김태중金台重과 함께 묵계默溪의 호담壺潭과 반석盤石을 유람하고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읽는다. 같은 해 7월에 부친에게 내렸던 윤음輪音을 수습하여 「성유록聖諭錄」을 편차한다. 같은 해 김태중金台重과 함께 백운정白雲亭을 유람하고 11월에 백씨伯氏를 곡한다.

1711년 1월에 수비산首比山에 들어가고 같은 해에 후산초당后山草堂이 완공된다. 이 해에 부친 복관復官의 명命을 받았으나 헌부憲府의 계청으로 환수된다. 1712년 봄에 상산商山에 가서 이형상李衡祥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였다.

1713년 봄에 금수錦水로 돌아오고 같은 해 「주서강록간보朱書講錄刊補」가 완성된다. 이 해 겨울에 해향海鄉에 들어간다. 독재동篤材洞의 분암墳菴에서 종인宗人들과 회합하고 족보族譜를 간행한다. 1714년 가을에 금수병수錦水病叟, 구루자痲子로 자호自號한다.

1715년 봄에 후산초당后山草堂으로 옮기고 당명堂名을 밀암密菴이라고 한다. 1716년 여름에 제생諸生들과 태극도太極圖를 강론하였으며 가을에 상산商山の 백화산白華山 아래에 있는 백옥동白玉洞을 유람한다. 1717년 봄에 금수錦水의 남연사南淵寺에 우거하고 5월에 유곡西谷으로 권두경權斗經을 방문하여 「갈암연보葛庵年譜」의 수윤修潤을 부탁한다. 이 해에 「학봉선생연보鶴峯先生年譜」를 편수하였다.

1718년 3월에 서자庶子 이동환李東煥이 태어났다. 1719년 가을에 해경海鄉으로 들어갔고, 같은 해에 병곡屏谷 권구權榘가 내방한다. 이 해에 하당荷塘 권두인權斗寅을 곡하고 또 칠탄七灘 김세흠金世欽을 곡한다. 1720년 여름에 석천정石泉亭을 유람하고 같은 해 겨울에 구미龜尾에 있는 구담龜潭을 유람한다. 1722년 6월에 극재克齋 신익황申益愷을 곡한다. 같은 해에 빙계서원氷溪書院을 유람하고 겨울에는 해향海鄉으로 들어갔다.

1723년 여름에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를 모방하여 <밀암자서密菴自序>를 짓고 겨울에는 「홍범연의洪範衍義」를 교정한다. 1724년 2월에 권두경權斗經을 방문하여 함께 선고先考의 유집遺集을 교정하고 편차하여 본집本集 15책, 별집別集 2책의 정본定本을 만든다. 1725년 3월에 창설재蒼雪齋 권

두경權斗經을 곡하고, 같은 해에 선고의 묘소를 외림外林으로 천장遷葬하였다.

1726년 1월에 남암南庵을 유람하고 같은 해 4월에 백운정白雲亭을 유람한다. 같은 해 6월에 「안증전서顔曾全書」가 완성되며 이즈음에 「주전집람朱全集覽」을 엮는다. 1727년 여름에는 <자경잡自警箴>을 짓는다. 1728년 봄에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호조판서 권이진權以鎭, 승지承旨 정석삼鄭錫三等에 의해서 천거된다. 같은 해 어사 박문수朴文秀가 내방하였다. 같은 해 3월에 무신란이 일어나자 안무사安撫使 박사수朴師洙의 요청으로 입부入府하여 기획規劃하였고 4월에는 장악원 주부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한다.

1729년 2월에 조현명趙顯命의 천거를 받고 같은 해 호계서원虎溪書院의 동주洞主로 춘향春享을 행한다. 3월에는 안핵사按覈使 오광운吳光運이 내방한다. 4월에 봉황산鳳凰山 정수암淨水庵을 유람한다. 5월에 제생諸生들이 모여서 「주자서朱子書」, 「근사록近思錄」 등을 강론한다. 이 해 가을에 도산陶山 상덕사尙德祠를 배알한다.

1730년 4월에 <갈암선생광기葛庵先生擴記>를 짓는다. 같은 해 5월에 병환이 심해지자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경전經傳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남에게 빌린 서책들을 돌려주게 한다. 같은 해 선조先祖 이함李涵의 운암공유고雲巖公遺稿를 교정한다. 5월 20일에 금수錦水 우사寓舍에서 졸하였다. 10월에 안동安東 무릉武陵에 장사 지냈다.

『성유록聖諭錄』, 『금수기문錦水記聞』, 『주서강록간보朱書講錄刊補』, 『안증전서顔曾全書』, 『주어요략朱語要略』 등을 저술하였다. 그의 대표적 제자로는 이상정李象靖·이광정李光靖이 있다. 저서로는 『밀암문집』 25권 13책이 있다.

3. 『창구객일록』의 구성과 체제

일기는 ‘창구객일록상蒼狗客日錄上’과 ‘창구객일록하蒼狗客日錄下’의 총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체는 표제와 다르게 ‘창구객일상蒼狗客日錄上’과 ‘창구객일하蒼狗客日錄下’라고 되어 있다. 상권에는 1694년 4월 9일에서 동년 8월 15일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하권에는 1694년 8월 16일 이후의 일기 및 각종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기의 주요 내용은 상권이다. 일기는 모든 날짜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주요 사실들만 간추려서 정리되어 있다.

현재 연구결과로는 친필 초본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가 자신의 일기 초본을 정리 및 정사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고, 일기의 이름을 처음부터 《창구객일》로 명명했는지도 분명치 않다. 특별한 제목을 붙이지 않고 일기를 작성하였다가 정리 단계에서 《창구객일》이란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권두경이 후지에서 ‘창구객일’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698년 9월 이전에 일기 명칭을 《창구객일》로 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파악된다.²라는 내용이 있다.

2 이병갑 외, 2014년, 『창구객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19~120쪽.

한편 이 일기가 가지는 객관성과 주관성의 특징이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다. 첫째 ‘부기附記 방식方式’를 통한 조보朝報의 삽입이다. 이 방식은 기록의 객관성을 높이게 한다. 둘째, ‘경험의 대리서술’이다. 이는 사건 당사자를 관찰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당사자의 직접언급에서 느껴지는 솔직함의 결여, 부자관계에서 얼마나 객관성을 유지하겠느냐는 단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건 당사자가 느꼈을 ‘유배에서 느끼는 울분과 억울함의 호소’는 기록자의 몫이 되어, 당시의 정서로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³

4. 『창구객일록』의 내용⁴

『창구객일록』은 상/하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기의 주요 부분인 상권은 1694년 4월 9일 갈암 이현일이 유배지로 출발하여 8월 15일 유배지인 함경도 종성鍾城까지 도착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갑술정변이후 정치적 후폭풍으로 유배를 가거나 반대로 조정의 주요 관직에 등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관련자들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함경도로 가는 도중에 지방 관아의 조보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이며 이를 가지고 조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상세히 기록하였다. 거기에는 중전의 복위와 장희빈의 폐출 그리고 당시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던 인물의 유배에 관련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다. 함경도 종성까지 유배를 시종하면서 본 관동팔경의 경치에서부터 설악산, 금강산 등의 경치와 함경도의 풍속까지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다른 일기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이 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기가 저술된 배경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창구객일록』의 내용상 주인공은 17세기 영남학파를 대표하였던 이현일이다. 따지고 보면, 이현일은 이재의 아버지인 동시에 당시 영남유림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그에 대한 처분은 영남학파의 학문적·정치적 위상과 연동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재는 사적으로는 아버지, 공적으로는 스승이자 영남유림의 중심축이었던 이현일에 대한 정치적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향후에 있을 신원운동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창구객일록』을 저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⁵

일기는 전반적으로 갈암 이현일의 유배생활과 밀암 이재의 시종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다. 갈암의 첫 유배지는 홍원이었다. 향리 영해의 석보에서 출발하여 긴 여정을 통하여 도착하였지만 다시 서울로 압송된다. 서울에서 국문과정을 겪은 이후에 다시 함경도 종성으로 위리안치 된다.

서울에서 종성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중앙의 압송관인 의금부의 금오랑이나 가도사는 금리와 나졸 등을 대동하였고, 갈암과는 떨어져 이동하면서 주로 관의 객사나 역정驛亭을 이용

3 최윤영, 2011, 「『蒼狗客日』의 敘述方式과 記錄意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6쪽.

4 앞서 인용된 『창구객일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5 이병갑 외, 2014년, 『창구객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31쪽.

하였다. 이현일 일행의 유배길에는 아들 밀암을 비롯하여 최소한 2~3필의 말과 6~7명의 노복(僕)이 함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갈암의 유배길은 역로를 따라 주로 가마로 이동하였고 대부분 역원에서 숙박하였다. 이동에 필요한 말과 인부는 대체로 경유하는 군현에서 제공해 주었다. 경유하는 지역의 수령들은 이들에게 말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음식과 돈, 유배길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제공하였다. 최소한의 음식과 돈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현일이 거처할 집은 유배지에서 준비한 것이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엌과 마구간, 변소 등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고, 그릇 등 미두(米豆)와 어염(魚鹽)과 장류(醬類), 소채(蔬菜) 등도 넉넉히 마련되어 있었다. 유배지에서 이현일 일행은 관가의 지원과 노비의 도움을 받았으며 쌀감도 수시로 공급받았다. 근처의 수령들도 자주 찾아와서 이들 일행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주었다. 전체적으로 유배과정 또는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전적으로 관할 또는 인근 수령들에게 의존하여 궁색하지 않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많은 도움이 이어졌던 이유는 그들이 대부분 가까운 친척들이거나 정치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창구객일록』의 가치

『창구객일록』은 이재가 자신의 아버지 이현일의 유배생활 시종 전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17세기 후반의 정치·사회·문화적 모습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이재가 물론 영남학파이자 남인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볼 있다. 그에 따라 일기가 다소 주관적으로 서술되고 사건의 평가도 한 쪽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일정부분 사실이다. 하지만 이재가 자신들의 입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정치·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창구객일록』은 유배자 당사자가 아니라 유배자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아들의 시각에서 기록된 유배일기라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이를 통해서 유배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소 객관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기의 곳곳에 나타난 이재의 문학적 작품을 통하여 그의 사상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다. 이재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현일의 정치적/학문적 세계와 더 나아가 영남남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까지도 함께 추측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이재가 유배를 시종하면서 경유하였던 지역과 유배지역의 풍습 등을 통하여 당시 백성들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갑술환국이후 일기에 나타난 이현일과 이재의 활동을 통해서 당시 조정의 정치적 분위기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특히 그가 이동하면서 활용한 조보, 지지류, 문집류, 서간류 등의 문헌은 객관적인 자료로써 기능하는 가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이 일기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치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재가 《창구객일록》

을 통하여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무죄피화無罪被禍’였다. 이를 위해 이재는 조보뿐만 아니라 서간·전인·소문 등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채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이재는 갑술옥사의 처리 문제를 두고 전개되는 근신간의 이해, 소론과 노론 사이의 갈등, 소론 내부의 입장 차이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서술함은 물론 남인과 노론의 결탁현상까지도 적나라하게 언급하였는데, 이는 《창구객일록》이 조선후기 당쟁사 연구의 필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⁶라고 평가된다.

【김남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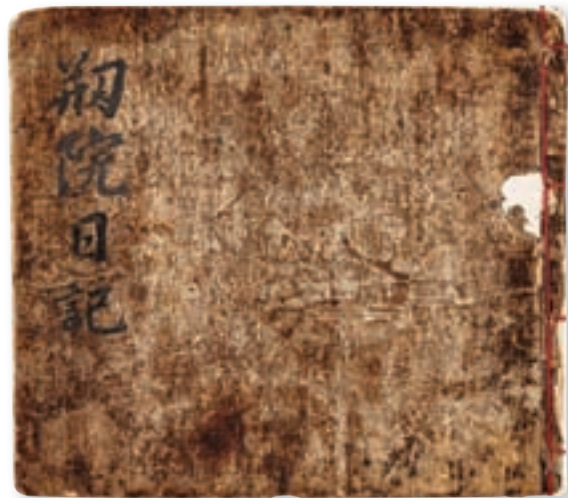
6 이병갑 외, 2014년, 『창구객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64쪽.

참고문헌

- 이병갑 외, 2014년, 『창구객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윤영, 2011, 『『蒼狗客日』의 敘述方式과 記錄意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인물연표人物年表 행력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해제

분강서원창원일기

汾江書院勅院日記



제목 표제: 勅院日記, 권수제: 日記
 저자 미상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699년 ~ 1703년
 형태사항 1책(11장 1면) / 선창(5침) / 사주무변, 무계, 무어미 /
 16행 16~19자 / 22.5×25.6cm
 소장자 영천이씨 농암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日記
 己卯六月初二日門中會于爰日堂始發精舍初
 達之議詢謀會同越二日李章徵李章熙李明
 夏李東弼自沙川齋舍轉宿于道谷齋舍仍發
 文通告門中又分定任負翌日罪歸通文曰惟我
 汾川一曲乃
 先祖孝節公世居焉里則其遺風餘韻殊非尋
 常杖屨所經之地也爰日一堂踴然獨立於巖
 麓之上而世代漸遠于孫愈替將使乎泉石
 遂至湮沒而無傳豈非遺裔之所深恥而聽聞之
 所共慨然者乎迺於堂畔相地便宜款荆一精舍
 以寓追慕之誠而凡我族中非但負數零星
 貧且寒各不謀生白地始事傭非吾門之不可
 念慮邪首先相謀者而分定教為通告伏願
 宗同聲相應趨期收送于本所使大事期於必成
 千萬幸甚云、分定文數則每貧錢文一兩未年

1. 개요

『분강서원창원일기』는 농암 農巖 이현보 李賢輔의 위패 位牌와 화상 畫像을 봉안한 분강서원 창건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1699년 6월 22일 정사 精舍의 건립에 대한 발의를 시작해 영당·서원으로 변화하는 과정, 도감 都監 및 수임 首任을 비롯한 유사 有司를 선발하는 과정, 공론화를 위한 통문 通文을 발송하는 양상, 부조를 통한 공사비용의 조달, 사당·강당·재사의 건립을 위한 공사인력의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1702년 10월 9일 위패와 화상을 사당에 봉안하는 의식을 거행한 다음, 이듬해 정월 4일 새해 알묘 謁廟하는 것으로 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분강서원 汾江書院은 농암 이현보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1700년(숙종 26)에 창건하였는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1967년 옛 터 서쪽에 다시 복원하였다. 하지만 안동댐 건설로 다시 수몰되어, 1975년 도산면 운곡리의 도곡재사 옛 터로 옮겼다.¹

본 해제 일기 『분강서원 창원일기 汾江書院 創院日記』는 당시 서원 창건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소장본인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보관되어 있다.

2. 이현보의 생애²

이현보의 본관은 영천이고, 자字는 비중 斐仲이며, 호는 농암 農巖 또는 설빈옹 雪鬢翁이다. 그는 1467년 7월 29일 인제현감을 지낸 아버지 이흠 李欽과 호군 護軍 권겸 權謙의 딸 사이에서 4남 1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29세 되던 해인 1495년 사마시에 합격했고, 1498년(연산군 4)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32세에 벼슬길에 올라 예문관검열·춘추관기사관·예문관봉교 등을 거쳐, 1504년(연산군 10) 38세 때 사간원정언이 됐다. 이때에 서연관의 비행을 탄핵했다가 안동에 유배됐으나 중종반정으로 지평에 복직된다.

밀양부사·안동부사·충주목사를 지냈고, 1523년(중종 18)에는 성주목사로 선정을 베풀어 표리 表裏를 하사받았다. 이후 병조참지·동부승지·부제학 등을 거쳐 대구부윤·경주부윤·경상도 관찰사·형조참판·호조참판을 지냈다.

이후 그는 1542년 76세의 나이로 동지중추부사를 사직하여 고향 예안으로 낙향할 때까지 40여년 동안 경직과 외직을 두루 역임하며 역량을 발휘했다. 이황 李滉·황준량 黃俊良등과 교류했으며 고향에 돌아와서는 시를 지으며 한가롭게 보냈다.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 그는 왕의 계속되는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향리를 떠나지 않고 산천을 벗 삼아 노래하는 생활로 일관하다가 1555년 2월 13일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관 史官은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으며 담박하고 욕심

1 황위주 국역, 『분강서원 창원 일기』(『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 한국국학진흥원) 61쪽.

2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고하였다.

이 없어 시골에 있을 때 사사로운 일로 관아에 청탁하는 일이 없었으며 오직 유유자적하며 살았다. 근래에 만년의 지조가 완전하였던 사람으로 이현보를 으뜸으로 친다.”고 평가하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 1557년 조정에서 그에게 ‘효절孝節’의 시호를 내렸고, 1612년(광해군 4)에 향현사(鄕賢祠)에 제향됐다가 그의 위패는 1702년 분강서원에 봉안되었다. 시호는 효절孝節이다.

저서로는 『농암집』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전하여오던 「어부가(漁父歌)」를 장가 9장, 단가 5장으로 고쳐 지은 것과 「효빈가(效嘯歌)·농암가(農巖歌)·생일가(生日歌)」 등의 시조작품 8수가 전한다.

이현보는 남달리 검은 얼굴에 걸맞게 성품이 호방했으며, 산수가 빼어난 곳에 자리잡은 사찰 등지에서 놀기를 좋아했다. 그가 주로 즐긴 곳은 영지사(靈芝寺)·병암(屏庵)·월란사(月澗寺)·임강사(臨江寺)가 대표적인 장소로, 77세 때 영지사의 자리에 영지정사(靈芝精舍)를 건립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말년에 임강사에 우거할 때에는 작은 배를 띄우고 노를 저으면서 경치를 감상하는 한편, 아이들에게 자신이 지은 ‘어부사(漁父詞)’를 부르게 하고는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 있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자연을 만끽하곤 했다. 어부사를 비롯한 효빈가(效嘯歌), 농암가(農巖歌), 생일가(生日歌) 등의 작품은 바로 그 같은 그의 낙천적이면서도 풍류를 즐기는 자세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이가 그는 연로한 부모와 노인들을 위해 자주 양로연을 개최하여 효도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는데, 말년에 백낙천(白樂天)의 구로회(九老會)와 사마온(司馬溫)의 기영회(耆英會)의 선례를 모방해 구로회와 속구로회(續九老會)를 결성한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는 다시 그의 아들 이문량(李文樑)에 의한 속로회(續老會)·백발회(白髮會)를 조직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그의 향촌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예안지방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1859년 7월에는 그의 후손인 이시향(李時養)이 9순이 된 것을 기념해 애일당(愛日堂)을 보수하면서 27명의 원로가 모여 속로회를 결성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애일당은 이현보가 46세 되던 해인 1512년 94세의 부친과 92세의 숙부 등을 위해 지은 경로당으로, 부모의 늙어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매일을 아끼면서 지낸다는 의미로 당호를 지었다고 한다.

3. 『분강서원창원일기』의 구성과 체제

『분강서원창원일기(汾江書院創院日記)』는 1699년(숙종 25) 6월 2일부터 1703년(숙종 29) 1월 4일까지의 기록으로 1책 11장(23면)의 분량이다. 1면은 16행이고, 1행의 자수는 16~19자 내외로 일정하지 않다. 저자는 분명하지 않으나 서원 건립의 발의가 이현보의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후손 가운데 한사람으로 추측된다. 표제는 ‘창원일기(創院日記)’로 되어 있고 권수제는 ‘일기(日記)’로 되어있다.

일기는 1699년 6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 날짜와 본문은 권점을 이용해서 구분할 뿐 연속적으로 적고 있다. 월과 연도는 본문보다는 조금 굵고 크게 적어서 구분하고 있다. 일기의 저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현보의 후손들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측된다. 당시 통문의 작성을 주도한 이장휘(李章徽)·이장희(李章熙)·이명하(李明夏)·이동필(李東弼) 중 한 명일 것으로 보고 있다.

4. 『분강서원창원일기』의 내용

일기는 1699년 6월 2일에 정사精舍 창건을 발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현보의 직계후손이 집거하고 있는 분천汾川 소재 애일당愛日堂에서 문회門會를 개최하여 정사精舍 창건을 발의하였다. 이를 뒤 이장휘·이장희·이명하·이동필 등이 沙川齋舍로부터 道谷齋舍로 숙소를 옮겨, 곧 이어 통문을 발송해서 문중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임원을 나누어 정하였다. 각기 가세家勢대로 일정한 전곡錢穀을 각출하게 하였는데 한 사람 당 돈 1냥, 쌀보리[米牟] 1말[斗], 술 1동이[圓]였고, 가을걷이 때를 기다려 추가로 부담할 것이라 하였다. 임원 도감은 이장희·이명하·이백업, 유사는 이동필·이기상·이성장, 기와 굽는 일은 이여필·이복·이기백·일필영·이감, 재목 공급은 이몽필·이명필·이숙·이성일·이중영·이언영·이문·이조·이우영·이성중·이성대·이기·이여백이 맡았다.

풍기·순흥·문경·영해·예천 등 외지에 사는 문중일가, 영천·안동·영양 등 방계 종친, 대구와 경주의 외손인 양씨와 임씨 두 집안, 예안과 오천의 외족 등 문중·외파外派·향중사족鄉中士族의 각 문중, 다른 읍 소재 외파 및 내외손內外孫으로서 외관外官 재임자들에게 일정한 자금과 목재·기와·정釘 등의 도움을 받아 착공하게 되는데, 목수木手·공장工匠 등의 조달에서는 승僧·민民·노奴가 다수 동원되었다.

정사의 터는 애일당 남쪽에 잡았다. 황응상黃鷹祥의 옛 집터로 좌향은 건좌乾坐 순향巽向이었다(7월 11일). 8월 26일 터를 닦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린 뒤 8월 30일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었다. 주춧돌을 놓는 데는 용담사龍寺의 승려가 징발되었고, 각 가문에서 일꾼으로 노를 보내왔다. 9월 26일 사당체의 기둥을 세웠는데 이후로는 겨울로 접어들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듬해 2월 공사가 재개되자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다시 내외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했다. 2월에 상량문이 지어졌고, 안동부사 홍득우가 강원도관찰사로 옮겨 가며 돈 10관을 보내왔다. 3월 6일에는 경주의 외손 임씨 집안에서 돈 16관을 거두어 승려를 모집해 보내왔다. 3월 15일에는 기와를 덮었고, 도곡재사에서 승려들이 와서 계단을 쌓았다.

3월 30일 사당 공사가 끝났고, 4월 18일부터 목수로 승려 회묵과 지현 등을 얻어 강당 공사를 시작하여 5월 3일에 기둥을 세우고 5월 11일 대들보를 올렸는데 여름으로 들어서서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다.

9월 29일 도산서원陶山書院에서 향회를 개최, 후손의 반딧에서 사림士林의 존봉尊奉으로 되기 위해서는 서원書院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결의하고 발의→통문→회의→임원선출의 과정을 밟아 향중 향교와 서원들로부터 곡물·전화錢貨·목재·역군(노奴)의 부조와 내외손 중의 외관 및 예안현감禮安縣監·경상감사 등의 도움을 받아 서원건물공사를 계속해 나갔다.

1701년 2월 15일 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4월 27일에 기와 덮는 일을 시작하여 5월 2일에 마쳤다. 8월 14일에는 인현왕후 민씨의 국상을 당하여 한달간 공사를 중지하였다. 11월에 대청마루를 다듬고 단장한 공사내용을 끝으로 일기는 다시 다음해로 넘어간다.

1702년의 공사는 3월 8일부터 시작된다. 날마다 대청 방을 다듬었고, 부역채 창고로 쓰기 위해 집을 추가로 사들였다. 3월 말 농사일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윤6월 15일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6월 28일 벽에 흙을 바르는 일을 시작하였고 7월 16일 부터는 용담사와 성천사 승려의 도움을 받아 양벽을 발랐다. 봉안식 거행 일자를 10월 첫 정일丁日로 정했다.

10월 마침내 분강서원汾江書院의 낙성식을 거행하고 그 이듬해부터 제향祭享은 춘추春秋로 하되 중월하정仲月下丁으로 정하였다. 위관位版·영정影幀의 봉안·이안식移安式 때는 향중·도내 사람 6,700여 명이 모여 서원과 애일당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문중·도산서원 및 인근마을에까지 분산 수용하여 접대하였다.³

5. 『분강서원창원일기』의 가치

18세기 이래 지방의 중소 원사院祠가 대개 그렇듯이 처음에는 주인공의 직손이 발의하여 방손과 외손들의 도움을 받아 문회門會·족회族會 등을 거쳐 설립을 결의하고, 결의된 내용을 다시 통문通文으로 각 문중과 향교·서원·향청 등에 발송하여 鄉會를 개최, 추인과 호응을 받아 착공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부지 선정과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기 마련이다. 직손·방손·외파外派들이 각각 가세대로 형편에 따라 일정한 錢穀과 役軍(주로 奴僕)을 각출, 동원하기도 하며 유관 문중과 인근 校院에 통문을 돌려 부조를 청하기도 하며, 특히 내외손 중에 수령·찰방察訪·감사監司·병사兵使 등 외관外官에 재직한 자의 도움이 컸으며, 목재·기와·철정鐵釘·목수·공장 工匠 등의 조달에는 고을 수령의 도움과 부근 사찰의 협조가 컸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 건물이 준공되면 鄉中 내지 道內士林을 초청하여 주인공의 位牌봉안과 함께 거창한 낙성식을 거행함으로써 일단락되는데, 끝까지 祠廟·精舍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정사 또는 사묘로 출발하여 중간에 서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예사였다.

당시 경상도 열읍에서 경쟁적으로 건립되고 있던 문중·향중사림 중심의 원사는 族勢·邑勢 등 형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인 경향은 비슷하였다.⁴ 18세기 중반에 설립된 예안현 분강서원의 창건과정을 서술한 『분강서원 창원일기』는 건립배경과 참여인물 및 조직·경비의 조달과 비용의 산출·공사인력과 물력의 확보과정·서원 건립과 관련된 사람의 움직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데서 당시 문중·향중사림 중심의 중소 원사의 구체적인 설립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데서 작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박상규, 김남중】

3 이상 일기내용은 한국국학진흥원 보관 『汾江書院創院日記』 및 위 황위주 국역문(2007)과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1995, 일조각), 452-453쪽을 참조하였다.

4 이상 본 해제일기 가치는 이수건, 위 저서, 1995, 452-453쪽 내용을 옮김.

참고문헌

-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1995, 일조각.
-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 한국국학진흥원.
- 한국국학진흥원 서비스 유교넷 일기 사진이미지.

백불암역중일기

百弗庵曆中日記



제목 표제: 曆中日記, 권수제: 百弗庵先生曆中日記
 저자 최흥원 崔興遠(1705~1786)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735~1786년(영조 11~정조 10)
 형태사항 4책(535장) / 선장(5침) / 사주무면, 무계, 무어미 /
 13행 32자 / 33.4~36.2×22.6~23.2cm
 소장자 경주최씨 광정공파 백불암종택
 관리자 최진돈 崔晉惇
 보관장소 개인소장



本其自通明也此不得改其... 初九有通明也此不得改其... 初九有通明也此不得改其... 初九有通明也此不得改其...

初九有通明也此不得改其... 初九有通明也此不得改其... 初九有通明也此不得改其... 初九有通明也此不得改其...

病如十日時意逐逐意逐... 病如十日時意逐逐意逐... 病如十日時意逐逐意逐... 病如十日時意逐逐意逐...

病如十日時意逐逐意逐... 病如十日時意逐逐意逐... 病如十日時意逐逐意逐... 病如十日時意逐逐意逐...

1. 개요

『백불암선생역중일기』(이하 『백불암역중일기』로 표기함)는 최흥원(1705~1786)이 1735년에 서 1786년까지 장장 51년간 자신의 삶을 기록한 이른바 생활일기이다. 그러나 직접 기록한 자필 수고본이 아니다. 『백불암역중일기』라 한 것으로 보아 아마 처음에는 책력 위 낱짜에 따라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후대 어느 때인가 재정리되어 정서된 것이다.

최흥원은 자를 태초太初·여초汝浩라 하였고, 초호를 수구암數管庵이라 하였다가 만년에는 백불암百弗庵이라 하였는데, 흔히 '칠계선생漆溪先生'으로 불리어 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기의 거의 대부분은 거주지 옷골과 대구, 그리고 팔공산 자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백불암역중일기』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권은 1735년(을묘, 31세, 영조 11)에서 1746년(병자, 41세, 영조 22)까지 10년간의 기록으로 329쪽의 분량이고, 제 2권은 1747년(정묘, 영조 23)에서 1755년(을해, 50세, 영조 31)에 이르기까지 9년간의 기록으로 250쪽의 분량이다. 제 3권은 1756년(병자, 51세, 영조 32)에서 1764년(갑신, 59세, 영조 40)에 이르기까지 8년간의 기록으로 313쪽의 분량이다. 제 4권은 1765년(을유, 60세, 영조 41)에서 1786년(병오, 82세, 정조 10)에 이르기까지 23년간의 기록으로 178쪽이다. 모두 52년간의 기록이라고 하나 매일 기록한 것은 1737년부터 1770년에 이르기까지의 44년에 해당한다. 총 분량은 1070쪽에 달한다.

대부분 낱짜와 낱씨를 이어 구체적인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 일기의 앞과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최흥원은 18세에 생원초시에 합격하였으나 25세에는 과거공부를 단념하고 평생을 팔공산 칠계에서 은거하면서 영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일기가 그러하듯이 『백불암역중일기』 또한 가족과 접빈객, 봉제사, 그리고 노비와 전답의 경영을 통한 경제활동, 혼상 등 각종 의례와 학문, 여행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흥원은 일반적인 유자의 삶과 달리 북계정사나 농연서당을 중건 또는 창건하여 인근에서 찾아오는 유생들에 대한 교육활동과 부인동에서의 향약(동약)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 향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백불암역중일기』에는 이러한 최흥원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2. 백불암 최흥원의 생애

1) 가계

최흥원의 가계는 경주최씨 광정공파 匡靖公派에 속한다. 우선 『경주최씨광정공파족보 慶州崔氏 匡靖公派族譜』를 통해 선대의 세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崔鄂(개국공신, 병조판서)

|

在田(군수)

|

孟淵

생원,현감

始居대구

|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澣 - 自河 - 海 - 宗潤 = 秀洞派

참군 선공감감역 무과 | 참봉

만호 |

| - 宗澤

| - 宗沃 - 謙 = 入室派

사헌부감찰 | - 認 = 大明洞派

| - 誠 - 東 = 智妙派

무과 | - 東集 - 衛南 - 慶涵 - 壽學 - 麟錫

현감 | 대군사부 생원 선교랑 무과, 현감 | - 鼎錫 - 興遠

| - 東山+直

| 통덕랑

| - 晉錫

광정공파가 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최흥원의 11대조인 맹연孟淵으로부터 비롯한다. 맹연은 맹산현감을 지냈으나 만년에 중앙관직에서 밀려나자 대구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후손은 지묘동, 도동, 옷골 등지에 세거하게 되었다. 맹연은 대구로 이거하기 이전에는 강화도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513년 맹연의 또 다른 아들 징澄의 『사마방목』에 거주지가 강화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맹연이 어떠한 관계로 대구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이후 맹연의 후손은 대구를 세거지로 하여 비록 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중앙 또는 지방관으로 꾸준히 진출하고 있었다.

최흥원의 6대조인 계誠(1567-1622)는 호를 태동台洞이라 하였고, 무과출신으로서 임진왜란 시에 초유사招諭使인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로부터 대구의병가장大丘義兵假將에 임명되어 활동한 공로로 선무 2등공신宣武二等功臣에 봉해지고 곧이어 만경현령이 되었다. 그는 선정을 베풀었으나 3년 만에 체직遞職되었다. 이것은 다음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아마 그의 출신이 무과라는 문제와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유년己酉年(1609)에 교체되어 돌아와서는 개연히 무武에서 문文으로 바꾸려는 뜻을 가지시고 여러 아들에게 엄격히 공부를 시켰는데, 선릉先壘 곁에 집을 짓고 의전義田을 설치하고 책과 양

식을 갖추어 의리義理를 강론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도록 글을 써서 거듭 경계하셨다.”(『百弗庵先生文集』 권 8, 〈六代祖縣令府君墓碣〉)

그래서 무武를 문文으로 바꾸고자 하여 서실書室을 짓고 의전義田을 갖추어 자제들의 공부 를 독려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의 아들은 한강寒岡 정구鄭述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생 진과生進科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란에 창의하였다는 사실은 경주 최씨가 향촌사회에서 이미 확고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최씨가 이미 누대로 문무반文武班을 통해 벼슬 에 나아갔다는 사실과 가동家僮과 곡식을 내어 창의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초유 사로부터 의병가장에 임명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최계崔誠가 무과출신이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최씨는 문반으로도 진출하고 있었지만, 무과출신들도 많이 배출하고 있었다. 어쩌면 가문적으로 무과에 보다 친숙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현령에서 체직되자 무武를 문文으로 바꾸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것, 또는 백불암이 가문의 분위기를 “협기俠氣와 패술霸術만을 익혀서 유 가적儒家的인 풍미가 전혀 없었다”¹⁾고 술회한 것 등에서 이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아무튼 태동공台洞公의 의병가장으로서의 활동, 자제들에 대한 교육에의 열정 등은 이후 최 씨가의 성장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5대조 동집東嶽(1586~1661)은 태동台洞 계씨의 둘째 아들로 호를 대암臺巖이라 하였고, 30대 의 초반에 옷골에 처음으로 입학하였다. 그는 한강 정구의 문인이 되고 진사시進士試를 거쳐 학 행學行으로 청나라에 불모로 가는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사부師傅에 임명되었으나 도중에 교체되고 명나라가 망하자 부인동夫仁洞에 농연정蠡淵亭을 지어 은거하면서 제자를 가르치며 동민의 교화 에 노력하였다. 이로 인하여 ‘숭정처사崇禎處士’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대암이 부인동에 은거하였던 것은 천석泉石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팔공산 중턱 부인사 아래에 해당하는 이곳은 땅 이 기름지고 심한 가뭄에도 마르는 법이 없어서 논농사가 일찍부터 발달하고 있었다. 대암은 이 곳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암은 네 아들을 두었으나, 맏아들 위남衛南의 자손만 옷골에 세거하고 나머지 자손은 모두가 외지로 나갔다.

조祖 수학壽學은 무과출신으로 사헌부 감찰을 거쳐 광양현감을 지냈으나, 전라도 운봉에 귀 양 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마쳤다. 그는 맏아들인 인식麟錫의 부부가 무후 無後한 채로 요절하자 둘째아들인 정석에게 승중承重하여 종통宗統을 잇게 하였다. 다음은 수학이 작성한 〈승중문기承 重文記〉이다.

“슬프다. 인식麟錫 부부夫婦가 불행히 서로 연이어 죽으니 나의 슬픈 정이 어찌 특별히 죽음 만을 슬퍼할 따름이겠느냐. 대代를 이을 아들이 무후無後로 죽었으니 어찌 할 바를 모르기 때문 이다. … 너(정석鼎錫)의 아들을 인식이의 뒤를 계승하게 하여 종적宗嫡을 잇게 함을 알지 못하는

1 『百弗庵先生文集』 권 14, 〈平居講語〉 546-547쪽, (경인문화사본)

바는 아니나, 너의 네 아들 중 큰놈이 아직 젖먹이이고 나의 병은 고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누대累代의 제사를 결코 어린아이에게 맡기기 어렵다. ... 슬프다. 뒤를 이어 종宗을 잇는 것이 비록 고급의 상경常經이나, 형망제급兄亡弟及 또한 모든 집에서 통행하는 것이니 내가 너(정석)로서 종宗으로 삼는 것은 인정人情으로서 부득이 한 것이다. 이제 너에게 종宗을 돌리니 너는 이 뜻을 잘 받들어 나를 이어 종사宗祀하고, 너의 셋째 아들을 죽은 인식의 후後로 삼아 차자례次子例에 따라 시행하라. 1713년 12월 13일”

이 당시 수학은 유배된 처지에서 병을 얻었고, 또 만아들 부부가 연이어 요절하자 둘째에게 종통을 계승하게 하여 누대의 제사를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유서로 남기고 있다. 아무튼 최홍원의 부 정석은 형망제급이라는 형식을 통해 종통을 계승하였고, 또한 이러한 형식이 당시까지에도 낯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생애

최홍원은 월성인月城(慶州)人으로 처음에는 흥원興源으로 쓰기도 하였다. 자는 여호汝浩를 쓰다가 태초太初로 바꾸었다. 최홍원의 생애를 연보를 중심으로 하여 그 대강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숙종 31년(乙酉, 1705) 2월 15일 대구부大邱府 원북리院北里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5대 조 대암공臺巖公이 처음 대구의 해안현解顔縣 동쪽 칠계漆溪에 살았다.
- 숙종 38년(1712, 8세)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 숙종 40년(1714, 10세) 정월에 조고祖考 감찰공監祭公(수학壽學)이 호남湖南의 운봉雲峰에서 객사하였다. 이 때 부 통덕랑通德郎(정석鼎錫)이 천리 먼 곳으로 관을 모시러 가고, 선생이 홀로 어머니와 집에 있으면서 모든 조치를 조리 있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특이하게 여겼다.
- 경종 원년(172, 17세) 9월, 정평공精平公 손홍량孫洪亮의 후손 절도사節度使 명대命大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 경종 2년(1722, 18세) 가을에, 향해鄉解에 나아가 생원生員 초시에 합격하였다.
- 경종 6년(1726, 22세) 정월에 동화사桐華寺에서 『상서尙書』를 읽었고, 3월에 『태극도太極圖』, 『통서通書』, 『서명西銘』 등의 책을 읽었다.
- 영조 3년(1727, 23세) 정월에 끝의 삼촌 장사공將仕公의 상喪을 당하였다.
- 영조 5년(1729, 25세) 가을에 포산시苞山試로부터 돌아와서 어른에게 아뢰고는 결국 이후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 영조 9년(1733, 29세) 6월에 장인 절도사 손공孫公이 별세하였다. 당시에 손공은 제주목 사였는데, 『심경心經』 한 본을 부치고 편지를 써서 연구하는 데에 힘쓰게 하였다.
- 영조 11년(1735, 31세) 7월에 통덕공通德公의 상喪을 당하였다. 통덕공은 돈후주신敦厚周慎

하여 자식들을 의방義方으로써 가르쳤다. 11월에 대구의 북쪽 광점촌廣店村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

- 영조 13년(1737, 33세) 정월에 아들 주진周鎭에게 명하여 치재恥齋 조중길曹仲吉 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게 하였다. 3월에 『성리대전』을 보고 아들 주진에게 편지를 하여 “『성리대전』은 안동 지방에서 산 책인데, 이것은 월천月川 선생이 일찍이 읽었던 것이고, 퇴계退溪 선생이 그 제목을 쓴 것이니 매우 귀중히 여길 만하다.”라고 하였다. 9월에 복궤服闋하였다. 12월에 『천명도天命圖』를 보았다. 한 본을 베껴서 동생 초려공草廬公에게 주어 스스로 살펴보게 하였다.
- 영조 16년(1740, 36세) 4월에 부인 손씨孫氏가 작고하였다. 지곡枝谷에서 병곡屏谷 권구權渠 선생을 찾아보았고, 12월에 광양光陽에서 제산霽山 김성탁金聖鐸 선생을 찾았다. 초려공草廬公과 함께 진양晉陽 축석루矗石樓에 올라가서 학봉 김선생의 <삼장사三壯士> 시詩에 차운次韻하였다.
- 영조 17년(1741, 37세) 11월에 셋째 아우 육와공陸窩公 흥건興建과 함께 『예의보유禮儀補遺』를 교정하였다. 12월에 모부인母夫人의 생신生辰에 수연壽宴을 열어 드렸다. 이때부터 해마다 행하였는데 한 걸 같이 사마온공司馬溫公의 헌수의獻壽儀를 따랐다.
- 영조 18년(1742, 38세) 정월 아들 주진에게 명하여 기삼백基三百을 풀게 하고, 선기옥형璿璣玉衡이란 혼천의渾天儀를 만들게 하였다.
- 영조 19년(1743, 39세) 8월에 초하루 보름에 강론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아들 조카 등 배우는 이들에게 경전經典과 『소학小學』 등의 책들을 배송하도록 하였는데, 이로부터 해마다 행하였다. 9월 예사禘祀를 행하였다.
- 영조 20년(1744, 40세) 강와剛窩 임필대任必大가 내방하여 『가례家禮』와 『소학小學』 등을 강론했다. 10월에 부인동夫人洞 강당講堂이 이루어졌다. 남전향약藍田鄉約을 읽어서 깨닫게 하고, 효제충신孝弟忠信의 도道와 밭을 갈고 집을 다스리는 업業에 힘쓰게 하였다. 9월에 도산陶山의 상덕사尙德祠에 참배參拜하였다.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선생을 오미동五美洞에서 처음 만났는데, 한 마디 말로 서로 계합契合한듯 하여 이후로 편지를 왕래하면서 도의道義로 서로 격려하였다.
- 영조 25년(1749, 45세) 8월에 <농연시農淵詩>를 지었다.
- 영조 26년(1750, 46세) 2월에 육와공陸窩公과 함께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론했다. 북계정사北溪精舍가 이루어졌다. 선생은 일찍이 농연農淵에서 장수藏修하려는 뜻이 있었는데, 이때 시내 위쪽 수백 보쯤에 먼저 3칸 5기등을 세웠다. 그 집을 정수靜修라 하고, 당堂을 완락玩樂이라 하였다. 합하여 편액扁額을 북계정사北溪精舍라 하니, 그것은 시내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3월에 여러 생도들과 정자程子の ‘무심출입설無心出入說’을 강론했다. 육와공과 함께 『중용中庸』을 강론했다.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은 성인이 정령하게 고계하여 서로 분부하는 것이 오직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 영조 27년(1751, 47세) 9월에 조카 사진思鎭·상진尙鎭에게 명하여 이대산李大山 문하에 중

학從學하게 하고, 태양서원陶陽書院에 가서 향음례鄉飲禮를 참관하게 하였다.

- 영조 28년(1752, 48세) 3월에 <봉선입의奉先立議>를 지었다. 선생이 문중의 장소長少들과 함께 모두 지묘智妙에 모여 신해절목辛亥節目을 수보修補하여, 매년 중구重九에 강목講睦하는 모임을 가지기로 정하였다.
- 영조 30년(1754, 50세) 12월에 외삼촌인 조동익공趙東益公의 상사喪事に 곡하였다.
- 영조 31년(1755, 51세) 3월에 농연정農淵亭이 이룩되었다. 농연정은 3칸인데, 동쪽 두 칸을 재齋로 만들어 '세심洗心'이라 하고, 서쪽 한 칸을 헌軒으로 만들어 '탁청濯淸'이라 하고, 합하여 편액하기를 '농연서당農淵書堂'이라 하여, 배우는 사람들이 합숙하는 데 대비하였다.
- 영조 32년(1756, 52세) 12월에 제생諸生들을 북계北溪에 모으고 월삭강月朔講을 열었다.
- 영조 33년(1757, 53세) 2월에 가야산伽倻山을 유람하고 <유산록遊山錄>을 지었다.
- 영조 36년(1760, 56세) 9월에 의고義庫가 완성되었다. 보본당報本堂에서 이 창고를 설립하여 흉년이 들 때에 가난한 친척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 영조 37년(1761, 57세) 5월에 농연정에서 『심경心經』을 강론하였다.
- 영조 41년(1765, 61세) 정월에 백불암百佛庵이라 편액을 걸었는데, 주부자朱夫子의 '백부지 백불능 百弗知 百弗能'이란 말에서 취하여 자호自號로 삼은 것이다. 8월에 모부인의 상을 당하였다.
- 영조 42년(1766, 62세) 정월에 모부인의 장사葬事를 대구의 북쪽, 도장동道藏洞에서 지냈다.
- 영조 43년(1767, 63세) 10월에 상을 마치셨다.
- 영조 47년(1771, 67세) 2월에 학재學齋를 세웠고, 3월에 <효제당명孝悌堂銘>을 지었다. 선생이 여러 종친宗親들과 함께 참관공의 제당祭堂을 지어서 '효제孝悌'라 하고, 봄가을 정제正祭의 의절儀節을 정하고, 효제당孝悌堂에서 『가례家禮』를 강론하였다.
- 영조 48년(1772, 68세) 3월에 소산小山 이광정李光靖이 찾아와 『가례』에 대해서 강론하였다.
- 정조 2년(1778, 74세) 정월에 경모궁景慕宮 수봉관守奉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7월에 장릉참봉莊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 정조 3년(1779, 75세) 3월에 난곡蘭谷 김강한金江漢(자 탁이濯以)의 죽음에 곡하다. 12월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 정조 5년(1781, 77세) 원단元旦에 가사家事를 손자孫子 식湜에게 전할 것을 가묘家廟에 고하였다. 12월에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부음이 오니, 자리를 정하고 곡하였다. 그를 위하여 3개월 동안 소복과 띠를 입었고, 제문을 지으셨다.
- 정조 6년(1782, 78세) 8월에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영상領相 서명선徐命善이 천거한 것이다.
- 정조 7년(1783, 79세) 정월에 임금의 명이 있었는데, 해조該曹를 시켜 직품職品을 올리게 하고, 그가 오도록 신척申飭하였다. 6월에 임금의 명이 있어, 본도本道에서 『사서四書』를 인쇄하여 하사下賜하게 하였다. 12월에 특별히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 정조 8년(1784, 80세) 정월에 순사^{巡使} 이병모^{李秉模}가 찾아왔다. 7월에 익위사^{翼衛司} 익찬^{翼贊}에 제수되었다. 이때에 세자 책봉의 의식을 행하고, 세자의 강론을 위해 널리 인재를 구함에 여러 신하들이 입을 모아 선생을 추천하였기에 드디어 맨 먼저 이 명을 받게 되었다.
- 정조 10년(1786, 82세) 대질^{大蠶}로써 통정대부^{通政大夫}의 등급에 올랐다. 여러 친척들에게 선조^{先祖}의 유서 중에 ‘돈행의·근문학^{敦行誼·勤文學}’으로써 거듭 당부하였다. 7월에 족제^{族弟} 흥지^{興之}의 죽음에 곡하였다. 8월에 선비^{先妣}의 제사를 지내고, 연달아 병석에 누웠다. 8월 22일 아침나절이 지나, 시자^{侍子}에게 누운 자리를 정리하게 하고, 부축 받아 똑바로 누워 손으로 두건을 정리하고, 미시^{未時}에 마음 편안히 영면하였다. 사림들이 와서 곡하는 자들이 슬퍼하면서 실성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10월 22일에 칠계^{漆溪} 동쪽 검덕산^{儉德山} 언덕에 장사하였다. 초종^{初終} 이후로 원근의 유생들이 서로 번갈아 와서 곡하였는데, 이 때 모인 이가 3백여 명이 되었다.
- 정조 13년(1789) 6월에 효행으로 정문^{旌門}을 명하였다.
- 정조 14년(1790) 정월에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兼 經筵 參贊官}에 증직되었다.

3. 『백불암역중일기』의 체제

『백불암역중일기』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는 ‘역중일기^{曆中日記} 卷一, 二, 三, 四’로 기록되어 있고, 속제는 ‘백불암선생역중일기^{百佛庵先生曆中日記} 卷之一’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 1권은 1735년(을묘, 31세, 영조 11)에서 1746년(병자, 41세, 영조 22)까지 10년간의 기록이나 1735년의 기록은 3월부터 아버지의 시탕과 장례를 치르는 11월까지의 기록이고, 1736년의 기록은 없다. 매일 기록한 것은 1737년부터이며 모두 329쪽의 분량이다. 제 2책은 1747년(정묘, 42세, 영조 23)에서 1755년(을해, 50세, 영조 31)에 이르기까지 9년간의 기록으로 250쪽의 분량이다. 제 3권은 1756년(병자, 51세, 영조 32)에서 1764년(갑신, 59세, 영조 40)에 이르기까지 8년간의 기록으로 313쪽의 분량이다. 제 4권은 1765년(을유, 60세, 영조 41)에서 1786년(병오, 82세, 정조 10)에 이르기까지 23년간의 기록이나 1771년의 기록은 7월 23일에 그치고 있고, 1772년은 4월 4일까지의 기록이고, 1773년은 5월까지의 기록이 없고, 6, 9, 11월 각 하루의 기록만이 있다. 이후로는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꼴로 기록되어 있어서 아주 소략하다. 4권의 분량은 178쪽이다. 모두 52년간의 기록이라고 하나 매일 기록한 것은 1737년부터 1770년에 이르기까지의 44년에 해당한다. 총 분량은 1,070쪽에 달한다.

『백불암역중일기』는 그 표제가 말해주듯이 아마 처음에는 책력의 날짜에 따라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 『백불암선생역중일기』라는 속제가 말해주듯이 정리되고 정서된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1735년 일기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다.

“평생 동안 책력을 모은 것은 정미년(1727년)부터 시작 하셨지만 모두가 얼마 되지 않고 정사년(1737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루하루의 기록이 있으며 그 이전에는 매일의 기록이 없어 참고할 수 없지만 특별히 을묘년(1735년)에 아버님 상을 당함에 있어 비록 날마다 쓴 기록은 없으나 시탕 도중 의원을 초빙하시고 약을 쓴 절차를 기록하신 것은 매우 상세하다. 그러므로 지금 원본을 옮겨 베낀 것은 이 해부터 시작하였으며 매일 기록하게 된 것은 정사년(1737년)부터 시작되었다.”²

일기는 매일의 날짜 위에 권표(“○”)를 하고 날씨를 기록하였다. 날씨는 간단히 “맑음晴”·“흐림陰”·“맑고 후 흐림晴或陰”·“비雨” 등으로 기록하거나, 기상현상 및 날씨의 특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간혹 날자와 날씨만이 기록된 경우도 없지 않다. 월일이 바뀌어도 행간의 구분 없이 계속이어 기록하였다. 서체는 주로 행서로 쓰였으나 몇몇 해의 경우는 행초로 쓰여 지기도 하였다. 이로 보아 필사자는 여러 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의 기록은 줄을 그어 지운 것도 있다. 한 면은 모두 14행이고, 1행은 대체로 40자 내외로 거의 일정하며, 계선界線 등의 구분은 없다. 아마 가로세로 줄친 종이를 바탕에 깔고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4. 『백불암역중일기』의 내용

1) 가옥과 가족, 그리고 친족들

최홍원의 『백불암역중일기』에는 다양한 직계 혈연의 가족이나 방계혈연이 아주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정확한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흔히들 조선시대의 양반가문은 대가족제를 유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백불암역중일기』를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와 구성은 아무래도 가옥의 규모나 구조에 규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우선 가옥의 규모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오늘날 경주최씨가 가진 건물은 최홍원 당시의 규모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일시에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1694년 최경함에 의해 안채가 건립된 이후 사랑채(1905년 중건), 대문채, 보본당報本堂(1742년), 별묘別廟(1742년), 가묘家廟 등이 계속해서 한 울타리 안에 신축 또는 중수, 중건되었다. 여기에는 주거용 가사뿐만 아니라 사당 등도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종가 주위에는 동계정東溪亭(6칸)과 동천서당東川書堂(7.5칸) 등의 건물도 있다.

이를 백불암종택의 규모라고 한다면 그것은 70, 80여 칸 정도가 되는 당시로서도 방대한 규모임에 틀림없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7, 8세대의 대가족이라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전체 규모일 뿐이지, 이 모두가 곧 주거공간이 되는

2 平生所輯曆書始自丁未總若干卷而至丁巳始有日錄以前無錄可考特於乙卯遭外艱雖無逐日所錄而侍湯中邀醫用藥之節記之甚詳故今騰出始自是年至於逐日成錄自丁巳始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보본당(10칸)과 별묘(1칸), 가묘(4.5칸), 동계정(6칸)과 동천서당(7.5칸) 등의 건물은 조상의 위패나 제사를 모시는 공간이나 교육공간이다. 안채에는 4.5칸의 대청이 있고, 부엌과 고방, 뒤주, 중문 등이 역시 이 정도를 차지한다. 사랑채 역시 5, 6칸 정도의 사랑마루와 뒷간이 있다. 또 고방채에는 창고가, 대문채에는 고방과 마구간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주호가의 가족들이 거처할 수 있는 온돌방은 기껏해야 안채에 모두 5칸 정도의 안방, 옷방, 건너방, 작은방이 전부이고, 사랑채 역시 합하여 4칸 규모의 큰 사랑과 중 사랑이 있을 뿐이다.

안채는 여성들의 공간이고 가정생활의 중심이다. 따라서 가족의 규모 또한 안채의 규모에 직접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최씨의 규모가 전체적으로는 70, 80여 칸이라 하더라도 안채의 규모는 주호처가 노모를 모시고 산다면, 기껏해야 한두 명 미혼의 딸과 1명의 며느리 정도가 기거하기에도 협소한 형편이다. 여기에 적어도 유모乳母나 심부름하는 소비小婢 한 두 명 정도는 함께 기거해야 했을 것이다. 더구나 부엌은 하나에 불과하다. 한 집에 몇 세대가 기거하는 취사는 공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부엌의 규모가 2칸이나 되지만 역시 고방이 달려야 하고, 쌀감도 저장해야 하고, 솥도 걸려야 하니 협소할 수밖에 없다. 부엌일은 술거하고 있는 비의 몫이다. 이들은 포사에서 생활했을 것이다. 3동의 포사에 각기 부엌이 달려있었다면 적어도 노비 세 가족 정도, 그리고 대문채의 초당방에도 한 두 명의 남자종이 기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60, 70여 간의 호대한 양반가옥에도 거주할 수 있는 최대 혈연가족은 주호부부와 노모, 미혼의 한 두 자녀, 그리고 1쌍의 아들 부부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씨의 가옥 규모는 그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최씨의 방계혈연은 물론이고, 다수의 형제가족이 한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백불암역중일기』를 통해 최흥원 형제들의 실제 거주형태와 농업경영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a : 중제仲弟(흥점興漸)〉

1741.11.14 : 중가仲家 사우舍宇의 역을 마치다.

1744.07.25 : 중가仲家에 대문을 달다.

〈b : 숙제叔弟(흥건興建/입부立夫)〉

1742.02.26 : 셋째 동생 집터를 오늘부터 닦기 시작하다.

1742.10.17 : 셋째 동생의 분가를 위해 술 한 좌를 샀는데, 값이 4냥7전이다.

1743.10.21 : 셋째 동생 신옥新屋이 대충 지어져서 제수씨에게 출숙出宿하게 하였다. 지금부터 분가하게 되니 마음이 매우 즐겁지 않다. 노비를 사랑하기를 자녀와 같이 하기를 당부하다.

1758.09.03 : 숙방叔房의 소가 병들어 죽었다. 실물失物함이 또한 적지 않다.

〈c : 말제末弟(흥후興厚)〉

1746.03.13 : 말제末弟의 집터를 입부가立夫家 서편에 고르니 말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

1746.03.28 : 말제가末弟家 상량

〈d : 조카(상진尙鎭·항진恒鎭)〉

1754. 6. 3 : 상진尙鎭이 금일 새 집에 들어가다.

1765. 5.24 : 비록 항가恒家에서 목욕했다고는 하나 어찌 재계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위 자료에서 a, b, c, d는 각기 최흥원의 호에 입적된 중제仲弟(흥점), 삼제三弟(흥건), 말제末弟(흥후)와 조카(상진·항진)의 가사家舍 관련 정보를 보여준다. a, b, c에서 흥점, 흥건, 흥후의 가족이 각기 1741년(33세), 1743년(32세), 1746년(30세)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카인 상진(중제 흥점 2자)이는 1754년(26세)에, 항진(숙제 흥건 1자)이 경우는 늦어도 1765년에 개별 가사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30세 전후에 가사가 신축되고 있다. 형제나 조카들의 가사 건립은 곧 분가를 의미하고, 아울러 독자적인 농업경영의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별 노비와 농우를 소유하고 있다. 최흥원 형제들의 노비분재는 말제가 분가하는 1746년에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일부 노비가 지급되었음을 1743년 숙제叔弟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 1746년의 노비분재와 말제의 분가로써 최흥원의 형제가족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최흥원은 이듬해에 여러 형제들의 분가에 대한 안타까운 심회를 시로 읊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최흥점, 흥건, 흥후 등 형제뿐만 아니라 일부의 조카들도 최흥원의 호에 입적되어 있다. 말하자면 7, 8쌍의 부부가족이 합호合戶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1746년 모든 형제가 분가하여 각호各戶로 생활하고 있는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했다. 물론 형제와 조카들의 가사가 한 울타리 내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러한 합호 형태의 혈연 구성원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음을 스스로 명백해 진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들 개별호가 다만 호적상에서만 하나의 호로 편제되었음을 의미하며, 양반가의 호적자료에서 볼 수 있는 대가족적인 혈연결합은 바로 이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사회에서의 이상적인 가족형태는 “형제가 단란하게 모여서 사는 것[兄弟團聚]”이 인정천리人情天理의 당연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에서 유자들이 표방한 유교적인 이상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당시의 현실로 파악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최흥원의 『백불암역중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계혈연으로는 최윤석崔崙錫, 최흥후崔興溥, 최흥록崔興祿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최윤석은 『백불암역중일기』에 서숙庶叔으로 나타난다. 최윤석의 존재는 일기가 시작되는 1737년부터 사망하는 1756년까지 확인 가능하나 그렇게 자주 거론되지는 않는다.

〈문희종文希從/녹종祿從/흥록興祿〉

1751.03.17 : 문희文希 양식糧食으로 1석을 주다.

1757.12.15 : 문희文希를 부府에 보내어 성주星州의 노비추심사로 의송議送. 서종庶從이 제사題辭를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1758.04.08 : 문희文希가 중심中心에 가서 노배奴輩들이 절초折草하는 것을 보고 저녁에 돌아오다.

- 1758.12.02 : 문희文希가 타작하여 조 8석을 얻어 빗을 갠고 돌아오다.
- 1763.09.05 : 문희중文希從이 11명의 노정奴丁을 거느리고 해안解顔 30여 두락에 보리를 파종하다.
- 1759.03.12 : 문희文希 친기親忌에 곡하러 했으나 몸이 아파서 그만 두었다.
- 1768.03.04 : 녹종祿從이 중심中心에 가서 별고전別庫錢 평平 5석을 받아 무전買錢하다.
- 1768.03.17 : 녹종祿從이 부중府中에서 저포苧布 1필을 4냥에 사오다.
- 1768.04.17 : 녹종祿從이 또 부府에 가서 근근이 부세夫稅에 수응酬應하고 혼구婚具는 하나도 입수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 1769.01.29 : 흥록興祿 신곡新谷에 대신가다. 대개 대전貸錢하여 혼사婚事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백불암역중일기』에 1745년부터 1769년까지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희중文希從과 녹종祿從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문희라는 이름은 족보나 호적에 나타나지 않지만, 녹종은 곧 최흥원의 서종제인 흥록興祿을 지칭한다. 문희는 아마 최흥록의 아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숙 최윤석崔崙錫의 아들이다. 최흥록은 위의 제시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본가의 다양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즉, 부시府市를 출입하면서 소나 돼지 또는 소금 등을 사 오거나, 노비들을 거느리고 농사를 감독하거나, 적종형嫡從兄인 최흥원을 대신하여 문안인사를 다니거나,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돈을 받아 오거나, 관아에 의송을 올리는 것 등이다. 그야말로 본가의 잡다한 일상 업무를 최흥원을 대신하여 수행한 셈이다. 그는 혈연호구로 존재하였던 그 누구보다도 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방계혈연으로 입적된 최흥후(흥방)는 최흥원의 적종숙嫡從叔으로, 자를 통숙通叔이라 하였다. 따라서 일기에는 자로 표기되거나, 통종通從이라는 호칭으로 등장한다. 『백불암역중일기』에 등장하는 최흥후(통종)의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통종通從/통숙通叔/최흥후崔興溥〉

- 1746.01.04 : 작은 아버님의 제사를 우리 집에서 지내다. 양동 사촌누이의 해산날이 가까워 종제(흥후)의 집이 정결하지 못한 때문이다.
- 1756.06.06 : 주아周兒에게 통종의 발을 먼저 타작할 것을 분부하다.(4월부터 괴질에 걸림)
- 1756.11.23 : 통종이 옛집을 헐어 쌓아두었다.
- 1758.05.03 : 통종에게 불포佛浦 8두전 타작을 감독하게 하다.
- 1758.05.06 : 통종에게 중심담中心畚 이앙을 감독하게 하다.
- 1759.05.04 : 통종이 동화사에서 (아이들을 대리고 피병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들르다.
- 1766.02.04 : 통종과 지묘숙, 녹종이 내방來訪하였다가, 중심장中心庄으로 향하였다.
- 1770.04.29 : 통종의 군속함이 막심하다. 계속 도와주지 못한다.

최흥후는 최흥원의 종제로 별도의 가옥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시로 종형가에 출입을 하면서 역시 다양한 일들을 담당하였다.

최홍원의 호에 입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백불암역중일기』에서 위의 인물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로는 인동조(仁同祖), 종지조(宗旨祖), 지묘숙(智妙叔), 성숙(聖叔)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최홍원의 서삼종조, 서삼종숙으로 수시로 종가를 출입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일들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성숙으로 불리는 최성석은 특히 종가의 별묘(別廟) 건축이나 별고(別庫)의 운영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2) 사승(師承)과 교류(交遊), 그리고 제자들

최홍원은 스스로 고백했듯이 뚜렷한 스승을 두지 못하였다. 11세에는 고모부 이주송(李柱崇, 벽진인)으로부터 19사(史)를 배웠고, 15세에는 서당에서 공부하였으나 영리만을 추구하는 공부에 실망하여 이듬해에 그만 두었다. 이후로는 스승이 없이 오직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이 같은 사정은 그가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라서 조선적(曹善迪)의 문하에서 공부하던 동생으로부터 소학(小學) 대학(大學)의 공부순서와 주자독서법(朱子讀書法)이라는 공부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에서도 짐작된다. 이 같은 사정을 순암은 “스승 없이 학문을 이어, 초연히 홀로 깨우쳤네.”(묘갈명(墓誌銘), 안정복(安鼎福)撰)라고 노래하고 있다.

최홍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숙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퇴계 이황과 회재 이언적, 곧 퇴계학과(退溪學派) 또는 영남학과(嶺南學派)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그가 안동을 자주 방문하면서 당시 대표적인 학자들과 널리 교류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즉, 36세에는 안동의 유성화(柳聖和, 호 서호(西湖))와 권구(權榘, 호 병곡(屏谷))를 방문하고, 전라도 광양에 유배 중이던 김성탁(金聲鐸, 호 제산(齊山))을 찾아갔으며, 46년에는 평생의 지기(知己) 이상정(李象靖)을 만났으며, 39세와 42세에 각기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회재 이언적 배향)과 안동의 도산서원(陶山書院, 퇴계 이황 배향)을 참배(參拜)했던 것이다. 사실 이들 가문과는 이미 인아(姻婭)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교류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백불암문집』과 『백불암역중일기』에는 최홍원이 교류한 다양한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문집에는 문인과 종친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40여 명과의 주고받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홍원이 벼슬은 물론이고 영남을 벗어나지도 않았다는 사정에서 교류관계는 폭넓은 것이 아니었다. 이들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인물은 성호 이익(星湖 李瀾)과 변암 체제공(樊巖 蔡齊恭)이다. 이들은 근기(近畿)의 남인(南人)들로서 당시 학문적 또는 정치적으로 영남남인(嶺南南人)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최홍원은 이들과 서로 만나서 교류한 적은 없고 다만 자제를 보내 문안하거나 선조의 문자를 얻기 위한 편지의 내용만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학문적인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홍원이 가장 절친하게 교류했던 사람은 대산 이상정과 소산 이광정(小山 李光靖), 그리고 회재 조선적(恥齋 曹善迪) 등이었다. 이들과의 편지는 각기 70, 12, 6통이 수록되어 있어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최홍원은 이들과 편지의 내용만이 아니라 『백불암역중일기』의 기록을(표 1) 참조)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상호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학문을 토론하고 있었다.

특히 이상정은 밀암 이재(密庵 李裁)의 외손자로 퇴계의 학통을 이은 적전(嫡傳)으로 당시 영남

의 유림을 영도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상정의 문집에는 최홍원에게 보낸 편지 40편이 수록되어 있다. 대산과 백불암의 관계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제들과의 중첩적인 사승(師承)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최홍원의 자제인 최사진(崔思鎭)·상진(尙鎭)·항진(恒鎭) 등이 이상정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이상정의 자제인 이우(李瑀)·이완(李完)·이경(李敬)(토土)과 이병탁(李秉鐸)·이병진(李秉進)·이병원(李秉遠) 등이 최홍원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최홍원은 이상정의 부고를 접하고 크게 슬퍼하여 3개월간 소복(素服)하고 대帶를 벗지 않았으며, 이상정 역시 이광정이 회고하듯이 “가장 깊이 마음을 기우려 사귄 사람”은 다름 아닌 최홍원이었고, 임중에서도 최홍원의 안부를 물었다는 사정은 이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치재 조선적과의 관계 또한 이상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적의 본관은 창령이며, 영천에 거주하였고, 병와 이형상(屏窩 李衡祥)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조선적의 문집에는 최홍원에게 준 편지가 14통이 수록되어 있다. 최홍원은 아들 주진에게 그의 문하에서 공부하도록 하였고, 최홍원의 문인이었던 조덕신(曹德臣)·조학신(曹學臣)은 조선적의 아들이었다.

최홍원·이상정과 더불어 ‘영남삼로(嶺南三老)’로 추앙되었던 남야 박순경(南野 朴遜慶)(1713~1782)은 예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거리상 서로 상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영남 남인으로서의 정치적 또는 학문적인 동류의식과 간접적인 교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에서 박순경의 종손자인 박한탁(朴漢倬)이 최홍원의 손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외에도 최홍원이 교유하였던 인물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촌 송이석(南村 宋履錫), 황학 이춘식(黃鶴 李春植), 운재 이명천(雲齋 李命天), 매헌 송명기(梅軒 宋命基), 송와 안명하(松窩 安命夏), 식호 정염(式好 鄭燁), 강와 임필대(剛窩 任必大) 등이었고, 이들은 모두 당대의 명망 있는 학자들이었다. 그리고 안으로는 제弟 육와공(陸窩公)(최흥건)과의 강토(講討)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표 1> 최홍원의 교유관계

연도	나이	이름	자	호	비고
1736	32	曹善迪	仲吉	恥齋	來訪함(1737년, 아들 周鎭에게 문하에서 배우게 함)
1737	33	宋履錫	伯綏	南村	내방
1738	34	조선적			내방
1739	35	李春植		黃鶴	내방하여 太極圖說을 강론
1740	36	柳聖和		西湖	안동 河上에 가서 찾아 봄
		權渠		屏谷	안동 枝谷에 가서 찾아 봄
		金聖鏞		霽山	光陽 配所에 가서 찾아 봄
1741	37	李命天	性中	雲齋	내방
		宋命基		梅軒	梅南에 가서 만나 봄
1743	39	安命夏		松窩	내방하여 禮에 대해 논의함
					경주 玉山 體仁祠 참배, 雪川亭의 士友와 강론
		鄭燁	汝章	式好	霞谷에 가서 만나봄
1745	41	任必大	重徵	剛窩	내방하여 家禮와 小學 등을 강론

연도	나이	이름	자	호	비고
1746	42				陶山 尙德祠 참배, 인근 名士와 더불어 유람
		李象靖	景文	大山	五美洞에 가서 만남
		李光靖 조선적	休文	小山	함께 理氣說을 강론함
1747	43	임필대			퇴계문집을 강론
		최흥건		육와	함께 理學通論을 강론함
1748	44	이상정 조선적			내방하여 소학과 대학을 강론함
		이상정			함께 팔공산을 유람하고 부인사에서 심경 강론
1749	45	권구			뜻함
		이상정			부친상에 조문함
1750	46	최흥건		육와	함께 性理大全, 中庸을 강론함
1751	47	이광정			내방
		李翼		星湖	아들 주진에게 安山에 가서 찾아 뵈게 함
		이상정			조카 思鎭, 尙鎭에게 大山의 문하에 從學케 함
1753	49	李光庭		訥隱	아들 주진에게 鹿門에서 찾아뵈게 함
		이상정		소산	내방하여 팔공산 유람
1754	50	정엽		식호	내방함
		이상정		대산	내방함(2월), 府邸에서 만나 강론함(6월)
1755	51	이상정		대산	내방하여 강론함
1756	52	李光灑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물음
		이상정		대산	내방하여 心과 義에 대해 강론
1757	53	李世珩		恕軒	上枝에 가서 찾아 뵈
1758	54	조선적		치재	물함에 가서 조문함
		金江漢	灌以		내방하여 朱書를 강론함
1760	56	최흥건		육와	더불어 朱書를 강론함
		金景澈	幼淸	西坡	(화성현감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물음
1766	62	이상정		대산	모친상의 墓幕에 조문함
					金九思의 하품에 곡함
1767	63	최흥건		육와	더불어 大學或問을 강론함
1770	66	송이석		남촌	내방함
1772	68	이광정		소산	내방하여 家禮에 대해 강론함
1779	75	송이석		남촌	北溪精舍에 찾아와 心經을 강론함
1781	77	이상정		대산	부음에 곡하고 3개월 동안 소복을 입음
1782	78	박손경		南野	부음을 듣고 곡함

연도	나이	이름	자	호	비고
1784	80	李秉模			(경상감사) 내방함
1785	81	金宗敬			죽음에 고향
		이명천		운재	내방하여 토론함

최홍원의 제자들은 <급문록及門錄>에 정리되어 있다.³ 이를 지역별, 성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급문록의 지역별, 성관별 분포

지역	합	성씨	인수	지역	합	성관	인수	지역	합	성관	인수
族親	33	경주최	33	경주	7	오천정	6	단성	6	안동권	3
대구	11	함안조	3			경주최	1			순천박	2
		순천박	3	칠곡	13	벽진이	7	팔거도	1		
		인천채	1			광주이	3	서울	1	풍양조	1
		현풍곽	1	동래정	3	현풍	2	현풍곽	2		
		팔거도	1	밀양	7	일직손	2	하양	2	道州金	2
		문화유	1			밀양손	2	영천	2	창녕조	2
		일직손	1			밀양박	1	고령	2	현풍곽	2
		안동	21			한산이	7	벽진이	1	성주	1
의성김	5			東陽申	1	거창	1	파평윤	1		
풍산류	3			의성	5	안동김	4	상주	2	의령남	1
선성이	3					광산김	1			진주정	1
고성이	2			선산	3	의성김	2	예천	1	함양박	1
광산김	1					연안이	1	합계	120		

지역적으로는 17개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도 안동이 특히 많으며, 거주지인 대구와 경주, 칠곡, 단성, 밀양 등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경주 최씨의 통혼권이 영남의 유명 사족가문을 망라하듯이, 최홍원의 <급문록>의 제자 범위도 그러하다.

<급문록>에 수록된 제자는 통혼권과도 거의 일치한다. 특히 최홍원의 집안 자체는 물론이고 여서와 외손 또한 거의 대부분이 급문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반대로 최홍원 제자들의 혼인이 사승관계를 매개하여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부자·형제가 함께 제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아무튼 조선후기 학맥學脈과 혼맥婚脈이 강고하게 결합된 모습을 보게 된다.

3 「백불암언행록」 권 7. <及門錄> 참조.

2)노비와 전답, 그리고 경제활동

조선시대 양반들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와 노비이다. 그리고 대체로 토지와 노비의 규모는 비례한다. 물론 16세기까지는 노비가, 18세기 중반이후에는 토지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따라서 최씨가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노비의 소유를 『대구부호적대장大丘府戶籍大帳』이나 가문의 호구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17세기에는 90여 명에 가까운 규모였다가 최홍원의 생존시대인 18세기에 이르러서는 150~160여 명에까지 이른다.

최홍원의 소유 노비 중에는 종가의 주위에서 가사家事와 영농營農에 종사하는 양역노비仰役奴婢가 대체로 20~30여명이 있었으며, 또 이 정도의 노비들은 늘 도망한 상태였다. 이들 외에는 해마다 주인가에 신공身貢이라는 이름으로 포布 1~2필 정도를 납부하는 외거노비들이었다. 외거노비들의 거주지는 경상도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최씨가가 소유한 이 정도의 노비는 당시 명문의 양반가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비소유와 함께 토지 또한 많았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노비와 토지는 결국 의병을 창의할 수 있었던 일차적인 기반이었고, 최홍원이 농연정을 중건하고, 보본당을 짓고, 학사學舍와 제전祭田을 마련하거나 내외의 족친들을 구휼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백불암역중일기』나 아들에게 준 편지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과는 다른 궁핍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 가령, “가계家計가 궁핍하고 식량이 모자란다”거나, 가사家事에 얽매이거나 가난을 근심하지 않고 고요한 곳에서 도道를 닦았으면 좋겠다는 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또한 당시 상당한 전민田民을 소유하고 있었던 양반가문의 일반적인 현실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농업이 사소한 자연재해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농업환경에 일차적으로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장 궁핍하게 생활했다고 할 수 없다.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토지를 전혀 갖지 못하거나 양반가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양반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양반들의 문집에서 볼 수 있는 가난이라는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만한 경제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게 생활했다고는 할 수 없다. 검소한 생활은 선비로서의 당연한 일상이었고, 낮은 농업생산성에 비해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客 등에 상당한 지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적 기반 없이 양반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에서 양반들 또한 치산治産과 치가治家에 관심이 지대하였다. 농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영농의 전반에 걸쳐서 감독하고 관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백불암역중일기』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아무튼 최씨가는 당시 양반 명문가문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것은 최홍원이 처사적인 삶과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질병과 피병

『백불암역중일기』도 그러하지만, 양반들의 생활일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질병과 탕약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전염병들이 사전에 예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사소한 병이라도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천연두 등의 전염병 등에는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따라서 누구나 이 같은 질병과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백불암역중일기』에서는 침이나 뜸 보다는 주로 탕약에 대한 기록이 많다. 양반집에 환자가 생기면 대부분 인근의 의원을 불러왔다. 아이들의 경우는 가마에 태워 의원에게 보내지기도 했다. 탕약은 이들 의원들로부터 탕약을 구입하기도 하였지만, 화제和劑라고 불리는 처방전을 받아서 직접 또는 약국에서 약재를 사 제조하기도 하였다. 약재와 탕약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통해서 습득된 것으로 보인다. 1613년에 간행된 『동의보감』은 널리 유포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의원과 약국이 번성하였고, 유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양반가의 서책 목록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양반들은 약재와 탕약에 대해 아주 관심이 높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한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니, 가족 구성원 전체로 보면 하나의 '종합병동'이라고 할 만하기 때문이다. 약물에 의존한 나머지 약의 오용이나 남용의 문제도 심각했다. 그것은 병에 대한 진단이 명확하지 않았던 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의 질적 수준이 낮았던 것에서 오는 문제였다.

약국은 큰 읍내의 경우에는 몇 개, 큰 마을에도 하나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원 또한 그러하였다. 의원은 전업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진맥과 병에 대해 일정한 상식을 가졌던 사람들도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백불암역중일기』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대구 북면지역에는 정의鄭醫가, 부중府中에는 강의姜醫, 서의徐醫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약국으로는 영국嶺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백불암역중일기』의 첫 기록은 최홍원의 부 최정석의 병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최정석은 1735년 3월 초부터 6월 말에 이르기까지 흉복통胸腹痛으로 심한 고생을 하였다. 심할 때는 복부 왼쪽 아래 부분에 덩어리가 만져질 정도였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정의를 불러 진맥하게 한 것이 7~8차였고, 아들이나 노를 시켜 탕약을 제조해 온 것도 여러 차례였다. 주로 정의를 통해 치료를 했지만, 부중의 강의나 서의에게 약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쓴 약은 아주 많았다. 계피감초탕(3첩), 시호궁화탕(4첩), 행기향소산(5첩), 소적정완산(10첩), 생맥산(10첩), 가감오적산, 지실이중탕, 가감시진탕(3첩), 가감육군자탕, 정기천향탕, 목향과기산(7첩), 작향정기산(5첩), 정기천향탕, 삼자양친탕(5첩) 등이었다. 약을 과다 복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많다. 약의 효험은 끝내 없었다.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치료제로서의 탕약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영양가 높은 음식물의 복용이었다. 말하자면 보신을 함으로써 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치료방법인 셈이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딱 들어맞는 치료제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신은 병을 이겨내게 하는 간접적인 치료제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 같은 보신제

로는 닭, 개, 또는 돼지고기 등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개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병이 심하여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무당을 불러 축사(逐邪)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곳을 한다는 것은 유가(儒家)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스스로 잘 알지만, 그 절박함을 차마 외면할 수도 없었다.

전염병은 개인의 질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치명적이었다. 당시 대표적인 전염병은 두역(痘疫)으로 알려진 마마였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방법은 없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같은 전염병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외부로부터의 출입을 차단시키거나 환자나 자신을 격리시키는 일뿐이었다.

우선 출입의 차단은 전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전염병이 발생하면 혹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나 비록 가족이라도 곧장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혹시나 전염시킬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미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거쳐서 온 경우는 아랫마을에 하루 이틀 정도 묵어서 이상이 없는 다음에야 들어오거나 돌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여기서 아랫마을이란 양반마을의 입구에 있는 하층민들의 마을이다. 따라서 전염병이 사망에서 창궐하면 교통이 두절되기 마련이었다.

이미 마을에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오염되지 않은 다른 마을로 피신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하층민들에게 적용되었고, 후자는 피병(避病)이라 하여 주로 양반들의 대응방법이었다.

피병은 거주지역에서 병이 물러갈 때까지 계속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을 넘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병은 당시에 일상화된 것이었다. 가족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여러 곳으로 나누어 갈 수밖에 없었다. 피병처로는 인근의 사찰이나 인척가 또는 노비가 주된 대상이 되었으나, 곳곳에서 창궐하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마을에도 들어가기도 하였다. 전염병이 창궐하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피병지로 선택된 마을의 배척을 받기도 하나 양반들은 위세로서 무마시키기도 하였다. 피병지가 항상 청정지역일 수는 없었다. 몇 번이고 옮겨 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피병할 수 없는 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간호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피병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으므로 죽음의 화를 모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죽은 이를 장사 치르는 것은 더욱 처참한 일이었다.

피병은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지속되기도 하였다. 『백불암역중일기』에서 보이는 피병 기록은 아주 많다. 그 가운데 1737년에는 두병으로 인한 피병생활을 12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무려 11개월이나 계속하였고, 1742년에도 역시 두병으로 2월부터 다음 해 2월에 이르기까지 1여 년을 넘게 계속하고 있었다. 더욱이 1742년에는 여역(癘疫)이 함께 치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돈을 거두어 여제(癘祭)를 지내기도 하였다. 1746년 1월부터 시작된 두병은 다음해 6월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때는 전국적으로 극성하여서 임금이 직접 두병을 걱정하는 글을 내리고, 감사가 여제를 지낼 정도였다. 어린 손자와 친척, 노비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참극이 계속되었다. 1752년 2월에 시작된 두병은 54년 5월에 들어서야 진정되었으니 무려 2년 4개월이나 피병생활을 해야만 했다. 1755년, 1761년, 1770년에도 혹은 8~9개월,

혹은 1년이 넘는 피병생활이 계속되었다. 1759년의 경우에는 윤증輪症으로 8개월이나 피병생활을 해야 했다.

이렇듯 전염병이 흑심하여 사방에서 창궐하면 마땅히 옮겨갈 곳도 없었다. 최씨가에서는 전염병에서 벗어나자 의원과 족친과 노비들을 불러 소와 닭을 잡아 고된 피병생활과 투병생활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병 자체가 어려웠다. 여름철에는 노비들이 밖에서 기거할 수 있었지만 겨울에는 그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노비들이 두병이나 여역 등 전염병에 걸리면 마을과 떨어진 곳에 임시 막사를 지어 격리시켰다. 동네의 하층민들도 마찬가지로 격리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주시하고 있었다. 겨울철에 격리된 경우에는 대부분이 추위로 얼어서 죽었다. 하층민에게 있어서 전염병은 더욱 참혹할 수밖에 없었다.

팔공산 아래에 거주하고 있던 최씨의 경우에는 피병지로 동화사나 부인사, 부도암, 보사寶寺 등 인근의 사찰과 광동·중심리·달리동·백안 등 팔공산 산자락 마을들이 선택되었다. 북삼동 지역이 피병지로 몰색되었지만,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였다. 물론 한곳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4~5차 우소를 바꾸었다. 피병 생활은 가족이 함께 할 수도 없었다. 혹시 가족 전부가 한꺼번에 전염되는 최악의 경우를 피할 필요가 있었고, 우거하는 집의 규모가 전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가지지도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염병이 진정되더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것 또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두고 환가하였다.

1886년 6월에는 설사를 동반한 괴질怪疾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6월 한 달에만 전국적으로는 몇 만 명인지 알지 못한다고 할 정도였다. 대구에서 1만 3천여 명이, 예천읍에서 3백여 명, 상주에서 1천 3백여 명이 죽었다. 이 괴질은 9월에 들어가서야 소멸되었으니 그 참상이 어찌 하였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전염병이 특정한 신분에만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탕약의 사용이나 피병으로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양반들보다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하층민에게 더 큰 고통이고 치명적이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질병과 전염병은 경제적 빈곤, 관리들의 가렴주구 등과 함께 하층민에게 이중·삼중의 질곡으로 작용하였음이 틀림없다.

질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양반들이 하층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한 개인 또는 역사 일반의 이해에 있어서 질병이나 전염병 같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전근대사회에서 질병이 한 개인의 정치·사회적인 활동에, 또는 전염병이 당시의 인구문제에 끼쳤을 심각한 영향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역사에 대해 보다 겸손해 질 수 있을 것이다.

5) 학문

조선시대 양반들은 당연히 유학을 그 본업으로 삼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유학자지만, 학자로서의 존재형태는 성취한 학문적 업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최홍원이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문제는 곧 그의 학문적 특징과 직결된다. 순암 안정복은 최홍원의 학문적 성취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묘갈명墓碣銘〉 참조)

말학末學들은 천박하여 다만 입과 귀만 숭상하는데,
공은 근본을 돌이켜서, 오로지 실천에 힘을 쏟았네.

말하자면 당시 많은 선비들의 학문을 ‘구이지학口耳之學’이라고 한다면, 최홍원의 학문은 내면의 수양과 ‘궁행실천躬行實踐’하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學’이라고도 하였다. 이 같은 최홍원의 학문은 그 자체가 일반 선비들과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귀와 입으로만 하는 학문을 최홍원은 내적인 수양과 외적인 실천에 힘을 쏟았다는 것이다. 사실 조선의 유학자들 학문이 주자나 퇴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누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조선 특히 후기의 선비들은 관념적인 차원의 이해에만 급급할 뿐 수양과 실천을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최홍원은 책을 읽음에도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섭렵함을 일삼지 않았다.

그럼 최홍원이 궁행실천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다. 가령,

“선생의 학문은 그 처음 근원이 효도孝道에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효로써 알려진 사람들이 한 가지 착함에 그칠 뿐이었던 것과는 같지 않다. 살아 섬김과 장례·제사 등에 터럭만한 흠결도 없었고, … 몸을 닦아서 행동이 법도에 합당하게 하였고, 사업을 시작하여 교화教化가 고을에 미치게 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크고 완전한 효도를 이루었다고 한다.”(『백불암언행록』 권 4, 〈학문學問 : 류인柳 仁〉)

효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선비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최홍원의 효는 형식적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봉제사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성심으로 다하여 한 점 흐트러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루어 고을에까지 교화를 미치게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크고 완전한 효도 즉, ‘대효大孝’를 실천한 셈이었다.

그러나 실천을 강조하는 최홍원과는 달리 당시의 일반적인 학풍은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최홍원은 이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래에 책을 읽는 젊은이들은 그 뜻을 반드시 의리義理를 강구하는데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신行身과 언론言論이 책을 읽지 않은 자와 다를 게 없음을 많이 볼 수 있다.”(『백불암선생문집』 권 3, 〈여이경문與李景文 : 1759년〉)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공부란 책을 읽지 않는 것과 다를 게 없었다. 그러면 책 읽는 젊은이

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과거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선비들에게 있어서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목표였다. 최홍원은 과거에만 몰두하는 세대를 곳곳에서 개탄하고 있다.

“한 결 같이 효제孝悌하는 도를 닦기를 기대하였는데 … 슬하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건데 오로지 시업時業에만 매달려 이러한 이야기를 쫓가의 바람으로 여기니 민망하고 개탄스러운 바 이네.”(『백불암선생문집』 권 6, 서 <답중빈양오흥호사교答仲賓養吾興浩士教>)

“이곳 젊은이들은 시문時文을 공부하면서부터 그 행동거지와 말 기운에 점차 불만한 것이 없게 되었다.”(『백불암선생문집』 권 3, 서 <여이경문與李景文>)

그래서 과거 공부를 그만 두고 고학古學을 하는 사람을 극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과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었고, 또한 양반으로서의 입신과 양명을 위해, 그리고 부형父兄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과거를 그만둘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시문時文을 지을 때는 근면하게 해야 하고, 또 이로 인하여 근본을 휴폐休廢해서도 안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강학講學하는 사이에 그 경중輕重과 본말本末의 구분을 엄격히 하거나, 매일 아침에 먼저 소학이나 심경心經 등의 문장을 암송하고 난 뒤에 제술製述에 임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홍원은 과거의 폐단과 여기에만 몰두하는 당시의 학풍을 개탄하면서도 제도의 개혁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상정 역시 최홍원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폐단과 그것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와 아들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갔고, 과거의 폐단을 제도의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고자 하였던 점과는 다르다. 여기서 참고로 이상정이 제시한 과거의 폐단과 개혁의 방안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정은 과거제의 폐단으로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너무 빈번하며, 그 내용이 단순한 암기와 사장詞章 따위의 말단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실용성을 들고 있다. 그래서 과거 공부와는 관계없는 학교공부를 통해 실용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관료로 등용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실용성 있는 인재란 다른 아닌 세소응대灑掃應對와 효제충신孝悌忠信, 그리고 육예六藝에 우수한 자 중에서 덕행德行을 성취하고 재지才智가 수련된 자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최홍원이 강조하고 있던 궁행실천躬行實踐한 인물과 다르지 않다.

과거공부와 최홍원의 실천학은 사실상 부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과거를 단념하였고, 그 폐단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부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과거공부가 주로 암송하거나 제술하는 데에 힘을 쏟았던데 반해 최홍원은 소학의 공부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소학은 한갓 구독句讀만 할 것이 아니라 입교立教, 명륜明倫, 경신敬身 등의 일을 반드시 일일

이 심심身心에 체득하여야 한다. 오래도록 이와 같이 하면 자연히 읽지 않을 때와는 엄청나게 구별될 것이다.”(『백불암선생문집』 권 6, <답중손호答從孫濩>)

“대저 대학大學을 읽고자 하면 먼저 소학을 읽어야 하네. 진실로 학문에 성실하려면 모름지기 소학의 일을 자신에게 채우고 난 뒤에야 격치格致하는 공부 또한 자기의 심신에 성취하게 된다네.”(『백불암선생문집』 권 6, <답방보성년答方甫聖年>)

“옛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데에 반드시 차례가 있었다네. 남을 속이고 이름을 훔치기를 면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그 초기에 망령되어 스스로를 고원高遠하게 여겨서 일용日用하는 비근卑近한 곳에 먼저 힘쓰려고 하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진실로 이일에 뜻을 두려면 마땅히 먼저 소학을 읽어서 그 습성이 지식과 더불어 자라고 교화가 마음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묘妙함을 구하고 난 뒤에 차례대로 대학, 논어, 맹자에 이르는 것을 그 순서로 삼아야 하네.”(『백불암선생문집』 권 6, <답방보答方甫>)

“(소학에 대해 말하면서) 비록 읽는 것이 두 번 되더라도 사색을 깊게 하여 심신에 익숙하게 하지 않으면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름지기 밤에 배운 것을 고요하게 생각하여 일용日用하는 행사에 증험하여 현저하게 터득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백불암선생문집』 권 6, <답아答兒>)

소학이란 알고 있듯이 세소옹대, 즉 일상생활상의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그것은 자구字句를 해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사색을 깊게 하여 심신에 체득할 때에만 유용한 것이었다. 소학으로서 자신을 채우고 난 뒤에 대학을 거쳐 논어, 맹자, 중용, 심경, 근사록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학문하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1782년에 학당을 세워 자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세소옹대하는 예절과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수양하는 공부”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학공부는 곧 그것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의 실천은 내면의 수양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면의 수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학문하는 요체라고 하였다. 그것은 마음은 만사의 줄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면 만사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수양의 방법으로 경敬을 제시한다. 마음이 인간의 주인 이라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경을 통해서였다. 최홍원이 ‘경敬’패를 늘 곁에 걸어두고 스스로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임종 시에도 경패에 걸린 옷을 치우라고 할 정도로 경을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경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경敬은 외자畏字에 가깝다. 깊은 못에 임하거나 얇은 얼음을 건널 때는 그 마음이 송연하여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엿보기를 용납하지 않으니, 이런 지경이라면 경자의 뜻을 인식할 수 있

을 것이다.”(『백불암언행록』 권 4, <존성存省 : 최화진崔華鎭>)

“선생의 학문은 오로지 경에 힘썼다. 순舜임금과 도척盜跖의 구분이 한 생각에 달려 있고, 하늘과 땅의 바뀔이 터럭만한 차이에서 나온다고 여겨, 조심하고 공경하는 뜻을 잠시도 해이하게 하지 않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공부를 미세한 데까지 이르게 했고, 고요함을 주제로 동動을 통솔하고, 외행外行을 제어하여 중심中心을 길러서, 날이 저물어 편안하게 쉬면서도 게으르지 않았으며, 환난이 갑작스럽게 닥쳐도 당황하지 않았다.”(『백불암언행록』 권 4, <학문學問 : 이경록李經祿>)

전자가 일반적인 경에 대한 설명이라면, 후자는 최홍원의 경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체득의 정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갑작스런 환난에 처해서도 태연하게 처신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경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비단 최홍원에게 있어서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가령 밀암 이재 密庵 李裁(1657~1730)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대신 이상정에게 “군자가 학문하는 방법은 주경主敬으로서 그 근본을 세우고, 궁리窮理로서 그 진리眞理를 이루는 것이 천고千古의 진진眞誼이요 묘체妙諦”(『대산선생문집』 연보, 19세)라고 한 것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다.

젊은 시절에는 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조차도 없었으며, 건강 또한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최홍원은 학문적으로 이상정, 박손경과 더불어 ‘영남삼로’로 추앙되면서 영남의 유림사회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었다. 더욱이 최홍원은 단순히 이기설理氣說에만 매몰되어 있던 학자가 아니라 ‘경제지사經濟之士’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경제지사란 나라를 경영하고 민생을 구제할 수 있는 선비를 의미한다. 이 같은 평가는 향촌의 이름 없는 선비가 아니라 당대의 학자요 정치가였던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1712~1791)과 변암樊巖 채제공蔡濟恭(1720~1799)의 평가였다.

최홍원이 살았던 18세기는 한편에서는 양반중심의 사회 체제에 많은 병폐가 보다 본격적으로 노정되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 전면에서 새로운 기운이 생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말하자면 과도기였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큰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때일수록 체제의 안정은 더욱 절실하기 마련이었다. 개혁과 혁신이 백성들의 요구이고 진보적인 지식인의 주장이라면, 체제의 안정은 지배층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자기 생존의 문제였다. 이러한 시기에 최홍원에게 쏟아진 학문적 기대와 ‘경제지사’로서의 평가는 단순한 공치사空致辭가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대가 그를 필요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최홍원은 도대체 무엇을 닦았기에 이러한 기대와 평가를 받는 것일까? 소산小山 이광정李光靖은 <행장行狀>에서 한 마디로 말하면 ‘효성孝誠’일 뿐이라고 하였다. 효성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적어도 최홍원이 영달을 위한 ‘구이지학’에 급급하였던 것이 아니라 ‘궁행실천’하는 유학자였음을 의미한다. 이광정은 나아가 공이 실시한 향약을 통해 ‘경제經濟의 대강’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최홍원의 학문이 단순히 가정과 학문의 차원을 벗어난 사회적인 실천이었음을 의미한다.

6) 부인동향약, 최홍원의 사회적 실천

최홍원은 1738년(영조 14) 부인동에서 향약을 실시했다. 향약은 조선시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향촌의 선비들에 의해 줄기차게 시도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의 실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향약을 통해 유교적인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줄기차게 시도된 이유라면, 양반사회의 분열과 농민들의 저항은 그것의 실시를 그만큼 어렵게 만들었다.

부인동의 향약은 한번 시도된 것은 아니라 10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국왕 정조는 칭상稱賞과 함께 수차에 걸쳐 벼슬을 내렸고, 방백方伯과 원근의 선비들은 그 유풍선속遺風善俗을 보기 위해 내방하였다. 최홍원의 향약은 ‘영남삼로’로서 추앙되고 있던 그의 학문적 명성과 더불어 조야朝野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최홍원이 실시한 향약은 그의 실천적 학문을 구체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향약을 범부凡夫의 효도와는 다른 대효大孝의 실천으로 이해하기도 하였고, 인의仁義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최홍원이 민생民生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민생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최홍원 역시 민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기절제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뿐이었다.

그러나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배층의 사치와 수령들의 탐학만은 아니었다. 최홍원의 시대는 여기에 더하여 부세賦稅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사실 부세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분제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18세기 부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군역軍役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군역은 양역良役이라고 하듯이 신분제를 토대로 성립된 것이다. 문제는 군역을 담당해야 할 양민층良民層이 여러 방법을 통해 역의 부담에서부터 이탈해 버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지식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토지나 부세제도의 개선이나 개혁, 심지어는 신분의 혁파를 주장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분제나 법의 강화 혹은 교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전자를 실학파實學派라 부른다. 최홍원은 후자의 입장이었고, 방법만을 제시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

최홍원이 1738년(영조 14)에 향약을 실시한 곳은 거주지 칠계가 아니라 부인동이었다. 부인동은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부남리夫南里, 무산리舞山里, 근전리芹田里 또는 중산리中山里에 해당하며 오늘날에는 부인사夫仁寺 및 신무동新武洞, 용수동龍水洞 일대가 된다. 최홍원이 이곳에서 향약을 실시한 것은 5대조 대암공이 일찍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향약을 실시했던 곳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곳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홍원은 옷골에 거주하면서 부인동을 자주 왕래하였다.⁴

4 『백불암역중일기』의 한두 예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今日遁人入地 不能臨壙 痛恨痛恨 令(夫)仁洞助役 以七斗米助奠”(1768.01.23), “爲見溪亭諸君兼參洞講 入夫仁洞”(1758.11.07.).

최홍원이 실시한 향약은 곧잘 중국의 남전여씨(藍田呂氏) 또는 주자증손여씨(朱子增損呂氏) 향약에서 그 근거(典據)를 찾는다. 그러나 그 향약 조목은 퇴계향약(退溪鄉約)을 증보한 북애 김기(北崖金圻)의 향약(鄉約)과 거의 동일하다. 최홍원의 향약에 있어서 운영절목은 다름 아닌 <강사절목(講舍節目)>(영조 15), <선공고절목(先公庫節目)>(영조 29), <홀빈고절목(卹貧庫節目)>(영조 46), <강회시신약(講會時申約)>(영조 50) 등이다. 최홍원 향약의 특징은 향약의 법조문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

강사절목은 약존(約尊)과 약직(約直), 이정(里正)과 전곡(典穀) 등의 향약 임원의 선출과 직무, 춘추강신시(春秋講信時)의 좌차(座次), 선악적(善惡籍)의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약존과 약직은 양반이 담당하였고, 이정과 전곡은 하층민에서 임명하였다. 그리고 좌차는 강당 위에는 양반의 적서(嫡庶)가, 아래에는 상민(常民)과 천민(賤民)이 구별되게 자리하여 신분의 차별을 엄격히 하였다. 강사절목에서 강조되고 있는 특별한 한 조목은 상한(常漢)들이 분외(分外)의 직임을 바라거나, 무단으로 이주하거나 도망하고자 할 때 동중(洞中)에서 이들의 전토(田土)를 매득(賣得)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농민들의 이래이거(移來移去)를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약은 실시 당시의 동민들만을 일차적인 구성원으로 하였다. 새로운 이주자들은 원칙적으로 향약의 혜택에서부터 배제되었다. 이것은 바로 향약의 실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선공고(先公庫)란 공전(公田)을 마련하여 여기서 나오는 소출로 향약에 참여하고 있는 동민들의 공세(公稅)(전세(田稅))를 대납하는 것이었다. 공전이란 향약 실시이전부터 유래해 오고 있던 동답(洞畓)을 팔아서 이를 식리(殖利)하여 얻어진 이익으로 마련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전세의 대납만으로는 농민들을 마을에 긴박시킬 수가 없었다.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전세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극히 불안정한 것이었다. 홀빈고(卹貧庫)란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경작할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을 촌락사회에 안착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선공고와 홀빈고를 이고(二庫)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또한 흉년에 진휼하고 상장(喪葬)에 부조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강회시신약(講會時申約)은 각수분업(各守分業)과 양친봉공(養親奉公)으로 구분된다. 각수분업에서 지켜야 할 '분분'은 부자형제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위계질서와 규범이기도 하였지만, 양반과 민 신분상의 명분(名分)이기도 하였다. 지켜야 할 '업업' 역시 양반에게는 독서(讀書)와 근신(謹身)이 상한(常漢)들에게는 농사(農事)와 직포(織布)에 때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신분과 직업에 따라 지켜야 할 분수와 역할을 분명하고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향약의 법조문, 강회 시 좌차를 통한 양반과 상천민의 엄격한 신분적 구별과 적서의 차별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신분적 구별과 차별은 지켜야 할 분수와 힘써야 할 업에 있어서도 엄연히 다른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반과 상천간의 상하 신분질서의 확립, 적서의 차별은 사실 향약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표였던 셈이다.

5. 『백불암역중일기』의 가치

『백불암역중일기』는 18세기의 생활일기이다. 일기자료는 그 기록된 내용의 풍부함에서 그것이 가지는 자료적인 가치가 높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큰 편차를 가진다. 그것은 기록자의 학문적인 수준과 안목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그 못지않게 그가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 학식이 풍부하면서도 견문이 넓은 경우와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록의 내용은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다. 또한 평범한 삶을 산 경우와 어려운 시대를 온몸을 던져 산 경우 또한 아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백불암역중일기』의 가치는 우선 저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그 경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백불암 최홍원의 삶과 활동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최홍원의 경주 최씨가 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 경 11대조 맹연 대부터였다. 최씨는 대구로의 이주 이후에도 꾸준히 중앙과 지방관으로 진출하였고, 상당한 경제적 기반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반과 함께 태동 최계의 임란의 병활동, 대암 최동집의 대군사부와 승정처사로서의 ‘명예’, 그리고 영남 명문가와의 혼인 등은 최홍원 이전에 최씨가 이미 대구는 물론이고 영남의 양반사회에서 구축한 학문적·사회적 기반이었다.

최홍원은 일찍이 생원 초시에 합격한 후 과거공부를 단념하였다. 그것은 과거공부가 암기와 사장 따위의 말단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학문적인 경향 때문이었다. 최홍원은 평생을 팔공산 아래 칠계에서 은거하면서 수양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 모든 것을 터득해 나갔다. 이 같은 최홍원의 학문은 ‘궁행실천학(躬行實踐學)’, 또는 ‘수기치인학(修己治人學)’으로 평가된다.

실천은 내면의 수양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수양의 방법으로 경(敬)을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갑작스런 환난에 처해서도 태연하게 처신할 수 있는 경지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아무튼 최홍원의 학문은 ‘궁행실천학’으로 뚜렷이 위치 지워지며, 따라서 ‘영남의 삼로’로 추앙되거나, ‘경제지사로 평가되었다.

최홍원은 스승을 가지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을 사숙할 뿐이었다. 그는 안동과 도산서원 등을 방문하거나 참배하였고, 대신 이상정과 소산 이광정 형제, 치재 조선적 등과 긴밀하게 교류하였다. 이들과는 상호 중첩적인 사승(師承)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최홍원이 사숙한 인물은 퇴계학맥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의 학문적인 계보 또한 여기에 위치 지워 질 수 있다.

최홍원은 1738년(영조 14)에 부인동에서 향약을 실시하였다. 당시 농촌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그것은 농민들이 여러 방법으로 신분을 상승하거나 도망이라는 방법으로 농촌에서 이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어느 경우나 상하신분질서와 지주-소작의 경제적 관계 위에 존립하고 있었던 향촌사회 양반들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최홍원은 향약의 실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최홍원의 향약에

서 가장 강조된 것은 양반과 서얼, 상·천민 간의 상하신분질서를 엄격히 하고, 농민의 이레이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만으로는 농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농민의 세금 일부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토지를 대여해 주기도 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향약의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홍원의 향약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조정과 국왕 정조에게도 알려져 크게 칭상되었고, 또 수차에 걸친 관직의 제수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최홍원은 '학행과 경제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최홍원의 향약에 대한 국가적인 공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최홍원의 학문은 퇴계학맥 속에서 궁행실천학으로서의 위치를 가지며, 이 같은 실천은 가정과 학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향약의 실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최홍원의 학문과 향약을 당시의 선비들은 '대효(大孝)'를 실천, 또는 '경제의 대강(大綱)' 등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최홍원은 양반지배층이 그들 중심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나아가서는 유교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절실한 바람과 기대를 실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홍원의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양반들의 이상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개혁이었다. 따라서 향약은 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그 좋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하층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세기의 하층민들은 양반들만의 이상사회가 아니라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상사회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홍원의 삶과 학문, 그리고 실천이 이러하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백불암역중일기』가 가지는 가치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일기의 가치가 저자의 삶과 학문 등과 관련이 있다면, 그 두 번째는 일기가 작성된 기간과 양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일기는 1, 2년 혹은 기껏해야 3, 4년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백불암역중일기』는 장장 52년에 걸친 일기이고, 그 글자 수만도 50만 자에 이른다. 조선 후기의 일기자료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장기간에 걸친 풍부한 양을 가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백불암역중일기』의 세 번째 가치는 최홍원의 삶이 오직 거주지인 옷골이나 대구, 팔공산 자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그의 삶은 온전히 향촌사회에서 영위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불암역중일기』의 내용도 대구를 중심으로 한 향촌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을 것임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최홍원은 부인동에서 향약을 실시했다. 그것도 한두 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1738년에 시작하여 이후 백여 년 넘게 지속되었다. 『백불암역중일기』에는 이러한 과정이 오롯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최홍원의 행적이 한 지역에서만 국한되었다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지역의 역사를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말하자면, 『백불암역중일기』 자체가 대구지역 18세기 초·중반의 사회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종합하면, 『백불암역중일기』의 가치는 백불암 최홍원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학문적, 혹은 사회적·실천적 활동과 함께 52년에 걸쳐 50여 만자에 달하는 그 방대한, 그리고 오롯이 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대구의 다양한 삶을 기록한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사라는 점에서 찾

을 수 있다. 다시 종합하면, 『백불암역중일기』의 가치는 백불암 최흥원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학문적, 혹은 사회실천적 활동과 함께 52년에 걸쳐 50여 만자에 달하는 그 방대함, 그리고 오롯이 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대구의 다양한 삶을 기록한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사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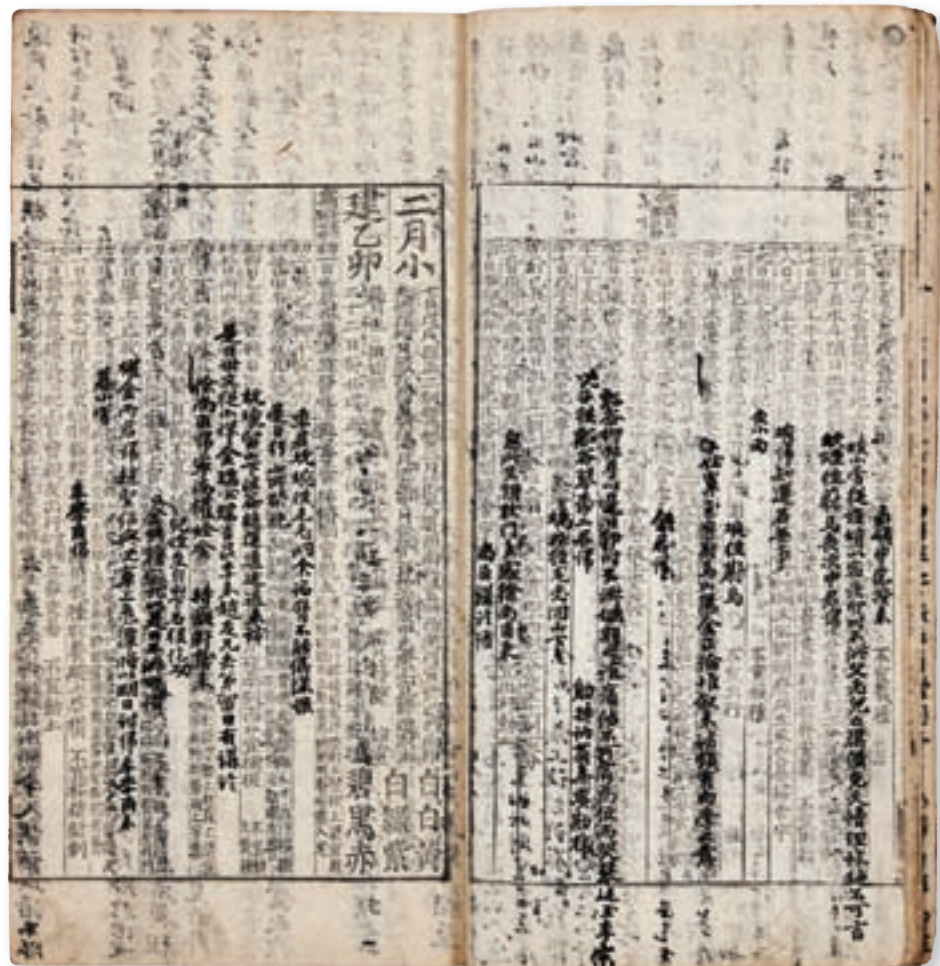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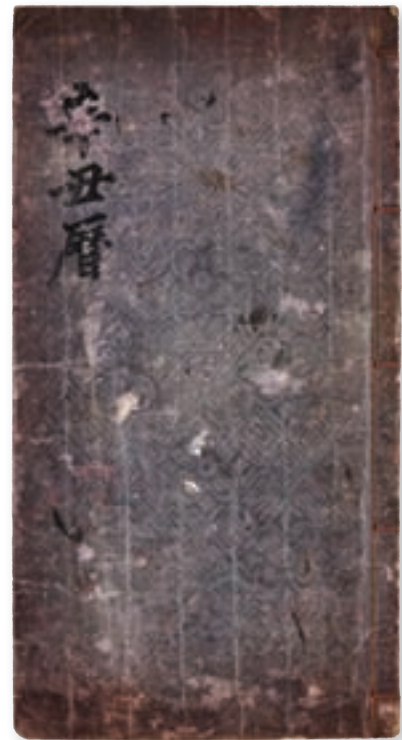
참고문헌

- 정진영, 「조선후기 鄉約의 일고찰 -부인동동약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3, 1982.
- 정진영, 「百弗庵 崔興遠의 學問과 鄉約」, 『百弗庵 崔興遠先生의 學問과 思想』, 2001.
-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 金時晁, 「百弗庵 崔興遠 先生의 生涯와 思想」, 『百弗庵 崔興遠先生의 學問과 思想』, 2001.

이상정역중일기

李象靖曆中日記

- 제목 표제: 湖上雜錄, 권수제: 없음
저자 이상정 李象靖(1711~1781)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739~1781년(영조 15~정조 5)
형태사항 16책(15책 1첩, 220장) / 선장(5침), 첩장, 가철 / 책력 위 기록 /
29.5~35.0×16.4~18.9cm
소장자 한산이씨 대산증가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心息外濟 綱目卷四十三 年 濟

養拙齋鄭公

磨甃堅 口為禍門 磨甃堅 人各有心 磨甃堅

慎勿言 昔人之云 磨甃堅 山高海深 磨甃堅

高不知極 言出諸口 磨甃堅 惟口之德 磨甃堅

深不知測 禍隨其後 磨甃堅 守之以默 磨甃堅

是也玄德 慎勿言 磨甃堅 守之以默 磨甃堅

是也玄德 慎勿言 磨甃堅 守之以默 磨甃堅

大清乾隆四十年歲次乙未時憲書

正月大 二月小 三月大 四月小 五月大 六月小

同宋漢古碑山巔玉大柱音 漢行

三月山方峻林茂 昭明詩鑿層頂上人 在年宜行水色雲金

秋懷沙度負控 譯唐却茲任 許時望即其首故心曲看

寶馬道者肥 秘初門開 知王行博佳陸洛奇望大

未顯重 區一自誤山夫子原尾深排難言亦不讓太顯何何者

實者亦若 十上山名紅玉身也 院言外入招信藉挂赤气洞中

油沙 徐叔才 遠運社名周夫子不絕國侯

四十二年歲次丁酉時憲書

正月小 二月大 三月小 四月小 五月大 六月小

年神方

太歲在酉

凡三三五四日

七月大... 八月小... 九月大... 十月大... 十一月大... 十二月小...

綠紫白 壬空

位之圖

白黃白 癸空

凡三三五四日

正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1. 개요

이 일기는 이상정李象靖(1711년(숙종 37)~1781년(정조 5))이 책력冊曆에 쓴 역중일기曆中日記¹이다. 『기미력己未曆』(1739, 영조 15)에서 『신축력辛丑曆』(1781, 정조 5)까지 43년 간에 걸쳐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현지에서 확인하고 해제하는 것은 총 16책(16년)의 시헌력時憲曆 분량이다. 본 해제에서는 16책의 개별 책력명冊曆名 대신 역중일기 전체를 묶어 『이상정역중일기李象靖曆中日記』로 새롭게 명명한다.

2. 저자의 생애²

이상정의 자는 경문景文, 호는 대산大山,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경북 안동 출신이다. 아버지는 태화泰和이며, 어머니는 재령 이씨載寧李氏로 이현일李玄逸의 손녀로서 이재李裁의 딸이다.

1735년(영조 11) 사마시와 대과에 급제하여 거주서가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739년 연원찰방連原察訪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9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대산서당大山書堂을 짓고 제자 교육과 학문 연구에 힘썼다. 이후 1751년(영조 27) 예조정랑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봉직하지는 않았다.

1753년(영조 29)에는 연일현감이 되어 민폐를 제거하고 교육을 진흥하는 데 진력하였다. 2년 2개월 만에 사직하려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자, 그대로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고신告身(직첩職牒)을 박탈당하였다. 그 이후로는 오직 학문에만 힘을 쏟아 사우들과 강론하고, 제자를 교육하는 데 전념하였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병조참지·예조참의·형조참의 등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는 영남학파에서 이황李滉의 계승을 주창하고 일어난 이현일·이재로 이어진 영남 이학과理學派의 중추적 인물이다. 외할아버지 이재를 통해 영남 이학파의 학풍을 계승하는 한편, 그 근원이 되는 이황의 사상을 계승하고 정의하는 입장에서 사상적 터전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황의 존리적尊理的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성학집요讀聖學輯要』 등의 저술을 통해 이기理氣를 대등하게 보는 기호학파의 태도를 거부하였다.

아울러 이황의 존리적인 태도를 하나의 이념으로 받아들여 일방적인 주리론을 펴는 것을 반대하며, 이理의 동정動靜과 이기理氣의 선후先後 등이 가지는 의미를 해명하고 본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명이기性命理氣에 대한 논의보다는 덕성을 배양하는 실천적 공부에 치중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일용평상日用平常의 도리인 유학의 본지로 돌아가는 일을 몸소 실천하였다.

1 이 보고서에서는 책력에 기록한 일기 명칭을 ‘역중일기曆中日記’로 한다. 현재 ‘역상일기曆上日記’로 명명하기도 하나 조선시대 기록 일기 중 ‘역상일기’는 아직 제목으로 표기된 예를 찾을 수 없는 반면 ‘역중일기’는 18세기 최흥원의 『百弗庵先生曆中日記』의 예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2 본 해제 일기,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상정』(권정안 작성), 『정조실록』,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참조

정조 5년(1781) 이상정을 예조 참의에서 형조 참의에 이배할 때(당시 71세) 사관은 “이상정은 영남에 세거世居하였는데, 곤궁한 것을 건디어 내고 글을 읽었으므로 영유嶺儒들 가운데 그에게 나아가 배운 사람이 많았다. 임금이 그 명성을 듣고 조정으로 불러오고자 한 까닭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³

그리고 고종 19년(1882) 이상정에게 추증과 시호 내릴 것을 건의한 영의정 홍순목은 그를 “고 참의參議 이상정은 과목 출신科目出身으로서, 산림山林에 은거하며 학문에 힘써 도道를 즐기는 것을 지향하였으며 평생동안 『주서朱書』 1부部에 힘을 쏟았기에 그 고명한 견해와 독실한 실천력으로 온 영남嶺南 사람들이 그를 사도師道로 존중하고 있습니다.”라고 평하였다.⁴ 또한 광무 5년(1901) 이상정에게 시호를 내릴 것을 건의한 의정부 의정 윤용선도 “증 이조 판서贈吏曹判書 이상정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은거하여 도를 지키고 이치를 궁구하여 경敬을 지켰으며, 주자朱子가 남긴 글을 독실하게 믿고 퇴계退溪의 정학正學을 잘 밝혀서 실로 영남 유림의 종장이 되었습니다.”라고 평하였다.⁵

그의 학문적 흐름은 동생 이광정李光靖과 남한조南漢朝를 통해 유치명柳致明으로 이어지고, 이진상李震相에 이르러 유리론唯理論으로 전개되었으며,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곽종석郭鍾錫으로 계승되었다.

그는 학문에 크게 힘써 문장·율려律呂 등 제도문물에 대하여 연구하고 경학에 침잠하였다. 저서 및 편저로는 『사례상변통고四禮常變通攷』·『약중편約中編』·『퇴도서절요退陶書節要』·『심동정도心動靜圖』·『이기휘편理氣彙編』·『경재잡집설敬齋集說』·『심무출입설心無出入說』·『주자어절요朱子語節要』·『밀암선생연보密庵先生年譜』·『심경강록간보心經講錄刊補』·『연평답문속록延平答問續錄』 등이 있다. 광무 5년(1901)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고산서원高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융희 4년(1910) 7월 ‘문경文敬’으로 시호가 내려졌다.

3. 『이상정역중일기』의 구성과 체제

이 일기는 현재 모두 12책(11책 1첩)의 시현력 위에 쓰여진 역중일기로서 역책의 해당 날짜에 그날 일어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역책 12책은 각각 『기미력己未曆』(1739), 『을해력乙亥曆』(1755), 『기묘력己卯曆』(1759), 『신사력辛巳曆』(1761), 『병술력丙戌曆』(1766), 『무자력戊子曆』(1768), 『경인력庚寅曆』(1770), 『임진력壬辰曆』(1772), 『을미력乙未曆』(1775), 『정유력丁酉曆』(1777), 『무술력戊戌曆』(1778), 『신축력辛丑曆』(1781)이다. 그리고, 『기미력』만 『호상잡록湖上雜錄』으로 표제되어 있고, 나머지 11책의 책력들은 각각의 책력명冊曆名으로 표제되어 있다.

3 『정조실록』권11. 정조 5년 3월 8일(신사).

4 『승정원일기』고종 19년 8월 20일(계유).

5 『승정원일기』고종 38년 1월 3일(경오).

그런데, 『기묘력』에는 기묘력(1759)과 신미력辛未曆(1751)이 합철⁶되어 있고, 『신사력』(1761)에는 신사년(1761) 이상정이 쓴 일기와 이상정의 현손인 금암肯庵 이돈우李敦禹(1807~1884)가 쓴 기유년己酉年(1849) 일기가 합철되어 있다.⁷ 그리고 『경인력』은 경인력(1770), 신묘력(1771), 계사력(1773), 갑오력(1774)의 일기를 합철한 것이다.⁸

결국 『이상정역중일기』중 이상정이 쓴 일기는 1739년(영조 15) ~ 1781년(정조 5)의 43년 간 15책 1첩(16년)의 책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상정역중일기』는 17책(16책 1첩)으로 묶여 있는데, 이돈우가 쓴 기유력이 들어있다. 이것은 이상정의 일기가 아닌데 후대 잘못 편철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해제에서는 이 기유력을 제외하고 현존 이상정일기를 역서 16책(15책 1첩), 16년간의 기록으로 본다.⁹ 16년은 1739년, 1751년, 1755년, 1759년, 1761년, 1766년, 1768년, 1770~1775년, 1777~1778년, 1781년이다. 그리고 누락된 시기는 1740~1750년, 1751~1754년, 1756~1758년, 1760년, 1762~1765년, 1767년, 1769년, 1776년, 1779~1780년의 27년이다. 『이상정역중일기』를 기록시기 순으로 구성과 형태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이상정역중일기』구성과 형태

연번	책력 표제	책력(표제) 연도	책력 및 기록 시기	형태 (크기)	비고
1	기미력己未曆	1739 (영조 15)	1739(영조 15, 기미) 29세 1.1.~12.12.	선장(5침), 12장 (34.5×18.0cm)	
2	기묘력己卯曆 신미부辛未附	1759 (영조 35)	1751(영조 27, 신미) 41세 1.1.~12.23. 1759(영조 35, 기묘) 49세 1.1.~12.30.	가철, 29장 (34.0×18.4cm)	신미, 기묘력 합철
3	을해력乙亥曆	1755 (영조 31)	1755(영조 31, 을해) 45세 1.1~12.27.	선장(5침), 12장 (35.0×18.9cm)	
4	신사력辛巳曆	1761 (영조 37)	1761(영조 37, 신사) 51세 1.1~12.24	첩장, 18장 (31.2×17.5cm) (1761년)	이돈우일기 낱장으로 합철 (29.5×16.4cm, 1849년 현종 15, 기유, 1.1~4.29.)
5	병술력丙戌曆	1766 (영조 42)	1766(영조 42, 병술) 56세 1.1.~12.29.	선장(5침), 14장 (34.2×18.1cm)	
6	무자력戊子曆	1768 (영조 44)	1768(영조 44, 무자) 58세 1.1.~12.29.	선장(5침), 13장 (32.9×17.4cm)	

6 『승정원일기』고종 38년 1월 3일(경오).

7 표제는 '己卯曆'이며, 표지 우하단에 '辛未附'라 묵서되어 있으며 기묘력 뒤에 신미력이 합철되어 있다.

8 표제는 '辛巳曆'이다. 이돈우의 일기는 후대에 잘못 합철된 것이다.

9 표제는 '庚寅曆', '癸巳曆', '甲午曆', '丙申曆'으로 되어 있으나 실재는 '병신력' 대신 '신묘력'이 합철되어 있다.

연번	책력 표제	책력(표제) 연도	책력 및 기록 시기	형태 (크기)	비고
7	경인력庚寅曆	1770 (영조 46)	1770(영조 46, 경인) 60세 1.1.~12.30. 1771(영조 47, 신묘) 61세 1.1.~12.21. 1773(영조 49, 계사) 63세 1.1.~12.30. 1774(영조 50, 갑오) 64세 1.1.~12.27.	가철, 52장 (32.9×17.7cm)	경인, 신묘, 계사, 갑오력 합철
8	임진력壬辰曆	1772 (영조 48)	1772(영조 48, 임진) 62세 1.1.~12.27.	가철, 12장 (27.2×17.0cm)	
9	을미력乙未曆	1775 (영조 51)	1775(영조 51, 을미) 65세 1.1.~12.25.	선장(5침), 16장 (31.7×17.4cm)	
10	정유력丁酉曆	1777 (정조 1)	1777(정조 1, 정유) 67세 1.1.~12.29.	선장(5침), 13장 (31.8×17.6cm)	
11	무술력戊戌曆	1778 (정조 2)	1778(정조 2, 무술) 68세 1.1.~12.28.	선장(5침), 14장 (31.9×17.1cm)	
12	신축력辛丑曆	1781 (정조 5)	1781(정조 5, 신축) 71세 1.1.~12.6.	선장(5침), 15장 (32.0×16.9cm)	
합계		12책 (11책 1첩)	16책 (15책 1첩)	220장	이돈우일기 제외

4. 『이상정역중일기』의 내용¹⁰

일기는 매일 쓰여져 있지 않고, 그 날의 기상만 기록한 경우도 있다. 일기가 쓰여져 있는 경우 대개는 집안의 관혼상제와 본인이 병치레한 내용, 본인의 생일인 1월 29일에 그간의 감회를 기술, 본인 또는 가족들이 병문안 및 조문을 가고 시험을 보러 가는 등의 일은 물론이거니와, 제자·지인 등이 저자를 만나기 위해 오고 간다든지, 연시·연말의 소회, 절기節氣에 절찬節薦을 행하고, 강학활동, 문집 교감 등의 내용이다. 나이가 들수록 병으로 절찬과 기제사에 불참하는 경우가 생기고 강학활동이 줄어들고 있다. 현전하는 16책의 역책曆冊을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고 각 책별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미력』(호상잡록) (1739년 영조 15, 29세)

표제는 호상잡록湖上雜錄으로 되어있다. 1739년 1월 19일~12월 12일까지의 일기와 주자·사마천·왕안석 등의 글귀와 저자의 관직 연보 등이 기록되어 있다.

¹⁰ 이하 본 해제 일기의 '내용' 항목은 한국국학진흥원 서비스 유교넷의 해제를 편집하고, 원문 이미지 및 메타정보 내용을 참조,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1739년 이상정은 연원역찰방(連原驛察訪)에 임명되어 2월 19일 연원(連原)으로 떠나 2월 23일 도착하였다. 하지만 연원찰방직 수행은 신병으로 순탄하지 않았다. 결국 3월 23일 병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정사(呈辭)를 올렸고, 3월 29일, 4월 4일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정사를 올렸다.¹¹ 그리고 4월 4일 연원역을 떠나 4월 8일에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체직은 허락되지 않았다. 4월 19일에는 네 번째 辭狀을 올렸으나 4월 28일 순찰사(巡察使)는 직임을 맡을 것을 재촉하였고 5월 19일에는 연원역의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다. 5월 21일 다섯 번째 사장을 올렸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역의 상황 보고를 재촉 받았다. 결국 6월 15일 포폄에서 하고(下考)를 받았고 6월 18일 폄목(貶目)이 도착하였는데, 안동 구담(龜潭) 옥천암(玉泉庵) 중기(重記) 제출을 재촉하는 제사(題辭)가 붙어 있었다.

이상정은 병중임에도 옥천암 중기를 계속 작성하고 있었다. 3월 25일 옥천암으로 향해 3월 26일 중기를 작성하였다. 4월 1일까지 1차 완성하였고, 7월 7일 작성을 마쳤다.

이외에도 일기에는 상선암(上仙巖)에 올라 수석(水石)을 완상한 것(4월 3일), 옥련사(玉蓮寺)에 올라 참동계(參空契)를 읽은 것(7월 16일), 청산(靑山)에 가본 것(7월 27일, 28일) 등이 적혀 있다.

여백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일기를 쓴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벼슬에 제수된 이력이 적혀 있는데 1735년 3월에 진사시합격, 윤4월 문과 급제이후 1780년에 병조좌랑에 제수되었지만 모두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이 밖에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난할 당시의 일, 진후산(陳后山)이 양자운(楊子雲)의 문장에 한 평(評), 요덕명(廖德明)·소식(蘇軾) 등의 인물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2) 『신미력』(1751년 영조 27, 41세)

1751년 1월 1일~12월 23일까지의 일기와 시와 만사(挽詞) 등이 쓰여져 있는데 3월 새로운 수령(尹光紹)이 온 일(14일), 5월에 관(官)에 『명재집(明齋集)』을 보낸 일(1일), 7월 영호(映湖)에 배가 전복되어 근 40명이 죽은 일(4일), 8월 예조정랑에 제수된 일(5일)과 그 즈음 얻은 감기로 인해 청폐음(淸肺飲) 3첩을 복용하여 효과를 봤다는 기록(21일), 9월 향교의 향음주례(鄕飲酒禮)에 참석한 일(18일), 11월 21일 현빈궁(賢嬪宮)이 돌아가자 23일 신위를 설치하고, 24일 곡을 하고 재배한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류상춘(柳尙春)·권경회(權景晦)·신체인(申體仁) 등 지인이나 제자와의 만남, 『논어(論語)』·『중용(中庸)』·주역(周易)·『주서(朱書)』·『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등 독서한 서목 등이 기록되어 있다.

3) 『을해력』(1755년 영조 31, 45세)

1755년 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일기와 시와 만사, 편지 등이 쓰여져 있다. 연일현감(延日縣監)으로 재임하면서 가뭄으로 백성들의 농사를 걱정하며 대왕암(大王巖)·어룡대(魚龍臺)·사직(社)

¹¹ 관직을 떠나고자 칭병(稱病)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일기에 병이 낫지 않고 있음을 계속 기록한 것(3월 19일, 22~23일, 4월 6일)으로 보아 실제 신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稷 등에서 기우제를 드리는 일과 울산·포항 등을 방문하여 수령을 만나거나 참수^{站首} 등을 벌하는 공적인 일, 아들의 결혼 및 조상의 제례 등 사적인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6월 30일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어사의 서계에 의해 체포 명을 받고 한양으로 가서 국문을 받다가 11월 18일 풀려났다는 기록도 날짜 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백에 있는 글은 『논어論語』의 훈석^{訓釋}을 포함하여 27개 항목의 질의에 의견을 적은 「답김홍보논어의의의답^{金弘輔論語疑義}」, 이양정^{李養正}의 질의에 대해 『논어』에 관한 4개 항의 문목에 답한 글인 「답이성공양정논어의의의답^{李聖功養正論語疑義}」 등의 서수와 「차운감곡권상사장견기^{次韻甘谷權上舍丈見寄}」, 「유옥산득심자공부^{遊玉山得心字共賦}」, 「차우사재운^{次寓思齋韻}」 등의 시詩, 「김원석묘지명^{金元石墓誌銘}」·「이익중^{李益中} 만사」 등이 있다.

4) 『기묘력』(1759년 영조 35, 49세)

1759년 1월 1일~12월 30일까지의 일기와 시와 만사 등이 쓰여져 있는데 3월 사마시^{司馬試}에 김중칙^{金仲則}·김성문^{金聖文}이 함께 합격한 일(3월 7일), 7~9월 운동^{雲洞}에 서재^{書齋}를 짓던 일, 8월 비로 인해 천변이 무너져 화곡^{禾穀}이 손상된 일(8월 14일), 12월 만형수가 딸을 낳다가 죽자(12월 8일) 상례를 치르는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김지국^{金持國}·이학보^{學甫國}·최흥후^{崔興厚}·김몽필^{金夢弼}·유시운^{柳時潤}·신체인^{申體仁}·권경회^{權景晦} 등 지인이나 제자와의 만남, 중용^{中庸}을 읽은 것, 대학^{大學}을 강한 것, 심경^{心經}을 강한 것 등이 적혀있다.

일기의 여백에는 시나 만사 등을 기록하였다. 서두에 있는 구양수^{歐陽脩}의 「일본도가^{日本刀歌}」 외는 모두 자신의 글로서, 시는 「운동소축장성 우음일률^{雲洞小築將成 偶吟一律}」·「사월육일 약제익상구담공부^{四月六日 約諸益上龜潭共賦}」·「설행^{雪行}」 등으로 『대산집^{大山集}』에 수록되어 있다. 만사로는 「권상일^{權相一} 만사」 등이 있다.

5) 『신사력』(1761년 영조 37, 51세)

첨장으로 되어 있는 이 일기에는 1761년 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일기와 시와 만사 등이 적혀있다. 병산서원과 타양서당^{陶陽書堂}의 백일장 참석, 이경안^{李景顔}·최여호^{崔汝浩}·남경중^{南擎仲}·이택중^{李澤仲}·김지국^{金持國} 등과의 만남, 4월 연사^{蓮寺} 유람, 외조부인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의 연보 탈초, 부친의 「광기^{曠記}」 및 오대조 「광지^{曠誌}」 탈초, 권지국^{權支國}과의 『심경^{心經}』 강독 등이 일기로 기록되어 있다.

여백에는 류영^{柳泳}·김유수^{金裕壽} 등의 만사, 이유원^{李猷遠}의 정대시^{亭臺詩}에 차운한 「차운냉천형 정대시^{次韻冷泉兄 亭臺詩}」, 이행헌에 드리는 시인 「득단률 근정이공참선생행헌^{得短律 謹呈李工參先生行軒}」 등이 적혀있다.

6) 『병술력』(1766년 영조 42, 56세)

1766년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의 기록으로 집안의 관혼상제 및 가족과 친지들의 질병,

그리고 지인들과 왕래하면서 경서를 토론했다는 등의 내용, 일상의 기록에 덧붙여 기술한 간찰과 초상화 제찬, 문집 발문, 태극도설, 광기(擴記) 등이다.

일기 내용으로는 1월 이덕홍(李德弘)의 『간재집(艮齋集)』 교감, 1월 30일의 손자 출생, 5월 20일에 김복(金功)의 『백암집(柏巖集)』 교감을 요청받아 6월 7일에 끝낸 일, 6월 22일 『홍범연의(洪範衍義)』의 교정을 마친 일, 『대학혹문(大學或問)』 강독, 7월 19일 『충렬공실기(忠烈公實記)』 교감을 요청받은 일, 조문을 위해 대구를 다녀온 일, 11월 조카의 관례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덧붙여 있는 간찰의 대부분은 대개 안부편지이나, 별지에는 성리(性理)·경전(經典)·상례(喪禮)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내용이 많다. 이 간찰들은 대부분 이상정의 문집인 『대산집』에 수록되어 있다.

7) 『무자력』(1768년 영조 44, 58세)

176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록으로 서화, 상량문 등이 들어있다. 집안의 대소사 특히 상례가 많이 기록되었으며, 가뭄으로 구담(龜潭) 중들이 굶을 하는데 촌의 노파들이 나와 많이 구경했다는 내용, 가뭄 등의 날씨상황, 지인들의 방문과 제자들이 여러 날 머물면서 『대학의(大學疑義)』, 『대학혹문(大學或問)』, 『맹자(孟子)』, 『태극도(太極圖)』 등을 강한 기록, 계(溪亭)에 70여명이 모여 영정을 봉안하는 의식 등을 기록하였다.

여백에는 김중주에게 보낸 상례(喪禮)와 관련한 질의에 답한 글인 「답김자하중주별지(答金子河中柱別紙)」, 권제동(權濟東)의 부제(祔祭)·우제(虞祭) 등의 상례에 관한 질의에 답한 「답권광백별지(答權匡伯別紙)」, 조술도에게 보낸 참된 학문 방법을 강조하는 「답조술도(答趙述道)」, 면제(緘制)와 관련한 이태환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 「답동과이진사표숙서(答東坡李進士表叔書)」와 처 황씨를 추도하는 제문인 「제망실숙인황씨문(祭亡室淑人黃氏文)」, 김근(金近)(1579~1656)의 당호인 「생담오우당상량문(笙潭五友堂上樑文)」 등이 있다. 이 글들은 이해에 쓴 글뿐만 아니라 다음해에 쓴 글들도 있으며 『대산집』에 수록된 글들은 제목이 약간 다르게 수록되어 있다.

8) 『경인력』(1770년 영조 46, 60세)

177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일기이다. 이해에 이상정은 4월부터 『중용』을 읽기 시작했으며, 6월에는 내형(內兄)과 함께 『고려사(高麗史)』를 읽었다. 이것은 현전하는 일기 내용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자료를 읽은 유일한 기록이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주역을 읽었으며, 10월에는 권광백(權匡伯), 이성공(李聖功)과 함께 논어를 토론하였다.

또한 1월에는 『심경강록간보(心經講錄刊補)』의 초고를 수정하고 구사당유문(九思遺文)을 교정하였으며, 1월~4월에는 『검간집(黔澗集)』을 교감·4월에는 구사당문집(九思稿)을 재교하였다. 3월부터는 『식암집(息菴集)』을 교감·8월에는 오토산재사(託五土山齋舍) 중수기를 청탁받았고, 10월에는 목계(默溪) 읍청루(挹淸樓)의 상량문을 완성하였다.

한편 같은 해 고산(高山)에 고산정사(高山精舍)를 지었다. 2월 1일부터 공사를 살피는 내용이 나오는데 5월 2일 완성하였다. 책력의 여백에는 고산정사를 완성한 감회를 적은 시와 서국보(徐國輔)

에 대한 만시 등이 적혀있다.

일상생활의 기록은 제사나 상사喪事 등과 9월 6일 손자가 태어난 일 등이 적혀있고, 신자장申子長·류주柳洲·최서崔瑞·하양현령 이현락李憲洛·서상보徐尙甫 등 이해에 이상정을 방문한 인물들도 확인할 수 있다.

9) 『신묘력』(1771년 영조 47, 61세)

1771년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일기이다. 이상정은 6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학과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다. 4월 권강백과 함께 암재巖齋에 머물며 논어를 강독하고, 5월에는 이성공李聖功과 김도연金道彦에게 각각 논어와 심경의 의문점에 대해 답장하였으며, 7월 17일에는 노원魯院에 50~60명이 모인 통독회를 개설하고 18일부터 하루에 8~9판씩 태극도太極圖를 읽어 23일 까지 마쳤다. 10월에는 매일 5~6편씩 중용을 읽었다. 또 11월~12월에는 권계선權季善 김자하金子河 김중주金中柱와 함께 심경을 강독하였다.

그리고 9월 15일과 16일에는 계암집溪岩集과 소재집蘇齋集의 교정을 각각 부탁받았고, 9월 19일에는 소재집蘇齋集의 발문을 부탁받아 10월 4일 완성하였다. 9월 27일에는 이대헌李大憲의 『온계일고溫溪逸稿』의 교정을 시작하여 10월 2일 마쳤고 11일 『온계일고』 서문을 완성하였다. 『온계집溫溪集』은 11월 22일 재교하였다.

같은 해에 아들 완堦이 문과에 합격(2월)하여 3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문희연聞喜宴을 열었다. 한편 10월 29일에는 이상정이 강령현감康翎縣監에 제수되었다. 11월 7일에 부임지로 떠났으나 10일 병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이조吏曹에 병장病狀을 올린 후 돌아왔다.

이외에 일기에는 군위軍威 산소山所에 투장偷葬이 발생하여 관에 소장을 올리고(3월 26일) 조카들이 군위로 향한 일(4월 3일), 2월 11일 왕손이 능주綾州로 유배를 가고 이어서 탐라에 위리안치 된 일(정조의 이복형제인 은언군恩彦君과 은신군恩信君이 유배당한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여백에는 61세의 생일을 맞은 감회를 읊은 것 등 시와 함께 이인훈李仁堧 등의 만사가 적혀있다.

10) 『임진력』(1772년 영조 48, 62세)

1772년 1월 1일~12월 27일까지의 일기로서 집안의 관혼상제와 아들과의 일상적인 일, 지인들과 왕래한 일 등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김탁이金濯이가 경서의 뜻을 강론하였는데 해박하고 정밀하여 공경할만했다 하였고, 지인의 병문안을 다녀와서 소년들과 서명西銘을 강독했으며, 친지, 지인들과 모여 경서를 토론하고, 지인의 선조 유고遺稿를 교감校勘해 주는 일, 공보巨浦 이주원李周遠과 『홍범연의洪範衍義』를 정리한 일, 『백암집栢岩集』, 『수암집修岩集』 등의 서문을 쓰거나 교감한 일, 류범휴柳範休 형제 등 제자들이나 고을 수령의 방문을 받은 기록, 목천 이만용李萬容의 만사와 같이 자신이 쓴 시 등 저자의 일상에서 기록해야만 할 일들을 메모 형태로 기록하였다.

11) 『계사력』(1773년 영조 49, 63세)

177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일기이다. 1월 26일에는 용궁龍宮에서 온 현봉점玄鳳漸

의 대학 강론이 있었고, 2월 12일에는 경주 동강서원東江書院에서 개묘상량문改廟上梁文을 부탁받았다. 5월 30일에는 『수암집修岩集』 교감을 시작하여 6월 2일 마쳤고, 12월에는 『대학혹문大學或問』 강독을 마쳤다. 한편 이해에 친산親山의 이장이 진행되었다.

시문은 상단여백에 기록되었는데 동생 이현정李顯靖(1721~1789)이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떠날 때 자신의 회포를 읊은 시 한 수는 주자朱子가 진동보陳同甫에게 답장한 편지의 뜻을 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시는 『대산집』에 수록되어 있으나, 글자에 차이가 있다. 여백에는 이약천李若天 등의 만사도 적혀있다.

12) 『갑오력』(1774년 영조 50, 64세)

1774년 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일기이다. 1월에는 『물암집勿庵集』을 교감하였다. 같은 달에 손자 철철이 천연두를 앓았는데 열이 내린 후로 흥반점이 나타났다.

2월에는 류범휴柳範休가 와서 『중용』을 강독하고 갔다. 3월에는 『물암집勿庵集』을 재교하였으며, 『만취일고晩翠逸稿』를 교감하였다.

한편 3월 11일에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는데 산후병을 앓아 약을 쓰고 걱정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며 3월 29일이나 차도가 있었다. 4월 2일 손자의 삼칠일이 지났음을 기록하였다.

4월에는 『주서간보朱書刊補』를 재교감하였다. 또 『야촌집野村集』교감을 청탁받는다.

5월에는 종조부從祖父의 묘를 이장하였다. 그리고 『여헌연보旅軒年譜』, 『대해집大海集』, 『해월집海月集』을 교감하였다.

6월에는 원조유허비遠祖遺墟碑의 비문을 청탁받았다. 또한 6~7월에는 비가 많이 내려 제방이 터지는 등 수해도 발생하였다.

7월에는 『심경강록간보心經講錄刊補』를 받아서 교감하였다. 그리고 『주서朱書』를 읽기 시작하였다. 이 달에는 설사병이 나서(7월 25일) 삼령백출산蓼苓白朮散을 복용하기 시작한(7월 27일) 일을 기록해 놓는데 8월 24일에 가서야 삼령백출산蓼苓白朮散 복용을 마쳤다.

10월 2일에는 동생 이광정의 아들인 조카 우堉의 딸이 혼인하였는데 이상정은 신랑이 준수하다고 흡족해 하였다. 같은 달 『청천집聽天集』을 교감하였다.

13) 『을미력』(1775년 영조 51, 65세)

1775년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의 일기로서 집안의 관혼상제와 아들과의 일상적인 일, 문인들과의 교류와 문집 교감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7월의 장마로 인한 수해도 기록하였다.

대강을 살펴보면 4월에는 『동래집東萊集』과 『목재집木齋集』을 얻어 읽었으며 5월 12일에는 『인재문집訥齋文集』과 행장行狀의 교정을 부탁받았고, 6월 9일에는 『고산집孤山集』 교감을 부탁받아 같은 달 16일에 마쳤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7월 3일 영호루映湖樓가 무너지고, 7월 5일에는 안동부내 280여호와 수백명이 떠나려갔다는 기록도 있다. 8월 29일 『고산집孤山集』 재교를 시작하였고 9월 13일에는 『성오집省吾集』의 교감을 봤다. 같은 달 21일에는 홍진紅疹이 들었다. 10월 9일에도 홍진이 돌아 다음날부터 두 손자가 아프기 시작하여 12일에는 여러 손자들

이 반점이 생겼다가 26일 모두 회복되었다. 10월 6일에는 『국포집菊圃集』을 빌려왔고, 12월 23일에는 『학사집鶴沙集』을 교정하였다.

14) 『정유력』(1777년 정조 1, 67세)

1777년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의 일기로서 앞표지에 “人於日用中 細加觀察 要得動靜語默 皆知此地位甚難到”라 쓰여 있다. 집안의 관혼상제와 아들과의 일상적인 일, 집안사람들의 질병, 자부의 해산, 제자 및 지인들의 방문, 천둥이나 비가 온 기록 등 저자의 일상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성리(性理)·경전(經典)·상례(喪禮)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내용이 많다.

일기의 뒷면에 있는 「주부정공묘갈명(主簿鄭公墓碣銘)」은 『대산집』 권48, 「지산속집발(芝山續集跋)」은 권45, 「상현록서(尙賢錄序)」와 「가례집유서(家禮輯遺書)」는 권43에 각각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이 내용들은 일기를 기록한 다음해부터 작성한 내용들이다. ‘답권성신달충별지(答權聖臣達忠別紙)’는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음을 낳는다(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기(理氣)에 관한 23개 항의 문목에 대한 견해를 적고 있는 것으로 1778년에 보냈던 내용이다. 「가례집유서(家禮輯遺書)」는 1779년에 작성된 것으로 일기를 쓴 다음해부터 뒷면에 쓴 것이다. 대부분 『대산집』에 수록된 내용이나 제중휴소상문(祭仲休小祥文)과 같이 대산집에 없는 내용도 있다.

15) 『무술력』(1778년 정조 2, 68세)

1778년 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의 일기이다. 이상정이 죽기 2년 전인 68세 때의 기록인데 그는 여전히 경전 강독과 문집 교감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강독은 1월 30일, 10월 9일, 12월 14일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상 경전은 『논어』와 『대학』이었다.

저술 혹은 교감 등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2월에 『눌옹집(訥翁集)』을 교감하였고, 4월 1일에 경은 묘갈문(耕隱碣), 2일에 「목록서당기(目麓書堂記)」, 3일에 「정무공실기발(貞武公實記跋)」을 초하였다. 6월 29일에는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의 청대유고(淸臺稿) 교정을 마쳤다. 또한 6월과 7월에는 최광벽(崔光壁)이 인재(仁齋) 최현(崔峴)의 문집을 가지고 와서 함께 교정을 했다. 7월 12일에는 지산(芝山) 조호익(曹好益)의 속집(續集) 발문을 초했다. 같은 달 21일에 의산서원(義山書院)에 『성오집(省吾集)』과 『학사집(鶴沙集)』의 인본(印本)을 보냈고, 22일에는 최광벽에게 최현의 연보(年譜)를 보냈다. 8월에는 『부훤집(負暄集)』을 보냈고, 연일 『연방세고(聯芳世稿)』를 교정하였다.

문자(文字) 청탁은 계속되었다. 10월 16일에 창령(昌寧)의 이서룡(李瑞龍)이 와서 금헌행장(琴軒狀) 작성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0일에는 약목(若木)의 신광익(申光翼)이 병사(兵使) 신극재(申克齋)의 행장(行狀)을 가지고 와서 비명(碑銘)을 요청하였다. 11월 26일에는 이종훈(李宗勛)이 『눌옹집』을 가져와서 재교하였고, 12월 2일에는 웅천(熊川)의 진사 홍효원(洪孝元)이 와서 남파묘지(南坡墓誌)를 작성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에는 영주의 송정용(宋鼎鎔)이 와서 눌옹(訥翁) 별묘의 봉안문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상정은 3월 12일 별묘(別廟)를 건립하기 시작하여 4월에 별묘와 사묘(私廟)에 기와를 덮었고, 9월에는 중부(宗婦)가 남자아이를 순산하여 일문(一門)의 경사라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11월에

는 천연두가 크게 일어나 같은 달 19일에 조카 규睦가, 그 다음날에는 규의 아내가 병을 피하여 거처할 곳을 옮겼음을 기록하였다.

책력의 뒷면에는 저자의 저작물들이 적혀 있다. 류도원柳道源의 「사서소주교의四書小註巧疑」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중답유숙원사서소주교의重答柳叔源四書小註考疑」가 수록되어 있는데 『대산집』에 있는 「답류숙원별지-논소주교의答柳叔遠別紙-論小註攷疑」와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안경점安景漸·서창재徐昌載에게 답장한 편지와 1779년에 동암東巖 류장원柳長源에게 답장한 편지가 실려 있는데, 『대산집』에 실려져 있지 않다. 또한 눌옹訥翁 송석충宋碩忠의 문집에 대한 발문과 「만대정중건기晩對亭重建記」 등이 실려져 있다.

16) 『신축력』(1781년 정조 5, 71세)

앞표지 이면에 ‘曆中手錄共十八冊[癸酉六月尋索]’이란 기록이 있는데, 이상정이 시현력에 남긴 일기의 전질이 총 18책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존 일기의 누락된 연대를 감안하면 이 기록은 이상정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상정의 역중일기를 정리, 편철하면서 당시 확인한 일기의 잔존 수량을 기록한 것이다. 『신축력』은 1781년 1월 1일부터 죽음을 불과 3일 앞둔 12월 6일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때의 글씨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매우 정갈하였다. 당시 이상정은 복부에 열이 많고 통증이 심하여 혈변血便을 보고 있었다. 이러한 증세는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증세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약제들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병문안을 온 사람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으며, 세상을 떠나기 5일 전에는 소변을 20회 이상 보았다는 등 병세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상정의 임종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류범휴柳範休(1744~1823)의 『고종일기考終日記』에는 이 일기에 빠진 12월 7일, 8일, 9일의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아들·손자·제자 등 70여명이 임종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책력 뒷면에 「답권성신答權聖臣」과 「소고박선생속집서嘯阜朴先生續集序」, 「학봉선생속집서鶴峯先生續集序」등이 실려 있는데, 수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서문을 쓴 시기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1781년 12월 9일 진시辰時에 향년 71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고산서원高山書院에 제향되었다.

5. 『이상정역중일기』의 가치

총 16책의 시현력時憲曆에 쓴 『이상정역중일기』는 비어 있는 해가 있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상정의 친필일기로서 퇴계학파의 적통을 잇는 18세기 조선 성리학의 거유巨儒 이상정이라는 인물의 20대부터 70대까지의 삶이 왜곡 없이 전해지고, 또 고루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의 일기에 기록된 지인과 제자들의 만남과 독서와 강학 및 저술과 교감활동, 그리고 여백에 쓴 시문·간찰·만사·발문 등은 그의 교유 범위 및 후학 양성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일상의 활동을 유지하였던 이상정의 삶의 자세는 대유학자로서의 면모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일기에 기록된 질병과 이에 대한 대응, 기후환경과 농업활동의 양상, 상·장·제례의 거행과 산소·사당의 관리 및 투장^{偷葬} 등은 단편적이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여백에 쓴 시문들은 『대산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작품도 있고 또 저자가 수정한 부분도 있어 이상정의 학문과 문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비교연구 자료가 된다.

【박상규, 김완호】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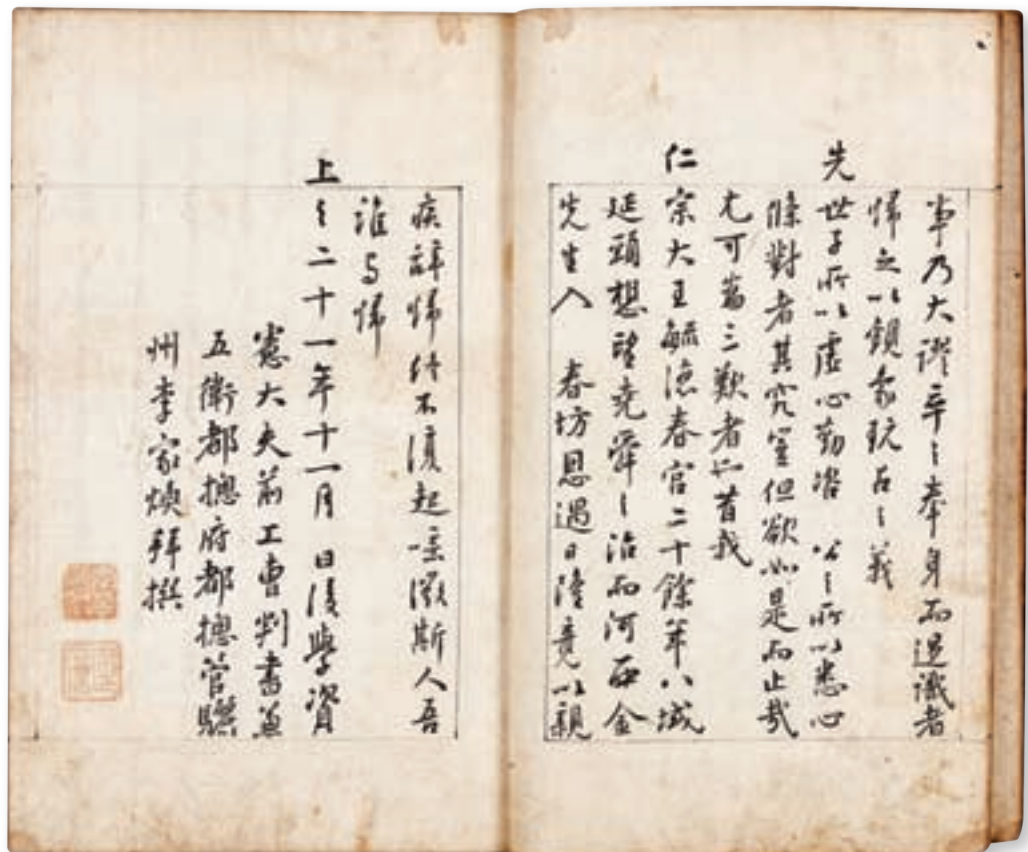
- 『정조실록』,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1995, 일조각.
- 한국국학진흥원 서비스 유교넷 일기 사진이미지, 메타정보 원문, 해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상정」(권정안 작성)

춘방록

春坊錄



제목 표제 : 춘방錄, 권수제 : 춘방錄
저자 류관현 劉觀鉉(1692~1764)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759년(영조 35)
형태사항 2책(89장) / 선장(5침) / 사주쌍변, 유계 /
 10행 18자, 10행 20자 / 29.8×19.8cm(19.1×15.1cm),
 35.6×19.2cm(20.9×14.6cm)
소장자 전주류씨 정재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春坊錄卷之一

春坊日記

已卯三月有亞諫 除命以 王大妃祥事迫
近不敢在外陳章遂承 召入城呈辭不允
移 授侍講院 善前此文學 除授時以身
病不得供職一向違 牌分教未安遂為純直
之詐

三月二十一日雨承 牌謝 恩仍入直 小朝需
官來謁仍傳進藥諸節下番說書朴取源再來叙
話

春坊錄

日記

已卯二月有亞諫 除命以 王大妃祥
事迫近不敢在外陳章遂承 召入城呈
辭不允移 授侍講院 善前此文學
除授時以身病不得供職一向違 牌
分教未安遂為純直之計

三月二十一日雨承 牌謝 恩仍入直 小
朝需官來謁仍傳 進藥諸節下番說書朴
取源再來叙話

序

故齊議陽坡柳公春坊日記一卷已
卯三月二十一日以侍講院同著游
恩休職至五月十五日清告還御首
尾五十四日一記也易圖撮要一卷奉
書是教括以道者此記首茲歲
家煥年十八始者識人問事聞父老
相過從輒言我



世

子賢者典學於古罕以欣然相告
曰吾東方其產幾步已而即又歇
然苦有憂者私垢其憂喜一柳
至已而又開動色相有曰嶺南柳
公為春坊左吾其有人哉已而又
聞相告曰柳公矣素何悵也素
久之亦不知柳公何如而能
使人倚重傾慕如此當時年少卑

賤不敢清其故今老白首中間
數十年事歷一在眼中而又後
以曹孫晦文得此卷讀之向所
云既喜既憂以有以悵者隱其具
在為癡書而泣至於失聲不能
自己也至其所道易圖撮要一編明
陰陽象數一原闡盛衰消長之
理可以仰柳 膚學施于青政而

1. 개요

『춘방록春坊錄』은 류관현柳觀鉉이 장헌 세자의 시강원을 제수 받고 조정에 나아가 여러 관료들과 교류하며 경연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임금과 왕세자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일기에는 당시에 왕세자를 가르칠 때의 주요한 과목이었던 주역과 관련된 그림과 설명내용들이 합철되어 있다.

2. 저자의 생애¹

류관현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용빈用賓이며 호는 양파陽坡이다. 조상은 처음에 안동安東 수곡리水谷里에 터를 정하였다. 증조부는 휘가 숙樞으로 벼슬이 부호군副護軍이고, 조부는 휘가 진휘振輝로 성균관 진사이다. 아버지는 휘가 봉시奉時로 종당宗黨에서 존중받았다. 어머니 **아주신 씨鵝洲申氏는 통덕랑 신이징申以徵의 딸로 명릉明陵 임신년(1692년) 8월 26일에 류관현을 낳았다.**

기축년(1709)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백씨伯氏 용와공慵窩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병신년(1716)에 어머니 상喪을 당하였다. 을묘년(1735)에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합격하였고, 을축년(1745)에는 성균관 전적에 제수되었다가 사헌부 감찰로 옮겨졌다. 계유년(1753)에는 경성 판관鏡城判官에 제수되었다. 병자년(1756) 봄에 판관을 그만두었다. 무인년(1758)에 사헌부 지평에 배수되자 두 차례 사양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 다시 시강원문학侍講院文學으로 옮겨 배수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체차遞差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기가 쓰여진 기묘년(1759)에는 사간원 사간으로 올려 배수되었는데, 그때 왕대비(정성왕후)의 대상大祥이 임박하였으므로 마침내 임금의 부름에 나아갔다. 이보다 앞서 임금께서 '자질이 충실하고 문학文學이 있는 자를 춘방春坊을 보도輔導하는 직임에 추천하라.'라고 하교하였으므로 마침내 류관현을 시강원필선侍講院弼善에 제수하였는데, 류관현이 극력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는 궁료宮僚에 오랫동안 결원이 있어서 류관현이 혼자 서연書筵에서 동궁을 모셨다. 겨우 한 달 동안 《주역》과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강하였는데, 해설하고 대답하는 것이 상세하고 분명하였다. 동궁이 마음을 기울여 강講을 받아들이며 《주역》의 요지를 뽑으라고 명하자 류관현이 요지를 그림으로 그려 올리니 음식과 환약丸藥을 하사하였다.

경진년(1760)에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제수되었으나 숙배肅拜하고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여 돌아왔다. 얼마 안 있어 종부시정宗簿寺正과 사간司諫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신사년(1761)에 시강원보덕侍講院輔德에 배수되자 사양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고, 유지有旨로 재촉하니 마침내 부름을 받들어 서울로 들어갔다. 사헌부 장령으로 옮겨 제수되었으나 극력 고사固辭하여 체차되었다.

1 한국고전종합DB의 『대산집』 제51권의 통정대부형조참의양파유공행장通政大夫刑曹參議陽坡柳公行狀을 참고하였다.

계미년(1763)에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올려 배수되었으나 이미 병중이었으므로 소장을 올려 직명職名을 해면解免해 주기를 청하였다. 갑신년(1764) 2월 10일에 정침正寢에서 생을 마치니 향년 73세였다.

사도세자思悼世子的 시강관侍講官으로 있을 때 「역도촬요易圖撮要」를 만들어 세자에게 『주역』을 가르쳤다. 저서로는 『양과집』 2권이 있다.

3. 『춘방록』의 구성과 체제

일기는 초본으로 추정되는 1책과 정본으로 추정되는 1책으로 총 2책이다. 일기 이외에 부록으로 춘방독번시달사春坊獨番時達辭와 역도촬요易圖撮要, 문집서문, 행장과 묘갈명 등이 정리되어 합철되어 있다. 또 삼도류로는 하도河圖, 낙서洛書, 복희팔괘伏羲八卦, 문왕팔괘文王八卦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기는 1759년 3월 21일 시작해서 5월 15일에 끝난다. 일기의 형태는 표제지에 2책 모두 춘방록春坊錄이라고 적혀 있으며 서문과 함께 후대의 인장이 보인다. 권수제는 1책은 ‘춘방일기春坊日記’로, 2책은 ‘일기日記’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 행자行字는 2책 모두 일정하지만 1책은 10행 18자, 2책은 10행 20자로 각각 글자의 숫자에서 조금 다르다. 월과 일은 본문의 높이보다 한 칸 높여서 작성하고 일기가 시작되는 날짜는 새로운 줄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또 날짜별로 기상이 적혀 있다. 같은 날짜에 일기의 내용이 달라지면 권점을 표시해서 구분해 놓고 있다.

4. 『춘방록』의 내용

춘방春坊이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일기는 3월 21일에 승패承牌하고 사은謝恩하고서 숙직한 내용부터 시작되고 있다. 22일에는 천담복淺淡服과 오각대烏角帶를 입고서 서연書筵에 들어간 내용이 있다. 이날은 서연書筵에서 강講하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교육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춘방春坊의 상하번上下番과 계방桂坊의 한 사람이 각각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왕세자가 먼저 어제 수업한 내용을 읽는 것을 마치면 상번上番이 일어나서 다시 새로 수업할 내용을 읽은 뒤에 이어서 왕세자가 읽는다. 상번上番이 또 일어나서 다시 문장의 뜻을 설명한다. 이후 일기는 잠시 뒤에 왕세자가 책을 덮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에 강講을 끝마친다.

23일에는 약방藥房에 가서 문안례問安禮에 참여하고 도승지와 함께 대화를 나눈 후에 직방直房에 돌아왔으며, 잠시 뒤에 전날과 같은 강을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24일에는 흐리고 오후에 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린 기록과 양연兩筵을 정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춘제와 이창의라는 사람들이 직방直房에 와서 대화를 나눈 내용과 임희교라는 사람에게 청번請番한 내용과 승지承旨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내방한 내용도 보인다.

25일에는 날씨가 어제부터 좋지 않아서 풍우가 매우 심하였고 왕세자는 기현氣眩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서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또 강원講院에 이르러 입직入直했는데 이원二員이 말하기를 ‘동궁東宮이 아직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들 역시 곡반哭班에 가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류관현은 ‘동궁은 병환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병이 없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오래되었고 마침내는 옳지 않다고 결론이 나서 결국 혼자 부득이하게 곡반哭班에 나아가 참여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오경五更끝에는 대조大朝가 명릉明陵을 향하여 동가動駕하였고 이에 원외院外가 공경히 전송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27일에는 대가大駕가 명릉에서 창릉으로 이동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임금이 창릉昌陵과 홍릉弘陵에 나아갔다가 이어 소영원昭寧園에 나아갔다.”²

28일에는 약방藥房에 가서 문안례問安禮에 참여하고 궁궐에 들어가 약방의 문안을 전달한 내용이 보인다. 29일은 소대召對하기 위하여 대신과 중신重臣등 여러 관원들이 입시入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서司書가 낙상落傷과 친병親病 때문에 진서陳書하고 경출徑出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0일에는 합외閣外에 이르렀고 내연內筵에 들어갔다가 효소전孝昭殿 삭제朔祭를 거행하는 조건에 대해 여쭙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대조大朝의 전교傳教가 밤에 내려왔는데 소조小朝는 배제陪祭하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4월 1일 오경五更에 대조大朝가 효소전孝昭殿에서 삭제朔祭를 행하고 이어서 휘령전徽寧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같은 날의 조선왕조실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임금이 효소전孝昭殿에 나아가 친히 삭제朔祭를 행하였다.”³라는 내용과 “효소전孝昭殿의 담사禫祀 때에는 《오례의五禮儀》에 의하여 현포玄袍로써 제사祭祀를 거행하도록 하고, 효소전의 담사 이전에 휘령전徽寧殿의 대제大祭 때는 서계誓戒를 거행舉行하지 말도록 하라.”⁴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후 류관현은 합외閣外에 이르러 왕세자에게 문안한다.

3일에 정옥을 황해감사로 발령했는데 조선왕조실록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서지수徐志修를 대사헌으로, 정옥鄭玉을 황해 감사로 삼았다.”⁵ 4일에는 약방에 가서 동궁의 문안에 참여하였다. 5일에 내연內筵에 들어가 강講하였는데 왕세자가 주역 가운데 의심가는 뜻 몇 개를 끄집어 내어 물어본 내용이 나온다. 7일에는 휴일로써 강講을 정지하였는데 당시에 시행되던 10일에 한번 쉬는 예규例規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번下番과 함께 강목綱目을 통독한 내용이 보이는데 류관현은 그 사람 강목을 읽어내지 못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온다고 하였다. 류관현은 이 사람에 대해 ‘나이가 어리고 예기銳氣한테 상질相質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이 이와 같으니 또한

2 『영조실록』 권93, 영조 35년 3월 27일(정미) 1번째기사: “上詣昌, 弘陵, 仍詣昭寧園.”

3 위의 책, 영조 35년 4월 1일(신해) 2번째기사: “上詣孝昭殿, 親行朔祭.”

4 위의 책, 영조 35년 4월 1일(신해) 3번째기사: “敎曰: “孝昭殿禫祀時, 依《五禮儀》, 以玄袍行祭事, 及孝昭殿禫祀之前, 徽寧殿大祭時, 誓戒勿爲舉行.”

5 위의 책, 영조 35년 4월 3일(계축) 3번째기사: “以徐志修爲大司憲, 鄭玉爲黃海監司.”

매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한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행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춘방春坊에서 당직할 때, 《자치통감강목》을 진강進講하였는데, 한 궁료宮僚가 자기 차례가 될 때마다 공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다. 공이 그때마다 곧바로 여러 쪽을 암송하니, 그 사람이 ‘어르신이 이렇게 권수가 많은 책을 해독하는 것이 어찌 이처럼 완속한가.’ 하고 경탄하였다.”⁶

8일 밤에는 옛 시 42운韻을 술회述懷하기도 한다. 12일에는 혜성彗星이 나타난 사실과 이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 나오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이와 관련된 왕세자의 언급이 보인다. 먼저 혜성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헌납 이심원李心源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이 근일에 삼가 살펴보건대 하늘에서 경고警告함이 거의 비는 달이 없었습니다. 혜성彗星의 재앙이 그치지 않는데다가 홍관虹貫의 경보警報가 또 이르렀으니, 아! 이것이 무슨 징조입니까? 오늘날 소이消弭의 방책을 아뢰는 자들은 반드시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정사를 부지런히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도 또한 이러한 말을 버리고 따로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른바 ‘근勤’이란 것은 한갓 하루에 두 번 강독講讀하고 한 달에 세 번 인접引接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학문과 정사는 실질實質으로써 하는 것이요 형식形式으로써 하지 않은 연후에야 바야흐로 부지런히 한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왕세자가 대답하는 내용은 “근래에 재이災異가 없는 해가 없던 중에 요성妖星이 거듭 나타나고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 변이 두 달 사이에 연이어 일어나서 바야흐로 늑척懷揚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일은 나의 불민不敏으로 말미암아 성의聖意를 우러러 본받지 못하고 매양 성심聖心을 번거롭게 한 소치이다. 진달한 바는 간절하고 지극하니 유념留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⁷라고 기록 되어 있다.

20일의 일기 일부 내용도 왕조실록의 내용에 보이며, 21일에는 소대召對한 내용이 보인다. 전날 읽었던 내용을 음미하고 주역은 곤괘로부터 몽괘이며 강목은 ‘서복상서徐福上書’로부터 ‘공수사興遂事’에 관련된 것이다. 5월 3일 일기의 내용도 왕조실록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나온다.

10일에는 임금이 월대月臺에 나아가 망배례를 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임금이 익선관翼善冠과 무양흑단령포無揚黑團領袍를 갖추고 명정전明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으니, 명나라 고황제高皇帝의 기신忌辰이기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12일에 도령都令이 들어와서 정원政院에 의논한 내용이 보이는데, 류관현이 온 힘을 다하여 직분에 이바지해 온 것은 온 조정이 다 아는 사실이고, 병 때문에 돌아가겠다는 것이 비록 일반적인 사례에는 위배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후 3일이 지난 15일

6 「대산집」 제51권, 통정대부형조참의양파유공행장通政大夫刑曹參議陽坡柳公行狀：“直春坊時，進講綱目，一宮僚每當次請授於公，公舉輒誦數板，其人驚曰，老爺讀此巨帙，何其熟也。”

7 「영조실록」 권93, 영조 35년 4월 12일(임술) 1번째기사: “獻納李心源，上書略曰：‘臣於近日，伏觀乾文示警，殆無虛月，彗孛之災未已，虹貫之報又至，噫嘻！此何象也。今日進消弭之策者，必曰勤學勤政，臣亦捨此而別有何說。然所謂勤者，非徒日再講讀，月三引接之謂也。惟學惟政，以實不以文，然後方可謂之勤矣。’” 王世子答曰：“近來災異，無歲無之之中，妖星再見，虹貫之變，荐出於兩月之間，方當懷惕，而此輩由余不敏，不能仰體，每煩聖心之致，所陳切至，可不留念焉。”

은 일기의 마지막으로 류관현이 비로소 말미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다. 이때 동궁이 납약臘藥을 하사한 것으로 일기는 끝난다.

일기 뒤에는 부록으로 몇 건의 글과 그림이 실려 있다. 춘방독번시달사의 내용은 세자가 여러 날을 감기로 경연을 폐하자 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정신상태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하면서 사소한 병은 경연經筵에 나와서 연설筵說을 듣고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니 경진공부를 폐하지 말 것을 주장한 것이다. 역도철요는 왕세자가 주역을 배우는 동안 이해하기 어렵고 주석들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여러 선유先儒들의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또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그리고 복희팔괘伏羲八卦와 문왕팔괘文王八卦 등의 그림과 이와 관련된 송유宋儒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단기간의 일기 내용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류관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태도와 인품 그리고 평소 그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집안의 친척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차근차근 일깨워 주어 스스로 고치도록 하였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탄식하여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였다. 병에 걸려 죽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손수 약을 달여 치료하였고, 친구가 역병에 걸려 죽었을 때에도 직접 염습을 하였지만 병은 전염되지 않았다. 친척이나 친구가 흑시라도 환액患厄을 당하면 반드시 힘을 다하여 구원하였고, 관직에 있을 때 안부를 묻고 선물을 보내는 일도 곤궁한 친구부터 먼저 하였다. 제산霽山 김공성탁金公聖鐸과는 벗으로 잘 지냈는데 김공이 호남으로 귀양 가게 되자, 거리가 천리나 되었지만 공이 즉시 찾아가서 문안하고 양식을 보내 주었으며, 본가를 구휼하는 일도 계속하였다. 공은 자신의 생활을 검약하게 하였고 성찬盛饌과 풍악風樂을 좋아하지 않았다. 흑시라도 말이 재물과 이익에 미치게 되면, 그때마다 타이르기를 ‘천하에 다스리기 어려운 일로는 이욕利慾만 한 것이 없다. 내가 스무 살이 되기까지는 돈과 곡식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후에 어려움을 당하고 집이 가난하게 되어 살림에 마음을 두게 되자 이익을 좇는 마음이 날로 자랐다. 그래서 때때로 경계하고 반성하였으며, 매번 이욕이 분수를 크게 넘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높은 벼슬을 얻는 것은 운명에 달려 있으니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된다. 형님은 평생 욕심이 없고 겸손하였지만 비옥緋玉의 반열에 올랐고, 나도 남에게 청탁한 적이 없었지만 때때로 조정에서 거두어 썼으니, 너희는 이것을 본받아 과거에 나아가고 분수에 따라 응할 뿐, 높은 벼슬을 얻기를 기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⁸

8 『대산집』 제51권, 통정대부형조참의양파유공행장通政大夫刑曹參議陽坡柳公行狀: “門族有過失, 諄諄曉諭, 使有以自新, 其貧無以自存者, 心誠憂歎, 思有以保接, 有遺癘瀆死者, 親灌藥救療, 親友死於癘疾, 亦躬自斂襲, 而病亦不染, 親戚知舊, 或遭患厄, 必極力救拔, 居官問遺, 先及窮交, 與霽山金公聖鐸友善, 及金公竄湖南, 相去且千里, 公命駕往問饋, 恤本家不絕也, 公自奉儉約, 不喜盛饌風樂, 其在官, 對方丈曰, 不如鄉園魚羹耳, 聽妓歌曰, 不如聽籬畝農謳耳, 罷官歸家, 曳杖逍遙於田野之間, 與老農劇談農桑, 未嘗言朝廷事, 子弟或言人過失, 輒呵之曰, 汝行事果能盡善乎, 吾恐彼亦議汝之得失, 不可徒責人而忘自反也, 或語及財利事, 輒戒之曰, 天下之難制者, 無如利欲, 吾年二十時, 不知錢穀爲何物, 及後患家貧, 留意產業, 利心日長, 時或警懼省改, 而每覺利欲上分數多, 爾曹宜知之, 又曰, 得失有命, 不可妄求, 家兄平生恬退而致位緋玉, 吾亦未嘗向人求乞, 而時蒙朝廷存錄, 爾輩視此赴場屋, 隨分應之而已, 無求必得也.”

5. 『춘방록』의 가치

비록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세자시강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왕세자를 가르치던 교재와 시강원이 연구하여 정리한 내용들이 일기의 후반부에 합철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주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업적과 수업내용을 통하여 당시의 학문 수준과 학습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적 활동을 통하여 학습방법등도 살펴볼 수 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 관찬 기록인 조선왕조실록과 개인의 시각에서 씌여진 일기의 내용을 비교하면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기는 공식적인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완해 내는데 의미 있는 자료들이 될 것이다.

10일에 한 번 휴일의 제도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당시 조정에서의 관리의 복무규정과 같을 것을 밝혀낼 수 있다.

혜성의 출현과 같은 자연현상에 대해 정치적 문제와 관련시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 당시의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 수준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혜성의 출현이 이날 전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천문학적 연구 자료로도 활용될 가치가 있다.

사도세자가 죽기 3년 전인 28살 때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사도세자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자질에 대한 연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김남중】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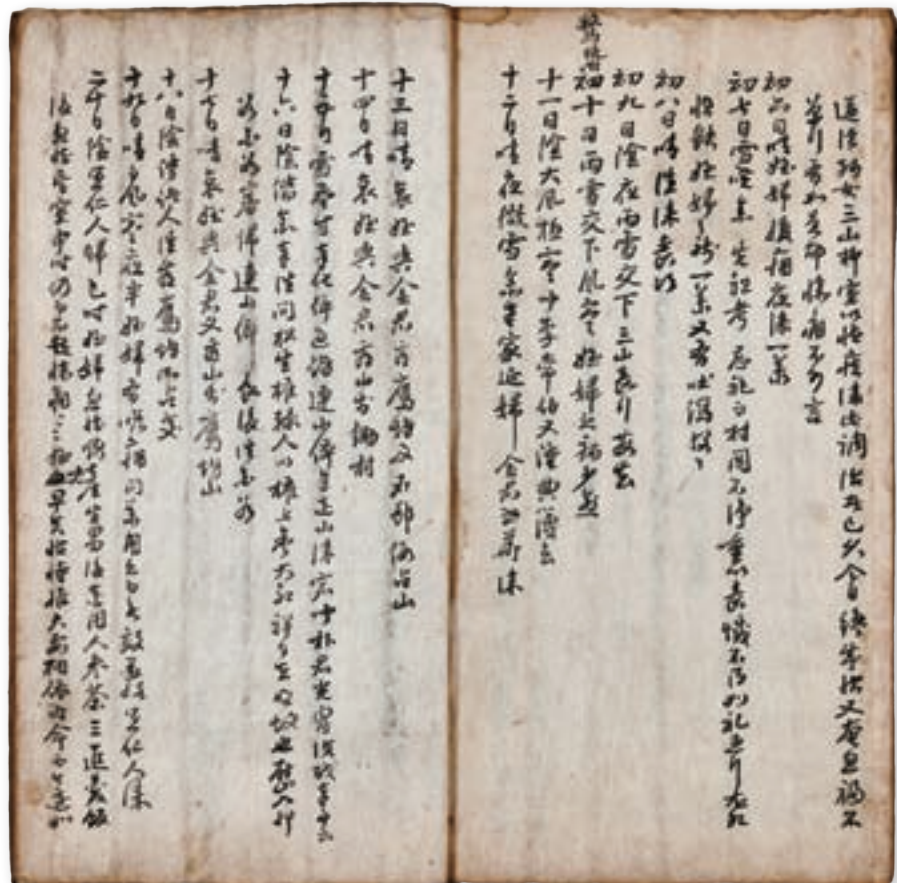
- 『영조실록』
- 『대산집』 제51권, 행장(行狀), 통정대부형조참의양파유공 행장通政大夫刑曹參議陽坡柳公行狀.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해제
- 한국역대인물 종합시스템

경상도하양현일록

慶尙道河陽縣日錄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44호, 지정년도 : 2003년)

- 제목 표제 : 日錄, 권수제 : 없음
- 저자 김경철 金景澈(1698년~1764년)
- 판사항 필사본
- 작성연대 1759년~1762년(영조 35~영조 38)
- 형태사항 1책(80장) / 선장(5침) / 사주무변, 무게, 무어미 /
행자수부정 / 28.6×16.0cm
- 소장자 노진환
- 보관장소 개인소장



清江水... 洪番... 二月... 清江... 洪番... 二月... 清江... 洪番... 二月...

雨水

雨水... 二月... 雨水... 二月... 雨水... 二月... 雨水... 二月...

寅寅

寅寅... 二月... 寅寅... 二月... 寅寅... 二月... 寅寅... 二月...

壬午

壬午... 二月... 壬午... 二月... 壬午... 二月...

壬午

壬午... 二月... 壬午... 二月... 壬午... 二月... 壬午... 二月...

1. 개요

『경상도하양현일록』은 김경철(1698~1764)이 1759년(영조 35, 기사) 윤6월 1일부터 1761년 6월 24일까지 경상도 하양현감으로 재직하면서 기록한 내용과 이후 1762년(영조 38, 임오) 2월 29일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일기이다. 18세기 지방수령 관직일기로서 19세기 오횡묵吳弘默의 일기 등과 함께 지방수령의 공무수행과 일상생활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저자의 생애

김경철의 본관은 의성이고 자는 청중淸仲이며 거주지는 안동이다. 영조 17년(1741) 신유 식년시 생원 2등에 2위로 합격하였다. 아버지는 성균진사成均進士였던 김여당金汝鐘이고 형은 김경린金景潾이며 동생은 김경필金景泌이다.

집이 가난하여 송진을 캐서 불을 밝히고 계씨季氏 좌랑공佐郎公과 함께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였다 하며, 약관弱冠에 문사文詞가 널리 알려졌다. 1741년(영조 17) 생원이 되고, 1748년(영조 24) 부친 좌랑공이 기성랑騎省郎을 제수 받았을 때 함께 입경했다가, 부친이 병으로 직책에서 물러나자 모시고 돌아왔다.

조카들의 교육에만 몰두하다가 1752년(영조 28) 영릉참봉英陵參奉, 1754년 서부봉사西部奉事, 이듬해 사옹봉사司饗奉事가 되었다. 1756년에 제용직장濟用直長, 사옹직장司饗直長이 되고, 1757년에는 희릉직장禧陵直長, 장원별제掌苑別提, 감찰監察, 1758년 하양현감河陽縣監으로 부임하였다가 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이후 후진을 가르치면서 호를 서파거사西坡居士라 하였다. 항상 진동鎭東의 치우치고 막힘을 염려하여 ‘관寬’이란 글자로 경계하도록 하였고, 젊은 시절에 술을 마시고 실의失儀한 후 평생 1~2잔을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금추金帚』1권과 『일록日錄』을 남겼다.

3. 『경상도하양현일록』의 구성과 체제

일기는 총 80장 분량으로 표제는 ‘日錄’으로 적혀있으며 기록년도인 ‘己卯 庚辰 辛巳’가 표지에 적혀 있다. 연도가 바뀔 때는 굵고 진한 글자로 본문의 맨 위에 적어서 구별하였고, 달이 바뀔 때는 일기의 중간에 적어서 본문과 구별하고 있다. 매일의 날짜는 새로운 행으로 시작하여 일자별로 구분하고 있다.

일기의 행과 글자 수는 일정하지 않다. 두주 형식으로 일부 내용이 본문의 위에 기록되어 있다.

4. 『경상도하양현일록』의 내용

김정철이 공무를 수행하고 여가생활에 행했던 일상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망궐례望闕禮 / 알성례謁聖禮를 행하고 점고點考를 하다.

매달 1일이나 3일, 15일에 망궐례와 알성례를 행하였다. 병이 나거나 비가 많이 와서 날씨가 좋지 않는 경우에는 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도 그대로 기록하였다.

1759년 6월 1일 : 매우 더웠다. 1일 맑았다. 이형이 머물렀다. 새벽에 망궐례와 알성례를 행하고 점고하였다.¹

7월 1일 : 여제厲祭를 지냈다. 15일 비가 많이 왔다. 금호강 물이 출렁거려서 거의 포구를 넘었다. 비 때문에 망궐례와 알성례 두 예를 생략했다. 탄식할 만하다.²

1760년 1월 3일 : 안개가 많이 끼었고 저녁에 걷혔다. 망궐례를 행하고 점고하였다.³

1월 15일 : 아침에 흐리고 늦게 맑았다. 점고하고 병 때문에 망궐례와 알성례 두 예를 생략하였다.⁴

2) 가뭄으로 인해 기우제禱雨祭를 지내다.

1761년(辛巳) 5월에는 비가 조금씩 와서 가뭄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에 기우제를 지낸 내용들이 자주 보인다.

1761년 5월 11일 : 맑고 바람이 불었다. 감영의 공문 때문에 사직단에 비가 오도록 기도했다.⁵

5월 13일 : 맑았다. 상원에 기우禱雨하였는데 곧 환성의 가장 높은 곳이다.⁶

5월 15일 :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비가 조금 먼지를 적셨다. 초례醮禮에서 비가 오도록 빌었다.⁷

5월 16일 : 맑았다. 무락산舞落山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였다.⁸

5월 17일 : 맑고 매우 더웠다. 상기인上枝人이 와서 무락산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였다.⁹

하지 5월 19일 : 흐리고 밤에 비가 조금 왔다. 모아연毛兒淵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였다.¹⁰

1 己卯(1759) 閏六月大 十六日立秋 初二日中伏 二十二日末伏 極熱 初一日己卯晴 李兄留 曉行望 闕謁 聖禮點考

2 七月小 初一日處暑 十七日白露 厲祭 十五日 雨大注 琴湖江水漲 幾出浦 以雨闕望 闕謁 聖兩禮可歎

3 庚辰(1760) 庚辰正月小 初三日雨水 十八日驚蟄 初三日 大霧暮寒 行望 闕禮點考

4 十五日 朝陰晚晴 點考病闕望 闕謁 聖兩禮

5 十一日晴而風 因營闕禱雨于社稷壇

6 十三日晴 禱雨于上院即環城最高處也

7 十五日陰而風 雨纔溫塵 禱雨于醮禮

8 十六日晴 禱雨于舞落山

9 十七日晴極熱 上枝人徠禱雨于舞落山

10 夏至 十九日陰夜微雨 禱雨于毛兒淵

3) 행차를 하면서 풍경을 완상하다.

1759년 윤6월 18일 : 밝기 전에 출발하였다. 경산동에 가서 죄인 손걸孫乞을 추문하였다.

가는 길가에 세 개의 연꽃 못이 있는데 모두 경산 지역이다. 연꽃 만
자루가 활짝 피어서 끝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 올 때 맑은 향이 진동
을 하고 코를 막을 정도여서 걸음을 주저하게 하여 가는 것을 잊게
하니 참으로 뛰어난 볼거리였다.¹¹

7월 6일 : 영천으로 갔다. 호연정浩然亭에 들렀는데 이형상李衡祥이 지은 것이다. 이형상이 동
경구東京龜를 마치고 영양永陽(영천)에 거쳐하면서 조양각朝陽閣 아래 암벽위에 이
호연정을 지었다. 앞에는 큰 냇가와 넓은 들판이 위치해 있으며, 주변 사방의 산
들이 싱그럽게 푸르다. 현창軒窓에 들어가니 경치가 매우 뛰어나서 조양각과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이다. 주인 이만송李晩松을 만났는데 이형상의 손자이다.
20리를 가서 임고서원臨臯書院에 도착하였는데, 포은 정몽주선생을 주향主香하는
곳인데, 나중에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선생을 배향하였다. 선생의 유허遺墟가 마주
보이는 곳에 있으니 저절로 사모하는 감정이 크게 일어난다.¹²

7월 7일 : 비를 맞으면서 20리를 가서 매천곡梅川谷에 도착하였다. 참의參議 정중기鄭重器가
관직을 마친 뒤에 이곳에 땅을 구입하고, 깊은 골짜기 가운데에 은거하였다. 그
가 집 뒤 시냇가에 정자를 짓고 산수정山水亭이라고 하였는데 두 개의 즐거움(낙
산樂山·낙수樂水)의 뜻을 취한 것이다. 모두 함께 입암서원立巖書院에 갔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져서 입암정사立巖精舍의 일제당日躋堂에서 숙박하였다. 그곳은 여헌선
생이 창건한 곳이다. 일제당은 입암의 측면에 세워져 있는데, 바위는 높이가 십
여장丈이고 깊은 못 가운데에 세워져있다. 일제당은 모두 네 칸인데 동서로 협실
夾室이 있다. 동쪽은 우란재友蘭齋이고 서쪽은 열송재悅松齋이다. 옆을 흐르는 강은
금호강의 상류이다.¹³

또한 본 해제 일기에는 모두 5건의 반사문頒賜文이 기록되어 있다. 수령으로서 참고하기 위
해 적어놓은 것으로 이 일기가 공무와 관련된 기록을 적은 비망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말해 준다. 반사문은 전체 내용을 적었는데 대부분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를 통해

11 十八日晴 未明發行 往慶山同 推罪人孫乞 自此往彼 路傍有三蓮池 皆慶山地也 荷花萬柄盛開 一望無際 風頭陣陣清香撲撲 擁鼻令人踟躕忘去 真奇觀也

12 初六日雨 發向永川 入浩然亭 卽李慶州衡祥氏所構也 李令文解東京龜 仍居永陽 構此亭於朝陽閣下巖壁上 前臨大川廣野 四山蒼翠 入於軒窓 景致殊絕 與朝陽相伯仲 見主人李晩松 乃令文之孫也 小選而起 行二十里 到臨臯書院 乃 圃隱先生主院 而後以 旅軒先生 配食焉 先生遺墟在於相望地 不覺曠世景慕之感也

13 初七日雨 冒雨行二十里 到梅川谷 哭鄭參議重器道翁氏殯次 鄭令休官後 卜築于此 在深谷中隱居焉 構亭於家後溪邊 扁曰山水 蓋取 二樂之義也 偕往立巖書院 日已昏矣 宿立巖精舍之日躋堂 卽 旅軒先生所創也 在立巖之側巖 高可十餘丈 而立於深潭之中 堂凡四間 而有東西夾室 東曰友蘭齋 西曰悅松齋 臨水邊 水卽琴湖江之上游也

서 확인할 수 있으나 1건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¹⁴

이외 일기에는 모함을 받아 하양현감을 그만둘 때의 상황도 적혀 있다. 1761년 6월 15일 일기에는 “여름 고과[夏課]에서 거수居水(관원의 고과考課에 최하의 등급을 받는 것)가 나왔다. 그 조목에 ‘柔未戢猾 禱如不祭’라고 적혀있었다. 이는 邑人여러 사람들이 장중권張重權을 피어 부추겨서 명목을 만들어 무함하는 소장을 영문營門에 내었기 때문이다. 윗 구절은 이 일을 가리키고 아랫 구절은 병이 생사에 걸려 아홉 번의 기우제를 모두 직접 지내지 못한 까닭이다.¹⁵”라고 적고 있다.

일기에 따르면 6월 16일 날이 저물어 경산현령을 겸임하고 있는 이이병李爾炳이 급히 도착하여 인신印信과 병부兵符를 회수하고 창고를 봉인한 후 물품을 확인하였다.¹⁶ 또한 6월 24일에 행해진 도목정사에서 후임 하양현감으로 이구응李龜應이 수망首望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7월 1일 듣게 되었다.¹⁷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양현감으로서의 사환일기는 끝나게 된다.

5. 『경상도하양현일록』의 가치

현전하는 지방수령의 사환일기는 많은 수량이 남아 있지 않다. 본 해제 일기는 18세기 하양현의 수령이 관직생활 동안 작성한 사환일기로서 지방수령이 공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지 등 지방수령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료가 된다.

【김남중】

-
- 14 ① 己卯(1759) 閏六月大 十七日晴 送人于本家轉往金谷武夷等處昌樂察訪李肇明以嘉禮敎文差員來(영조실록 권93, 35년 6월 23일(임신))
② 己卯(1759) 7월 十八日晴 斫燔瓦木於校村往見之暮歸山雲申君命熙徠宿夜二更頒敎差員禿用別將李枝祥入縣祗迎如儀 敎文有曰(승정원일기 영조 35년 윤6월 20일(무술))
③ 己卯(1759) 7월二十二日雨 晉州牧使趙德常以蔚山獄事祭覈官往蔚山回路歷入出見之兵營審藥費 王世孫册封敎文徠到出迎如儀 敎文有曰(영조실록 권93, 35년 윤6월 22일(경자))
④ 庚辰(1760) 2월 初九日載陰載陽 敎差員審藥 徠蓋大國討西獫克之遣使徠故也(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서 확인할 수 없음)
⑤ 庚辰(1760) 6월 十八日陰 又送辭狀於營門梧溪金君顯源徠宿將欲帶去金妹也 頒敎文 六月初五日到邑(영조실록 권95, 36년 5월 6일(기유))
- 15 十五日陰 見夏課居水 其日曰柔未戢猾 禱如不祭 盖邑人數三輩指喊張重權爲名者誣陷呈狀於營門 上句指此事也 下句則吾病有死生之慮 九次禱雨 未得親行故也
- 16 十六日晴 昏兼任慶山縣令李灝炳馳到 卽索印信兵符 開金封各庫 急於星火 號令風生 可笑
- 17 初一日丁酉晴 聞都政行於去二十四日 河陽新官李君龜應宗瑞果以首望爲之 不出當初所料矣

참고문헌

- 『慶尙道河陽縣日錄』(김경철 지음), 노진환 소장본.
- 유교넷 고도서 소암선생문집 (素巖先生文集, 仲父通訓大夫 行河陽縣監 西城公遺事)

은유일기

恩遊日記

제목 표제: 恩遊日記, 원표제: 恩遊日錄
 저자 신상악 申象岳(1713~?)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765년(영조 41)
 형태사항 1책(19장) / 가철 / 사주무변, 무계, 무어미 / 13행 32자 / 30.2×18.0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又見府中軍家○初八雷東洋軍士與直士同立白蓮士師
東訪○初九雷東洋軍士與直士同立白蓮士師
武馬自設留止而進南宮夜會何惟武科前當女作 孝父會館而以長連軍家
師雖亦借海門河李時暮家一考叔何同處與謀失散此去不易得之勝事也○
夕仲溫一大學可再元家來訪○初七晚大慶編編且甚利性華高制二莊散三
點在插道植應一貼○初八夜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一大伯同諸君○眼乘一貼在性理可所繼編小學在深不淺運○初九夜乘乘乘乘
見即東東之伯乘而其年甲子為人則書可受約以場中間接○午乘一貼乘乘乘
恐乘訪○乘國自忠州入城相見○以十五文編何道可智乘乘○與諸及諸小學
子石乘家○乘國自忠州入城相見○以十五文編何道可智乘乘○與諸及諸小學
榮漢東傳乘國及繁中南部以王善尋日滴錄等成好進學文學漢河提事結金會
詢在乘外和回中好乘云○初十裁隨信使白蓮士師坤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乘訪○雨中送隨信使及小學校○乘等因聖恩編小學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則小科不可為而誠欲令召汝等以代而誠為滿也為見其面汝等皆乘乘不歸
為 教○當史而道 上曰汝之姓名何對口中乘乘 上問乘何乘對曰 若在
慶尚道開慶 上曰讀書何對對等一行餘 上曰止之 又曰已得書出山非
而出○入內府 與化門外買物到 孝父所 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賜○朴連士亮漢學進士其乘乘○乘進士乘進士乘進士乘進士乘進士乘進士乘進士
自領河開科而來相對傳乘西已○茂伯山乘乘○初三合正官乘乘乘乘乘乘乘
進進致智才物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想其渡海白邑今人傳乘○聖賜乘乘○初四朝唱將進之行初八日○使返桂克
十五首傳信各符諸乘 孝父上以可乘網由編編傳○丁直乘乘乘乘乘乘乘乘
即乘乘人致賢○初五日朝與禮本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在德乘賢○初五日朝與禮本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三朝乘乘不傳傳乘以買乘乘云○汝始自甘河使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初場乘乘可謂文○初六日 孝父分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南館學士曹全在堂進行殿乘平日設編○初七日特使即乘乘天世世設
特許門下八二名也○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乘編六西二乘五分乘一等一內四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五分乘乘二分云○見 相使自 上有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乘乘○初八日身朝起 嗣以時早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編八乘大考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殿百官學士乘乘分左右以次跪○置錢子 上而和床上承乘乘乘之入置乘
子 乘下床上乘乘二人喝之呼乘 上曰汝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乘在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拜白拜禮以和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拜回拜禮以和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拜是時大板成乘了 殿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體引土連而火○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之類○十一封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乘乘乘乘○十二間小學講了石園堂○設官軍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未食有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願以為然止之○伯祖一大直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願亦乘乘乘乘乘乘○十四朝見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八外打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何字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編之身也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五人乘乘乘乘乘乘○初九日初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五相子和以馬性行登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麻四○初十初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
使件會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乘一

1. 개요

이 책은 문경에 거주하던 53세의 신상악(1713~?)이 1765년 1월 29일부터 동년 5월 10일까지 사마시 복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고향 문경을 출발하여 생원시에 합격하고 돌아와 선조의 무덤과 친지 등을 찾아 인사드리는 내용을 담은 개인 일기 1책이다. 일기는 표지·내지를 제외하고, 초시와 복시의 시험 정보 1장과 일기 본문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정보에는 초시와 복시의 일정, 시관과 시제(試題) 등이 있고, 본문은 간략한 일지만 적고 당일의 내용을 시간 순서로 기록하였다. 지역은 문경을 출발하여 서울에서 시험을 보고 귀향하는 利川이천 등 경유지와 합격 후 인사를 위해 친지를 찾은 성주·영천(永川) 등 경상도 일대이다. 개인의 관점에서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신상악의 유일한 기록이며, 조선 후기 영남 지방 유생과 과거라는 주제의 원본 일기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2. 저자의 생애

신상악은 1713년(숙종 39)에 태어나 회시에 응시할 당시 문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합격자 명부인 무신자본 『을유식년사마방목(이하 방목)』에는 ‘유학신상악(幼學申象岳 年五十三 本평산(本平山) 거문경(居聞慶) / 부동지중추부사(父同知中樞府事思肅)’이라는 간략한 기록만이 있다. 그에 관한 정보는 다른 곳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고, 족보(1702년 목판본)를 통하여 다음의 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상악의 집안은 좌승지로 증직된 6대조 신여길(申汝吉)이 충주에서 문경으로 이주한 이후로 문경에서 세거하였다. 신여길은 문희공(文僖公) 신개(申槩)(1374~1446)의 6대손이며, 자는 경백(慶伯), 배(配)는 곡산한씨(谷山韓氏) 생원(生元) 한개수(韓介壽)의 따님이다. 5대조 신상철(申尙哲)(1585~1632)은 자가 명숙(明叔)으로, 호조정랑을 지냈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배는 신평이씨(新平李氏) 군수(軍守) 이문휘(李文暉)의 따님이다. 고조부 신숭구(申嵩耆)(1604~1677)는 자가 주한(周翰), 자호(自號)는 낙봉(洛峯)으로, 1630년 식년(式年) 진사(進士), 선산부사(仙山府使)·강화경력(강화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배는 풍산류씨(豊山柳氏) 지평(知平) 류진(柳珍)(1582~1635)의 따님이며, 류진은 류성룡(柳成龍)의 4남이다. 증조부 신후석(申厚錫)(1626~1694)은 자가 자수(子受), 자호는 평거(萍居)이며, 배는 무안박씨(無安朴氏) 박문도(朴文度)의 따님이다. 신후석의 차남(次男) 신필형(申弼亨)이 그의 조부가 되며, 부친은 신사숙(申思肅)이다. 신사숙은 원래 신후석의 3남(三男)인 신필정(申弼貞)의 아들이었으나 증부(仲父) 신필형에게 아들이 없어 양자로 입계되었기 때문에 생조부(生祖)는 신필정이 된다. 어머니는 성산여씨(成山李氏) 진사(進士) 여문화(呂文和)(1652~?)의 따님이며, 외조부 여문화는 자가 질보(質夫)이고, 1683년 증광(增光) 진사로 거주하는 성주였다.

신상악에 대해서는 방목 기록과 족보 수록 가계 정보 이외에는 행적을 알 수 없고, 그가 남긴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은유일기』를 통하여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다.

3. 『은유일기』의 구성과 체제

『은유일기』는 단권으로 분량은 19장이며, 권두의 시험 관련 정보, 본문의 일기, 권말의 저자 작성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는 원래의 표지에 근래에 표지를 덧대어 장정하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표지에 ‘담와선생은유일기淡窩先生恩遊日記’라고 적고, 본문 시작 부분의 하단에도 ‘홍계희작洪啟禧作’이라 적혀 있다. 이는 일소一所(예조)의 시관試官으로 기록되어 있는 홍계희(1703~1771)를 끌어와서 일기의 권위를 높이고자 잘못 적은 것이다. 원래 표지에는 ‘은유일록恩遊日錄 단單’이란 서명이 적혀 있다.

권두에는 시험 정보가 앞면은 상하 2단으로, 뒷면은 상중하 3단으로 구분하여 적혀 있다. 앞면 상단에는 1764년의 초시 일정(진사 8월 20일, 생원 8월 22일, 방방放榜 8월 27일)과 1765년 2월의 회시 일정이 수록되어 있다. 방목과 비교하면 초시 관련 사항이 없고, 회시도 방목에는 생진 시험일·출방出榜·방방만 있으나 일기에는 방방[창방唱榜]일에 진시辰時라는 시간, 사은謝恩과 알성講聖의 일자도 있다. 하단에는 경상도사 이계李淮·영해부사 김양심金養心·언양현감 홍성洪晟 3인의 초시 시관 명단과 저자가 응시하였던 생원시 시험 문제가 적혀 있다. 사서의四書疑는 논어의 ‘오도일이관지吾道一以貫之’, 오경의五經義는 주역의 ‘지세곤地勢坤’에 관한 문제였다. 뒷면 상단에는 일소의 전판서 홍계희와 이소의 전대제학 김양택金陽澤 등 양소 시관 각 5인의 명단이 있는데, 방목에 수록된 감시관은 누락되어 있다. 시관 가운데 홍계희는 ‘홍洪’자에만, 최익남崔益男은 이름 전체에 사각으로 표시하였다. 고문헌에 이름이 사각으로 표시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홍계희는 손자의 정조시해 미수사건에 연루되어 역안에 이름이 올라 방목에도 이름이 사각으로 표기되어 있고, 『서사윤송書社輪誦』의 발문 등 그의 이름에는 먹으로 지워진 흔적이 많다. 최익남은 세손의 사도세자 묘사 참배 건의 장소로 인하여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되었다가 고문으로 죽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단에는 ‘선생반중래문先生泮中來問’ 제하題下에 신상악과 인사하였던 체제공 등 주요 인물 10인의 명단이 있다. 하단에는 회시 이소의 생원시 시제가 있다. 이 일기의 권두에 적힌 시험 정보는 신상악 중심으로 방목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당시 시험관련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일기는 1765년 1월 29일에 53세의 영남 선비 신상악이 회시를 보기 위하여 문경을 출발하면서 시작되어 5월 10일에 임금이 내린 방목을 태학으로부터 받으면서 마무리된다. 일기를 마치고 난 뒤에는 1765년 6월 하한에 일기에 대한 경위와 소회를 적은 저자 발문(0.5장)이 있다.

일기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부분은 문경을 출발하여 서울에 입성하고 시험이 시작되기 이전까지(1월 29일~2월 11일, 13일간, 1장 분량), 두 번째 부분은 시험이 시작되어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합격 후에 서울에 머무를 때까지(2월 12일~윤2월 12일, 30일간, 4장 분량), 세 번째 부분은 서울을 출발하여 인사를 마치고 방목을 받으면서 일기를 마칠 때까지(윤2월 13일~5월 10일, 87일간, 13.5장 분량)이다. 전체 130일 기간에 대하여 일자 순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10일(3월 22일~3월 23일, 3월 25일~29일, 4월 1일~3일)은 일기를 쓰지 않아 누락되어 있고, 4월 22일은 날씨가 생략되어 있다.

발문은 이 일기를 작성한 저자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부모님도 안계시고 또 종부宗婦인 형수의 장례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여기저기를 다닌 것은 영분지행榮墳之行, 외가(성주)와 처모 산소(영천), 고모(안동)를 방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미처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 원근의 사찰과 명승지를 두루 다니지 못한 아쉬움 등을 적고 있다.

일자는 '십이十二'등과 같이 간략하게 숫자만 적은 것이 대부분이며, 간혹 '일日·간지' 등을 붙인 경우도 있다. 날씨는 별도로 적지 않고 간혹 '봉취우逢驟雨'등과 같이 본문에 적는 경우는 있다. 날짜가 바뀌거나 해당 일자에 다른 일을 적을 경우에는 권표(圈標 : '○')로 구분하였고, 달이 바뀌어도 행을 달리하지 않고 이어서 작성하였다. '상上·'교教·'선영先塋' 등과 같이 존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한 칸을 띄우는 공격空格이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다. 시종 동일한 필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권두 시험 정보에 '선생반중래문先生泮中來問'으로 표기한 것으로 미루어 저자의 친필이 아니라 문인이 정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기는 전체적으로 배접이 되어 있고, 본문 일부 열락을 제외하면 훼손 없이 양호하다.

4. 『은유일기』의 내용

각 날짜의 기사는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그날 일어난 일들을 새벽(曉曉)·아침(조朝)·낮(오午)·저녁(석夕) 등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과거 응시의 과정·이동경로·만난 사람 등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조상의 산소를 찾는 영분榮墳 부분에서는 제문 자체를 수록하고 있다. 수록된 주요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과거 응시

이 일기의 작성 목적은 사마시 합격을 스스로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일기의 핵심은 과거 응시 과정과 그 속의 저자이다. 그런 만큼 과거 관련 부분은 응시자의 개인적 시각이며, 다른 일기보다 상세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응시와 관련한 대략의 일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2월 12일: 비천당丕闡堂에서 소학강小學講이 개최됨. 시관은 이의로李宜老, 이적재李碩載, 이장로李長老로 몽점蒙點. 성주의 이민덕李敏德과 서울의 조광집趙光集이 강지講紙를 서로 바꾸어 모두 정거停擧되어 안타까움.
- 2월 13일: 이민덕이 예조에 사정을 하소연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만류하여 그만둠.
- 2월 14일: 종장終場의 고강 순번을 확인하고 신시申時에 강지 확인을 받고, 유시酉時에 순번이 되어 강석講席에 들어가 시관 3원員이 장막帳幕 안에 있고, 대간 1원이 밖에 있는 것을 확인. 서리書吏가 순번을 물어 확인하고 강지를 받아 장막 안의 시관에게 제출. 시관이 강장講章을 적어 내어보내자 대답한 후에 순조純粗의 결과를 강지에 받아 나옴.

- 2월 16일: 저녁에 고강이 끝났는데 떨어진 사람이 백여 명인데, 영남 선비는 7~8인이라는 소식을 들음.
- 2월 20일: 시지試紙의 가격은 1냥 5전이고 진사 윤재덕尹在德에게 부탁함.
- 2월 22일: 윤재덕이 시지를 보내왔는데 품질이 매우 좋음.
- 2월 25일: 시지를 재단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피봉皮封을 써서 타인打印한 후에 녹명단자를 제출.
- 2월 26일: 일소 홍계희, 이소 김양택 등 시관 낙점.
- 2월 27일: 회시 초장: 벽송정碧松亭에 올라 시험장을 보고 밤에 이경에도 미제출자가 있다고 함.
- 2월 28일: 회시 중장: 문경에서 동행한 신광택申光宅, 서울의 최명린崔命麟과 이소 과장에 동좌同坐. 진시辰時에 시제 출제. 신광택에게 글씨를 쓰게 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오시午時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너무 일러 받아 주지 않았고, 미시未時가 되어서야 제출.
- 윤2월 1일: 탕평비 아래에서 출방을 기다림. 진사(신시), 생원(유시) 출방. 생원 장원. 영조가 시권을 본 후에 위격違格으로 발거拔去된 사람이 있음.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축하를 받음.
- 윤2월 2일: 새벽에 반복泮僕이 와서 합격 명단을 보여 주어 어제 삭제된 사람이 홍낙임洪樂任(1741~1801)으로 대체, 영남 출신 양시兩試 합격자 22인을 확인. 진시에 승정원에서 새로 합격한 생진生進에 대한 입시의 명이 있었고, 꺾에 이르자 서리가 신방책자를 들고 사람을 확인함. 이때는 임금의 면시面試가 합격 취소의 폐단이 있어 대과에서 이미 폐지되어 소과에서도 면시 대신으로 임금 앞에서 한사람씩 책읽기를 함. 저자는 여기서 성명과 고향의 물음에 답하고 한 줄 정도 읽고 그침.
- 윤2월 4일: 창방唱榜이 8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주인 최근식에게 창방에 필요한 물품을 부탁함.
- 윤2월 8일: 창방 물품을 구해 왔는데, 복두幅頭 1냥 2전 6푼, 단령團領 6냥 2전 5푼, 교대交帶 1냥 4전, 홍보紅緞 7전 8푼, 흑화黑靴 7전, 이자履子 8전, 모자帽子 2전 5푼, 주사朱絲 2푼 이라고 함.
- 윤2월 8일: 승정전에서 창방례唱榜禮가 거행되었고, 의식과 절차를 상세히 기록함.
- 윤2월 9일: 사은례를 거행. 이조서리 이사룡李思龍이 육항단자六行單子를 적어올림. 사시巳時에 임금에게 사배四拜를 올리고 임금이 술과 황대구를 내림. 중궁전과 세손에게도 절을 올림. 임금 앞에 8인씩 입시하였고, 임금이 성명과 고향을 물음에 답함.
- 윤2월 10일: 알성례가 있었으며, 성균관서리가 방목 1책을 좌중에게 보이며 각기 이름 아래에 일진자一進字를 쓰도록 하였는데 불참자는 30여 명. 대성전 뜰에 들어가 방차 순서대로 서서 하재 유생의 흥배興拜 인도에 따라 사배를 하고 나옴. 이조서리 이사룡이 명함지名銜紙 5장을 써서 사람을 통해 보냈는데 이는 단골 예규임.

신상약은 고강 이전에는 주로 소학을 강송講誦하고, 이후에는 제술 시험을 위하여 사람들

과 의제疑題를 내어 답을 작성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합격자 발표 이후에 거행된 의식은 관찰자 입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만나거나 인사한 사람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2) 이동 경로

이 일기는 일상의 일을 기록한 일기라기보다는 사마시 합격이라는 일로 인하여 회시 응시를 위해 문경을 출발하여 시험에 합격하고, 고향에 돌아와 인사와 영분 거행을 위해 인근 지역을 다닌 후에 방목을 받는 순간까지의 특정 기간의 기록이다. 합격이라는 목표 달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일기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영남 선비 개인 차원의 일정이긴 하지만 이동 경로는 개인 사례를 넘어 과거길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자의 이동 경로는 목적에 따라 상경, 귀향, 인사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문경에서 서울을 오간 이동경로이다.

목적	이동경로	기간	소요일수
上京	本家-馬院-草谷(宿)-鳥嶺-安保(朝飯)-新酒幕(秣馬)-舟月[丹月](宿)-板街(秣馬)-鰲甲(宿)-日新(秣馬)-利川(宿)-滾岩(痘)-暮甘(秣馬)-梨華峴-松坡(秣馬)-入城	1월 29일~ 2월 4일	6일
歸鄉	서울-松坡(朝飯)-景安(秣馬)-滾岩-利川邑內(朝飯)-日新(午, 秣馬)-鰲甲(酒幕宿)-達川(午)-新酒幕(宿)-安保(朝飯)-小鳥嶺(踰)-高山里-鳥嶺-文龜亭-草谷-華封-本家	윤2월 13일~ 윤2월 16	4일

저자는 고향에 돌아왔으나 중부宗婦 홍씨가 별세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한 상황이라 본가를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을 다니면서 영분榮墳과 인사 등을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인근 지역 이외에 집을 떠난 것은 선조의 무덤을 찾는 영분지행, 성주의 외가, 영천의 빙모 창녕조씨 산소, 예안의 고모를 찾아뵙는 목적으로 두 차례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윤2월 27일에 낙동洛東의 산소를 목적지로 집을 나서 상주·함창·가은(문경)을 거쳐 3월 9일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13일간] 이 과정에서 윤2월 30일에는 상주 생물동生物洞에서 6대조비 곡산한씨, 증조고와 증조비 무안박씨의 묘소, 3월 6일에는 문경(가은) 귀동龜洞에서 10대조와 10대조비 순흥안씨, 3월 7일에는 8대조와 8대조비 단양우씨(7대조의 생부)의 무덤을 찾아 제문을 올렸다. 다음으로 4월 6일에 상주의 외가를 찾아 집을 나서 상주, 황간, 금릉을 거쳐 13일에 성주에 도착하여 광대원廣大院의 외조 묘소를 찾아 제문을 올렸다. 16일에는 성주를 출발하여 하빈·칠곡·연경서원을 거쳐 18일에 지묘동의 시조를 모신 표충서원을 찾았다. 19일에는 하양을 출발하여 영천에 이르렀고, 20일에 영천의 빙모 창녕조씨의 무덤을 찾았다. 21일에 영천을 출발하여 은혜사, 신녕, 소곡역, 비안, 심천, 예천 등을 거쳐 27일에 계곡桂谷(안동)에 도착하여 28일에 7대조의 무덤을 찾아 제문을 올렸다. 29일에는 나이 73세의 고모를 찾아 인사하고, 5월 1일부터 도산서원, 안동향교, 병산서원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4일에 집으로 돌아왔다.[28일간] 5월 7일에는 원주原州에 가려고 하였으나 비가 와서 가을로 미루었다.

5. 『은유일기』의 가치

신상악의 『은유일기』는 53세의 나이에 이룬 과거 합격이라는 개인적 영광을 배경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작성된 개인 일기로, 과거(복시)에 응시한 영남 유생의 개인적 시각과 의식이 사실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이다. 이 점이 『은유일기』가 가치를 가지는 주된 이유다. 과거와 관련한 개인 기록으로 전하는 문헌이 적고 소략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저자는 이 일기에서 문경을 출발하여 합격 후에 고향에 돌아와 인사와 영분을 다닌 130일간의 기록을 일자별로 아침·점심·저녁·밤이라는 시간 순서에 따라 만난 사람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적고 있으며, 특히 과거와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고강의 절차, 합격 후에 이루어지는 창방례 등 과거 관련 의식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다음으로 영남 지역이면서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은 문경에 거주한 한 선비인 신상악이 남긴 거의 유일한 문헌이라는 점도 이 책을 가치 있게 한다. 그에 관한 문헌은 가계도인 족보와 합격자 명부인 방목 정도이다. 신상악은 한 시대를 운영했다고 할 수 있는 생원 자격을 갖춘 사족(士族)이라는 특별한 계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서 흔적을 찾기 어려운 평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하지만 평범한, 잊혀진 인물인 신상악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남기고자 했던 사마시 합격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을 이 일기를 통하여 남겼고, 지금은 계명대 동산도서관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기를 통하여, 작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누구의 후손으로 문경에 살았으며 1765년에 생원시에 합격했다'는 간략한 정보에 더하여 130일 간의 기록과 말미에 남긴 저자의 발문을 통하여 생생하고 풍부한 삶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경훈】

참고문헌

- 신상악 지음, 『은유일기』(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 최은주, 2012. 「恩遊日記 해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선본 고서 해제집 3』, 165-169쪽.

수사록

隨槎錄

제목 표제: 隨槎錄, 권수제: 없음
저자 노이점 盧以漸(1720 ~ 1788)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780년(정조 4)
형태사항 1책(84장) / 선장(5침) / 사주무변, 무계, 무어미 /
13행 24~25자 / 32.5×21.3cm
소장자 경북대학교
보관장소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至平山止宿

六月

初一日晴朝飯後離棧到某處... 初二日晴朝飯後... 初三日晴晨... 及第前...

初四日晴... 初五日晴... 初六日晴... 初七日晴... 初八日晴... 初九日晴... 初十日晴...

至平山止宿

初六日晴... 初七日晴... 初八日晴... 初九日晴... 初十日晴...

初十日晴... 初十一日晴... 初十二日晴... 初十三日晴... 初十四日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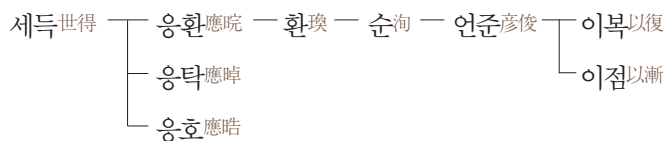
1. 개요

『수사록』은 전형적인 연행록(燕行錄)이다. 1780년 5월 25일 서울을 출발하여 연경(燕京)에 갔다가, 10월 27일 서울에 돌아올 때까지, 모두 140일치 기록이다. 매번 날짜와 날씨를 적고 나서, 그날 있었던 일과 생각과 느낌을 기록했다. 출발한 때와 경유하고 쉬고 점심을 먹은 곳을 꼼꼼하게 적었으며, 그날 몇 십리를 갔는지도 기록했다. 또 보고 들은 일과 만난 사람들, 산천과 고적, 때로는 숙박했던 집의 규모, 주민들의 옷차림 등도 상세하게 적었다. 한 달 반 남짓, 연경(북경)에 체류한 기간에는 관광한 기록이 많고, 그곳 인물과 필담(筆談)한 내용을 그대로 적었다. 서둘러 오는 길의 기록은 매우 간략하다. 함께 갔던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와 함께 읽으면 더욱 흥미롭다.

1980년대 초에 경북대학교 남권희 교수(문헌정보학과)가 공주의 노씨 문중에서 이 자료를 찾아냈고, 1997년부터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남 교수는 1995년 연구논문에서 이 자료를 세상에 알렸다. 이 필사본은 희귀한 자료인데 종이마저 낡아서, 연구자들이 열람하기 어려웠다. 당시 경북대 사학과 교수였던 필자가 원문의 활자화 작업을 맡아서 1999년에 끝냈다. 번역본은 2015년에 나왔다.

2. 저자의 생애

노이점은 충청도 공주(公州) 사람으로, 1720년(숙종 46)에 태어나 1788년(정조 12)에 죽었다. 향년 69세. 본관은 전라도 만경(萬頃)이고, 자(字)는 사홍(士鴻), 호는 추산(楸山)이다.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무과(武科) 출신인 노언준(盧彦駿)이고, 이복(以復)은 그의 적형(嫡兄)이다. 즉 이점(以漸)은 서자(庶子)였다. 친척 형인 이형(以亨)에게 글을 배웠고, 37세였던 1756년(영조 32) 진사(進士)에 합격했다. 그의 고조부 응환(應暄)은 두 아우와 함께 스승 조헌(趙憲)을 따라 의병으로 활동하고, 금산(鎭山) 전투에도 참가하여, ‘삼의사(三義士)’로 알려졌다. 위로 5대의 가계는 다음과 같다. (부친 이름의 ‘준’자가 방목에는 駿, 족보에는 俊으로 나온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노이점은 1769년(영조 45) 12월 2일 부사용(副司勇)(종9품)에 임명되었다. 1775년(영조 51) 2월에는 전옥서(典獄署) 참봉(종9품)이었고, 같은 해 5월 5일 한성부 서부(西部) 봉사(奉事)(종8품)에 임명되었다가, 6월 29일에 해임되었다. 모두 낮은 벼슬이었고, 이후에는 벼슬한 기록이 없다. 61세였던 1780년, 연행사(燕行使)에는 군관(軍官) 즉 비장(裨將)으로 따라갔다. 『만경노씨세보(萬頃盧氏世譜)』에는 그가 시에 뛰어났고 유고(遺稿) 21권을 남겼다고 했는데, 지금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그가 동부승지(정3품)와 영월부사를 지냈다는 후대의 서술은 착오인 것 같다.

3. 『수사록』의 구성과 체제

능화(菱花) 무늬 표지에 책 제목을 쓰고, 다섯 군데를 뚫어 끈으로 묶었다. 본문 첫머리에 제목을 쓰는 권수제(卷首題)가 없고, 바로 ‘경자(庚子) 오월(五月)’이라고 적었다. 군데군데 글자를 수정하고, 이따금 본문 상단이나 중간에 작은 글씨로 설명을 덧붙였다. 먹물이 번져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곳이 가끔 나온다. 첫 쪽 하단에 네모꼴 도장이 찍혔으나, 너무 흐려서 글자를 판독할 수 없다. 여행할 때 매일 초고를 만들었다가, 귀국한 뒤에 새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서울 출발에서 연경 도착까지의 기록으로, 1쪽(5월 25일)부터 72쪽(8월 1일)까지다. 날짜로는 46%, 분량은 45%를 차지한다. 쪽수 표시는 원래 없는 것을 편의상 붙였다. 둘째는 연경에 체류한 기간으로, 72쪽부터 133쪽(9월 17일)까지다. 날짜로 34%, 분량은 39%이다. 셋째는 귀국하는 도중의 기록으로, 133쪽부터 158쪽(10월 27일)까지다. 날짜로 20%, 분량은 16%이다. 연경까지 가는 도중과 연경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처음 보고 듣고 겪은 것이 많아서 기록도 많았다. 돌아 올 때는 이미 본 것들이라 기록도 적었다.

일기 뒤에 자료 넷을 부록했다. (1) ‘자의주지연경로정기(自義州至燕京路程記)’(159~164쪽)는 이정표(里程表)로서, 의주에서 연경까지 지명들을 열거하고, 각각 거리를 적었다. 3년 전인 1777년(정조 1) 동지사(冬至使)의 『연행기사(燕行記事)』에 실린 ‘노정기(路程記)’와 같다. (2) ‘여박참사서(與博詹事書)’(164~166쪽)는 그가 연경에서 필담으로 사귀 박명(博明)에게 보낸 편지이다. (3) ‘서관문답서(西館問答序)’(166~168쪽)는 박지원(朴趾源)에 대한 그의 칭송이다. (4) ‘반선시말(班禪始末)’이라는 글은 168쪽에 앞부분 5줄만 살려있다. 서장(西藏)의 승려 판첸라마에 관한 것으로, 『열하일기』에 실린 ‘반선시말’과 비슷하다.

4. 『수사록』의 내용

1) 1780년 성절사

조선왕조는 매년 중국에 조공 사절을 보냈는데, 동지사(冬至使), 정조사(正朝使), 성절사(聖節使)는 필수였다. 동지는 양력설, 정조는 음력설인데, 동지사가 계속 머물다가, 예물을 다시 바쳤다. 성절사는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인데, 이때는 청나라 건륭(乾隆) 황제의 70세 생일 축하였고, 명목상 사은사(謝恩使)를 겸했다. 지난 해 연경에 갔던 동지사 일행이 숙소(납관)에서 화재를 냈는데, 황제가 용서해주어 감사하는 뜻이었다. 연행사는 매번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행원들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연행록도 많다.

2) 연행사의 구성

삼사^{三使}는 정사^{正使} 박명원^{朴明源}, 부사^{副使} 정원시^{鄭元始}, 서장관^{書狀官} 조정진^{趙鼎鎭}이고, 비장^{裨將} 박래원^{朴來源}, 정창후^{鄭昌後}, 노이점^{盧以漸} 등과 어의^{御醫} 변관해^{卞觀海}, 역관^{譯官} 홍명복^{洪命福} 조명회^{趙明會} 조달동^{趙達東} 등 여럿이 수행했다. 박명원은 영조의 부마로서, 4년 전에도 정사로 연경에 다녀왔다. 박지원은 그의 8촌 아우였다. 그 밖에 말 관리와 짐 운반, 음식 준비 등 여러 가지 잡역을 맡은 하인들이 일행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노이점은 압록강을 건넌 사람이 270명, 말이 194필이라고 기록했다. 일부는 사행을 책문^{柵門}까지 호송하고 의주로 돌아갔다.

3) 서울에서 의주까지

일기의 내용은 대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5월 25일 서울을 출발하여, 6월 15일 의주에 도착하여 23일까지 머문 기록인데, 내용이 간략하다. 어디서 쉬고, 어디서 점심을 먹고, 어디서 잤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경치, 날씨, 만난 사람들도 가끔 적었다. 장마로 갈 길이 막혀 의주에 옛새 머물면서 이곳저곳 둘러보았다. 국내에서 한 달을 보낸 셈이다.

4) 압록강에서 심양까지

둘째 부분은 5월 24일 압록강을 건너서, 7월 10일 심양^{瀋陽}에 도착하는 대목이다. 거리는 6백리, 날짜로는 보름 남짓. 범람한 압록강을 건너고, 사흘 동안 진흙길을 헤쳐가고 빗속에서 노숙하느라 고생이 극심했다. 27일 책문에 도착해서 입국 절차를 밟고, 봉황성^{鳳凰城}에 들어가 머물렀다. 처음 보는 광경이 신기한 듯, 주택의 규모와 세간, 주민들의 복장과 머리 모양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 심양까지는 첩첩산중이었다가, 요양에 이르자 넓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다. 안시성^{安市城}, 태자하^{太子河}, 왕상령^{王祥嶺}을 지날 때는 양만춘과 당태종, 연나라 태자, 효자 왕상을 각각 떠올렸다.

심양에서 이틀 동안, 노이점은 성 안팎과 주변을 둘러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드넓은 요동 벌판은 끝이 보이지 않아서 기가 질렸다. 성문들은 3층으로 웅장했고, 안팎으로 점포들이 늘어섰는데, 규모도 크고, 각종 비단과 주옥 등이 눈부셨다. 궁궐과 관청 건물도 장관이었다. 성 밖에서는 백탑^{白塔}과 영안교^{永安橋} 등도 보았다. 일기에는 조선 사행을 호송하는 청나라 군관과 통역 등이 이따금 등장한다. 호송대는 사행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움직여서, 서로 어울린 적이 드물었다.

5) 심양에서 연경까지

셋째는 7월 12일 심양을 출발해서 8월 1일 북경에 도착하는 부분이다. 거리는 1,400리, 날짜는 20일이다. 길이 평탄하여, 하루에 평균 70리를 갔다. 19일에 머물렀던 영원위^{寧遠衛}는 명나라의 요충^{要衝}이었고, 노이점은 명나라 멸망에 관한 상념을 많이 적었다. 22일에는 육도하^{六渡河}를 건너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고, 23일에는 강녀묘^{姜女墓}에 들러 망부석^{望夫石}을 읊었으며, 높은 장대^{將臺}에서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자, 감정이 격앙되었다. 이날 마침내 산해관에 도착했다.

산해관은 만주족의 중원^{中原} 침공을 막는 요새였던 만큼, 노이점은 여기서 명나라가 망하

는 과정을 곱씹었다. 7월 26일에는 수양산^{首陽山}을 지나다가 청성묘^{淸聖廟}에 참배하고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의 충절을 기렸다. 28일에 지나던 고려보^{高麗堡}는 조선족 포도들이 대대로 살던 곳인데, 벼농사를 짓고, 떡을 만들고, 벼짚으로 지붕을 이었다. 8월 1일, 백하^{白河}를 지나다가, 규모가 매우 크고 사치를 다한 선박에 들어가서 감탄하며 구경했다. 통주^{通州}를 거쳐서 동악묘^{東嶽廟}에 들렀다가, 마침내 수도 연경에 도착한다.

6) 연경 체류

일기의 넷째 부분은 8월 1일에 북경에 도착해서 9월 16일까지 머물러 있던 기간이다. 8월 5일, 사신들은 일행을 74명으로 줄여서 열하^{熱河}로 갔다. 건륭황제는 그곳 별궁에 머물고, 생일은 13일이었다. 이때 박지원(44세)은 열하에 가고, 노이점은 북경에 남았다. 8월에는 대개 관광으로 소일했다. 황제는 9월 5일에 자금성으로 돌아왔다. 10일에 조선 상인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교역^{交易}하고, 15일에 황제의 하사품을 받고 하직 인사를 드렸다. 16일 예부와 광록시^{光祿寺}에서 각각 베푸는 잔치로 북경에서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다.

노이점은 북경에서 새로운 체험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여행록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관광 명소로는 자금성^{紫禁城}, 국자감과 옹화궁^{雍和宮}, 태액지^{太液池}와 오룡정^{五龍亭}, 상방^{象房}(코끼리 사육장), 유리창^{琉璃廠}(시장), 천주당, 법장사 백담 등을 보았다. 전해들은 정보도 일기에 많이 기록했다. 북경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목격했다. 도시는 청결하고 오물이 없으며, 환락가나 도둑도 없다. 물은 부족하지만, 식료품이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서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놀고먹는 사람이 없다.

7) 필담으로 사귀

동행한 역관(주부) 조명회의 소개로, 노이점은 한림^{翰林} 출신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郎} 박명^{博明}을 만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8월 10일과 22일, 두 차례 만나서 필담을 나누었다. 주로 노이점이 묻고, 박명이 대답하는 방식이었다. 또 그는 자신이 지은 시를 주었고, 여기에 화답하는 시를 받고 싶었다. 문답한 기록은 일기에 그대로 적었다. 그는 시와 편지를 두 차례(8.14 및 9.1) 박명에게 보냈다. 편지는 보낸 날 일기(9.1)와 부록에 각각 실려 있다. 박명의 화답하는 시나 답장은 끝내 받지 못했다.

8월 10일 필담은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 탐색하는 단계였다. 주로 노이점이 묻고, 박명이 대답했다. 성리학의 정주^{程朱}와 육왕^{陸王} 두 학파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았다. 역대의 문장에 관해서도 당송 팔대가^{八代家}를 중심으로 논의가 많았다. 과거의 시험과목과 문체^{文體}, 교육제도, 선현들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문답했다. 그 밖에 지명 등 사소한 주제들도 있었다. 박명은 노이점의 나이와 관직,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문체와 문체를 물었다. 동행 여럿이 두 사람의 필담을 구경했고, 의관 변관해는 의학 서적에 관해서 물었다.

8월 22일 필담의 큰 주제는 성리학과 문장이었다. 그는 작은 주제들을 논의한 다음, 박명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심^心과 성^性과 이^理의 관계를 말하면서, 4서와 5경을 대충 훑었다. 또 송나라

의 성리학자들을 평가하고, 명과 청의 성리학에 대해서도 물었다. 문장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다. '당송 팔대가'를 품평하고, 명과 청나라의 문장을 논의했다. 박명이 얼핏 지적했듯이, 이들에 대한 평가는 오랜 정론(定論)이 있었다. 박지원은 처음에 참석했다가 일찌감치 자리를 떴다. 노이점과 후손에게는 필담이 큰 자랑거리였다.

8) 연경에서 서울까지

일행은 9월 17일 연경을 출발하여, 10월 27일 서울에 돌아온다. 갈 때는 65일, 올 때는 51일 걸렸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일행은 길을 서둘렀다. 관광 명소는 갈 때 이미 보았고, 몇 군데만 잠시 들렀다. 일기의 내용도 일정이 대부분이고, 가끔 산천과 풍광, 사람들과 풍습을 적었다. 10월 20일 드디어 압록강을 건너서, 오후 늦게 의주에 도착했다. 한 끼만 먹고 바로 출발했고, 평양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햇불로 밤길을 밝히며 강행군하기를 여러 날. 마침내 10월 27일 밤늦게 서울 집에 도착한다.

5. 『수사록』의 가치

『수사록』은 흔한 중국 여행기가 아니라, 좀 희귀한 자료이다. 이 여행록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조선 지식인이 중국 여행길에서 보고 느낀 바를 진솔하게 보여준다. 노이점은 박지원과 같은 일행이지만, 연배와 처지와 인식은 매우 달랐다. 이 자료는 늙고 고지식한 선비의 증언을 제공한다. 이 여행록은 2백 년 동안 망각 속에 묻혔다가, 근래에야 빛을 보았다. 1990년대에 세상에 알려지고 활자화되었고, 2002년에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고, 2015년에 번역본이 간행되었다. 앞으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일기는 청나라의 모습과 함께, 기록자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노이점의 자화상이다. 소중화(小中華)를 신봉하는 노이점의 인식은 북학(北學)을 주장하는 박지원 등과 다르다. 여행록 연구가 오랫동안 북학과 쪽에 편중된 것은 근대화 패러다임이 유행한 결과였다. 최근에는 연구의 시각이 다양해졌다. 노이점은 춘추대의를 고수하는 보수적 선비였고, 『수사록』은 오히려 일반 지식인의 세계관을 대변한다. 이 여행록은 보수적 인식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권연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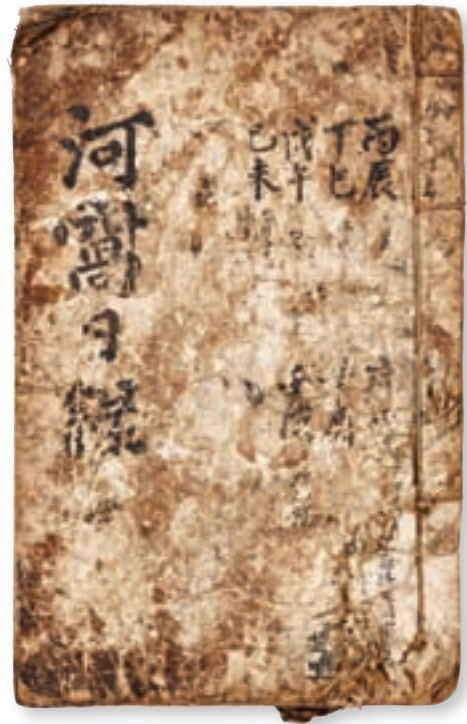
참고문헌

- 남권희, 「새로 발견된 노이점의 『수사록』에 대한 서지적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 23집 (1995년 겨울호).
- 권연웅, 「노이점의 『수사록』: 해제 및 원문 표점」 『경북사학』 제22집 (1999).
- 김동석, 「『수사록』 연구 - 『열하일기』와 비교의 관점에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노이점 지음, 김동석 옮김, 『『열하일기』와 만남 그리고 엇갈림, 『수사록隨槎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하와일록

河窩日錄

제목 표제: 河窩日錄, 권수제: 日記
 저자 류의목 柳懿睦(1785~1833)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796~1802(정조 20~순조 2)
 형태사항 1책(44장) / 선장(5침) / 무계, 무어미 / 사주무변 /
 16행 자수부정 / 크기 32.5×20.5cm
 소장자 화회류씨 화경당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中中作及... 性... 痛... 以... 幸... 所... 片... 在...

任執綱... 足...

奉神... 容月辭... 仰即拜...

此... 日... 記... 丹... 之...

這... 而... 來... 天... 地... 易...

此... 日... 記... 丹... 之...

1. 개요

『하와일록(河窩日錄)』은 류의목이 1796년 1월부터 1802년 12월까지 7년간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일기이다. 일상의 작은 일을 경험한 것으로부터 국가의 큰 사건까지 매우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기에는 집안의 관혼상제로부터 조정의 고관과 임금에 관한 직간접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기가 쓰여진 시기는 저자가 공부에 집중할 시기였기 때문이었는지 독서와 토론 그리고 작문에 대한 기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저자의 생애

류의목은 풍산 류씨(豊山柳氏) 겸암파(謙巖派) 22세손으로 자가 이호(彝好)이고 호는 수헌(守軒)이다. 부친 류선조(柳善祚)와 모친 광산김씨(光山金氏)사이에서 3남 1녀의 장남으로 1785년(정조 9년) 11월 4일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허약하여 잔병을 많이 앓았으며, 결국 류의목의 나이 15세(1799년)에 죽고 조부인 월오공(月梧公) 류일춘(柳一春)의 엄격한 훈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성리학에 관심을 보인 그는 임술년 즉 1802년 문소(聞韶) 김씨 재화(在華)의 딸과 결혼하여 장녀를 얻지만, 불행하게도 첫째 부인은 27세의 나이로 죽는다. 18세(1802)부터 류이좌(柳台佐)의 학문적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세(1804년)에는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에게 수학한 기록이 보인다. 30세 중반에 아주신씨(鵝州申氏)의 둘째 부인을 맞이하여 1820년 장남 도원(道元)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 류의목은 남촌(南村) 삼봉(三峯)아래 거연재(居然齋)와 우애헌(偶愛軒)을 짓고 독서하는 삶을 살 아간 듯하며 당시 안동부사인 조정화(趙鼎和)와 안광직(安光直) 등의 칭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대학의의(大學疑義)』와 『중용관(中庸管)』이 있으며, 특히 예설(禮說)에 뛰어나 『상례고증(喪禮考證)』¹책이 있었으나 화재로 손실되고 4책의 유고(遺稿)만 전해진다. 겸암정사(謙巖精舍)에서 무리하게 책을 읽다가 병을 얻어 1833년 3월 20일 49세의 나이로 죽었으며, 8월 11일 덕동(德洞)에 묻혔다. 그의 문집은 증손 류정우(柳廷佑)가 편집하여 『수헌선생문집(守軒先生文集)』 8권으로 1937년에 간행되었다.

3. 『하와일록』의 구성과 체제

일기는 전체 4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면은 16행으로 적혀 있고, 한 행의 글자 수는 일정하지 않다. 주석은 하나의 행에 두 줄로 달려 있다. 서문에 따르면 1806년 즉 류의목의 나이 22세 중추(中秋)에 쓴 것으로 자서되어 있다.

¹ 박세욱 작성,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 해제를 참고하였다.

일기의 형식은 월일의 간지와 날씨를 쓰고 본문을 기록하였다. 일기는 179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1802년 12월 29일에 끝난다. 일기의 내용에는 『점필재집』, 『대학연의』, 『맹자』, 『학사집』 등 읽은 책도 기록되어 있다. 1802년 12월 29일 홍문관수찬으로 있던 숙부가 홍문관부교리로 승진되어 서울로 올라갔다는 내용으로 일기는 끝나고 있다.

4. 『하와일록』의 내용

일기의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한 일기의 정의가 될 만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일기를 쓰는 이유에 대해 류의목은 "다양한 과거의 사실들을 모두 기록해 놓음으로써 나이가 들어 한가할 때에 가끔 펼쳐보면서 '이때는 풍년이 들었지. 저때는 흉년이 들었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또 만약 벼슬을 받고 사양하는 행동과 시비是非를 언론言論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더욱 상세히 기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하면 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중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점이 있을 것이다."²라고 일기의 맨 앞에 적고 있다.

일기의 내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796년은 1월 1일에서 2월 25일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일기의 주요 내용은 집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행차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왕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월 24일에는 동생 용수龍壽가 태어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797년은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주로 일상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록하지 않은 날도 많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월 2일에 부친이 병으로 누웠는데 5일에는 병세가 더욱 고통스러웠으며 그 때문에 아침과 저녁밥을 줄였다고 한다. 이에 의원이 와서 맥을 짚어보았으며 다음날 바로 약을 한 첩 사용한다. 7일에도 한 첩 사용하였으며 부친의 지인들이 내방하였다. 하지만 2월에 바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아서는 곧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의 일기에는 친인척들의 잦은 방문이 이어졌는데 누가 언제 와서 언제 돌아갔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다. 특히 할아버지의 출타와 복귀에 관련된 내용이 자주 보인다.

1798년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0일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 먼저 부친의 병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월 초부터 부친이 병 때문에 고생한다. 이후 여러 날 동안 병이 심해지고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24일에 부친이 처음으로 약을 복용하지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3월 11일에는 식사량이 줄어들고 다음날에는 피를 토하는 내용이 보인다. 7월에 들어가서 부친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고 그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많아진다. 10월에 부친의 병세는 좀 뜸하다가 각혈을 시작하며 악화되었고 의원들의 진찰이 이어진다.

이 해에는 또 류의목의 어린시절의 공부와 관련된 내용이 자주 기록되어 있다. 소학을 강통講通하는 기록을 시작으로 병산서원에 들어가서 소학을 강講하는데 참가하기도 하였다. 3월

2 “日時悉無遺漏，而至於氣候之晴陰風雨之多小，亦備錄之，欲於晚暮優閑之暇，以時披閱，曰某年有豐登之瑞，某年有凶歉之災，豈不善乎，若其辭受動靜之際，言論是非之間，尤不得不詳記，而該錄之，庶或有補於治心勸躬之道之萬一云。”

13일에는 『시경』의 진풍을 읽었고 「이소(離騷)」도 읽는 장면이 보인다. 8월에 들어가서는 조상들의 문집까지 본다. 9월 들어 조부의 교육적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11월에는 『서경』을 읽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류의목의 교육에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조부는 일기의 처음부터 외부 활동이 많은 인물로 등장한다. 병산서원을 자주 왕래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왕성한 외부활동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월 27일에 조부는 마곡서원(磨谷書院)의 도유사(都有司)가 된다. 조부의 명성은 쌍절묘(雙節廟)의 도유사(都有司)에 추천될 정도였고, 12월에는 송사(訟事)까지 원만하게 해결하는 실력을 보인다. 이러한 조부의 활발하고 지도적인 활동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이외에도 관혼상제에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일상적인 내용 이외에도 특이한 사건이 두 가지 보인다. 2월 21일에 발생한 지진과 7월 27일의 호랑이 출몰과 관련된 기사이다. 지진의 강도는 지붕의 기왓장이 모두 떨어질 정도였다고 표현하였는데 진도가 얼마정도 인지는 현대적 기술로 복원하면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랑이를 길에서 만났는데 기가 죽어서 감히 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하였다. 백 여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가니 호랑이가 이내 서서히 산골짜기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랑이의 출몰과 관련된 내용은 1802년에 일기에도 보인다.

1799년은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1월에는 집안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인물들의 초상들이 유독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친의 병과 고통은 더욱 심해진다. 이 때문에 점술사에 의지하는 모습도 보인다. 유행성 감기와 각종 병들로 인해 근처의 마을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2월 3일에는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의 죽음 소식을 듣고, 청나라 건륭제(乾隆帝)의 죽음도 전해 듣는다. 돌립병의 희생자가 많아지자 이를 둘러싼 유언비어들이 떠돈다. 괴질까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방약으로 소고기 좋다고 하여 한때 소가 많이 도살당한다. 류의목이 살던 지역에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호인(胡人)이 병의 원인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3월에도 부친의 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고 더욱 위중해지면서 문진과 문병이 이어진다. 4월 이후부터 부친의 병세에 특이할 만한 증세가 없었고, 5월의 기록 또한 일상적인 내용이다. 6월 15일에는 부친의 병 때문에 굶을 하는 기록이 보인다. 류의목도 18일에 돌립병에 걸렸다. 9월의 일기 내용도 부친의 병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병, 약 처방, 치료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0월 5일 부친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내용이 처절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3년 동안 간호를 해온 어머니는 무엇으로 위로받을지 걱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1800년은 류의목의 공부가 많이 진척된 해가 된 것처럼 보인다. 사서(四書)와 각종 논문류의 글들을 읽기 시작한다. 1월에는 부친의 죽음과 그에 따른 여과 때문이었는지 류의목과 그의 어머니, 할아버지 모두 건강이 좋지 못하다. 2월이 시작되면서 할아버지는 공적인 일에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건강이 회복된 것 같다. 류성룡(柳成龍)의 연보를 읽었고 사마천(司馬遷)의 「담임안서(答任安書)」, 유향(劉向)의 「논산릉서(論山陵書)」를 읽는다. 3월에는 소식(蘇軾)의 「만언소(萬言疏)」를 읽었다. 4월은

『점필재문집(佔畢齋文集)』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돌림병 때문에 모친과 두 동생 그리고 자신까지 병이 들었다. 4월과 5월에 들어서서는 글을 지어 평가 받는 일이 많아졌다.

7월은 정조대왕의 죽음으로 전국이 국상의 예를 갖추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정조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와 순조의 등극에 대한 자세한 경위가 정리되어 있다. 류의목은 이 시기에 『대학』과 『논어』를 다시 읽으며 7월을 보낸다. 9월에도 류의목은 『논어』를 읽고 있다. 10월은 국상으로 부친의 제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당시 류의목은 『대학』과 『중용』을 송독하고 있다. 11월에는 『중용』을 송독하며 『맹자』를 읽고 있다. 12월에는 『맹자』를 계속 읽고 있으며, 집안 아이들의 수학 태도에 대한 어른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 연말에는 『맹자』를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새해를 맞이한다.

180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1월에는 『맹자』 읽기를 끝마치고 『논어』를 읽는다. 2월에도 여전히 『논어』를 읽고 있다. 15일의 기록은 일기 중에서 많은 분량으로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음미하고 있다. 『서경』을 잠시 읽다가 다시 『논어』 읽기를 계속한다. 그리고 「선진(先進)편의 한 구절에서 받은 감흥이 나타나고 있다. 3월이 되면서 서학(西學) 세력의 흥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후 독서는 『중용』으로 바꾸어 읽고 『대학』을 읽은 다음에 「이소(離騷)」를 읽는다. 그리고 육신(六臣)의 전기(傳記)를 읽는다. 이어서 두보(杜甫)의 「북정(北征)」시를 읽고 4월에는 성리학에 심취하고 작문(作文)하는 일이 많아진다.

6월에 서학(西學) 무리의 활동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길함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며, 7월에는 은언군(恩彦君) 이인(李裨)이 사사된 일이 기록되어 있다. 9월에도 8월에 이어서 『서경』을 꾸준히 읽고 있다. 『출재집(拙齋集)』을 보기도 한다. 10월에는 『서경』 읽기를 마치고 『시경』을 읽기 시작하며 독서의 깊이가 더해져서 심도 있는 논의들이 기록된다. 12월 25일에는 담사(潭祀)를 지내고 조부에게 「성학십도」를 받는다.

일기의 마지막 해인 1802년은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일기는 관례와 혼례를 올리는 내용과 공부에 집중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1월은 『시경』을 토론하며 시작된다. 도연서원(道淵書院)과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서 채제공이 탈향(奪享)되고 비석을 부숴버린 일이 심각하게 표현되어 있다. 『서경』을 계속 읽으면서 혼례의 절차가 진행되는 모습이 보인다. 2월에도 『시경』을 계속 읽으며, 집안에 내려오는 『역대보감(歷代寶鑑)』을 교감하고 보충하여 『야감(野鑑)』이라는 책을 찬술하기 시작한다. 『고문진보후집』을 읽으며 2월을 마감한다.

3월에는 『학사집(鶴沙集)』을 보며 『야감(野鑑)』 편집에 집중하고 있다. 11일에 류의목은 관례를 치르고 15일에 초행(醮行)길에 오르며 처가인 해저(海底)로 간다. 이후 처갓집 인물들과의 만남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다. 이러한 일정 속에서도 글을 짓고 평가받는 일이 많아진다. 4월은 제문(祭文), 부賦 등과 같은 글쓰는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학봉집(鶴峯集)』과 『금옹집(錦翁集)』을 접한 기록들이 이어진다. 5월의 기록에는 혼사로 인하여 학문의 경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제산집(霽山集)』, 『구사당집(九思堂集)』, 『청강집(淸江集)』, 『시화소총(詩話笑叢)』 등과 같은 책을 접했다. 7월에는 입암(立岩) 류중영(柳仲郢)의 제사에 참석하여 「적벽가(赤壁歌)」를 지은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8월에는 순제(巡題)에 답하는 등 학업의 진취 정도를 묻는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다. 『대학연의(大學衍

義』를 읽으면서 9월을 시작한다. 『논어』를 다시 읽으며 시문을 짓는 일상이 이어진다. 10월 들어서 『예기禮記』를 읽기 시작한다. 11월에도 『예기』를 계속 읽고 있으며 편지의 왕래 또한 이어진다. 특히 30일에는 류이좌에 의해 『상서』를 통해 글쓰기의 결함을 바로잡으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12월에는 『좌전左傳』을 읽는다.

5. 『하와일록』의 가치

이 일기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약 7년에 해당하는 시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영남 지방의 생활상을 자세하게 읽어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와 인명을 바탕으로 상호 연결된 친인척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결혼과 관련해서 가계가 변화해가는 모습도 읽어낼 수 있다.

천연두와 유행성 감기, 괴질 그리고 각종 질병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확산되고 피해를 끼쳤는지 그리고 각종 병에 따른 증상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시에 취한 처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후 어떤 과정으로 병이 없어지게 되었는지 등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특히 류의목의 아버지 한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과 처방은 좋은 사례로서 주목된다.

당시 행해졌던 관혼상제의 다양한 내용을 통하여 현재는 없어졌거나 규모가 축소되고 변경된 의식과 절차 등의 모습을 좀 더 온전하게 구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기에 기록된 지진의 발생과 같은 사건은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충분히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발생한 지진의 피해상황인 지붕의 기와가 모두 떨어졌다는 기사를 가지고 현대적 기술을 적용하면 지진의 강도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반집안의 자제가 어린 시절 사용한 학습교재와 진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당시에 사용된 학습내용과 교육과정 등을 체계화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류의목이 시기별로 보았던 책들을 정리해보면 전통적으로 전해내려 오면서 보았던 책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책들이 무엇인지도 드러날 것이다. 또한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책들을 어떤 순서대로 공부했는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김남중】

참고문헌

- 박세욱,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 해제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해제

봉강영당영건일기

鳳岡影堂營建日記

제목 표제 : 鳳岡影堂營建日記, 권수제 : 鳳岡影堂營建日記
 저자 미상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805년~1867년(순조 5~고종 4)
 형태사항 1책(27장) / 선장(5침) / 사주무변, 무계, 무어미 /
 10행 27자 내외 / 31.2×20.5cm
 소장자 안동권씨 동정공파 화원군중종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一日消吉仰告伏惟會尊前一日吉臨以爲敬事之地七克作甚云仍
讀古今善形奉陪行條文當以爲之輝其中無故人自定送可也
二五日晴全德教全炳林律行進社後律清標法隨多爲四區大者反
百餘者一也方大地地厚賦土富登善地堂下

二十七日晴午後休生及未借珠數十餘員入廟祀謝仍焚香其由其文曰
於惟我出開世英豪踏浪了筆春春其前出字見識故明各神鑑維其辨
傑于卑鮮南不有材其有與同升位通輝字涉波元我出任會時侯其
侯橫設諸暗契輪船秋多沈坤 床社以費凱旋歡歡 花堂臨臨三子
鬼數十行官章 敬恭禮禮開列水陳威 且願分進雲林園判之
制公所不官所不官所不之使惟使士若倘獲拾管後免使一

軍川故府論說尺籍于天既既坤地變印爲報全屬保澤斯其爲大聖可
社德公管私信神齊作實兒難好婚拜之間有翼明宮遠保在堂百世
吳鳳歷歷過久廣漢或爲尊慈孫傷歡夫意圖遠定得一區太白之淫詢
謀既同得下允誠宜仍深崇山水福期精靈效及如地得泉惟其所至本
忠斯人將事移奉敬設此誠如奉監使既起所製也請去畢告其詳
仍形形世廟于禮形與書奉于禮真合能扁顯殿數十餘餘善地之區於
是均矣

二十九月晴而風午時驟行自 左右差送陪之權方共無帶 建十十
餘名合括未傳行到燕危院中火又行到竟泉路止高解去已掃掃文
侍天依例供位口列星之行而委應歡空若今舊行次東矣所感榮

暮之心上下無同故以此進并皆打之出倫盤假公合 店人君子名供儀
雖行或以爲過激任好列進甚佳權法以此便是公行不可越性且其亦
某即是公所約進之地直道大校中於是行所故有吏及男女老幼填
街未觀實空二殿皆皆唯相顧道之多列拜于膝下者可見公德之入心也
二月十日晴而暮雪食復乘抵道可后中大所到境上官官先已未付
所隨行的先令指老姑古留置五次于前將四名騎驢驢驢
信皆隨進陸行數十員所隨而行其所安開在將於喧嘩報端之
秋然一行人馬不下四五十所留之地康費不勤云運演院保李廣全
運奉昌全在此然全及本德李世露世調調諸員備備調叙接之暖
并前禮而進夕抵風城官作不可進止宿

初一日晴行過法邑美必教美鋼美鑄樂內校哩美堂法書美舞美
鏡美鋼美澤美源元諸美否已鋪運放因件于於三碑并而進到志與
于倉社備迎候神未伴已數日夫權教新新東新新新新新新新新新
美及全仍學少與因權善及相及道及數九酒香酒權世德必
值金地善始始均均均均均均均均均均均均均均均均均均均均均
願求任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全
十仍隨船而來使之權安于廟內

初十日晴而風如前所司日所司已爲前朝未新相謝濟錄供客之費
酒監金酌銀版有司金酒錫美藍李龍和携有權權權權權權權權權
司金世林金齊雁李錫基洪起元權鼓寺各執其事而五日數實有

1. 개요

『봉강영당영건일기鳳岡影堂營建日記』는 영당의 주인 감고당感顧堂 화원군花原君 권희학權喜學(1672~1742)의 후손과 유림들이 1805~1808년 영당의 창건創建과정과, 1861~67년 이건설移建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일기 외에 권희학 관련 『연행일기』, 『서행일기』는 『봉강영당일기』와 함께 향리 중인층의 일기로 당시 실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함께 고찰되어야 할 자료이다.

2. 권희학 생애

권희학(1672~1742)의 자는 문중文仲, 호는 화촌花村 또는 당호堂號를 따서 감고당感顧堂이라 자호自號하기도 하였다. 안동권씨의 시조 권행權幸의 후손으로 안동부의 현직 향리인 권명형權命 適과 함안조씨咸安趙氏 사이에 2남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자품資稟이 영위英偉 하고 재기材器가 통민通敏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촉망을 받았다.

그의 집안은 안동부의 명문이족名門吏族 가문으로 5대조 효숙孝淑(호장戶長) → 4대조 응추應鍾(호장) → 증조 득정得正(영리營吏, 증가선대부贈嘉善大夫) → 조 홍泓(호장) → 부 명형(호장) 등과 같이 향리조직의 최상층을 세습하여 안동부 향리세계를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권희학은 일찍이 안동부 지인知印으로 향역鄉役을 지고 있었는데 안동부사로 부임해 온 소론少論의 거두 최석정崔錫鼎에게 발탁되어 그를 따라 상경시봉上京侍奉하면서 한미한 출신성분을 극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는 18세 때 최석정을 따라 상경하여 자제子弟의 예로서 시봉侍奉하며 그의 문하에서 육예六藝를 두루 배웠으며, 한편으로 최창대崔昌大·조현명趙顯命·오명항吳命恒등 명유名儒들과 교분을 맺는 등 서울에서 관료사회에 대한 교양과 경험을 쌓아 나갔다. 그의 출사와 영달의 배경은 전적으로 최석정이 후광에 이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6세 때인 1697년(숙종 23) 윤 3월 최석정이 세자책봉주청사世子册封奏請使로 연경에 갈 때 자제지역子弟之役으로 최석정의 막료가 되어 수행하였고 그 공로로 교련관敎鍊官에 승진하였다. 그때의 사정을 기록한 것이 그의 『연행일기燕行日記』(1697년 3월 29일~8월 3일)이다. 그 이듬해에는 국내의 대홍황으로 청나라에 식량을 사오기 위해 최석정이 해운시랑영사사海運侍郎迎謝使로 관서지방에 나아갈 때 역시 종사관으로 그를 수행하여 백미 3,800포를 인수하였다. 그는 당시 서북지방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일기로 남겼는데 그것이 『서행일기西行日記』(1698년 3월 13일~5월 50일)이다. 이후 1725년(영조 1)에 경북궁 위장衛將, 영조 2년에 군산첨사郡山僉事 3년에 평양현감平陽縣監을 지냈다.

권희학은 1728년(영조 4)에 무신란戊申亂 때 금위영교련관禁衛營敎鍊官으로 사로 도순무사四

路 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의 출정군에 참전하여 작전기획과 적정정탐에 많은 공적을 세웠다.¹ 무신란이 진압된 후 그 공을 인정받아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에 녹훈되고, 아울러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름과 동시에 화원군(花原君)에 봉해졌다.² 그는 무신란 중 겪은 것을 일기로 남겼는데 그것이 『남정일록(南征日錄)』이다.

이후 무신란의 공로로 영조 4년 5월에 곤양군수(昆陽郡守), 운산군수(雲山郡守), 장연도호부사(長淵都護府使) 등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현저한 치적을 올렸으며,³ 곤양군수 전임 후에는 군민이 선정미를 세우기도 하였다. 1738년(영조 14)에 벼슬을 그만두고 안동 구담리(九潭里)에서 ‘감고당(感顧堂)’을 짓고 향거(鄉居)하다가 1742년(영조 18) 향년 71세로 죽었다. 사후에 자의대부 공조판서 겸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증직되었다. 그의 신도비는 조현명(趙顯命)이, 묘비명은 최홍간(崔弘簡)이 각각 지었다. 그의 사후에 안동부의 이족(吏族)과 사림(士林)이 1805~1808년(순조 5~8)에 봉강영당을 창건하고 영정과 어서를 봉안하였다. 이 영당은 1861~67년(철종 13~고종 4) 춘양(春陽)에 이겼다가 고종초 서원 철폐 때 훼철된 것 같다. 그 창건과 이건에 관한 경위가 『봉강영당일기』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⁴

3. 『봉강영당영건일기』의 구성과 체제

『봉강영당영건일기』는 「봉강영창건일기(鳳岡影棚建日記)」와 「봉강영당이건일기(鳳岡影堂移建日記)」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 작성된 일기 초본 혹은 원본을 옮겨 적으며 두 일기를 합쳐 1책으로 만들고 제목을 ‘봉강영당영건일기’로 붙인 것이다.

「봉강영창건일기」는 1805년(순조 5, 을축) 1월 3일부터 1808년(순조 8, 무진) 10월 11일까지의 기록으로 분량은 15장 1면이다. 「봉강영당이건일기(鳳岡影堂移建日記)」는 1861년(철종 12, 신유) 1월 10일부터 1867년(정묘, 고종 4) 2월 11일까지로 분량은 11장 1면이다. 두 일기를 합쳐 모두 27장이며 1면은 10행 27자 내외로 구성되었다.

두 일기 모두 글자를 지우거나, 고쳐 쓰는 등 수정한 흔적이 있어 이 일기가 마지막으로 정리된 정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 『영조실록』권16, 영조 4년 3월 계유·무인; 권18, 영조 4년 6월 계묘.

2 훈호(勳號)를 수충(守忠) 갈성(加誠) 결기(決機) 효력(効力) 분무(奮武) 공신(功臣)이라고 정하였다. 오명항(吳命恒)을 1등으로 삼고, 박찬신(朴贊新)·박문수(朴文秀)·이삼(李森)·조문명(趙文命)·박필건(朴弼健)·김중만(金重萬)·이만빈(李萬彬)을 2등으로 삼고, 이수량(李遂良)·이익필(李益秘)·김협(金泮)·조현명(趙顯命)·이보혁(李普赫)·권희학(權喜學)·박동형(朴東亨)을 3등으로 삼았다.(『영조실록』권17, 영조 4년 4월 병오), … 권희학(權喜學)은 화원군(花原君)으로 삼고, 모두 가선 대부로 뛰어 승급시켰다.(『영조실록』권17, 영조 4년 4월 기유)

3 『영조실록』권28, 영조 6년 12월 갑인.

4 권희학의 생애는 이수건, 『朝鮮後期鄕吏關係資料集成』(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1990) 해제 7~8쪽 내용을 편집.

4. 『봉강영당영건일기』의 내용

1) 무신란 당시 안동유림의 대응과 권희학

갑술환국(甲戌換局)(1694, 숙종 20) 후 재경남인 세력이 몰리나자 안동유림(安東儒林)은 중앙정계에서 제휴할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안동유림은 한편으로는 노론정권으로부터 ‘인재등용’이라는 회유책을 받는다 하면 한편에서는 관권(官權)의 감시와 압제를 받았다. 이러한 정국 하에 1728년(영조 4) 노론정권이 ‘영남반란’으로 규정한 무신란(이인좌란)이 일어났다. 이 난은 노론정권에서 배제된 소론·남·북인계와 기타 실세한 세력이 합작하여 노론 중심의 영조정권을 타도하려는 양반층이 주도한 대규모 반란이었다.

주동자인 이인좌(李麟佐)는 백호 윤휴(白湖 尹鑄)의 손자사위로서 청주에서 거병하기 전에 한 때 문경에 거주하면서 경상좌도 유림과의 교류가 있었고, 그의 동생 이웅좌(李熊佐)는 거사 전에 안동·예천 등 안동권을 순회하면서 그 곳 유림과 두루 접촉한 바 있었다. 난의 발발 당시 조정에서는 영남을 상·하도로 구분해 보려 하였으나 안동을 비롯한 상도지방도 난전에 반역세력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남일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자세는 매우 주도면밀하였다.

안동유림은 정희량(鄭希亮)·이웅좌로부터 사전에 반역참가를 중용 받은 바 있으나 반란모의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 같으며 더구나 반란이 일어나자 재빨리 호소사(號召使)를 중심으로 관군편에 서서 창의(倡義)하였다. 앞서 순흥에 살았던 정희량이 우도의 안음(安陰)에서 거병하게 된 것도 그가 당초 기대했던 안동·상주권 유림이 반란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반란 진압 후 국문 과정에서 거사 전 반란모의에 안동유림과의 관련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영조 4년 4월 24일 영남안무사 박사수(朴師洙)가 “이인좌의 아우 응보(응좌)가 거사 전인 3월 초에 안동에 머물고 있다가 안음으로 갔는데, 안동 체류 때 권구(權榘)·김민행(金敏行)·권덕수(權德秀)·유몽서(柳夢瑞) 등과 만났다”고 보고한 것이다. 그때 영조가 박문수(朴文秀)(경상감사)에게 보낸 유서(諭書) 중에 이웅보의 이종조카(姪姪) 조세추(曹世樞)와 정희량의 조카 정의련(鄭宜璉)의 초사(招辭)가 들어 있었다. 그것에 의하면 “안동유림이 거사 전에 역도들과 접촉이 있었으나 끝내 그들과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어 쫓아 이웅좌가 ‘안동사람 때문에 거사를 그르치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며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접한 영조는 안동유림을 크게 가상히 여겨 혐의자까지 석방하여 불문에 부치는 한편 경상좌도(상도)의 유림에 대해서는 회유와 인심수습책을 적극 실시하고자 하였다. 거기에 앞서 안동을 비롯한 상도 13읍에서는 유림의 창의가 있었고 그 뒤 안동사인(安東士人) 정동규(鄭東奎) 등 300여 명은 영조의 관용조치에 감사하는 ‘송상은덕소(頌上恩德疏)’를 올린 바 있다.

갑술환국 이래 노론정권에서 배제된 소론·남·북인계의 불만세력은 무신란을 계기로 모두 노출되어 일망타진되었고 남인계 영남유림을 영도했던 안동유림은 중앙정부로부터 늘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오다가 이 난의 발발과 함께 혐의를 받는 긴박한 시점에서 재빨리 변신하여 창의도

적(義討賊)에 나서게 됨으로써 오히려 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⁵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권희학은 무신란 때 금위영교련관으로 도순무사 오명항을 따라 안성·죽산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다. 그는 당시 수원·진위(振威)·소사(素沙)·안성·청주 등지를 전전하면서 적정 정탐과 작전 수립에 협찬한 바가 컸고, 정희량 등이 안음에서 기병했을 때도 경상도 사정에 밝다는 이유로 역시 중군하였다. 그는 영남의 열읍이족(列邑吏族)과 긴밀한 연계가 있는데 다 참모들 가운데 누구보다 영남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안음에서 기병한 정희량·이용좌 등이 안동·상주권 세력과 연결을 시도하자, 그는 안동·상주지방은 반군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 반군을 쉽게 토벌하게 되었다. 또한 안동·상주지방의 연루자를 적극 변호해 준데서 그 곳 재지사족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

무신란이 진압된 후 1728년(영조 4) 4월 권희학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신에 녹훈되고 화원군에 봉군되었다. 영조는 공신의 초상을 그려 충훈부(忠勳府) [麟閣]에 보관하게 하고, 모사본(副本)을 만들어 비단 보자기에 싸 금궤에 넣어서 본가에 보내도록 하였다. 7월에 영조는 회맹례(會盟禮)를 행하였는데, 공신과 적장자를 동참시켰다. 권희학의 장자에게는 동부참봉(東部參奉)이 제수되었다. 다음해에는 영조가 또 공신들을 불러 '面賜勳府'라고 새긴 은잔을 직접 하사하였다.

1742년(영조 18) 그의 부고가 알려지자 영조는 자헌대부 공조판서 겸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증직시키고 부조와 함께 지관을 보내어 장사를 돕게 하는 한편 불천위로 제사지내게 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1754년(영조 30) 영조는 자신의 회갑일에 공신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으며, 권희학에게는 예관(禮官)을 보내어 영정에 제사하게 하였다. 또 영정을 가져오게 해서 9일간 걸어두고 보고, 반송할 때 유지(諭旨), 어제시(御製詩), 어제대훈(御製大訓), 어제가(御製歌) 및 제문 등을 내리고 안동부사로 하여금 사당에 제사하게 하였다.

이후 무신란 60주년을 기념하는 정조 12년(1788, 무신)의 중맹연(重盟宴)에서 권희학의 아들 덕린(德隣)·덕봉(德鳳)과 조카 덕여(德輿)·덕기(德基)·덕소(德邵)는 양무원종공신(揚武原從功臣) 2등에 책봉되었다.

위와 같은 권희학의 공훈과 공신영정 및 어서, 그리고 무신란 당시 상주·안동 사림에 대한 변호 등은 봉강영당 창건의 명분이 되었다.⁶

2) 봉강영당의 창건

봉강영당 건립의 논의는 1788년(정조 12) 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무신란 60주년을 기념하는 정조의 중맹연을 계기로 안동의 재지이족을 중심으로 권희학의 사우 건립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권희학의 적개(敵愾)의 충렬과 사직을 안정시킨 공훈은 도학·명절과 차이가 없고, 나

5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일조각, 1995), 563~566쪽.

6 이수환, 『朝鮮後期 安東 鄉吏 權喜學 家門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鳳岡影堂 建立』(『대구사학』 106, 대구사학회, 2012) 204~206쪽 및 일기 1805년 1월 3일 참조.

아가 무신란 때 영남을 적극 변호하여 영남을 구한 공로가 크다는 점을 들어 사우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본가 후손들의 가세가 쇠잔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⁷

봉강영당 건립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그의 사후 62년 뒤인 1805년(순조 5)이다.

1805년 1월 3일 진사 권용칭(權龍稱)·권영흠(權永翕)·권심도(權心度)와 그 문중의 권창직(權昌稷)·권창모(權昌模)·권창시(權昌始) 등 십 수 명이 구담(九潭)의 감고당(感顧堂)에 모여서 권희학의 영당을 건립하는 일을 논의하고 영당 건립을 추진하였다.

2월 1일에는 구담의 본손 집에 모여서 터를 정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권용칭·권영흠·권심도가 안동부에서 10리 떨어진 두곡을 추천하였다. ‘청성산 아래이고 석문의 위인데, 선현의 유축이 매우 가깝고 또 방손들이 이곳을 둘러서 살고 있으며, 강이 흐르고 봉산이 춤추는 곳이라 하였다.

2월 5일 길일을 택하였는데, 터를 파는 일은 4월 2일, 주춧돌을 놓은 것은 22일,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리는 것은 모두 24일, 기와를 덮는 것은 29일이라고 하였다. 영당의 터는 촌민 신귀삼의 집터인데, 대지가 몇 두락에 불과한데 값을 부르는 것이 높았다. 부득이 그가 원하는 대로 값으로 50냥을 주어 그의 집을 이건하게 하고 새 재목 5개를 덤으로 주었다.

4월 2일 진사에 지신제를 행하였다. 사시(巳時)에 터를 봤는데 오방(午方)을 먼저 하니 곧 경좌(庚坐)이고 간방(艮方)에 묘파(卯破)를 얻어서 곧 사망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었다. 또 영정과 어서를 별도로 봉안하기로 하고 어서각 한 칸을 더 짓기로 하였다.

봉강영당건립의 주요 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봉강영당 건립 일정 (일기)⁸

일자	내용
1805년 1월 3일	진사 권용칭·영흠·시도, 권창직·창모·창시 등 수십인이 모여 영당건립을 의논.
1월 15일	목재와 기와를 모음.
2월 2일	외손 김수홍 권용칭 권영흠 권심도 등 수십인이 참석하여 본가에서 영당터를 방손이 많은 두곡으로 정함
2월 4일	김광제 등 90원이 모여서 영당터를 확정함
2월 5일	개기, 정초, 상량입주, 개와 등의 길일을 권이중(적장손)이 받아옴
4월 2일	지신제 후 개기함. 영당과는 별도로 어서각을 증축하기로 함
4월 15일	초석을 놓는 일에 본동, 회곡, 상계곡 사람을 동원함
4월 24일	상량제를 한 후, 철물을 다스리게 함
4월 29일	개와를 함
5월 1일	니장으로 휴일을 시작한 후 돌계단과 담장을 쌓음
5월 10일	낙성례를 함. 부조금 400여민이 들어옴.
10월 1일	재원을 구하기 위해 권창시와 권영흠을 각처로 보냄. 지구와 세의, 유림의 각소, 교원, 서당 및 동종가, 지방관들에게서 약 1,100냥과 종이, 조 등의 부조를 받음. 순상 김희순이 영당, 어서각의 편액을 써줌.

7 『봉강영당일기』, 1805년 1월 3일.

8 위 이수환 논문(2012) 표를 옮김.

일자	내용
10월 10일	감실과 상탁을 만들.
10월 30일	재실 지을 땅을 42냥에 삼.
11월 2일	편액(어서각, 봉강영당, 화원군 재진(영정)감)과 어제시 현판 2본 및 명곡시 현판 1본을 새김. 입구의 돌에 '봉강동천'이라 새김
1806년 1월 3일	남쪽 대지를 권용처에게 5냥을 주고 1두락 수승을 삼.
4월 2일	화공승 2명을 시켜 단청을 칠함
10월 10일	본손 백미 30두, 기타 8명의 금 80민을 수합함
1807년 1월 5일	주사 10칸과 대지 반두락을 130민에 사고, 백미 30석을 본족에게 수합 함
1808년 10월 1일	어서와 영정의 출봉일(10일)과 봉안일(11일)을 받음
10월 7일	빈객 접대를 위한 집물을 마련하고, 대소공수(숙박)를 설치함. 각기 일을 주관할 사람을 정함. 방손의 각 집에 떡과 양식을 주어 조석으로 손님을 대접하게 함.
10월 9일	권창시와 권용칭이 가마와 용정을 거느리고 감고당으로 감. 영기 1쌍, 나장 1쌍도 따름.
10월 10일	구담리 및 근동의 사람 70여명이 모여 어서와 영정을 들어낼 유생과 들고갈 유생을 정함. 어서는 용정에, 영정은 가마에 싣고 대열을 이뤄 이동함.
10월 11일	원근의 사람 230여 명이 차례로 래도하여 시도함. 이 자리에서 공사원과 제집사를 분정한 후 영당에 도착하여 향례를 거행함.

3) 봉강영당의 이건

1861년 1월 10일 권이중(중손)의 손자 권운이 중심이 되어 봉강영당의 이건이 논의되었다. 영당의 운영자금을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고, 임원의 공석이 오래토록 지속되는 등 영당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후 영당의 이건 계획을 사림에 통고하고 동맹한 여러 훈가(勳家)에 편지를 보냈다. 권영흡(權永翕)의 손자 권병주(權秉周)를 수재유사(輸財有司)로 삼아 본소(本所)의 남은 자금 500금을 춘양(春陽)으로 보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권재전·홍환린·홍환장·김병인·김병조·김병혁·권준하·권재휘·권재현·윤홍주·김기영·홍환오 등 여러 사람이 춘양의 현사(縣社)에 모여 이건에 대한 역사를 지역 사림과의 의논하기 위한 통문의 초안을 만들고 발송을 계획하였다. 통문은 이듬해 1월 20일 발송되었다.

1863년 1월 10일 석공을 시켜서 골짜기 입구 바위 면에 '봉강동천(鳳崗洞天)' 네 자를 새기게 하였다. 예전 자리의 석각과 비슷하게 하였는데 권성규의 글씨였다.

1865년 5월에 마을 일꾼 백여 명을 고용하여 7일간 담을 쌓았고, 5일간 계단을 쌓고 회벽을 바르는 일을 마쳤다. 같은 달에 승공(僧工) 경담을 시켜 단청을 칠하게 하여 8일 만에 마쳤다. 이에 앞서 본손이 거듭 상화(喪禍)를 만나 일정대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워 부득이 작업을 중지했다. 또 인년기일법(寅年忌日法) 때문에 이 해 12월에 비로소 택일하였다.

1867년 1월 13일 영당이 완성되어 2월 11일 이봉할 계획을 통문으로 알리고, 2월 11일 집사 및 여러 임원이 영당에 들어가서 서쪽 위에 어서를 봉안하고 감실 안에 영정을 안치한 후 절차에 따라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봉강영당의 이건 주요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봉강영당 이건 일정 (일기)⁹

일자	내용
1861년 1월 10일	운영자금의 축소와 임원의 공석이 오래되어 영당 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권이종의 손 운이 여러 친족과 함께 후손이 많이 거주하는 춘양으로의 이건을 의논함. 이후 이건계획을 사람과 동맹한 여러 훈가에 통고함. 영흥의 손 병주를 수재유사로 삼아 본소의 남은 자금 500금을 춘양으로 보냄.
8월 10일	권운이 종물 80금을 내어 일꾼을 빌려서, 문수산 남쪽에서 체목 320, 연목 150매를 벌채하였으며, 벌채, 운반 등의 노동력은 매입하였다. 미지산에서 판목을 켜오고, 문목은 道深에서 구함.
9월 일	창정평에서 신와 2천장을(가격: 32궤미), 월촌에서 구와 1천장(가격: 25냥)을 구입함.
11월 일	15궤미 돈으로 모정하여 재목을 운반함.
12월 27일	권재전, 흥환린 등 여러 사람이 춘양 현사에 모여 1월 13일에 감고당영당 이건에 대한 역사를 지역 사람과 의논하기 위한 통문 초안을 만들고 발송을 계획함.
1862년 1월 13일	거곡의 본손 집에서 봉화지역 사람들이 모여 제집사를 분정하고, 이봉유사도 미리 선발함.
1월 20일	현사에 모여 통문을 발송함.
3월 1일	도감과 도판이 거곡에 모여 고직을 차출하고 일꾼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임무를 맡김. 마을 사람을 동원하여 기와를 옮기는데 5일이 걸림. 이때 40금을 빌림
3월 29일	본가 뒤편에 영당 터를 정함. 목수를 불러 영당 6칸과 신문 3칸을 지시 시작함(50냥). 편액은 옛것을 사용함.
4월 10일	목수가 도착하여 공사를 시작함.
4월 13일	개기를 하고, 후토제를 거행함. 철물 100근을 사고, 장인을 불러 못 190단을 만드는데 22일이 걸림. 2일 만에 초석 12개를 만들고 품삯 10궤미를 줌.
4월 17일	鋸刀匠이 와서 20일 만에 판목 90여 조각과 문목 100여 조각을 자름. 윗 · 아래마을 사람들을 불러 地點을 함.
4월 20일	다시 地點을 함.
4월 25일	날짜가 급하여 동북쪽 기둥을 먼저 세움.
5월 8일	유곡에 가서 진사 권승하에게 상량문을 받음.
5월 9일	상량을 함. 조연시, 강필복, 권재전 외 여러 명이 와서 봄. 본손 권성규가 상량에 글을 적음.
6월 3일	개와를 시작해 5일 만에 마침, 목역을 마침.
1863년 1월 10일	석공을 시켜 골짜기 입구 바위에 '봉강동천'(권성규의 글)을 새김.
3월 일	토수를 시켜 벽을 바름. 7일만에 마침.
1865년 5월 일	마을일꾼 백여 명을 동원하여 담을 쌓음. 7일 만에 마침.
1866년 5월 일	계단을 쌓고 회벽을 바름. 5일 만에 마침. 승공을 시켜 단청을 칠하는데 8일이 걸림. 본손의 거듭된 상화로 일정대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워 작업을 중지함.
12월 일	인년기일법으로 12월에야 비로소 봉안 택일을 정함
1867년 1월 13일	권재전 등이 모여 2월 11일 봉안식에 대하여 면내 사림에 통문함. 또한 이봉 배행유생을 이전 분정에 의거하여 확인함.
1월 25일	김수교 · 김병혁이 두릉을 출발하여 봉성에 유숙함.
1월 26일	저녁에 봉강영당 아래에 도착함.

9 위 이수환 논문(2012) 표를 옮김.

일자	내용
1월 27일	유생 및 본손·방손 수십명이 영당에 들어가 알현 후 고유제를 행함. 영정을 옮겨 상자에 넣고, 어서를 옮겨 가마에 실음. 진감과 편액을 실음.
1월 29일	영당을 출발하여 응천관에 도착하여 유숙함.
2월 1일	눈으로 인해 봉성에서 유숙함.
2월 2일	인근 유생과 관리들이 나와서 절한 뒤 재실 안에 임시 안치함.
2월 10일	면의 유림 100여 명이 모여 집사분정을 함.
2월 11일	영당 서쪽에 어서를 봉안하고, 감실 안에 영정을 안치한 후 절차에 따라 봉안식을 거행함. 도유사 이치두, 재유사 권수연을 선발함. 강건이 기문을 찬함.

5. 『봉강영당영건일기』의 가치

조선시대 정사와 연대기 문집 및 고전적류는 거의 양반사대부들에 의해 집필되고 편찬된 것인데 반하여, 봉강영당일기는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향리들과 그 향리신분에서 출세한 가문에 관한 것으로 이른바 넓은 의미의 중인층에 의해 서술되고 작성된 것이다. 그들은 양반지배체제하에서 지방행정실무를 세습적으로 담당하면서 양반관료와 민중사이에 개재하여 향읍사회를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호장선생안 戶長先生案』, 『안일방고왕록 安逸房考往錄』, 『연조귀감 緣曹龜鑑』, 『안동향손록 安東鄉孫錄』 등 향리들의 역사를 편찬하면서 자기들도 본래는 양반과 같은 뿌리였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읍사례 邑事例’와 같은 지방행정 및 향읍사회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향리에 대한 양반사회의 냉대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보려는 몸부림을 강렬하게 묘사하는 일면도 있다.¹⁰

『봉강영당영건일기』는 19세기 건축물 창건과 이건의 배경과 과정을 기록한 문화유산의 이력서이자 당대의 건축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일기는 건축의 주체가 향리신분에서 출세한 가문이라는 측면에서 19세기 안동지역 중인층의 부침과 인적구성, 사회적 지향점과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준다는 데서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박상규】

¹⁰ 이수건, 위 해제 10쪽.

참고문헌

- 이수건, 『朝鮮後期鄕吏關係資料集成』(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1990) 해제
- 이수환, 「朝鮮後期 安東 鄕吏 權喜學 家門의 社會·經濟의 基盤과 鳳岡影堂 建立」, 『대구사학』 106, 대구사학회, 2012.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해제
-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일기와 생활, 봉강영당영건일기 번역문

행정면례시일기

杏亭緬禮時日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杏亭緬禮時日記
 저자 미상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829~1832년(순조 24~32)
 형태사항 1책(32장) / 가철 / 사주무변, 무계, 무어미 /
 12행 자수부정 / 크기 19×19.3cm
 소장자 재령이씨 존재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杏亭緬禮時日記 壬辰四月十六日 甲午 杏亭緬禮時日記
 我 先祖葛庵先生府君衣履之藏 在永嘉府南甲
 石巽向之原 此位貞夫人墓所在 英陽縣東首比
 寺洞百向之原 訖考 叔祖密庵先生 遷墓時目錄
 則蓋於 明陵乙酉正月 權奉 考位於 琴詔後麓
 丁向原 其年九月 遷于 甲石乙巳 而厝于 魯林子向
 之原 後之復奉 申右 葛擴實 英廟 丙辰 歲也 貞
 夫人墓初在本邑 府西南 林巽向之原 辛酉奉遷 首
 比午向原 辛卯十月 再遷于 今之寺洞也 當時諸賢
 如 道軒 權公 既相其地 密弘 叔季 兩祖 極致 惟致
 誠 則可 無他 虞而 百年之 間 子孫 敬處 各邑 遺
 榘 遺失 所守 榘 之 甚 疎 略 也 辛巳 未 附 家

1. 개요

『행정면례시일기杏亭緬禮時日記』는 갈암葛菴 이현일李玄逸의 후손들이 행정杏亭으로 조상의 산소를 이장하기 위한 준비과정과 당시의 이장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2. 갈암 이현일의 생애¹⁾

이현일의 본관은 재령載寧이고 자는 익승翼昇이며 호는 갈암葛庵이다. 아버지는 참봉 시명時明이며 어머니는 안동장씨安東張氏로 흥효興孝의 딸이다.

1646년(인조 24)과 1648년에 초시에 모두 합격했다. 1652년(효종 3) 중형 휘일의 《홍범연의洪範衍義》 편찬에 참여했으며, 1666년에는 영남 유생을 대표해 송시열宋時烈의 기년예설昇年禮說을 비판하는 소를 올렸다. 1674년에 학행으로 명성이 높아지자 영릉참봉寧陵參奉에 천거되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해 나가지 않았다.

1676년(숙종 2) 사직서참봉社稷署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삼년상이 끝나지 않아 나가지 않았다. 이듬 해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 이어 공조좌랑에 임명되었으나 사은謝恩만 하고 곧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어 사헌부지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78년 공조정랑·지평에 임명되었으며, 외척의 용사와 당쟁의 폐단 등을 논하였다.

1686년에는 《홍범연의》를 속성續成했으며, 1689년 산림山林에게만 제수되는 사업司業에 임명되고, 이어 사헌부장령·공조참의에 임명되었다. 이 때 인현왕후仁顯王后 폐비문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택되지 않았다. 임술무옥의 신설伸雪을 건의했고, 6월에는 산림유현山林儒賢의 벼슬인 채주祭酒에 임명되어 경연經筵에 참석하였다.

이어 예조참판 겸 채주·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에 제수되어 거듭 사임의 뜻을 표했으나 윤택되지 않았다. 8월에는 겸직과 함께 대사헌에 올랐고, 9월에는 인현왕후를 위한 소를 올렸으나 윤택을 얻지 못하고, 11월에는 분황焚黃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1690년 이조참판·세자시강원찬선에 임명되어 세자책례世子冊禮에 참석했고, 다시 대사헌·이조참판에 거듭 임명되었으나 그 때마다 사직 상소를 내었다. 1692년 다시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며, 경신·임술 무옥의 신설을 건의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어 병조참판·자헌대부資憲大夫·우참찬·이조판서에 연이어 임명되었다. 1694년 4월 인현왕후가 복위된 뒤 갑술환국 때 조사기趙嗣基를 친구하다가 함경도 홍원현으로 유배되었다.

다시 서인 안세징安世徵의 탄핵을 받아 중성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으며, 유배지에서 글을 가르치며 《수주관규록愁州管窺錄》을 완성하였다. 1697년 호남의 광양현으로, 1698년에 같은리葛隱里로 유배지가 바뀌었고, 1699년에는 방귀전리放歸田里의 명이 내렸다. 1700년에는 안동의 임하현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고하였다.

금소역琴詔驛에 이거했다가, 여기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금양錦陽에서 집을 짓고 강학하였다.

1701년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석방 명령을 환수했으나 압송되지는 않았다. 1704년에 인덕리仁德里로 이거했다가 금소로 돌아와 금양에서 죽었다. 1710년에 죄명이 풀리고 이듬해 복관되었다가 환수되었다. 1718년 영해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제향되었으며, 1853년(철종 4) 다시 복관되었다가 환수되었다. 1871년(고종 8) 문경文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가 환수되었으며, 1909년에 관직과 시호가 모두 회복되었다.

영남학파嶺南學派의 거두로 이황李滉의 학통을 계승해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하고 이이李珣의 학설을 반대하였다. 저서로는 《갈암집》과 편서로 《홍범연의》가 있다.

3. 『행정면례시일기』의 구성과 체제

일기는 총 3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지는 별도로 없고 단지 겹표지가 가철되어 있을 뿐이다. 일기의 맨 앞에는 '행정면례시일기杏亭緝禮時日記'을 지우고 다시 '임진사월십육일갑오행정면례시일기壬辰四月十六日甲午杏亭緝禮時日記'라고 고쳐 적었는데 권수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본문의 기록은 12행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일기는 1829년 7월초부터 시작되어 1832년 4월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일기는 매일 기록되어 있지 않고 중요한 일이 있었던 부분만 적어놓고 있다. 날짜를 먼저 적고 다음에 해당 날짜의 간지를 적어 두었다. 대체로 날짜별로는 행을 구분한 후에 날짜 아래에 일기의 내용을 적고 있으나, 일부 일기의 앞쪽에서는 날짜와 본문을 구분하지 않고 이어서 연속적으로 적고 있기도 하다.

저자는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일기에서는 '아我'나 '여余'라고 표기하고 있다. 일기는 대체로 정서로 쓰여있으며 부분적으로 고쳐쓰거나 내용을 보완한 흔적이 보인다.

4. 『행정면례시일기』의 내용

일기의 첫머리에 선조 갈암 선생 부군의 산소는 영가부의 남쪽 신석의 언덕에 있고 배위이신 정부인의 묘소는 영양현의 동쪽 수비에 있다고 기록하면서 밀암 이재李裁가 산소를 이장할 때 쓴 수비노임천장시일기首比魯林遷葬時日記에 적혀 있는 조상들의 산소 이장의 일을 나열하고 지금 시기가 100년을 지나서 후손들이 모두 다른 지방의 각 읍으로 흩어져 조상의 산소를 돌보지 못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행정으로 조상의 산소를 옮긴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일기는 1829년의 내용부터 시작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면례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3년 뒤인 1832년 4월이다. 그 이전까지는 면례를 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기간 동안의 주요활동들이 기록되어 있다. 앞 부분에는 주로 이장할 묘소등에 관한 모임을 갖고 논의를 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

일기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기의 시작일인 1829년 7월초에 일기의 저자로 보이는 아버지가 편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내용이 보인다. 거기에는 점친 곳 두 곳을 살펴보는 것과 석천서당에서 모이는 것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7일에는 석천에 들어갔는데 다른 일행들이 이미 먼저 도착해 있었고 마동에서 온 친척도 모두 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모일 날짜가 27일로 기약된 것으로 보인다.

7월 29일의 일기에는 건평^{乾坪}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날 직접 모인사람들이 40여 명이 된다고 하였다. 류공회^{柳公晦}와 두 이장^{李丈}이 건평의 위와 아래를 두루 살펴보는데 마치 불만스러운 듯한 뜻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 저녁에 석천에 돌아와 숙박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8월 2일에 집에 도착하였고 여러 사람들이 명서암^{冥棲庵}에 유숙^{留宿}했으며, 8월 4일에는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앞의 냇가가 흘러넘쳤고, 큰 바람이 또 불어서 판목^{板木}이 진탕되었는데 기상이 몹시 비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8월 6일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불어난 물을 건너서 행정^{杏亭}에 갔으며, 저녁때쯤 점친 곳에 공회가 올라가서 바라보는 합당하다고 하면서 건평^{乾坪}에 비하여 훨씬 낫다고 말하였고, 돌아와서 단산서원에 묵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8월 7일에 일기의 저자는 금현^{金峴}으로부터 돌아왔다고 기록한 대목에서 일기의 저자가 자신의 호칭을 '여^余'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일기의 맨 앞에서 저자는 '아^我'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이어서 일기에는 면례^{緘禮}의 일이 마땅히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풍산현에 류동흡^{柳東燾}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대안목^{大眼目}으로 일컬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맞이하여 와야 한다고 적고 있다. 아마도 당시에 유명한 지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9월 그믐에 풍산에 가서 류사^{柳師}에게 청한 내용이 보이며, 10월 10일에 류사^{柳師}와 중겸씨^{仲謙氏}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집에서 유숙했으며, 12일에 류사^{柳師}와 지친^{至親} 5~6명이 행정산에 올라갔는데 류사가 풍수가 좋다고 하면서 길지^{吉地}를 정하는데 있어서 공회^{公晦}는 임좌^{壬坐}로 생각했는데 류사^{柳師}는 해좌^{亥坐}로 생각했다고 하면서 이들의 의견이 달랐음을 기록하고 있다. 날이 저물어서 이동제사^{伊洞齋舍}에 투숙했고, 다음날 묘사^{墓祀}를 행하고 등운산^{騰雲山}을 넘어 류사^{柳師}가 멀리 행정의 형세를 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기 때문에 매우 다행이라고 적고 있다. 류사^{柳師}와는 18일에 제사를 마치고 송별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1832년 4월 9일에는 신석^{申石}에서 관이 나갈 때 산위에서 일을 나누어 정한 내용이 붙어있다. 4월 11일에는 각산^{角山}에서 본향의 유림들이 일을 나누어 정한 내용이 보이며, 4월 12일에는 도유^{道儒}가 일을 나누어 정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일기의 마지막인 4월 15일에는 행정^{杏亭}에서 기장^{起葬}할 때 본향^{本鄉}에서 일을 나누어 정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5. 『행정면례시일기』의 가치

날짜별로 면례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 면례가 이루어지기 까지 어떤 모임과 의논이 있었는지의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일기는 한 집안의 면례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 면례 절차와 방식에 대해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김남중】

참고문헌

- 『壬辰四月十六日甲午杏亭緬禮時日記』(재령이씨 존재종택 소장본)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해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벌승무소청일기

權撥陞庶疏廳日記

제목 표제 : 疏廳日記,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851년(철종 2)
형태사항 1책(10장) / 가철 / 사주무변, 무게, 17행 25자 내외 무어미 /
31.4×18.2(cm)
소장자 충재박물관
보관장소 충재박물관



권벌승무소행일록

權撥陞庶疏行日錄

제목 표제 : 疏行日錄, 권수제 : 日錄
저자 미상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851년(철종 2)
형태사항 1책(10장) / 가철 / 사주무변, 무게, 8행 20자 내외 무어미 /
28.4×18.3(cm)
소장자 충재박물관
보관장소 충재박물관



癸亥二月初六日廣州玉山書院通文未到三連清院蓋以
 冲齋九生便事 文廟之議也前中庚戌自玉照發通于閩山唐江而後已係大
 論本本最持重之說竟中止矣今於本月初二日廣州士林齊會其院後中前論
 樹道齊賢之誠其誠也發通是及于通四院院云 通文院在地方五月初十五頁
 初十日玉山書院會之議院能育同幼學事致稱齊有司邊元輪權銀員會員
 凡八十八人全院長在場主席發出公事員二人幼學全在舖士員深查費同幼學
 全院本權欲皆盡日退士全員林幼學權總夏時到局幼學全書永遠主權於洲
 例事員出座行相揖行祝儀于座中 先主院 處之議自是數百年前
 筆已定之大論而尚未有齊情之舉者不但瓜分之過於幼學實天全堂院士之責
 也去而慶身之故始日玉照院於閩山全書東中大六十年之法其院士林三心

日錄
 忠堂云冲齋推先生陞 處之於書教子年之久而
 因循本皇身費之忱冀閱夫乃於年及之壽先日
 玉山歲甲 閣、行文訪鄭毛一尼仲者應派卷三于
 卷府言者三言治之區祀空純任三月如本林及德
 生于治之說詠斥于西我于焉學字之度儲世便
 生而由事有同書在學、檢姓名付此出六月初九文
 空為行、志在于時身、信傳書院矣定任本院子

1. 개요

『소청일기(疏廳日記)』는 가철된 1책 10장 분량의 필사본으로 1851년(철종 2) 2월 6일 ~ 6월 18일까지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撥, 1478~1548)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위한 소청(疏請) 준비과정과 서울에 설치한 소청(疏廳)에서 진행된 일들을 기록한 일기이다.

한편 『소행일록(疏行日錄)』은 역시 가철로 묶여진 10장 분량의 필사본이다. 같은 해 6월 9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소수(疏首)를 포함한 배소유(陪疎儒) 일행이 서울로 가서 소를 올리는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소수 일행은 6월 10일 출발하여 6월 17일 서울에 도착하였고 7월 21일 왕의 비답(批答)을 받았으나 승무소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두 일기는 현재 경북 봉화군 충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일기들은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撥, 1478~1548)을 문묘(文廟)에 종사하기 위하여 향론(鄉論)을 모으고 소를 올리는 과정이 자세히 쓰여 있어 19세기 중반 영남지역의 향론 형성과정과 소청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 『소청일기』와 『소행일록』의 구성과 체제

본 해제본 『소청일기』는 가철된 1책 10장 분량의 필사본으로 표지에 ‘소청일기(疏廳日記)’라고 묵서하였고, 권수제는 별도로 적지 않았다. 일기는 날짜와 날씨를 적고 그 아래 내용을 적었으며, 날짜가 바뀌면 행을 바꾸어 구별하였다.

본 해제본 『소행일록』 역시 위 『소청일기』와 같은 형태의 장정본으로 1책 10장의 필사본이다. 표지에 ‘소행일록(疏行日錄)’으로 묵서하였고, 권수제는 ‘일록(日錄)’으로 적혀 있다. 날짜와 날씨를 적고 그 아래 내용을 적었으며, 날짜가 바뀌면 행을 바꾸어 구별한 것 역시 동일하다. 일기 마지막 장에는 7월 21일 내려진 비답의 내용을 다시 옮겨 적어 놓았는데 일기 작성 당시에 적혀진 것은 아닌 듯하다.

3. 『소청일기』와 『소행일록』의 내용

1) 1851년 권벌 승무 소청의 배경과 참여 인원

1851년 2월 6일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에서 삼계서원(三溪書院)으로 통문(85명 연명)이 도착했다. 2월 2일 경주사림이 옥산서원에 모여 60년 전 경술년(1790, 정조 14)에 본가의 반대로 중지되었던 충재 권벌의 문묘종사(文廟從祀) 소청(疏請)을 다시 전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2월 10일 삼계서원에서는 내성면(奈城面) 사림 84명이 모였다. 권벌을 주향(主享)하는 삼계서원 으로서는 60년 전 당시에도 옥산서원이 발의했던 논의를 이제 다시 옥산서원에서 발의하였다는

데 분발하여 '권벌승무소청 權撥陞庶疏請'을 주관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2월 15일 옥산서원에 회신 통문을 보낸다.

옥산서원으로부터 통문을 받은 도내 여러 서원에서도 삼계서원으로 통문을 보내왔다. 2월 16일에는 예안 도산서원에서 2월 28일 안동부 향교에서 도회道會를 열자는 통문(62명 연명)을 보내왔고, 17일에는 순흥 소수서원紹修書院의 통문(55명 연명), 19일에는 영주[榮川] 이산서원伊山書院의 통문(52명 연명), 23일에는 호계서원虎溪書院의 통문(62명 연명), 24일 영천 임고서원臨臯書院의 통문(38명 연명)이 도착하였다.

한편 2월 20일 삼계서원에서는 유생과 본손 6~7명이 우선 상경하여 소청疏廳을 설치하기로 하고 서울 성균관에 통문을 보냈다. 선발인원인 유학幼學 이상성李相聖, 진사進士 김병수金炳銖, 김종걸金宗杰, 이만송李晩松, 남정교南正教, 봉사奉事 권택하權宅夏, 정언正言 권영하權泳夏, 권재형權載衡 등은 27일 서울에 도착하여 집춘문集春門 밖 반인가洋人家에 소청을 설치하였다.

안동부에서는 2월 28일 향교에서 도회가 열렸다. 삼계서원 유생과 본손 40여명이 도회소道會所에 갔으며, 도내 유생들이 잇달아 도착하였는데 예천 23명, 영주 17명, 예안 13명, 경주 4명, 풍기 2명, 순흥 9명, 봉화 4명, 의성 7명, 진보 2명, 용궁 1명, 영양 1명, 안동 132명등 모두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외 상주의 정윤우鄭允愚, 경주의 생원 조유해曹有海, 양동이씨 문중, 진보권씨 문중은 각기 이름을 적은 명첩名帖을 보내오는 것으로 참석을 대신하였다.

이 도회에서 소청을 이끌어갈 임원들이 선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수疏首에 유학幼學 이형李衡, 장의掌議 유학 이술상李述祥, 김명수金明壽, 유진시柳進詩, 최운우崔雲愚 등 4명, 소색疎色 진사進士 김종휴金重休, 김진호金鎭誥, 유학幼學 김락홍金樂泓, 이회준李彙濬 등 4명, 제소製疏 유학 이치정李致楨, 진사進士 이오수李五秀, 유학幼學 최효술崔孝述, 박종후朴宗厚, 진사進士 이만익李晩翊, 유학幼學 황원선黃源善, 강성흠姜性欽, 안병로安秉魯, 이의수李懿秀, 박주정朴周正, 김석유金奭裕 등 11명, 택소擇疎 유학幼學 유성조柳聲祚, 진사進士 김종휴金宗休, 김헌운金憲運, 유학幼學 이병○李秉○, 금서술禁書述, 유성문柳聖文 등 6명, 사소寫疎 유학 김재숙金在肅, 진사進士 장주형張周炯 유학幼學 정기락鄭驥洛, 생원生員 이인흠李仁欽, 유학幼學 최병규崔炳奎, 강건姜健, 진사進士 이유재李維在, 유학幼學 리형구李亨九 등 8명, 관행管行 유학 정광근鄭光根, 생원生員 조시성趙時成, 홍도洪燾, 이규응李奎應, 유학幼學 정치장鄭致章, 유양천柳養天, 이문직李文稷, 진사進士 이만송李晩松, 유학幼學 조성해曹聖海, 조술대趙述大 등 10명, 직일直日 유학 정민채鄭民采, 유택홀柳宅欽, 생원生員 성종진成鍾震, 김사묵金思默, 송홍익宋鴻翼, 유학幼學 권구상權久相, 김○金○, 이능섭李能燮, 유규영柳奎榮, 이회○李彙○ 등 10명, 향도청鄕都廳 진사 이석규李錫奎, 유학幼學 김○대金○大, 김광주金光周, 김광주金光周 등 4명, 경도청京都廳 생원生員 김병수金炳銖, 김종걸金宗杰, 유학幼學 김용진金龍鎭, 이택용李宅鎔, 생원生員 김우수金遇洙 등 5명, 배소陪疎 유학 이면기李勉基, 권치엄權致儼, 이규석李奎錫, 강세규姜世奎, 생원生員 이정상李鼎相, 유학幼學 정성탁상鄭瑛琢相, 김원호金元護, 김준동金駿東, 김영유金永裕, 조언석趙彦錫, 이상성李相聖, 김진휴金鎭休, 진사進士 김응규金應奎, 유학幼學 정운달鄭雲達, 박정영朴貞永, 임재준任在準, 김찬규金燦圭, 남공수南公壽, 신명휴申命休, 최세응崔世應, 장진현張鎭鉉, 김호수金昊銖, 이형진李亨晉, 배선원裴善源, 금성렬禁聖烈, 생원生員 남정교南正教, 송석구宋奭求, 유학幼學 유기만柳基晩, 권○權○ 徐稷烈서직렬, 정익달鄭翼達, 이만조

李晩祚, 이정익李庭翼, 이명화李命和, 조가상趙家相, 심계봉沈啓鵬, 하경순河景舜, 이계관李啓關, 장구봉張九鳳, 진사進士 이휘봉李輝鳳, 유학幼學 금서하琴錫夏, 변한邊翰 등 42명으로 모두 95명이었다. 이를 다시 직역 職役별로 살펴 보면 생원·진사 25명, 유학 70명으로 임원 내 비유학과 유학의 비율은 26 : 74(%) 정도였다. 지방의 유소는 배소상경拜疏上京한 다음에는 주로 관학館學이나 사학四學에서 소청疏廳을 차리고 치소治疏·정소呈疏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균관 상사생上舍生인 생원·진사는 유학에 비해 관학출입이 자유롭고 또 그곳을 발판으로 활동하기가 편리한 측면이 있었다.¹

임원선출 이후 소수가 출석하는 도회를 3월 3일 삼계서원에서 열기로 정하고 도내에 통문을 발하는 한편, 도내 각 진嶺 소속 수전유사收錢有司를 정하여 오백금五百金을 한도로 소행경비(資費)를 모으자고 의논하였으나 충청 권벌 본가에서 극구 사양하여 경비 수합에 대한 의논은 정지되었다.

영남유소嶺南儒疏에 참가한 소유疏儒는 크게 세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소수疏首(소두疏頭)를 비롯한 각종 소임원疎任員이며, 둘째는 소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陪疎人이며, 셋째는 단순히 명첩名帖만 제출한 참소인參疎人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셋째는 명첩만 빌려주고 소유수를 채운다는 의미가 강하고 실제 상소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부담이나 책임이 없었다. 둘째의 배소유陪疎儒는 각읍·명문중名門中별로 제출한 연명첩聯名帖 등재인수에 비례하여 차출된 상경소유上京疏儒들로서 서울까지의 왕복여비와 체경비滯京費를 부담해야 하며 심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상당한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져야 했다. 첫째는 유소를 주관하는 간부 임원으로서 문벌門閥과 지망地望 및 학덕學德을 겸비한 유사儒士들이 선정되는데 이들은 시종 번거로운 소사疏事를 처리하고 다종의 소유를 동원해야 하며, 보통 백명이 넘는 배소유를 인솔하여 예궐정소詣闕呈疏 하고 그 상소에 책임까지 져야 하는 실질적인 유소儒疏의 간부진이었다.²

특히 소수疏首는 소두疏頭또는 소유疏儒의 수반首班·수장首丈이라 하기도 하며 유소의 대표자로서 많은 소유를 동원하고 통솔할 수 있는 학덕이 고매하고 도내 여러 읍의 유림사회가 존경하고 심복할 수 있는 문벌門閥과 지망을 갖춘 인사가 추대된다. 소수의 정원은 1명이며, 선임절차는 매우 복잡하였다. 소사疏事의 발의가 있고 난 뒤 개최한 사회疏會에서 소수 추대 공사원公事員이 먼저 선정되고 그들의 주관 아래 유림의 공론에 따라 3명을 소수 후보³로 내세워 투표[圈點]를 통해 소수를 선출하며, 소수 선출이 확정되면 소수를 봉청奉請하는 절차가 선임된 공사원公事員 또는 조사曹司에 의해 거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로 추대된 자는 으레 사양하는 단자單子를 두 세차례 제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소수로 추대 받은 사람과 소청(또는 사회) 사이에 사양하는 단자와 고청固請하는 단자가 몇 번 오고 간 끝에 끝내 소수로 추대되면 곧 소청 또는 사회의 공석公席에 나아가 소수와 소유간에 상음례相揖禮를 행한 다음 비로소 소수로서의 임무

1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1995, 일조각), 499쪽.

2 이수건, 위 책(1995, 일조각), 497쪽, 관련내용 전재.

3 1851년 권벌승무소청에서 내세워진 3명의 소수 후보는 수망首望 유학幼學 이형李衡, 부망副望 유학 이운상李運祥, 말망末望 유학 정민충鄭民衷이었다.

를 수행한다.

또한 장의掌議는 소수를 보조하는 간사와 같은 임무를 띠고 소수와 공동책임을 지며 시종 같이 행동한다. 정원은 2명이 보통이나 4명, 6명 또는 9명이 될 때도 있었다. 공사원公事員은 유소를 발의하여 소회를 개최하고 소수를 추천·봉천奉薦·선정하거나 치소治疎에 관계되는 각종 행사나 임원을 선정할 때마다 임명되는 비상임非常任과 소청疏廳이 설치된 뒤부터 소사疏事를 마치고 소청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되는 상임공사원이 있었다. 조사曹司와 도청都廳은 서무 또는 재무를 관장하며, 직일直日은 당번과 같은 임무를 띠며, 관행管行은 치소상경治疎上京할 때 배소유를 인솔하는 책임을 맡는 것 같다.⁴

2) 승무소청의 진행

서울에 소청疏廳을 설치한 것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나 이후 정소呈疏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월 29일 정소呈疏를 진행하겠다는 통문을 성균관 동·서재에 보내 돌려보인(輪示) 후 동·서재의 장의掌議에게 전하였으나 동재 장의 조원섭趙元燮만 서명하여 돌려주었다. 그리고, 2월 30일에는 문강공文康公 여현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묘종사를 위해 서울에 소청을 설치한 소유疏儒석사碩士 장복원張福遠이 방문하여 두 소청을 합하여 함께 진행하자고 요청하였다. 또한 3월 1일에는 성주의 유학 정래석鄭來錫이 문목공文穆公 한강寒岡 정구鄭逵의 문묘종사 소청을 위해 입경하였다. 같은 경상도 유림에서 문묘종사를 경쟁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율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4월 2일에야 비로소 성균관 동재 장의 조원섭과 서재 장의 조단호趙端鎬로부터 ‘근실謹悉’을 받을 수 있었고⁵ 4월 12일에는 소초疎草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같은 영남에서 승무소청의 유소가 각기 3개소가 동시에 나와서 경쟁을 하는 형태가 되었고, 성균관에서 복합伏閣한 3현賢의 승무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월 18일에는 성주 회연서원檜淵書院이 주관한 정구의 승무소청에 대해 승무를 유히할 수 없다는 비답批答이 내려졌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소수가 이끄는 소행일행이 6월 경상도를 출발하였다. 소수는 6월 9일 풍기향교 명륜당에서 발행을 상의한 후 10일 서울로 출발하였다. 일행은 한꺼번에 출발한 것은 아니고 도중에 합류하거나 서울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소수 일행은 6월 17일 점심 때 한강변에 도착하여 해가 저물 무렵 서울에 입성하였다.

서울의 소청에 들어온 소수 일행은 정소를 다시 준비하여 7월 15일에 소본疏本과 소대개疎

4 이수건, 위 책(1995, 일조각), 501~503쪽, 관련내용 전제.

5 효종 원년(1650) 유직柳稷의 우물승무반대소牛粟陞廡反對疏를 고비로 그 이전의 영남유소嶺南儒疏는 승정원에 봉소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나 그 이후부터 서인세력이 승정원을 거의 독점하게 되자 승정원의 갖은 방해와 지연책으로 인해 승정원봉소가 늦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17세기 말부터 유소儒疏는 성균관 장의의 유소에 대한 회통回通인 ‘謹悉’을 받아야만 승정원에 접수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18세기부터 영남유소는 당장 이 근실문제가 승정원봉소에 관건이 되었고 성균관을 이미 장악한 노론정권하에서 그것을 받을 기망이 없는 영남유소에서는 ‘謹悉’이 없이도 상소가 가능했던 만인소萬人疏가 대두되었다.(이수건, 위의 책(1995, 일조각), 507~508쪽, 전제)

大槩⁶의 작성을 마쳤다. 그리고 7월 16일 소수와 유생 30여인 소함을 들고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복합정소하며 승정원에 대개를 제출하였다. 7월 19일에 소수가 승정원 들어가 소본을 제출하였고, 7월 21일에 승정원에서 왕의 비답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매일 대궐문 앞에 엎드려 비답을 기다리는 복합을 행하였다.

7월 21일 내려진 비답의 내용은 “충정공(忠定公)(권벌(權撥))의 학술과 명절에 대해서는 문성공(이이(李瑀))부터 확정된 논의가 있어왔다. 사람의 백세(百世)의 논의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문묘(文廟)에 從祀하는 일의 결정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너희들은 다른 날 공의(公議)가 다시 일어날 때를 기다리도록 하라⁷”는 것이었다. 결국 1851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개된 권벌의 승무소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소청일기』와 『소행일록』의 가치

1851년(철종 2)의 권벌의 문묘종사를 위한 소행은 이후 1853년(철종 4)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의 유생들이 함께 전개한 충재승무 3도 소청으로 다시 이어진다. 본 해제본 『소청일기(疏廳日記)』와 『소행일록(疎行日錄)』은 충재박물관에 함께 소장되어 있는 1853년 작성의 『삼도소청일기(三道疏廳日記)』와 함께 19세기 영남유소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당시 영남 지역 유림의 존재양상과 정치·사회적 활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정제규】

6 집단적인 유소(儒疏)에는 소문(疏文)을 2-3행으로 요약한 것을 소문 봉정에 앞서 승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疎槩' 또는 '大槩'라고 하였다. 장문의 상소문을 왕의 어람에 앞서 승정원이 미리 본다는 것은 불경에 가깝고 또 입소(入疏)하려면 소문의 개요를 승정원이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大槩가 필요하였다.(이수건, 위의 책(1995, 일조각), 507쪽, 각주 119) 전제)

7 忠定公學術名節 自有李文成定論 士林百世之論宜其如此 而第陞庶事體至慎 爾等更待他日公議 退修學業

참고자료

1. 충재박물관 소장 『疏廳日記』, 『疎行日錄』
2.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1995, 일조각.

채범곤일기

蔡範坤日記



제목 표제: 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채범곤 蔡範坤(1811~1875)
 판사항 필사본
 작성연대 1865~1866년(고종 2~3)
 형태사항 2책(90장) / 가철 / 사주무변, 무계, 무어미 /
 10~12행 23~27자 / 21.6×18.0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乙丑年正月
初十日
...



四月廿一日
...

乙丑年正月

初十日
...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129114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任心之門古傳...

某使兄弟在元...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弟... 兄...

120113

1. 개요

이 책은 채범곤蔡範坤(1811~1875)이 1865년, 1866년, 자신의 생활과 감정을 기록한 자필 수고본 일기이다. 총 2책(1책 53장, 2책 37장 총 90장 / 표지 제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날짜, 간지, 날씨, 내용의 체제로 거의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지역은 지금의 대구시·달성군·칠곡군·경산시·영천시·의성군 일대이며, 가족·문중 및 지역행사·교유관계·농사 및 경제활동·혼인·장례·제사 및 회합·시문 창작·풍속·여가활동·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등 조선 말기 사대부의 일상생활이 망라되어 있다.

2. 저자의 생애

채범곤蔡範坤은 1811년(순조 11)에 태어나 1875년(고종 12) 2월 20일에 65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자는 기언箕彦, 호는 미은溪隱, 본관은 인천仁川이다.

채범곤의 집안은 대구부大丘府 해북촌면海北村面 미대리美垈里에 세거하였다. 그의 5대조 채선견蔡先見은 정구鄭誥의 문인이고,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서궁유폐사건 때 영남 유생들과 함께 상소를 올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괄李适의 난 때는 향병을 모집하고 군량미를 수집하였다.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희릉참봉禧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퇴하고, 귀향해서 성재정盛才亭을 짓고 선비들과 학문을 강론하면서 지냈다. 증조부는 채상겸蔡尙謙이며, 조부는 채윤복蔡允復이며, 부친은 채영국蔡榮國이다. 채영국은 경주최씨慶州崔氏 최진구崔鎭九의 따님과 결혼해서 상곤相坤, 범곤範坤, 수곤秀坤 세 아들을 두었다. 채범곤은 16세이던 1826년 일직손씨一直孫氏 손익진孫益振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1남 3녀를 두었다. 아들은 석현錫玄인데, 백형 채상곤에게 양자를 보내고 대신 족자族子 세동世東을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았다. 딸은 정치훈鄭致薰·윤동박尹東博·김태년金泰年에게 시집갔다.

채범곤은 어려서는 부친 채영국과 숙부 채화국蔡華國에게서 학업을 익혔고, 장가든 이후로는 장인 손익진에게서 학업을 익혔다. 그는 1867년(고종 4) 57세의 늦은 나이로 정묘 식년시에 생원 3등 17위로 합격하고는 벼슬길에 나가려는 생각을 끊고 학문을 닦는데 힘을 쏟았다. 덕현德峴에 터를 잡아 우거하면서 일생을 마칠 계획을 하다가 고향의 옛집으로 돌아와 5대조 채선견의 성재정을 장수처로 정하고, 이곳을 왕래하면서 성리학 관련서적들과 우리나라의 옛 문집들을 비치해두고 학문을 더욱 깊이 닦아나갔다. 당대 영남 일원의 학자들인 정사화鄭思和·임태로林泰魯·최완술崔完述 등과 도의道義로써 교류하였다.

3. 『채범곤일기』의 구성과 체제

『채범곤일기』는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1865년(同治 4년, 乙丑, 고종 2년 채범곤 55세) 4월부터 1866년(동치 5년, 丙寅, 고종 3년, 채범곤 56세) 2월까지 썼고, 제2권은 1866년(동치 5년, 丙寅, 고종 3년, 채범곤 56세) 3월부터 12월까지와 1867년(동치 6년, 丁卯, 고종 4년, 채범곤 57세) 1월부터 2월 2일까지 썼다. 제1권은 1865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같은 해 9월 22일 하루를 빼고는 1866년 2월까지 1865년 윤5월을 포함한 12개월의 그 날 그 날의 일들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제2권은 1866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10개월과 1867년의 1월의 1개월과 2월 2일까지 그 날 그 날의 일들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제1권 끝에는 「중리작판시하기中里作板時下記」를 기록해놓았다.

일기는 부분적으로 나중에 수정한 부분이나 나중에 추가한 부분이 더러 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기록하였다. 채범곤이 자필自筆로 기록한 것이 분명하고, 다른 사람이 대필代筆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매일 매일의 기록을 반드시 남기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전하는 2권의 일기는 전체 일기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울러 추론해볼 수 있다. 해와 달이 바뀔 때는 맨 앞에 해당 연도와 해당 달을 기록한 다음, 각 해당 달 안에서는 매일 날짜가 바뀔 때마다 줄을 바꾸어 날짜를 적고 해당 날짜의 간지를 적었고, 극히 일부의 누락된 날을 제외하면 반드시 날짜를 상세하게 하루의 날씨 변화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주의해서 기록하였다. 나중에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직접 지우고 그 옆에 잔글자로 기록하였고, 또 나중에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날짜 맨 아래에 잔글자 2행으로 기록하였다. 특히 그날 밤에 꿈을 꾸었을 경우 그것을 아침 등에 추가로 기록한 경우가 여럿 있다. 날씨는 간단히 ‘청晴’, ‘칭이음晴而陰’, ‘음운陰雲’, ‘청한晴旱’, ‘소음소우小陰小雨’ 등으로 기록하거나, 기상 현상 및 날씨 변화의 이상 상황이나 특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춘분 및 중복의 절기, 혹은 가뭄과 장마의 진행 상황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각 장은 대체로 매 장 10~12행에, 1행은 23~27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선界線이나 광곽匡廓 등의 구분선이 없다. 표지 등 앞부분과 뒷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필사 원본은 종이의 변색이나 훼손이 비교적 많지 않아 원래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이 일기의 체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일기는 현재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임시로 그 제목을 『채문일기蔡門日記』로 붙여 놓았다. 그러나 그것이 채씨 집안의 일기가 아닌, 채범곤 개인의 일기임이 분명하게 밝혀진 이상 채범곤의 호인 ‘미은美隱’을 취해서 『미은일기美隱日記』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채범곤일기蔡範坤日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4. 『채범곤일기』의 내용

각 날짜의 기사는 특별한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그 날 그 날의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루의 기록한 분량도 일정하지 않아서 적은 날짜는 날짜 이외의 짤막한 한두 문장의 기록이 있기도 하고, 기록 내용이 많은 날짜는 15~20여 행에 걸쳐 기록하고 있다. 문장은 대체로 그날의 일어난 사실만을 간단하게 기록한 건조한 서술형의 문장들이지만, 자신의 감상과 사회 등을 솔직하게 드러낸 부분들도 적지 않다. 또한 자신이 창작한 사부(詞賦)와 시작(詩作), 서간(書簡)이나 제문(祭文) 등을 기록해놓기도 하였다. 아래에서는 『채범곤일기』의 내용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하였다.

1) 가족관계 및 교유관계

일기에는 채범곤이 일상적으로 혹은 특별한 일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일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와 교유의 범위로 볼 때, 당시 채범곤은 자신의 거주지인 대구를 위시한 달성·칠곡·경산·영천·의성 등 인근 향내에서 상당히 높은 사회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채범곤이 일상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군(人物群)은 우선 가족 및 혈연·혼맥 등으로 맺어진 친족들이다. 채범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농사일의 감독과 장옥(場屋) 건축이나 성재당(盛才堂)의 연못 조성 등의 조경 공사와 관련된 일, 그리고 관청에 내는 서류의 작성 및 토지거래 등을 처남과 아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성재당의 바로 아래 마을 미대(美臺)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과 딸들을 방문하면서 그 때마다 며느리와 사위, 그리고 사돈 집안의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다. 그리고 채범곤 자신의 문중과 향내의 위상과 관련해서 그가 거주하던 성재당으로는 형제종반 등 집안사람들과 사돈집의 사람들과 향내의 인사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또 일기에는 성재당의 연못 조성 등의 조경 공사와 관련한 인부들과 많은 수의 노비들이 등장하고 있다. 편지의 전달, 장시(場市)에서의 물건 구입, 가옥의 수리, 전답의 경작 등의 일을 시키면서, 그리고 심부름 온 다른 집안의 노비들을 자주 만나면서 노비들의 이름이 일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채범곤은 자신의 주된 생활 근거지였던 대구와 달성으로 파견되어 온 수령들과도 끊임없이 접촉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향교나 서원 등 향내의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 채범곤은 꼭 초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수령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 채범곤은 관아로 직접 찾아가 수령들을 만나기도 하였으며, 수령들은 채범곤의 성재당을 지날 때 들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인맥은 관청과 관련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건 해결에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2) 경제활동

채범곤의 경제활동의 중요한 특징은 '지역성'과 '가족경영'을 들 수 있다. 채범곤은 자신의

거주지인 달성 미대 주변에 위치한 전답과 산지를 자신이 직접 감독해서 경작하거나 벌목을 하였다. 경작했던 주요 작물은 벼였고, 콩과 메밀 등도 대과 작물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주요 작물이 벼였기 때문에 이양^{移秧} 등 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는데, 1865년 한 해는 오랜 가뭄 뒤에 늦은 장마가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패농^{敗農}을 하는 상황에서 대과 작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잘 기록해놓고 있다. 산지의 벌목은 목재와 땃감, 주로 건축에 필요한 목재로, 그 입수에 힘을 쏟았다. 일기를 통해 채범곤의 주요한 경제적 소득은 전답에서 나왔으며, 그 전답들은 채범곤 자신의 생활 근거지인 달성 미대 주변에 있었으며, 그 관리는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답 경작을 통한 소득이 채범곤의 주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특히 전답 경작에 관심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세^{賦稅}의 납부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전답 경작을 통해 납부해야 할 부세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시 일반화되었던 계회^{契會} 자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수시로 그 자금을 변통해서 급한 경비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전답 경작을 통한 생산 이외의 교역 상황은, 채범곤은 수시로 장시에 나가 미곡 등의 물가 변동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미곡 등을 팔아서 경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행상^{行商}이 집으로 찾아와 그들에게서 반찬이나 잡화를 구입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채범곤은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장시의 변화, 미곡 등의 물가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변동 상황을 자신이 직접 나가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는 소식을 통해 확인해서 일기에 기록해두고 있다. 특히 1865년 한 해는 오랜 가뭄과 뒤늦은 장마로 농사가 대부분 패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곡의 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대로 일기에다 모두 기록해두고 있다. 또 행상^{行商}에게 반찬이나 잡화를 구입하는 기록을 통해, 행상이 조선 후기에 일반화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호환^{虎患}에 대한 잦은 기록으로, 당시 소와 같은 가축의 대량 사육, 방목^{放牧}을 통한 목장 형태의 대량 사육이 보편화되어 가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경조사 및 회합

『채범곤일기』에는 경조사^{慶弔事}에 대한 많은 기록이 보인다. 혼사^{婚事}와 회갑^{回甲} 등의 잔치 기록, 조문^{弔問}과 제사^{祭祀} 기록이 등장한다. 혈연적으로 일족인 동족과 혼인 등으로 통가^{通家}의 인연이 맺어진 인척 등에게 경조사가 생겼을 경우는 그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두고 있다. 그 중 제사는 크게 증조고비^{曾祖考妣}·조고비^{祖考妣}에 대한 제사, 외가의 제사, 처가의 제사 등 집안 내부의 사적인 제사와 서원 및 향교에서 지내는 공적인 제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친족들끼리 모여서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함께 선영^{先塋}을 참배하여 묘소를 정비하는 등 사적인 제사는 집안 내부 사람들의 결속의 장이 되었다. 서원의 춘향^{春享}과 추향^{秋享}, 향교의 석전제^{釋奠祭} 등은 공적인 만남의 장으로 특별히 중시되었다. 그리고 일기에서는 친족들의 회합에 대한 기록도 자주 등장한다. 특히 1865년 당시 지방 사족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던 경복궁^{景福宮} 중건에 따른 원납전^{願納錢}의 납부 문제와 관련해서 문중 친족들의 모임이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그 자리

에서 각 집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그 모임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또 장시간의 조정을 거쳐 각 집에서 납부할 금액이 정해지고 또 납부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함께 사는 동네 인사들이 모여 규약規約을 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고, 또 상사일上巳日·유두流頭·칠석七夕 등의 모임을 동네에서 함께 열어 함께 잔치를 벌이는 모습도 일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4) 여가 활동

채범곤은 교유 등 공적인 활동을 바쁘게 해나가는 가운데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주로 독서 및 산책으로 시간을 보냈다. 일기에 읽고 있는 서책의 이름이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채범곤은 성재당에 상당량의 서책을 구비하고 읽고 있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 채범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성재당에 조성해놓은 연못 주변을 산책하거나 성재당 주변의 산수자연 사이를 왕래하면서 자연을 완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한시漢詩를 수창하거나, 또 찾아온 사람이 바둑을 둘 경우에는 바둑을 여러 판 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의 거주지 가까운 팔공산八公山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성재당을 중심으로 한 산수자연 속을 왕래하거나 팔공산을 유람하는 것은 주자朱子에서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잇는 영남학파嶺南學派 선비들의 전통을 잇는 생활방식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 여러 편의 시문詩文을 지은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5) 풍속

『채문일기』에는 채범곤이 직접 경험했던 당시의 풍속에 대한 기록도 충실하게 담겨 있다. 그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소과小科에 합격한 집안의 족손族孫 채익서蔡翼瑞의 문희연聞喜宴이다. 그것은 일기의 거의 시작 부분인 1865년 4월 4일부터 같은 해 8월까지 5개월 여 동안의 기록이다. 일가친척들이 모두 동원이 되어 사당과 선영에 고유하는 것에서부터, 일가친척들이 모여 사는 각 마을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환영인사를 받고, 나중에는 경산의 관아에서 환영연이 베풀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 민간 풍속의 예를 살펴보면, 돌을 맞은 아이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는 광경, 칠석을 맞아 동네 연회에서 무고舞鼓를 치면서 노는 모습 등등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또 혼인 등의 행사를 위해 길일을 점치거나 말을 도둑맞았을 때 길흉을 묻는 등 직업적인 '점쟁이'에게 자문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6) 역사적 사건의 기록

『채범곤일기』는 개인 일기이므로 주로 자신의 일상생활 및 주변 인물들과 지역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경복궁 중건에 따른 원납전의 납부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 각 지역과 각 문중 단위로 부과된 원납전의 납부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정사正史나 기타의 읍지邑誌 등의 문헌文獻에는 기록될 수 없는 개개의 징수 과정에 대한 주

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역과 각 문중 단위로 어느 정도의 경비가 부과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과된 경비가 어떠한 경로로 수합이 되어 중앙에 전달되고 있는지 등등 원납전의 실제 부과된 징수 과정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기록은 정사나 기타 읍지 등의 기록을 보완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

5. 『채범곤일기』의 가치

『채범곤일기』는 현재 많은 양이 전하지 않고 있는, 조선 후기 사대부 일기 중의 하나이다. 날마다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는데다, 특히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정서나 편집 등의 일정 정도의 번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필 수고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의 사실성과 충실도가 매우 높은, 아주 중요한 사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일기는 우선 채범곤 개인의 일상사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채범곤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더구나 채범곤의 경우 시문집 등 다른 저작집을 따로 남기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채범곤이라는 한 인물과 그와 관련한 여러 삶을 살피는 유일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일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대개 조선 후기 영남 사족의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만큼 각 인물의 전기傳記를 복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경상북도 대구·달성·칠곡·경산·영천·의성 일대의 지방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채범곤의 경제생활과 관련해서, 그 본업인 농사에 따른 일기의 변화, 오랜 가뭄 뒤의 장마 등의 상황을 몹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조선 후기에 활발해진 지역 장시의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미곡 등의 물가 변동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 당대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경복궁 건립을 위한 원납전의 지방 징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경제사와 정치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일기는 채범곤의 인적 교류·경제 활동·사회 활동 등 외적인 활동, 질병·음주·음식 섭취·주거·의복·조경·수면 등과 관련된 신체적 환경, 독서·문학 창작·취미 생활·감정의 기복 등의 정신적 활동, 그리고 원납전 징세·장시의 발달·행상의 성행 등과 지역 사회 내에 발생한 사건·풍속 등의 사회적 환경 등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1865년과 1866년을 산 한 개인의 모든 측면을 공시적共時的이고 미시적微視的으로 연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1차 사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석태】

참고문헌

- 채범곤蔡範坤, 『채범곤일기』(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 이돈우李敦禹, 『공암선생문집肯菴先生文集』(경인문화사 영인)
- 채성원蔡星源, 『공산문집公山文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사마방목』, 『대구시사』

대계집간역시일기

大溪集刊役時日記

- 제목 표제 : 大溪集刊役時日記.
권수제 : 大溪府君遺稿刊役時日錄
- 저자 미상
- 판사항 필사본
- 작성연대 1884~1885년(고종 21~22)
- 형태사항 1책(21장) / 선장(5침) / 사주무변, 무계, 무어미 /
12행 25~30자 / 19×17.9cm
- 소장자 고성이씨 탐동증가
-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 개요

『대계집간역시일기』는 표제가 ‘대계집간역시일기大溪集刊役時日記’이며, 권수제는 ‘대계부군유고간역시일록大溪府君遺稿刊役時日錄’으로 되어 있다. 대계大溪 이주정李周禎(1750, 영조 26~1818, 순조 18)의 문집을 이주정의 증손자가 목판으로 간행했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내용은 1884년 1월 8일 판하본의 서술부터 1885년 12월 3일 문집의 권3을 교정본 후, 상의해야 할 일들이 생겨 판각을 중지할 때까지의 기록이다. 일기가 문집의 판각이 완성될 때까지의 기록이 아니라, 판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판각을 중도에서 우선 정지하였다는 기록까지이므로 그 이후의 문집 판각 과정은 알 수 없다.

『대계집』은 표제가 ‘대계집大溪集’, 권수제가 ‘대계선생문집大溪先生文集’으로 되어 있다. 천夭·지地·인인 3책에 각 책은 2권씩 모두 6권 3책이다. 권1은 시詩·만輓·소疎, 권2는 서書, 권3은 서序·발跋·상량문上樑文·명銘·축문祝文, 권4는 제문祭文·묘지명墓誌銘·묘갈명墓碣銘·광기擴記, 권5는 행장行狀, 권6은 행장行狀·유사遺事·부록附錄(이주정의 행장과 묘갈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계집』 책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다.

2. 저자의 생애

『대계선생문집』 「행장」·「묘갈명」, 『고성이씨삼세행략固城李氏三世行略』에 따르면, 이주정의 자는 한백翰伯·경점景詹, 호가 대계大溪이며,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초명은 종낙宗洛이었다. 고성이씨 안동 입향조는 이주정의 10대조 이증李增이었다. 이증은 세종조에 좌의정을 지낸 이원李原(1368~1429)의 여섯째 아들로 1453년(단종 1) 진사시에 합격하여 영산현감을 지내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그는 벼슬을 그만둔 뒤 안동부 부성 남문밖에 우거寓居하였다.

이증의 아들과 손자 대에 문과 급제자와 생진시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가문이 번성하였다. 그러나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손자 이윤李胤이 화를 당하고 그의 동생 이주李胄 역시 갑자사화 때 김중직의 문인으로 몰려 진도로 귀양갔다가, 궐내에 대간청 설치를 청한 이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1504년 김굉필金宏弼 등과 함께 죽음을 당하니 남은 자손과 형제들이 영천, 군위, 청도, 합천 등지로 이거하였다.¹ 현재 안동에 거주하는 고성이씨는 이증의 둘째 아들로 개성유수를 지내고 고향에 돌아와 귀래정歸來亭(현 안동시 정상동 소재)을 지은 이광李曄(1441~1516)과 형조 정랑을 지내고 임청각臨淸閣(현 안동시 법흥동 소재)을 지은 이명李洺 형제 후손들의 일부이다.

이명의 여섯째 아들 이광李肱은 반구정伴鷗亭(현 안동시 정상동 소재)을 지어 반구옹伴鷗翁이 불렸다. 이주정의 고조는 증좌승지贈左承旨 이후식李後植, 증조는 팔회당八懷堂 이시항李時沆

1 현재 안동시 정상동 소재 명호서원明湖書院에서 이원李原과 이주李胄를 제향하고 있다.

(1690~1749)이다. 자가 일초一初이며 이주의 방손傍孫이다. 1721년(경종 1)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조는 이원복李元馥, 부는 통덕랑 이홍보李弘輔였다. 어머니는 이덕룡李德龍의 딸 영천이씨였다.

이주정은 3살 때 모친상을 당하고 후에는 계모인 김씨를 정성껏 섬겼다. 자라서는 남병南屏 정박鄭璞에게서 수학하고 26세 때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77년(정조 1) 28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46세 때인 1795년(정조 19) 을묘乙卯 정시庭試 병과丙科 8위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가주서(1795~1801)를 거쳐 1804년(순조 4, 55세)성균관전직과 예조좌랑에 임명되었다. 이후 결성현감結城縣監을 거쳐 1813년(64세)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1813년(순조 13) '안동부 용흥리龍興里에 거주하는 통정대부 전 행사헌부지평 이주정'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를 볼 때 같은 해 안동으로 낙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행장』에는 1816년(67세) 개성부의 소윤少尹 즉 경력經歷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816년 3월 '전 지평 이주정을 유향좌수留鄉座首로 차정差定' 위한 안동도호부 유향좌수 차첩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주정이 개성부경력에 임명되었다면 같은 해 안동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주정은 1818년 4월 22일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9월 안동부 동쪽 용점산龍占山 간좌良坐(동북을 등지고 서남향)에 안장되었다.

그는 이종주李宗周 등과 함께 『남병문집南屏文集』을 간행하였고, 스승인 이상정李象靖의 도학이 이황의 학통을 이었으므로, 서원에 함께 배향해 달라는 「의청선사철향소擬請先師醮享疏」를 올리기도 하였다.

첫째 부인은 유상원柳象源의 딸 전주유씨였고, 둘째 부인은 조운창趙運昌의 딸 함안조씨였다. 이주정은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다. 이 중 셋째 아들 응수應秀의 첫째 아들 정덕庭德이 본 해제 일기를 작성한 『대계선생문집』 판각을 추진했던 '이주정 증손'의 부친이다.

『대계선생문집』 수록 이주정의 행장은 이시수李著秀, 묘갈명은 유치명柳致明이 지었다.

3. 『대계집간역시일기』의 구성과 체제

『대계집간역시일기』는 1책 21장이며, 5침 선장으로 장정되어 있다. 초서체로 쓴 필사본으로 1면에 10행, 1행의 자수는 25~30자로 일정하지 않다. 일기의 서두 권수체는 '대계부군유고간역시일록大溪府君遺稿刊役時日錄'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갑신甲申(1884) 봄으로 되어 있는 2장 1면 분량의 서문이 있다. 이 글은 이주정의 증손 이모李某가 문집 간역이 시작되기까지의 사정을 적은 것이다.

일기는 1884년 1월 8일부터 시작되어 1885년 12월 3일 문집의 권3을 교정본 후, 상의해야 할 일들이 생겨 판각을 중지할 때까지 이어진다. '正月八日', '正月二十四日'처럼 일자에 달을 붙여 썼는데 기록할 내용이 있는 날만 적어 나갔다. 기록할 내용이 없는 달은 쓰지 않아 간역의 전말을 기록하는데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자는 권표(○)를 매기지 않는 대신 한 칸을 띄어 적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4. 『대계집간역시일기』의 내용

1) 『대계집』간역을 시작하게 된 경위

『대계집』간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기 서두의 증손 이모李某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대계 이주정이 남긴 유집遺集은 그의 아들들인 저자의 조부와 조부의 형제 이응수李應秀(1784~1849) 대에 10책으로 편집되었다. 이후 교열을 거쳐 7책으로 줄었고 다시 5책으로 줄었다. 이 5책이 문집 교정본이 되었다. 그러나 간역할 자금이 없어 미루어 오다가 1878년(무인, 고종 15) 겨울 문중 모임[花樹祺齋會]에서 저자의 부친이 간역자금 지원을 호소하여 비로소 자금이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문중의 여러 곳에서 60여 금을 거두고 임원을 선출하여 이자를 놓았다.

2년 뒤 1880년(경진) 여름 저자의 부친이 정본正本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또 2책을 줄여 최종 3책이 되었다. 현존 『대계집』은 6권 3책으로 이때 대략의 분량이 결정된 것이다. 줄인 내용은 ‘한 사람의 사적과 행적이 행장·묘갈문·만사·제문 가운데 중복된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당시 사람의 눈에 거리낄 것’이 있으면 모두 제외하였다. 이후 1884년(갑신) 봄에 간역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부친의 죽음으로 간역 추진은 저자의 몫이 되었다.

2) 『대계집』간역의 계약과 간본刊本(관하본板下本) 필사 준비

1878년(무인) 이자를 놓은 60여 금은 5년이 지난 1883년(계미) 460여 금이 되었다. 본전을 두고 이자를 취해 3년 내 해마다 1책씩 새길 계획을 세우고 1884년(갑신) 1월 8일 간역 계약을 맺었다. 간역소刊役所를 설치하는 대신 판각을 오로지 각수刻手에게 맡기고, 책판冊板을 새겨 오면 그 공임과 들어간 비용을 주기로 계약하였다.

간역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애초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데다 당시 흉년이 들어 물가가 폭등하였기 때문에 간역소 설치 비용이 평소보다 몇 배 더 들 것이라는 경제적 문제 때문이었다. 각수는 목계黥溪²에 사는 전기원田基元인데, 1883년 정재定齋 류치명柳致明(1777~1861)의 문집인 『정재집定齋集』 간역 때 도각수都刻手를 맡은 사람으로 주위에 명성이 나 있었다.

계약은 각 책판마다 2냥 8전을 지급하고, 목판 재료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새긴 글자모양이 정교하지 않으면 이미 새긴 책판이라 하더라도 돌려보낸다는 조건을 붙여 이루어졌다. 위 2냥 8전은 책판 값 1전, 책판을 운반하고 소금으로 삶는 비용 5냥³, 책판을 다듬는데 드는 비용 1전, 장두裝頭(마구리)에 드는 비용 1전, 원공임 2냥 3전, 책판을 다듬고 장두하는 공인의 식대 1전, 책판 교정 비용 5냥이었다. 이외에 책판 간행을 시작할 때 술값과 밥값의 추가 지출이 있었다.

저자는 1월 8일 집으로 온 각수와 계약을 맺고 30폐미의 돈을 책판 재료값으로 먼저 주어

2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마을. 『문집판각의 기록 간역시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5, 290쪽

3 1807년 편찬된 『嶺營事例』에 의하면 소금물에 삶아서 가공하는 烹板木은 한 가마술에 책판 5립, 나무 2속, 소금 1승 5합의 비율로 넣어 삶아서 사용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뿔나무의 가격은 매 속당 4푼이었다. (장인진, 『영남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0, 47쪽.)

서 돌려보냈다. 나머지 돈은 계약에 따라 책판을 새겨오면 후불로 지급하면 되었다. 2월 24일 간본刊本 20장을 써 보냈고, 26일 각수의 집이 있는 길협吉峽(길안) 목계에서 판각이 시작되었다. 간역소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수의 집을 왕래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으나, 경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일이 번거롭지 않고 사람이 많아 어수선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위와 같은 계약조건이라면 책의 모양 또한 정교하고 치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간본을 쓸 때 들어가는 비용과 종이·붓·먹의 값이 얼마나 들지 예측되지 않아 불안해하였고, 일을 시작하게 된 뒤에는 매 권마다 장수가 80~90장을 밀돌지 않아 1년의 이자로 1책을 간행할 수 있을지 염려하였다. 넉넉하지 못한 자금사정은 간역추진 과정에 겪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

또한 간역소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본을 전달하거나 인출본을 확인하느라 판각이 진행되는 각수 거주 목계마을로 왕래 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는 어려움이 따랐다.

한편 판각 계약 후 간본 필사를 준비하였다.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수집한 원고를 베껴서 가편집한 초고본草稿本, 초고본을 수정·교정한 중고본中稿本, 중고본을 최종 교정하고 정서正書한 후 서문序文을 수록한 정고본定稿本, 판각을 위해 정고본을 얇은 종이에 먹으로 깨끗이 옮겨 쓴 등재본登梓本(간본, 판하본)이 필요하다.⁴ 그런데 『대계집』의 경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선대에 이미 정고본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간본 작성에 들어가면 되었다. 이 정고본이 교정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정·윤문·교감한 글이었음에 불구하고 판각 과정에서 음이 비슷하고 글자가 비슷하여 잘못된 곳과 간혹 와전되어 잘못된 곳이 발견되었다.(일기 : 1884년 5월 28일)

간본의 필사는 저자의 막내 숙부가 맡게 되었다. 그러나 후에 숙부의 건강이 나빠진 이유로 검서옹儉棲翁이 간본 필사를 분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자가 일기의 서두에서 '모든 조치와 기획의 방도, 문자를 헤아려 확정할 곳 등은 모두 평천옹平泉翁⁵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밝혀 놓았듯이 평천이집은 이후 간역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3) 간본 작성과 판각

간본 작성은 1884년 1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간본 필사를 맡은 숙부가 춘협春峽(춘양)의 임시처소에서 저자의 집으로 와 쓰기 시작하였다. 글자의 간격을 고르게 하기 위해 영지影紙(정간지井間紙)⁶를 그려서 수십 여 장을 썼으나, 후에 각수가 새겨 보낸 정간판井間板의 길이와 맞지

4 장인진, 2010, 『영남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앙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8쪽.

5 평천(平泉)은 이집(李集, 1822~1895)의 호이다. 자는 원진(元振), 본관은 고성, 안동에 살았다. 류치명(柳致明, 1777~1861)의 문인으로서 저서로는 『평천유고』가 있다. (위의 책, 한국국학진흥원, 2015, 291쪽, 각주 136.)

6 글씨를 쓸 때 글자의 간격을 고르게 하기 위해 책지 밑에 받치는 종이로, '정井'자 칸을 붉은 선이나 검은 선으로 그은 한지.(위의 책, 한국국학진흥원, 2015, 292쪽, 각주 139.)

않아 고쳐서 다시 썼다. 24~25일에는 문중의 어른들이 저자의 집에서 편차^{編次}와 범례^{凡例}를 바로 잡고 자수^{字數}와 장수^{章數}를 고르게 조정하였다. 숙부는 1월 그믐께 춘양으로 돌아갔다.

이후 숙부의 간본 필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계속되었다. 저자는 2월 8일아들을 춘양으로 보내 숙부가 쓴 간본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비교하여 교정해 줄 사람 없이 혼자서 작성한 간본은 글자가 잘못되거나 편차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뒤에 고쳐 써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숙부는 다시 저자의 집으로 와 간본을 쓰게 되었다. 이후 숙부는 춘양과 저자의 집을 왕래하며 간본을 써나갔고 완성된 간본은 그때 그때 목계의 각수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간역소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령의 숙부가 먼 길을 왕래하며 간본을 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결국 9월 경 숙부의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의 간본 필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2권의 간본 작성은 법리^{法里}⁷에 거주하는 검서용이 분담하게 되었고, 10월 9일 종이·붓·먹을 법리로 보냈다.

필사된 간본은 저자가 다시 대조하여 고치고 또 문중에서 교정하였다. 글자가 누락된 것을 줄을 따라가면서 칼로 긁어내고 그 차례를 바꾸어서 풀로 붙였다. 구^句를 따라가며 칼로 긁어내어 위에서 바꾸고 아래에서 고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간본을 아예 다시 쓰기도 하였다.(일기 : 1884년 10월 13일, 10월 19일)

간역의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문집내용 때문에 문중 내 갈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1885년(을유) 8월 12일에 간본 필사를 마친 2권은 바로 판각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2권에 들어 있는 묘갈명의 인명자^{人名字}때문에 문중 내에 갈등이 생겼다.

○ 만음^{晩陰} 사고^{沙阜} 아저씨가 와서 “귀래정과^{歸來亭}⁸ 내의 사람으로서 만음에 사는 자가 「쌍탄묘갈명^{雙灘墓銘}⁹ 을 제외시킨 것 때문에 장차 큰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네.”라고 전하였다. 듣고 보니 매우 가소롭다. 처음에 강정^{江亭}¹⁰ 사람이 쌍탄^{雙灘}의 명자^{名字}를 고치려 하였으나 공의^{公議}가 합쳐지지 않아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저들이 곧 묘갈명을 제외시킬 계획을 내어 사람을 시켜 نن지시 의중을 떠보도록 하였던 것이다. …

그리고 마침내 일을 멈추고 사람을 시켜 “들리는 말이 있으니, 원컨대 근간에 한 번 서로 마주 앉아 결정지은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을 듯하니, 한번 오시기를 고대한다.”라고 전하게 하였으나,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3월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각수가 간본을 재촉하는데도

7 임청각^{臨淸閣} 부근의 안동시 법흥동^{法興洞}(위의 책, 한국국학진흥원, 2015, 304쪽, 각주 150.)

8 '귀래정'은 이평(李沆, 1440~1516)의 호이다. 이평의 자는 심원(深源)이고 본관은 고성이다. 1464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480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헌납·지평·청도군수·상주목사 등을 역임한 뒤, 1504년 갑자사화에 김광필 일당으로 몰려 삭탈관직 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 뒤 다시 기용되어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개성부유수 등을 지냈고, 1513년 사직한 뒤 고향인 안동에 내려가 귀래정을 짓고 한거하였다.(위의 책, 한국국학진흥원, 2015, 339쪽, 각주 176.)

9 '쌍탄'은 이효칙(李孝則, 1476~1544)의 호이다. 자는 희안(希仁)이고, 본관은 고성이다. 전의감 봉사(奉事)를 지냈다.(위의 책, 한국국학진흥원, 2015, 339쪽, 각주 177.)

10 안동시 정상동의 마을.(위의 책, 한국국학진흥원, 2015, 339쪽, 각주 178.)

제2권의 간본 쓰는 일을 마칠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일기 : 1885년 8월 19일)¹¹

1885년 3월 경 쌍탄 이효칙의 후손들이 『대계집』에 수록될 묘갈문에서 명자를 고치려 하였으나 저자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만나서 의논하고자 하였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문중의 장로들이 “그 묘갈명을 제외시키고 제2권의 일을 마쳐서 각수로 하여금 허구한 날 놓고먹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였고, 의견이 제외시키는 것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간본을 다시 고쳐 쓰게 되었다. 하지만 제외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선 2권의 판각을 멈추고 먼저 3권을 판각하게 되었던 것이다.(일기 : 1885년 8월 19일)

뿐만 아니라 당시 창궐하고 있던 전염병 역시 간역에 영향을 주었다.

○ 오늘은 곧 할머니 류씨柳氏의 제삿날이다. 전날 재협才峽(재산)에서 사촌 아우가 와서 숙부님께 전하는 편지를 받아보니, 한창 천연두가 번지는 데다 천연두를 앓고 있는 아이가 아버지를 자주 찾는다고 하기에 곧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편지를 전하였다. 이는 실로 난처한 일이다. 간본을 쓰는 일이 미루어져서 가겠다는 것도 어렵고, 천연두 소식이 급한데 가지 않겠다는 것도 어렵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억지로 만류하기가 곤란하여 어쩔 수 없이 초가을에 다시 오시겠다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제사를 지낸 뒤에 아침 일찍 길을 떠나 곧바로 재산으로 향하셨다. 산길에 풀이 무성하고 날씨가 한창 더운데 겹옷을 입은 행색이 아주 염려스럽다. 무사히 도달할 수 있으실지, 그리고 천연두는 순조롭게 지나갈지 모르겠다. 비록 딸아이지만 역시 마음에 걸린다.(일기 : 1885년 4월 26일)

19세기 조선에는 괴질이나 티푸스성 질병이 빈발하였다. 그리고 천연두도 이 무렵 조선에서 매우 흔한 병이었다. 천연두는 풍토병화하여 성인들보다는 아이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19세기에 간행된 전문의서들 중 지식영의 『우두신설牛痘新說』역시 바로 1885년에 간행되었다.¹²

간본의 대조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 써야 했지만, 인출본印出本의 교정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간본(판하본)을 다시 써야 했다.

○ 명동明洞¹³의 집안 조카가 묵계默溪에서 왔다. 각수가 제2권 인출본을 전하여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글자를 간혹 잘못 새긴 것이 있고, 또 획을 빠트린 것이 여러 군데 있었으며, 광기曠記는 3장이 빠졌는데 인출할 때에 빠뜨려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의심스럽다.(일기 : 1885년 10월 3일)

11 본 해제의 일기 인용문은 위의 책(한국국학진흥원, 2015.)의 번역 내용을 옮긴 것이며, 일기의 내용 파악에도 위의 책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2 李圭根, 「조선후기 疾病史 연구 - 『朝鮮王朝實錄』의 전염병 발생 기록을 중심으로 -」, 『국사관논총』 96집, 2001., 28-29쪽.

13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明津里)의 마을.(위의 책, 한국국학진흥원, 2015. 346쪽, 각주 183.)

위와 같은 판각의 어려움 속에서 저자 역시 건강이 나빠졌고 또한 악화되어 갔다. 하지만 간역 진행의 촉박함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바로 치료하지도, 요양하지도 못하였다.

○ 9월 초에 내가 간소刊所에서 돌아와 흥복부의 병이 가중되어 한 달을 괴로워하며 빗질도 못한 채 신음하느라 각처의 묘사에도 나아가 참석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고 칩거하다 보니, 간혹 울화증이 더해져서 몹시 답답하다. 조카아이가 우동愚洞에 성묘하러 갈 때, 김국서金國書에게 물어 보도록 하였더니, 기가 막혀서 생긴 증상이라고 하며 막힌 것을 터주는 처방을 써보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의학의 이치에 밝기 때문에 곧바로 약을 써보라고 하였다. 이처럼 약령시藥令市가 처음 개장하는 때에는 현금을 주지 않는다면 약을 짓기 어려우니, 이것이 걱정이다.(일기 : 1885년 10월 3일)

1885년 12월 3일은 일기에 기록된 마지막 날이다. 이 날은 각수 기원이 3권의 인출본을 가지고 왔다. 인출본은 완전하지 못하였고, 목록과 부록 등 상의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간역 진행을 중단하였다.

○ 기원이 제3권 교본을 인출하여 왔다. 「도낙음행장都洛陰行狀」¹⁴ 을 보니 2장이 빠져 있고, 가장 아래 1장 절반은 아직 새기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새긴 글자의 해정한 모양은 제2권보다 좀 나왔다. 목록과 부록은 이에 이어서 판각하게 될 것이나, 간본을 잇대어 쓰지 못하였고, 또 상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정지하였다.(일기 : 1885년 12월 3일)

일기 내용은 위 기록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5. 『대계집간역시일기』의 가치

『대계선생문집』은 서문과 발문이 없어 정확한 간행연도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문집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간행되었는지는 본 해제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판각의 비용 마련, 각수와 의 계약 형태와 내용, 간본의 작성과 판각과정, 간역의 경비 문제로 원고의 내용을 줄이는 사례, 도 각수 전기원田基元의 인적 사항 등 당시 문집 간행의 일단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문집 간행의 어려움과 간역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후손들의 정성과 열정을 생생하게 확인시켜 준다.

14 『대계선생문집』 권5에는 「증좌승지낙음도공행장贈左承旨洛陰都公行狀」으로 되어 있다. '낙음'은 도경유(都慶俞, 1596~1636)의 호이다. 자는 내보來甫, 본관은 성주이다. 정구와 서시원徐思遠의 문인으로, 1624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정묘호란 때 세자를 호종한 공으로 금부도사·평양서윤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쌍령전투에서 화약폭발 사고로 패전하고, 그 죄로 유배 가던 중 죽었다. 뒤에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승지로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낙음집』이 있다.(위의 책, 한국국학진흥원, 2015. 348쪽, 각주 185.)

아울러 이 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책판 판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 추정할 수 있다는 것도 본 해제 일기가 지니는 가치 중 하나이다. 현재 대부분의 책판은 앞뒤로 판각하였으며 문집 기준 4면이 새겨져 있는데, 판각에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일기에는 이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가 나온다.

- 목계로 길을 나섰다. 늦게 길을 나서 저물어서 기원의 집에 당도하였다.(1884년 6월 28일)
- 각수 기원의 아버지가 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초2일에 가지고 간 8쪽은 벌써 판각을 마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온 것이다.(1885년 8월 9일)

목계까지 반나절이 걸렸다고 하였으니, 왕복이면 1일이 된다. 그러면 7일 만에 판하본 8쪽, 즉 책판 2장을 앞뒀던 전부 새겼으니, 한 장 새기는 데 3~4일 정도가 소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숙련된 각수가 보조 각수의 도움을 받아 1장을 새길 수 있는 평균 작업량으로 생각된다.¹⁵

이주정은 영남지방에서 작은 퇴계라 불리던 대신 이상정으로부터 영남 주리론(主理論)의 정통을 계승하였다. 『대계집간역시일기』는 영남지방 주리론 석학(碩學)의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서, 당시의 문집 출간 과정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박상규】

15 박순, 「『간역시일기』 해제」(위의 책, 한국국학진흥원, 2015), 30~31쪽.

참고자료

- 『大溪集刊役時日記』(고성이씨 탐동종가 소장본, 한국국학진흥원 관리)
- 『大溪先生文集』
- 장인진, 『영남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상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0.
- 『문집 판각의 기록 간역시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5.

隨手記

東遊雜記

北遊錄

古筠日記

遊金剛山錄

湖南日錄

閩東日錄

杏亭神道碑暨立立日誌單

燕行錄

臨川請願日記

대구·경북 소재 조선시대 개인일기 목록

해제 일기 · 수록 페이지

15세기

NO.	제목	저자	작성연대	보관장소	페이지
001	최금남표해록 崔錦南漂海錄	최부 崔溥	1488년(성종 19)	소수박물관	

16세기

NO.	제목	저자	작성연대	보관장소	페이지
002	천사일로일기 天史一路日記	정사룡 鄭士龍	1537년(중종 32)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03	가정경술일기 嘉靖庚戌日記	이교 李喬	1550년(명종 5)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04	청참보우일기 淸斬普雨日記	김농 金農	1565년(명종 20)	한국국학진흥원	
005	석담일기 石潭日記	이이 李珣	1575~1581년(선조 8~14)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06	해월헌게미일기 海月軒癸未日記	황여일 黃汝一	1583년(선조 16)	한국국학진흥원	
007	해월선조일기 海月先祖日記筆蹟	황여일 黃汝一	1589년(선조 22)	한국국학진흥원	
008	낙재선생일기 樂齋先生日記	서사원 徐思遠	1592~1595년(선조 25~2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09	진사록 辰巳錄	조정 趙靖	1592~1597년(선조 25~30)	상주박물관	
010	만취선조예조일기 晩翠先祖禮曹日記	김개국 金蓋國	1596년(선조 29), 1598년(선조 31)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011	만취선조관동일록 晩翠先祖關東日錄	김개국 金蓋國	1596~1597년(선조 29~30)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012	만취선조관동일록 晩翠先祖關東日錄	김개국 金蓋國	1596~1597년(선조 29~30)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013	정간공일기 貞簡公日記	정탁 鄭琢	1596년(선조 29)	한국국학진흥원	
014	연행록 燕行錄	권협 權俠	1597년(선조 30)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15	조천록 朝天錄	황여일 黃汝一	1598년(선조 31)	한국국학진흥원	
016	대명만력이십칠세차기해대통력 大明萬曆二十七年次己亥大統曆	류성룡 柳成龍	1599년(선조 32)	개인소장	

17세기

NO.	제목	저자	작성연대	보관장소	페이지
017	모당일기慕堂日記	손처눌孫處訥	1600~1630년(선조 33~인조 8)	한국국학진흥원	
018	계암일록溪巖日錄	김령金垚	1603~1641년(선조 36~인조 19)	한국국학진흥원	
019	정미일록丁未日錄	김령金垚	1607년(선조 40)	한국국학진흥원	
020	조성당일록操省堂日錄	김택룡金澤龍	1612년(광해군 4), 1616~1617년(광해군 8~9)	한국국학진흥원	
021	경당일기敬堂日記	장흥효張興孝	1614~1625년(광해군 6~인조 3)	한국국학진흥원	
022	구전선생강원일록苟全先生講院日錄	김중청金中淸	1615~1616년(광해군 7~8)	한국국학진흥원	
023	나재종선조일기懶齋從先祖日記	미상	1621~1654년(광해군 13~효종 5)	한국국학진흥원	
024	서정록西征錄	황중윤黃中允	1620년(광해군 12)	한국국학진흥원	
025	남천록南遷錄	황중윤黃中允	1623년(인조 1)	한국국학진흥원	
026	죽소부군일기竹所府君日記	권벌權黻	1625~1626년(인조 3~4)	개인소장	
027	병자록丙子錄	나만갑羅萬甲	1636년(인조 14)	충재박물관	
028	병자록丙子錄	나만갑羅萬甲	1636년(인조 14)	한국국학진흥원	
029	병자록丙子錄	나만갑羅萬甲	1636년(인조 14)	경북대학교 도서관	
030	병자난리일기丙子亂離日記	미상	1636년(인조 14)	한국국학진흥원	
031	병정일기丙丁日記	남급南楛	1636~1637년(인조 14~15)	한국국학진흥원	
032	장사일록長沙日錄	신홍망申弘望	1652년(효종 3)	한국국학진흥원	
033	서행기西行記	미상	1657년(효종 8)	개인소장	
034	북정북北征錄	신유申瀏	1658년(효종 9)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35	사행일기使行日記	손만웅孫萬雄	1677년(숙종 3)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36	경신록庚申錄	미상	1680년(숙종 5)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37	기사록己巳錄	미상	1689년(숙종 15)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38	북정기北征記	권대림權大臨	1691년(숙종 17)	한국국학진흥원	
039	창구객일록蒼狗客日錄	이재李栽	1694년(숙종 20)	한국국학진흥원	
040	북천록北遷錄	김여건金汝楗	1694년(숙종 20)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41	연행일기燕行日記	권희학權喜學	1697년(숙종 23)	한국국학진흥원	
042	서행일기西行日記	권희학權喜學	1698년(숙종 24)	한국국학진흥원	
043	서행일기西行日記	권희학權喜學	1698년(숙종 24)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44	분강서원창원일기汾江書院勸院日記	미상	1699~1703년	한국국학진흥원	
045	기축서록己丑緒錄	미상	17세기	한국국학진흥원	
046	설학소문기雪壑謏聞記	이대기李大期	생몰년도(1551~1628년)로 추정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18세기

NO.	제목	저자	작성연대	보관장소	페이지
047	도연일기陶淵日記	미상	1703년(숙종 29), 1714~1718년(숙종 40~44), 1723년(경종 3), 1786년(정조 10)	한국국학진흥원	
048	관동일록關東日錄	권두기權斗紀	1705년(숙종 31)	경북대학교 도서관	
049	금강일기金剛日記	김창석金昌錫	1706년(숙종 32)	한국국학진흥원	
050	수비노임천장시일기首比魯任遷葬時日記	이재李裁	1711년(숙종 37)	한국국학진흥원	
051	서정기西征記	권득녀權得輿	1711년(숙종 37)	한국국학진흥원	
052	강좌친병일기江左親病日記	권만權萬	1717년(숙종 43)	영남대학교 도서관	
053	해유록海遊錄	신유한申維翰	1719년(숙종 45)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054	해유록海遊錄	신유한申維翰	1719년(숙종 45)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55	청천해유록靑泉海遊錄	신유한申維翰	1719년(숙종 45)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56	수록隨錄	김흥경金興慶	1714~1719년(숙종 40~45)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57	갑진옥중일기甲辰獄中日記	미상	1724년(경종 4)	한국국학진흥원	
058	무신년창의시일기戊申年倡義時日記	미상	1728년(영조 4)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59	남정록南征錄	오언구吳彦耆	1728년(영조 4)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60	병곡무신록屏谷戊申錄	권구權架	1728년(영조 4)	한국국학진흥원	
061	사제일기賜祭日記	미상	1733년(영조 9), 1756년(영조 32), 1781년(정조 5), 1785년(정조 9), 1792년(정조 16)	한국국학진흥원	
062	고상록 권2考祥錄 卷二	미상	1734~1738년(영조 10~14)	경북대학교 도서관	
063	백불암역중일기百弗庵曆中日記	최흥원崔興遠	1735~1786년(영조 11~정조 10)	개인소장	
064	이현락일기李憲洛日記	이현락李憲洛	1736년(영조 12)	개인소장	
065	이상정역중일기李象靖曆中日記	이상정李象靖	1739~1781년(영조 15~정조 5)	한국국학진흥원	
066	서행일기西行日記	김제행金齋行	1741년(영조 17)	한국국학진흥원	
067	원천공일록園泉公日錄	신만申曼	1741~1797년(영조 17~정조 21)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68	강좌일기江左日記 정묘	권만權萬	1746년(영조 22)	충재박물관	
069	서행일기丁卯西行日記	이상정李象靖	1747년(영조 23)	한국국학진흥원	
070	황사일록黃蛇日錄 북행	미상	1749년(영조 25)	한국국학진흥원	
071	일승北行日乘 관동산수	정옥鄭玉	1751년(영조 27)	한국국학진흥원	
072	일기關東山水日記 춘방	미상	1754년(영조 3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73	록춘坊錄	류관현柳觀鉉	1759년(영조 35)	한국국학진흥원	
074	해영일기海營日記	정옥鄭玉	1759년(영조 35)	한국국학진흥원	
075	경상도하양현일록慶尙道河陽縣日錄	김경철金景澈	1759~1762년(영조 35~38)	개인소장	
076	한거일과閑居日課	미상	1760~1761년(영조 36~37)	한국국학진흥원	
077	모년기사某年記事	박하원朴河源	1762~1776년(영조 38~52)	한국국학진흥원	
078	계미통신사도해기癸未通信使渡海記	조엄趙暉	1763년(영조 39)	소수박물관	

079	정원일기政院日記	미상	1764년(영조 40)	한국국학진흥원
080	여강기문록廬江記問錄	이우李堦	1765년(영조 41)	한국국학진흥원
081	은유일기恩遊日記	신상악申象岳	1765년(영조 41)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82	이사일기移徙日記	김성문金星文	1765~1766년(영조 41~42)	한국국학진흥원
083	주서강록간보인행시일기 朱書講錄刊補印行時日記	미상	1777년(정조 1)	경북대학교 도서관
084	수사록隨槎錄	노이점盧以漸	1780년(정조 4)	경북대학교 도서관
085	증왕고경모공분원정액시일기 曾王考敬謨公分院請額時日記	미상	1781년(정조 5), 1784년(정조 8)	개인소장
086	호계답문湖溪答問	류범휴柳範休	1781~1782년(정조 5~6)	한국국학진흥원
087	재무신소청일록再戊申疏廳日錄	미상	1788년(정조 12)	한국국학진흥원
088	도계리사호시일기道溪里社陞號時日記	미상	1791~1807년(정조 15~순조 7)	한국국학진흥원
089	견문초견聞草	이동항李東沆	1791년(정조 15)	한국국학진흥원
090	임자소행일록壬子疏行日錄	미상	1792년(정조 16)	한국국학진흥원
091	송정일월崇禎日月	권장權璋 권익權(金+翼) 권준희權準羲	1792~1908년(정조 16~융희 2)	한국국학진흥원
092	하와일록河窩日錄	류의목柳懿睦	1796~1802년(정조 20~순조 2)	한국국학진흥원
093	무경일록戊庚日錄	미상	1798~1800년(정조 22~24)	한국국학진흥원
094	수득록隨得錄	김광金垓	1799~1800년(정조 23~24)	한국국학진흥원

19세기

NO.	제목	저자	작성연대	보관장소	페이지
095	백세운결록 권상 · 중百世隕結錄 卷上 · 中	류이좌柳台佐	1800년(정조 24)	한국국학진흥원	
096	임천서당중건일기臨川書堂重建日記	미상	1803~1812년(순조 3~12)	한국국학진흥원	
097	계해일기癸亥日記	미상	1803년(순조 3)	한국국학진흥원	
098	서정록西程錄	미상	1804~1806년(순조 4~6)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99	봉강영당영건일기鳳岡影堂營建日記	미상	1805~1867년(순조 5~고종 4)	한국국학진흥원	
100	관동일기關東日記	류상조柳相祚	1808년(순조 8)	한국국학진흥원	
101	서란록西亂錄	미상	1811~1812년(순조 11~12)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02	이병탁역중일기李秉鐸曆中日記	이병탁李秉鐸	1814~1832년(순조 14~32)	한국국학진흥원	
103	승사록乘槎錄	최두찬崔斗燦	1818년(순조 18)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04	청사명원록靑蛇明冤錄	김의정金義貞	1818~1861년(순조 18~철종 12)	한국국학진흥원	
105	번암집간소일기樊巖集刊所日記	미상	1823~1824년(순조 23~24)	한국국학진흥원	
106	송정일월崇禎日月	미상	1824년(순조 24)	한국국학진흥원	
107	만귀재일지晚歸齋日誌	안행탁安行鐸	1824~1830년(순조 24~30)	한국국학진흥원	
108	을병경서정일록乙丙庚西征日錄	미상	1826년(순조 26)	경북대학교 도서관	
109	일기완日記完	이정현李正鉉	1826~1865년(순조 26~고종 2)	경북대학교 도서관	

110	동유일록東遊日錄	김건수金建銖	1826년(순조 26)	한국국학진흥원
111	난졸재이선생면례시일기 懶拙齋李先生緬禮時日記	미상	1827년(순조 27)	한국국학진흥원
112	기축일기己丑日記	미상	1829~1830년(순조 29~30)	한국국학진흥원
113	행정면례시일기杏亭緬禮時日記	미상	1829~1832년(순조 24~32)	한국국학진흥원
114	신축년일기辛丑年日記	미상	1841~1842년(헌종 7-8)	한국국학진흥원
115	임재일기臨齋日記	서찬규徐贊奎	1845~1861년(헌종 11~철종 12)	한국국학진흥원
116	김두흠일록金斗欽日錄	김두흠金斗欽	1845~1847년(헌종 11~13), 1851~1853년(철종 2~4), 1858~1867년(철종 9~고종 4)	한국국학진흥원
117	물촌선생영정개모시일기 勿村先生影幀改慕時日記	미상	1849년(헌종 15)	한국국학진흥원
118	권벌승무소청일기權撥陞廡疏廳日記	미상	1851년(철종 2)	충재박물관
119	권벌승무소행일록權撥陞廡疏行日錄	미상	1851년(철종 2)	충재박물관
120	입항시일기立享時日記	미상	1852년(철종 3)	한국국학진흥원
121	괴담입항시일기槐潭立享時日記	미상	1852~1872년(철종 3~고종 9)	한국국학진흥원
122	이돈우역중일기李敦禹曆中日記	이돈우李敦禹	1855~1857년(철종 6~8), 1883년(고종 20)	한국국학진흥원
123	병진일록丙辰日錄	미상	1856년(철종 7)	한국국학진흥원
124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김중휴金重休	1857~1860년(철종 8~11)	한국국학진흥원
125	소와공죽리관중건일기 笑窩公竹裏館重建日記	이학영李學榮	1860년(철종 11)	한국국학진흥원
126	연행일기燕行日記	박제인朴齊寅	1860년(철종 11)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27	보충補聰	미상	1860~1861년(철종 11~12)	한국국학진흥원
128	일기 제2日記 第二	미상	1861~1863년(철종 12~14)	한국국학진흥원
129	단산서원수리일기丹山書院修理日記	이능연李能淵	1862년(철종 13)	한국국학진흥원
130	임천청역일기臨川請額日記	류기호柳基鎬	1864년(고종 1)	한국국학진흥원
131	갑자서행록甲子西行錄	미상	1864년(고종 1)	한국국학진흥원
132	호남일록湖南日錄	류휴목柳休睦	1864년(고종 1)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133	채범곤일기蔡範坤日記	채범곤蔡範坤	1865~1866년(고종 2-3)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134	행정신도비수립일지杏亭神道碑豎立日誌	미상	1867년(고종 4)	한국국학진흥원
135	객일수록客日隨錄	류기호柳基鎬	1870~1871년(고종 7-8)	한국국학진흥원
136	소행일기疏行日記	정직우鄭直愚	1871년(고종 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137	화원청복소청일기華院請復疏廳日記	미상	1874년(고종 11)	경북대학교 도서관
138	퇴계집개간일기退溪集改刊日記	미상	1877년(고종 14)	한국국학진흥원
139	김병황일록金秉璜日錄	김병황金秉璜	1878~1886년(고종 15~23)	한국국학진흥원
140	동경일기東京日記	송헌빈宋憲斌	1881년(고종 18)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41	대계간역시일기大溪刊役時日記	미상	1884~1885년(고종 21~22)	한국국학진흥원

142	일기日記	미상	1889~1899년(고종 26~광무 3)	한국국학진흥원
143	오제승일기吳濟承日記	오제승吳濟承	1891~1894년(고종 28~31)	한국국학진흥원
144	창의사상언시일기倡義事上言時日記	미상	1892년(고종 29)	한국국학진흥원
145	죽사일기竹史日記	미상	1894(고종 31)~1911년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46	연원일록燕巖日錄	미상	1899년(광무 3)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47	쇄록瑣錄	김석규金碩奎	19세기	한국국학진흥원
148	갑신일략약초甲申日錄略抄	김옥균金玉均	19세기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미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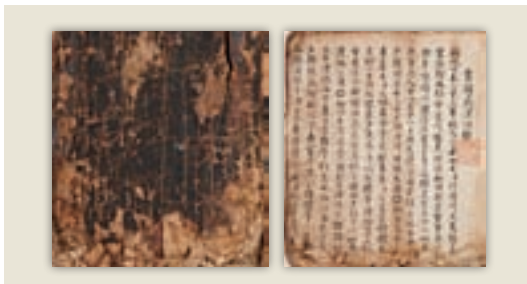
NO.	제목	저자	작성연대	보관장소	페이지
149	가세잡기家世雜記	미상	미상	한국국학진흥원	
150	관동일록關東日錄	미상	미상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51	동유잡기東遊雜記	미상	미상	한국국학진흥원	
152	동정잡록東征雜錄	미상	미상	경북대학교 도서관	
153	북유북北遊錄	미상	미상	한국국학진흥원	
154	산재일록山齋日錄	미상	미상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55	서강입향시일기西江立享時日記	미상	미상	한국국학진흥원	
156	서산왕복西山往復	미상	미상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57	소재일기蘇齋日記	미상	미상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158	수수기隨手記	미상	미상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59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	미상	미상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60	유서일록遊西日錄	미상	미상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61	일기日記	미상	미상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62	일기초日記抄	미상	미상	경북대학교 도서관	
163	일기日記	미상	미상	개인소장	
164	일기 권3, 4日記 卷三, 四	미상	미상	경북대학교 도서관	
165	일록日錄	미상	미상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66	파유일록巴遊日錄	미상	미상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도판 목록

해제 대상 일기

15세기

16세기



001 최금남표해록 崔錦南漂海錄

제목 표제 : 없음, 권수제 : 崔錦南漂海錄
저자 최부 崔溥(1454~1504)
작성연대 1488년(성종 19)
형태사항 1책(47장) / 선장(4침) / 24.2×21.6cm
소장자 영주시 소수박물관
보관장소 소수박물관



002 천사일로일기 天使一路日記

제목 표제 : 天使一路日記, 권수제 : 없음
저자 정사룡 鄭士龍(1491~1570) 등
작성연대 1537년(중종 32)
형태사항 1책(49장) / 선장(4침) / 38.8×25.5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03 가정경술일기 嘉靖庚戌日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嘉靖庚戌日記
저자 이교 李喬(1531~1595)
작성연대 1550년(명종 5)
형태사항 1책(14장) / 가철 / 31.2×24.3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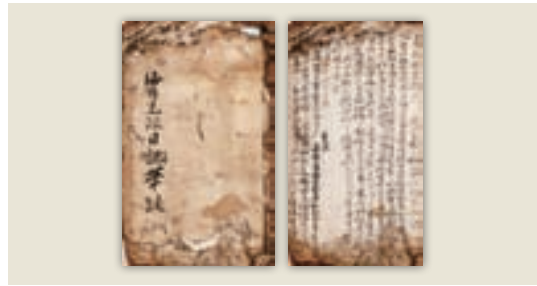
006 해월헌게미일기 海月軒癸未日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없음
저자 황여일 黃汝一(1556~1622)
작성연대 1583년(선조 16)
형태사항 1책(24장) / 가철 / 26.7×29.2cm
소장자 평해황씨 해월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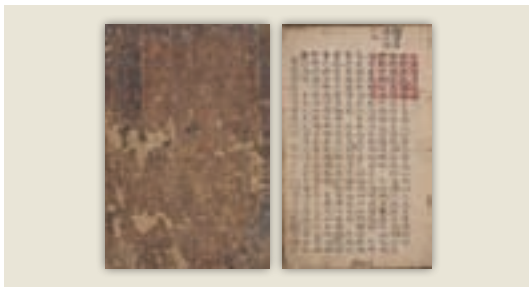
004 청참보우일기 淸斬普雨日記

제목 표제: 淸斬普雨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김농 金農(1534~1591)
작성연대 1565년(명종 20)
형태사항 1책(48장) / 선장(5침) / 31.4×21.9cm
소장자 풍산김씨 참봉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07 해월선조일기필적 海月先祖日記筆蹟

제목 표제: 海月先祖日記筆蹟, 권수제: 없음
저자 황여일 黃汝一(1556~1622)
작성연대 1589년(선조 22)
형태사항 1책(25장) / 선장(5침) / 41.1×24.5cm
소장자 평해황씨 해월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05 석담일기 石潭日記

제목 표제: 石潭日記, 권수제: 石潭日記
저자 이이 李珣(1536~1584)
작성연대 1575~1581년(선조 8~14)
형태사항 1책(93장) / 선장(5침) / 31.4×21.9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08 낙재선생일기 樂齋先生日記

제목 표제: 樂齋先生日記, 권수제: 樂齋先生日記
저자 서사원 徐思遠(1550~1615)
작성연대 1592~1595년(선조 25~28)
형태사항 1책(97장) / 선장(5침) / 31.0×22.5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09 진사록 辰巳錄

제목 표제 : 없음, 권수제 : 없음
저자 조정 趙靖(1555~1636)
작성연대 1592~1597년(선조 25~30)
형태사항 1책(72장) / 선장(5침) / 25.4×19cm
소장자 상주박물관
보관장소 상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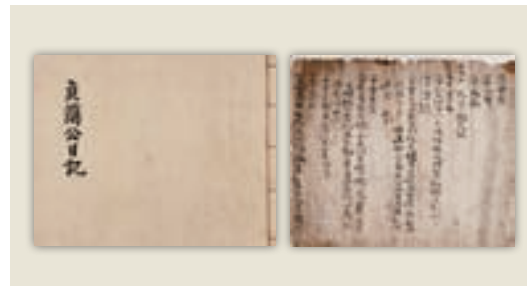
012 만취선조관동일록 晩翠先祖關東日錄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46호, 지정년도 : 2003년)

제목 표제 : 없음, 권수제 : 嶺東日錄始於春官終於湖西佐幕
저자 김개국 金蓋國(1548~1603)
작성연대 1596~1599년(선조 29~32)
형태사항 1책(49장) / 선장(5침) / 32.7×22.1cm(23.0×16.8cm)
소장자 영주시(괴현고택 기증)
보관장소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010 만취선조예조일기 晩翠先祖禮曹日記

제목 표제 : 晩翠先祖禮曹日記, 권수제 : 丙申正月禮曹佐郎時
저자 김개국 金蓋國(1548~1603)
작성연대 1596년(선조 29), 1598년(선조 31)
형태사항 1책(4장) / 선장(5침) / 25.6×28.5cm
소장자 영주시(김항희 기증)
보관장소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013 정간공일기 貞簡公日記

제목 표제 : 貞簡公日記, 권수제 : 없음
저자 정탁 鄭琢(1526~1605)
작성연대 1596년(선조 29)
형태사항 1책(17장) / 선장(5침) / 24.2×30.4cm
소장자 청주정씨 고평종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11 만취선조관동일록 晩翠先祖關東日錄

제목 표제 : 晩翠先祖關東日錄, 권수제 : 없음
저자 김개국 金蓋國(1548~1603)
작성연대 1596~1597년(선조 29~30)
형태사항 1책(44장 1면) / 선장(5침) / 30×22.9cm
소장자 영주시(김항희 기증)
보관장소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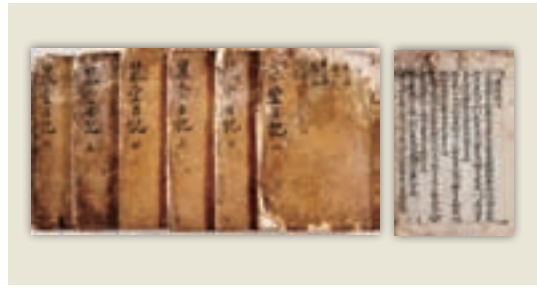
014 연행록 燕行錄

제목 표제 : 燕行錄 全, 권수제 : 없음
저자 권협 權峽(1553~1618)
작성연대 1597년(선조 30)
형태사항 1책(23장) / 선장(5침) / 32.7×21.5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15 **조천록** 朝天錄

제목 표제: 朝天錄, 권수제: 朝天錄
저자 황여일 黃汝一(1556~1622)
작성연대 1598년(선조 31)
형태사항 1책(40장) / 선장(5침) / 38.6×23.2cm
소장자 평해황씨 해월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17 **모당일기** 慕堂日記

제목 표제: 慕堂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손처눌 孫處訥(1553~1634)
작성연대 1600~1630년(선조 33~인조 8)
형태사항 6책(462장) / 선장(5침) / 30×20cm
소장자 일직손씨 대구종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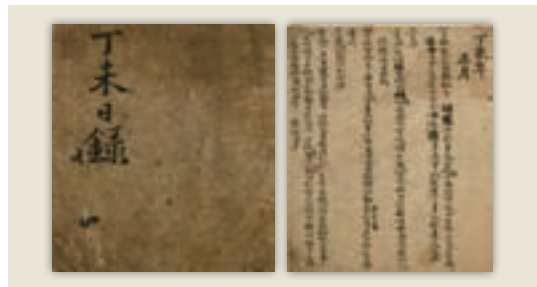
016 **대명만력이십칠년세차기해대통력**
 大明萬曆二十七年歲次己亥大統曆

제목 표제: 大明萬曆二十七年歲次己亥大統曆, 권수제: 없음
저자 류성룡 柳成龍(1542~1607)
작성연대 1599년(선조 32)
형태사항 1책(7장) / 가철 / 크기 40.3×20.8cm
소장자 개인소장
보관장소 개인소장



018 **계암일록** 溪巖日錄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20호)

제목 표제: 日錄, 권수제: 없음
저자 김령 金嶺(1577~1641)
작성연대 1603~1641년(선조 36~인조 19)
형태사항 8책(467장) / 가철 / 33.4~36.2×22.6~23.2cm
소장자 광산장씨 설월당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19 **정미일록** 丁未日錄

제목 표제: 丁未日錄, 권수제: 없음
저자 김령 金嶺(1577~1641)
작성연대 1607년(선조 40)
형태사항 1책(32장) / 선장(5침) / 22.8×16.8cm
소장자 광산김씨 설월당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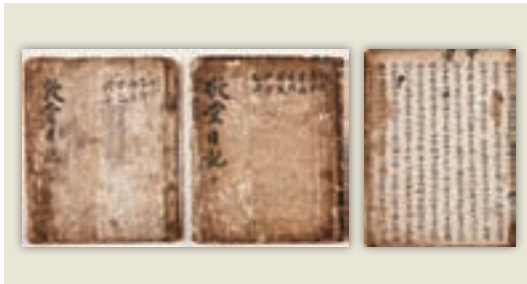
020 **조성당일록** 操省堂日錄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없음
저자 김택룡 金澤龍(1547 ~ 1627)
작성연대 1612년(광해군 4), 1616~1617년(광해군 8~9)
형태사항 3책(116장) / 선장(5침) / 29.3~30×21.6~23.2cm
소장자 의성김씨 평창사공파 삼대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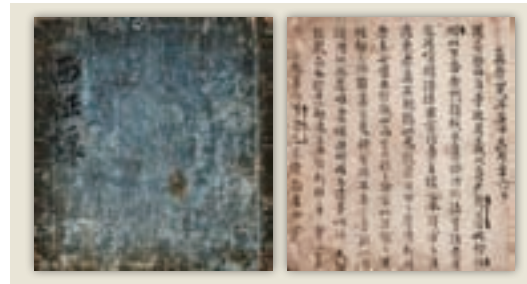
023 **나재종선조일기** 懶齋從先祖日記

제목 표제: 懶齋從先祖日記, 권수제: 懶齋從先祖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621~1654년(광해군 13~효종 5) **형태사**
항 1책(62장) / 선장(4침) / 20.8×20.5cm **소장자**
아주신씨인재파전암후손가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21 **경당일기** 敬堂日記

제목 표제: 敬堂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장흥효 張興孝(1564~1633)
작성연대 1614~1625년(광해군 6~인조 3)
형태사항 2책(126장) / 선장(5침) / 28.8~29.5×24.2~24.3cm
소장자 안동장씨 경당고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24 **서정록** 西征錄

제목 표제: 西征錄, 권수제: 없음
저자 황중윤 黃中允(1577~1648)
작성연대 1620년(광해군 12)
형태사항 1책(87장) / 선장(5침) / 24.9×23.2cm
소장자 평해황씨 해월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22 **구전선생강원일록** 苟全先生講院日錄

제목 표제: 苟全先生講院日錄, 권수제: 苟全先生講院日錄
저자 김중청 金中淸(1567~1629)
작성연대 1615~1616년(광해군 7~8)
형태사항 1책(74장) / 선장(5침) / 28.8×20.0cm
소장자 전주류씨 정재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25 **남천록** 南遷錄

제목 표제: 南遷錄, 권수제: 南遷錄
저자 황중윤 黃中允(1577~1648)
작성연대 1623년(인조 1)
형태사항 1책(18장) / 가철 / 27.0×28.6cm
소장자 평해황씨 해월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26 죽소부군일기 竹所府君日記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170호, 지정년도 1983년)

제목 표제 : 竹所府君日記, 권수제 : 없음
저자 권별 權龜(1589~1671)
작성연대 1625~1626년(인조 3~4)
형태사항 1책(34장) / 선장(5침) / 28×24cm
소장자 예천권씨 초간종택
보관장소 개인소장



029 병자록 丙子錄

제목 표제 : 丙子錄, 권수제 : 崇禎九年丙子日記
저자 나만갑 羅萬甲(1592~1642)
작성연대 1636년(인조 14)
형태사항 1책(53장) / 선장(5침) / 29.0×16.8cm
소장자 경북대학교
보관장소 경북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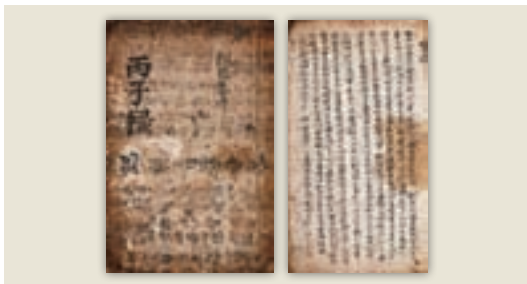
027 병자록 丙子錄

제목 표제 : 丙子錄, 권수제 : 丙子錄
저자 나만갑 羅萬甲(1592~1642)
작성연대 1636년(인조 14)
형태사항 1책(71장) / 선장(5침) / 28.2×18.7cm
소장자 충재박물관
보관장소 충재박물관



030 병자난리일기 丙子亂離日記

제목 표제 : 丙子亂離日記,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636년(인조 14)
형태사항 1책(20장) / 가철 / 28.7×19.9cm
소장자 경주최씨 대일문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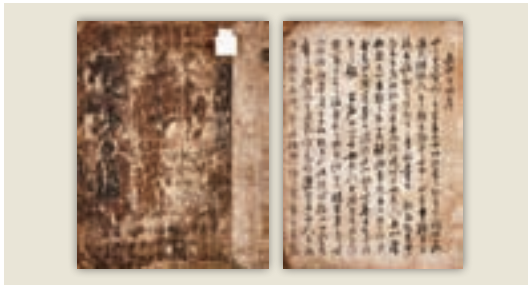
028 병자록 丙子錄

제목 표제 : 丙子錄, 권수제 : 丙子錄
저자 나만갑 羅萬甲(1592~1642)
작성연대 1636년(인조 14)
형태사항 1책(49장 1면) / 선장(5침) / 31.8×20.4cm
소장자 반남박씨 판관공파 청하재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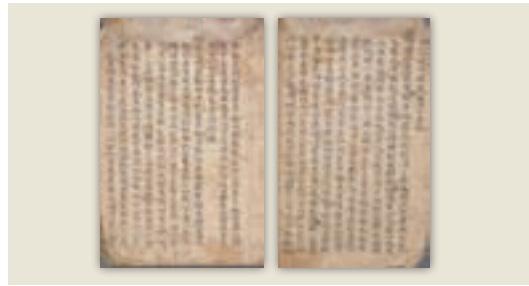
031 병정일기 丙丁日記

제목 표제 : 丙丁日記, 권수제 : 丙丁日記
저자 남급 南礮(1592~1671)
작성연대 1636~1637년(인조 14~15)
형태사항 1책(83장) / 선장(5침) / 29×18cm
소장자 전주류씨 백졸암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32 장사일록 長沙日錄

제목 표제 : 長沙日錄, 권수제 : 長沙日錄
저자 신흥망 申弘望(1600~1673)
작성연대 1652년(효종 3)
형태사항 1책(30장) / 가철 / 34.5×26.6cm
소장자 **아주신씨오봉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35 사행일기 使行日記

제목 표제 : 없음, 권수제 : 없음
저자 손만웅 孫萬雄(1643~1712)
작성연대 1677년(숙종 3)
형태사항 1책(48장) / 선장(5침) / 32.0×21.5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33 서행기 西行記

제목 표제 : 西行記, 권수제 : 丁酉秋七月會試西行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657년(효종 8)
형태사항 1책(18장) / 가철 / 24.2×22.9cm
소장자 개인소장
보관장소 개인소장



036 경신록 庚申錄

제목 표제 : 庚申錄, 권수제 : 庚申錄
저자 미상
작성연대 1680년(숙종 5)
형태사항 1책(79장) / 선장(5침) / 31.0×19.9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34 북정록 北征錄

제목 표제 : 北征錄, 권수제 : 行中記事
저자 신유 申澗(1619~1680)
작성연대 1658년(효종 9)
형태사항 1책(25장) / 선장(5침) / 31.8×21.8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37 기사록 己巳錄

제목 표제 : 己巳錄, 권수제 : 己巳錄
저자 미상
작성연대 1689년(숙종 15)
형태사항 1책(35장) / 선장(5침) / 32.6×19.9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38 북정기北征記

제목 표제: 北征記, 권수제: 없음
저자 권대림 權大臨(1659~1723)
작성연대 1691년(숙종 17)
형태사항 1책(53장) / 선장(5침) / 24.9×22.0cm
소장자 영해 안동권씨 칠우정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41 연행일기燕行日記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190호, 지정년도:1984년)

제목 표제: 燕行日記, 권수제: 燕行日記
저자 권희학 權喜學(1672~1742)
작성연대 1697년(숙종 23)
형태사항 1책(64장) / 선장(5침) / 26.5×19.3cm
소장자 안동권씨 봉정공파 화원군종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39 창구객일록蒼狗客日錄

제목 표제: 蒼狗客日錄, 권수제: 蒼狗客日
저자 이재 李栽(1657~1730)
작성연대 1694년(숙종 20)
형태사항 2책(159장) / 선장(5침) / 28.2×19.7cm, 28×19.6cm
소장자 재령이씨 존재파 간송문고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42 서행일기西行日記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190호, 지정년도:1984년)

제목 표제: 西行日記, 권수제: 西行日記
저자 권희학 權喜學(1672~1742)
작성연대 1698년(숙종 24)
형태사항 1책(42장) / 선장(5침) / 26.3×19.2cm
소장자 안동권씨 봉정공파 화원군종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40 북천록北遷錄

제목 표제: 北遷錄, 권수제: 北遷錄
저자 김여건 金汝鍵(1660~1697)
작성연대 1694년(숙종 20)
형태사항 1책(35장) / 선장(5침) / 28.2×18.7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43 서행일기西行日記(전사본)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190호, 지정년도:1984년)

제목 표제: 燕行日記, 권수제: 燕行日記
저자 권희학 權喜學(1672~1742)
작성연대 1698년(숙종 24)
형태사항 1책(33장) / 선장(5침) / 34.3×22.6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44 분강서원창원일기 汾江書院初院日記

제목 표제: 初院日記, 권수제: 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699년~1703년
형태사항 1책(11장 1면) / 선장(4침) / 22.5×25.6cm
소장자 영천이씨 농암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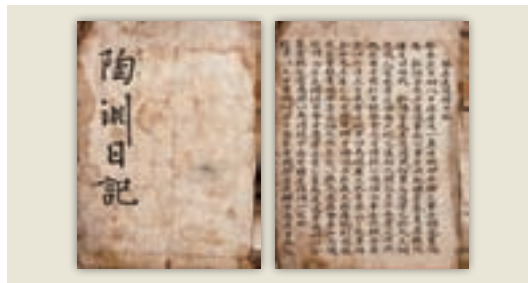
045 기축서록 己丑緒錄

제목 표제: 己丑緒錄,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세기
형태사항 1책(54장 1면) / 선장(5침) / 31.1×23.6cm
소장자 창녕조씨 보분재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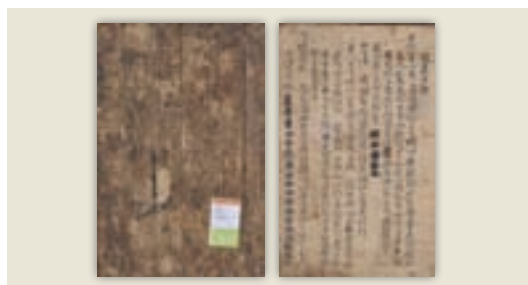
046 설학소문기 雪壑謏聞記

제목 표제: 雪壑謏聞記, 권수제: 雪壑謏聞記
저자 이대기 李大期(1551~1628)
작성연대 생몰년도(1551~1628년)로 추정
형태사항 1책(32장) / 선장(5침) / 33.7×24.8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47 도연일기 陶淵日記

제목 표제: 陶淵日記, 권수제: 癸未建院時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03년(숙종 29), 1714~1718년(숙종 40~44), 1723년(경종 3), 1786년(정조 10)
형태사항 1책(36장) / 가철 / 27.4×21.3cm
소장자 의성김씨 천전파 대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48 관동일록 關東日錄

제목 표제: 關東日錄, 권수제: 關東日錄
저자 권두기 權斗紀(1659~1722)
작성연대 1705년(숙종 31)
형태사항 1책(37장) / 선장(5침) / 26.5×17.6cm
소장자 경북대학교
보관장소 경북대학교 도서관



049 **금강일기**金剛日記

제목 표제: 金剛日記, 권수제: 金剛日記
저자 김창석 金昌錫(1652~1720)
작성연대 1706년(숙종 32)
형태사항 1책(38장) / 선장(5침) / 29×20.2cm
소장자 의성김씨 월탄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52 **강좌친병일기**

제목 표제: 江左親病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권만 權萬(1688~1749)
작성연대 1717년(숙종 43)
형태사항 2책(17장) / 가철 / 19.0×23.6~24.3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도서관



050 **수비노임천장시일기**首比魯林遷葬時日記

제목 표제: 首比魯林遷葬時日記, 권수제: 遷葬時日記
저자 이재 李裁(1657~1730)
작성연대 1711년(숙종 37)
형태사항 1책(14장 1면) / 선장(5침) / 32.2×21cm
소장자 재령이씨 존재파 간송문고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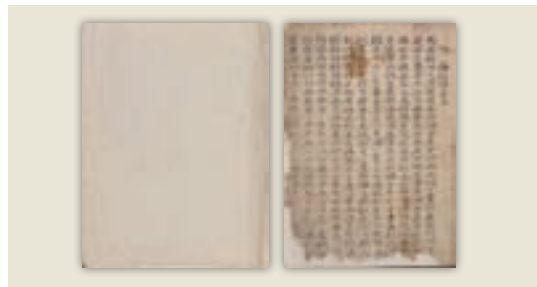
053 **해유록**海遊錄(1~4권)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海遊錄
저자 신유한 申維翰(1681~1752)
작성연대 1719년(숙종 45)
형태사항 1책(99장) / 선장(5침) / 31.4×19.8cm
소장자 영주시
보관장소 영주시 소수서원박물관



051 **서정기**西征記

제목 표제: 西征記, 권수제: 없음
저자 권득여 權得興(1636~1716)
작성연대 1711년(숙종 37)
형태사항 1책(34장) / 선장(5침) / 24.3×24.2cm
소장자 영해 안동권씨 칠우정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54 **해유록**海遊錄(2~3권)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海遊錄
저자 신유한 申維翰(1681~1752)
작성연대 1719년(숙종 45)
형태사항 1책(56장) / 가철 / 27.4×26.3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55 청천해유록 清泉海遊錄(권3, 권1~3 초록)

제목 표제: 清泉海遊錄, 권수제: 海遊錄
저자 신유한 申維翰(1681~1752)
작성연대 1719년(숙종 45)
형태사항 1책(86장) / 선장(5침) / 28.9×18.8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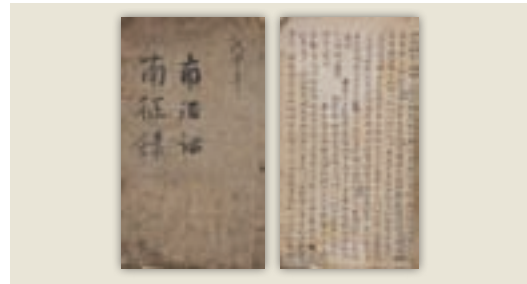
058 무신년창의시일기 戊申年倡義時日記

제목 표제: 戊申三月二十九日倡義時日記, 권수제: 戊申倡義時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28년(영조 4)
형태사항 1책(17장) / 가철 / 18×22.2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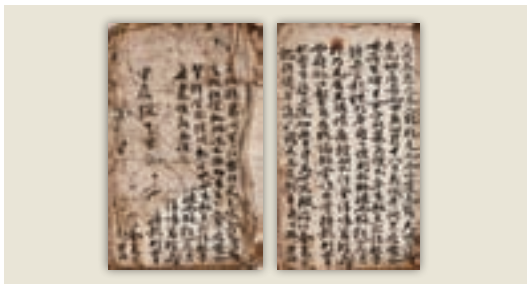
056 수록 隨錄

제목 표제: 隨錄, 권수제: 없음
저자 김흥경 金興慶(1677~1750)
작성연대 1714~1719년(숙종 40~45)
형태사항 1책(17장) / 가철 / 30.7×30.7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59 남정록 南征錄

제목 표제: 南征錄, 권수제: 南征錄
저자 오언구 吳彦壽(1718~?)
작성연대 1728년(영조 4)
형태사항 1책(99장) / 가철 / 35.7×21.2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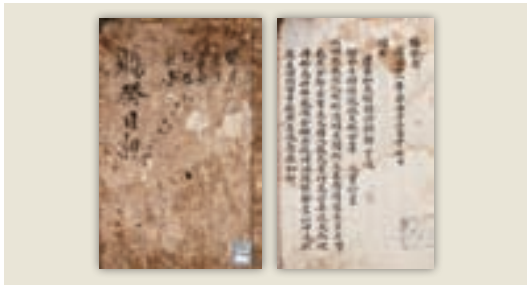
057 갑진옥중일기 甲辰獄中日記

제목 표제: 甲辰獄中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24년(경종 4)
형태사항 1책(19장) / 가철 / 17.7×11.8cm
소장자 능성구씨 백담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60 병곡무신록 屏谷戊申錄

제목 표제: 屏谷戊申錄, 권수제: 戊申錄
저자 권구 權榘(1672~1749년)
작성연대 1728년(영조 4)
형태사항 1책(50장) / 가철 / 30.2×18.8cm
소장자 안동권씨 수곡문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61 사제일기 賜祭日記

제목 표제 : 賜祭日記,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33년(영조 9), 1756년(영조 32), 1781년(정조 5),
1785년(정조 9), 1792년(정조 16)
형태사항 1책(42장) / 선장(5침) / 31.4×20.7cm
소장자 도산서원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64 이헌락일기 李憲洛日記

제목 표제 : 없음, 권수제 : 없음
저자 이헌락 李憲洛(1718~?)
작성연대 1736년(영조 12)
형태사항 1책(8장) / 가철 / 28.7×17.3cm
소장자 개인소장
보관장소 개인소장



062 고상록2 考祥錄二

제목 표제 : 考祥錄二,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34~1738년(영조 10~14)
형태사항 1책(45장) / 선장(5침) / 29.6×19.2cm
소장자 경북대학교
보관장소 경북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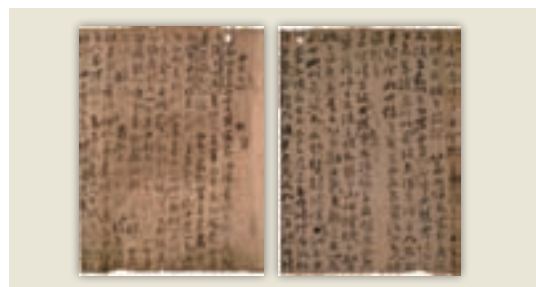
065 이상정역증일기 李象靖曆中日記

제목 표제 : 湖上雜錄, 권수제 : 없음
저자 이상정 李象靖(1711~1781)
작성연대 1739~1781년(영조 15~정조 5)
형태사항 16책(15책 1첩, 220장) / 선장(5침), 첩장, 가철 /
29.5~35.0×16.4~18.9cm
소장자 한산이씨 대산종가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63 백불암역증일기 百弗庵曆中日記

제목 표제 : 曆中日記, 권수제 : 百弗庵先生曆中日記
저자 최흥원 崔興遠(1705~1786)
작성연대 1735~1786년(영조 11~정조 10)
형태사항 4책(535장) / 선장(5침) / 33.4~36.2×22.6~23.2cm
소장자 경주최씨 광정공파 백불암종택
보관장소 개인소장



066 서행일기 西行日記

제목 표제 : 西行日記, 권수제 : 없음
저자 김제행 金齋行(1716~1792)
작성연대 1741년(영조 17)
형태사항 1책(21장) / 가철 / 27.3×22.2cm
소장자 의성김씨 제산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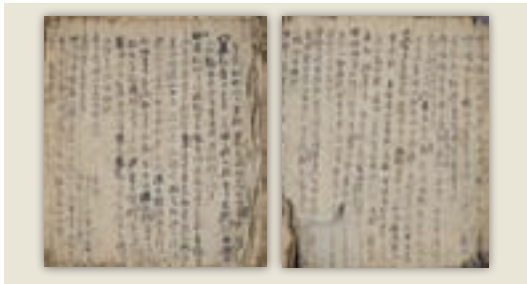
067 원천공일록 園泉公日錄

제목 표제: 園泉公日錄, 권수제: 없음
 저자 신만 申曼(1620~1669)
 작성연대 1741~1797년(영조 17~정조 21)
 형태사항 2책(159장) / 선장(5침) / 26×16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70 황사일록 黃蛇日錄

제목 표제: 黃蛇日錄,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49년(영조 25)
 형태사항 1책(31장) / 가철 / 30.8×21.1cm
 소장자 **아주신씨오봉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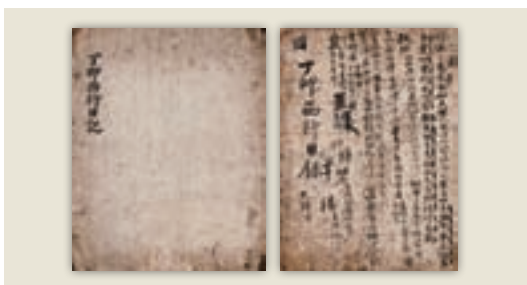
068 강좌일기 江左日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없음
 저자 권만 權萬(1688~1749)
 작성연대 1746년(영조 22)
 형태사항 1책(33장) / 가철 / 26.8×24.4cm
 소장자 충재박물관
 보관장소 충재박물관



071 북행일승 北行日乘

제목 표제: 北行日乘, 권수제: 없음
 저자 정옥 鄭玉(1694~1760)
 작성연대 1751년(영조 27)
 형태사항 1책(23장) / 선장(4침) / 18.9×22cm
 소장자 청주정씨 약포종택 우천공 소천파문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69 정묘서행일기 丁卯西行日記

제목 표제: 丁卯西行日記, 권수제: 丁卯西行日錄
 저자 이상정 李象靖(1711~1781)
 작성연대 1747년(영조 23)
 형태사항 1책(11장) / 가철 / 22.5×18.2cm
 소장자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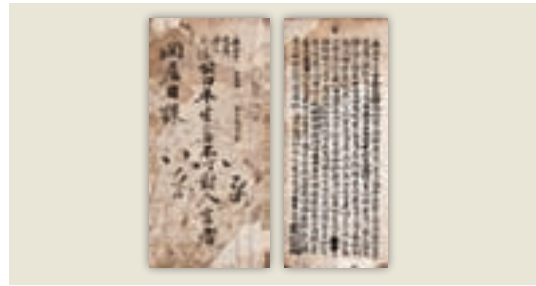
072 관동산수일기 關東山水日記

제목 표제: 東遊, 권수제: 關東山水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54년(영조 30)
 형태사항 1책(17장) / 선장(7침) / 37.5×24.5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73 춘방록春坊錄

제목 표제: 春坊錄, 권수제: 春坊錄
저자 류관현 柳觀鉉(1692~1764)
작성연대 1759년(영조 35), 1797년(정조 21)
형태사항 2책(89장) / 선장(5침) / 29.8×19.8cm(19.1×15.1cm), 35.6×19.2cm(20.9×14.6cm)
소장자 전주류씨 정재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76 한거일과閑居日課

제목 표제: 閑居日課,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60~1761년(영조 36~37)
형태사항 1책(14장) / 가철 / 23.5×11.7cm
소장자 한산이씨 대신종가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74 해영일기海營日記

제목 표제: 海營日記, 권수제: 海營日記
저자 정옥 鄭玉(1694~1760)
작성연대 1759년(영조 35)
형태사항 1책(79장) / 가철 / 32.5×24.5cm
소장자 청주정씨 약포종택 우천공 소천파문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77 모년기사某年記事

제목 표제: 某年記事, 권수제: 某年記事
저자 박하원 朴河源(1739~1806)
작성연대 1762~1776년(영조 38~52)
형태사항 1책(75장) / 선장(5침) / 29.5×18.5cm
소장자 풍산류씨 하회마을 화경당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75 경상도하양현일록慶尙道河陽縣日錄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44호, 지정년도: 2003년)

제목 표제: 日錄, 권수제: 없음
저자 김경철 金景澈(1698~1764)
작성연대 1759~1762년(영조 35~38)
형태사항 1책(80장) / 선장(5침) / 28.6×16.0cm
소장자 노진환
보관장소 개인소장



078 계미통신사도해기癸未通信使渡海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癸未通信使渡海記
저자 조엄 趙巖(1719~1777)
작성연대 1763년(영조 39)
형태사항 1책(85장) / 선장(5침) / 24.9×18.5cm
소장자 영주시 소수박물관
보관장소 소수박물관



079 정원일기 政院日記

제목 표제 : 政院日記, 권수제 : 政院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64년(영조 40)
형태사항 1책(6장 1면) / 선장(5침) / 30.8×16.5cm
소장자 풍산류씨 화경당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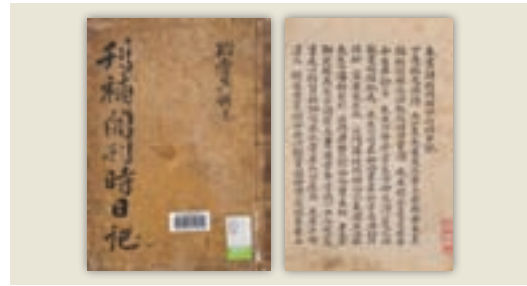
082 이사일기 移徙日記

제목 표제 : 移徙日記, 권수제 : 없음
저자 김성문 金星文(미상)
작성연대 1765~1766년(영조 41~42)
형태사항 1책(17장) / 가철 / 30.6×19.5cm
소장자 의성김씨 귀미 오우당공파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80 여강기문록 廬江記問錄

제목 표제 : 廬江記問錄, 권수제 : 없음
저자 이우 李堉(1739~1810)
작성연대 1765년(영조 41)
형태사항 1책(11장) / 가철 / 22×11.7cm
소장자 한산이씨 대산종가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83 주서강록간보인행시일기
朱書講錄刊補印行時日記

제목 표제 : 刊補開刊時日記, 권수제 : 朱書講錄刊補印行時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77년(정조 1)
형태사항 1책(19장) / 선장(5침) / 29.5×21.2cm
소장자 경북대학교
보관장소 경북대학교 도서관



081 은유일기 恩遊日記

제목 표제 : 恩遊日記, 원표제 : 恩遊日記
저자 신상악 申象岳(1713~?)
작성연대 1765년(영조 41)
형태사항 1책(19장) / 선장(5침) / 30.2×18.0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084 수사록 隨槎錄

제목 표제 : 隨槎錄, 권수제 : 없음
저자 노이점 盧以漸(1720~1788)
작성연대 1780년(정조 4)
형태사항 1책(84장) / 선장(5침) / 32.5×21.3cm
소장자 경북대학교
보관장소 경북대학교 도서관



085 증왕고경모공분원청액시일기
 曾王考敬謨公汾院請額時日記
 表제: 公汾院請額日記, 권수제: 曾王考敬謨公汾院請額時日記
 제목 미상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81년(정조 5), 1784년(정조 8)
 형태사항 1책(34장) / 가철 / 26.3×24cm
 소장자 개인소장
 보관장소 개인소장



088 도계리사승호시일기 道溪里社陞號時日記
 表제: 道溪里社陞號時日記, 권수제: 없음
 제목 미상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91~1807년(정조 15~순조 7)
 형태사항 1책(18장) / 선장(5침) / 21×24.3cm
 소장자 도계서원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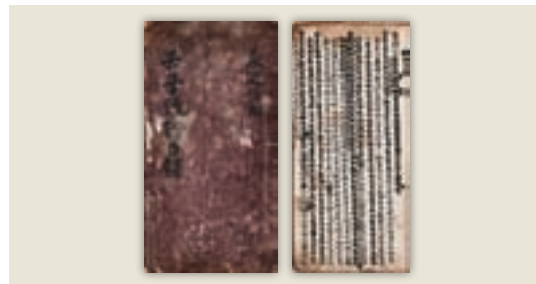
086 호계답문 湖溪答問
 表제: 湖溪答問, 권수제: 湖溪答問
 제목 류범휴 柳範休(1744~1823년)
 저자 1781~1782년(정조 5~6)
 작성연대 1책(11장) / 선장(5침) / 19.5×12.9cm
 형태사항 전주류씨 박실영감댁
 소장자 한국국학진흥원
 보관장소



089 견문초 見聞草
 表제: 見聞草, 권수제: 없음
 제목 이동항 李東沆(1736~1804)
 저자 1791년(정조 15)
 작성연대 1책(54장) / 선장(5침) / 29.8×19.8cm
 형태사항 무안박씨 영해파 원구문중 고은문고
 소장자 한국국학진흥원
 보관장소



087 재무신소청일록 再戊申疎廳日錄
 表제: 再戊申疎廳日錄, 권수제: 再戊申疎廳日錄
 제목 미상
 저자 1788년(정조 12)
 작성연대 1책(44장) / 선장(5침) / 28.5×19cm
 형태사항 안동권씨 가은후손댁
 소장자 한국국학진흥원
 보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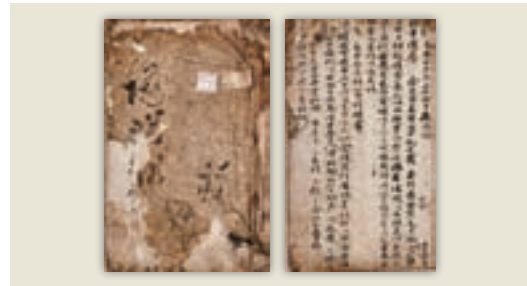


090 임자소행일록 壬子疏行日錄
 表제: 壬子疏行日錄, 권수제: 疏行日錄
 제목 미상
 저자 1792년(정조 16)
 작성연대 1책(14장) / 선장(5침) / 32.4×16.9cm
 형태사항 류성호
 소장자 한국국학진흥원
 보관장소



091 송정일월崇禎日月(21책)

제목 표제 : 崇禎日月, 권수제 : 없음
저자 권장 權璋(1802~1874), 권익 權(金+翼)(1821~1876),
 권준희 權準羲(1849~1936)
작성연대 1792~1908년(정조 16~융희 2)
형태사항 21책(1113장) / 선장(5침) / 25.3~30×14.3~17cm
소장자 안동권씨 수곡문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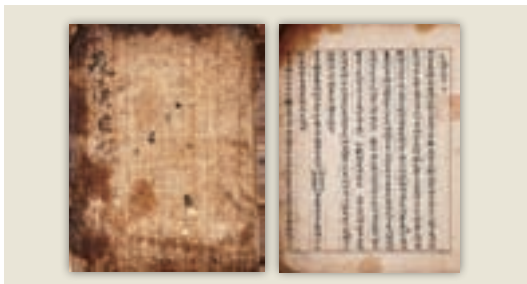
094 수득록(일록)隨得錄(日錄)

제목 표제 : 隨得錄, 권수제 : 없음
저자 김굉 金垵(1739~1816)
작성연대 1799~1800년(정조 23~24)
형태사항 1책(71장) / 가철 / 31.1×20cm
소장자 의성김씨 귀미 오우당공파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92 하와일록河窩日錄

제목 표제 : 河窩日錄, 권수제 : 日記
저자 류의목 柳懿睦(1785~1833년)
작성연대 1796~1802년(정조 20~순조 2)
형태사항 1책(44장) / 선장(5침) / 32.5×20.5cm
소장자 화회류씨 화경당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93 무경일록戊庚日錄

제목 표제 : 戊庚日錄,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798~1800년(정조 22~24)
형태사항 1책(40장) / 선장(5침) / 36.4×28.7cm
소장자 풍산김씨 영감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95 백세운결록百世隕結錄

제목 표제 : 百世隕結錄, 권수제 : 없음
저자 류이좌 柳台佐(1763~1837)
작성연대 1800년(정조 24)
형태사항 2책(170장) / 가철 / 30.9×18cm
소장자 풍산류씨 화경당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96 임천서당중건일기 臨川書堂重建日記

제목 표제: 臨川書堂重建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03~1812년(순조 3~12)
형태사항 1책(31장) / 선장(5침) / 23.5×26.2cm
소장자 정재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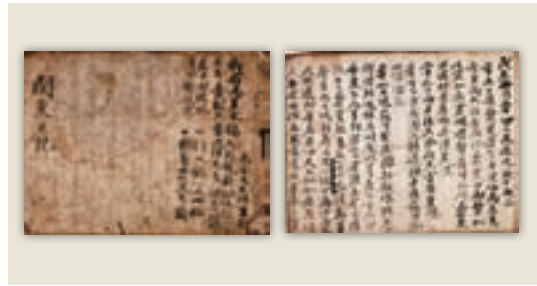
099 봉강영당영건일기 鳳岡影堂營建日記

제목 표제: 鳳岡影堂營建日記, 권수제: 鳳岡影堂營建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05~1867년(순조 5~고종 4)
형태사항 1책(27장) / 선장(5침) / 31.2×20.5cm
소장자 안동권씨 동정공파 화원군종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97 계해일기 癸亥日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癸亥正月丁卯朔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03년(순조 3)
형태사항 1책(79장) / 선장(5침) / 26.5×18.2cm
소장자 경주이씨 소정문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00 관동일기 關東日記

제목 표제: 關東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류상조 柳相祚(1763~1838)
작성연대 1808년(순조 8)
형태사항 1책(14장) / 가철 / 18×24.8cm
소장자 풍산류씨 양오당문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098 서정록 西程錄

제목 표제: 西遊日錄, 권수제: 西程錄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04~1806년(순조 4~6)
형태사항 1책(72장) / 선장(5침) / 32.4×19.3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101 서란록 西亂錄

제목 표제: 西亂錄 單,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11~1812년(순조 11~12)
형태사항 1책(69장 1면) / 선장(5침) / 27.5×19.6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02 이병탁역중일기李秉鐸曆中日記

제목 표제 : 없음, 권수제 : 없음
저자 이병탁 李秉鐸(1760~1832)
작성연대 1814~1832년(순조 14~32)
형태사항 7책(175장) / 가철 / 26.2~28.4×15.2~16cm
소장자 한산이씨 소산종가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05 번암집간소일기樊巖集刊所日記

제목 표제 : 刊所日記,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23~1824년(순조 23~24)
형태사항 4책(117장) / 가철 / 27.4×18.5cm
소장자 풍산류씨 화경당
보관장소 국학진흥원



103 승사록乘槎錄

제목 표제 : 乘槎錄, 권수제 : 乘槎錄
저자 최두찬 崔斗燦(1779~?)
작성연대 1818년(순조 18)
형태사항 1책(33장) / 선장(5침) / 25.2×23.1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06 승정일월崇禎日月(1책)

제목 표제 : 崇禎日月,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24년(순조 24)
형태사항 1책(13장) / 선장(5침) / 32.4×16.8cm
소장자 의성김씨 천전파 대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04 청사명원록靑蛇明冤錄

제목 표제 : 靑蛇明冤錄, 권수제 : 없음
저자 김의정 金義貞(미상)
작성연대 1818~1861년(순조 18~철종 12)
형태사항 1책(52장) / 선장(5침) / 30.3×18.2cm
소장자 풍산김씨 참봉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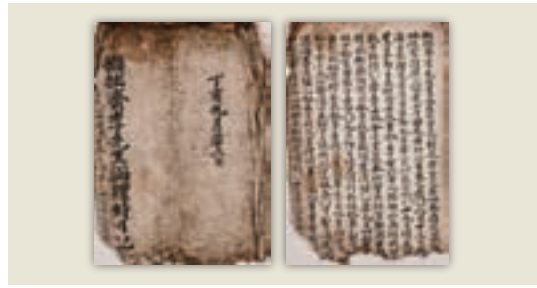
107 만귀재일지晚歸齋日誌

제목 표제 : 晚歸齋日誌, 권수제 : 없음
저자 안행탁 安行鐸(1806~1863)
작성연대 1824~1830년(순조 24~30)
형태사항 1책(60장) / 가철 / 27.6×15.9cm
소장자 순흥안씨 만귀재고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08 을병경서정일록 乙丙庚西征日錄

제목 표제: 乙丙庚西征日錄, 권수제: 乙丙庚西征日錄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26년(순조 26)
형태사항 1책(32장) / 선장(5침) / 29×17.4cm
소장자 경북대학교
보관장소 경북대학교 도서관



111 난졸재이선생면례시일기

懶拙齋李先生緬禮時日記
제목 표제: 懶拙齋李先生緬禮時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27년(순조 27)
형태사항 1책(4장) / 가철 / 29.2×21.5cm
소장자 전의이씨 난졸재 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09 일기완 日記完

제목 표제: 日記完, 권수제: 日記
저자 이정현 李正鉉(1802~?)
작성연대 1826~1865년(순조 26 ~ 고종 2)
형태사항 1책(56장) / 선장(5침) / 31.5×19.1cm
소장자 경북대학교
보관장소 경북대학교 도서관



112 기축일기 己丑日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29~1830년(순조 29~30)
형태사항 1책(25장) / 가철 / 23.4×15.3cm
소장자 경주이씨 소정문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10 동유일록 東遊日錄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東遊日錄
저자 김건수 金建銖(1790~1854)
작성연대 1826년(순조 26)
형태사항 1책(21장) / 가철 / 25.2×23.3cm
소장자 의성김씨 해저 만회고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13 행정면례시일기 杏亭緬禮時日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杏亭緬禮時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29~1832년(순조 24~32)
형태사항 1책(32장) / 가철 / 19×19.3cm
소장자 재령이씨 존재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14 신축년일기 辛丑年日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辛丑年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41~1842년(헌종 7~8)
형태사항 1책(36장) / 가철 / 23.8×22.5cm
소장자 경주이씨 송람문중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17 물촌선생영정개모시일기

勿村先生影幀改慕時日記
제목 표제: 勿村先生影幀改慕志,
권수제: 勿村先生影幀改慕時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49년(헌종 15)
형태사항 1책(15장 1면) / 선장(5침) / 30.2×19cm
소장자 평산신씨 판사공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15 임재일기 臨齋日記

제목 표제: 臨齋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서찬규 徐贊奎(1825~1905년)
작성연대 1845~1861년(헌종 11~철종 12)
형태사항 1책(139장) / 가철 / 36×20.4cm
소장자 달성서씨 낙동정사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18 권벌승무소청일기 權撥陞庶疏廳日記

제목 표제: 疎廳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51년(철종 2)
형태사항 1책(10장) / 가철 / 31.4×18.2cm
소장자 충재박물관
보관장소 충재박물관



116 김두흠일록 金斗欽日錄

제목 표제: 崇齋日錄, 권수제: 없음
저자 김두흠 金斗欽(1804~1877)
작성연대 1845~1847년(헌종 11~13), 1851~1853년(철종 2~4),
1858~1867년(철종 9~고종 4)
형태사항 5책(255장) / 가철 / 23.6~29.9×17.2~21.2cm
소장자 풍산김씨 영감덕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19 권벌승무소행일록 權撥陞庶疏行日錄

제목 표제: 疏行日錄, 권수제: 日錄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51년(철종 2)
형태사항 1책(10장) / 가철 / 28.4×18.3cm
소장자 충재박물관
보관장소 충재박물관



120 입향시일기立享時日記

제목 표제: 立享時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52년(철종 3)
형태사항 1책(3장) / 가철 / 32.9×28.2cm
소장자 흥해배씨 괴담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23 병진일록丙辰日錄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丙辰日錄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56년(철종 7)
형태사항 1책(10장) / 가철 / 18.3×17.2cm
소장자 능성구씨 백담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21 괴담입향시일기槐潭立享時日記

제목 표제: 槐潭立享時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52~1872년(철종 3~고종 9)
형태사항 1책(23장) / 선장(6침) / 30.7×19.2cm
소장자 흥해배씨 괴담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24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제목 표제: 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김중휴 金重休(1797~1863)
작성연대 1857~1860년(철종 8~11)
형태사항 1책(78장) / 가철 / 30×18.8cm
소장자 풍산김씨 참봉댁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22 이돈우역중일기李敦禹曆中日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없음
저자 이돈우 李敦禹(1807~1884년)
작성연대 1855~1857년(철종 6~8), 1883년(고종 20)
형태사항 2책(56장) / 가철 / 30~30.9×16.3~17.3cm
소장자 한산이씨 대산중가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25 소와공죽리관중건일기笑窩公竹裏館重建日記

제목 표제: 笑窩公竹裏館重建日記, 권수제: 竹裏館重建日記
저자 이학영 李學榮(1821~1884)
작성연대 1860년(철종 11)
형태사항 1책(11장) / 선장(7침) / 29.2×18.8cm
소장자 재령이씨 영해파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26 연행일기 燕行日記

제목 표제 : 燕行日記, 권수제 : 燕行日記
저자 박제인 朴齊寅(1818~1884)
작성연대 1860년(철종 11)
형태사항 2책(95장) / 선장(5침) / 28.4~28.5×20.2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29 단산서원수리일기 丹山書院修理日記

제목 표제 : 丹山書院修理日記, 권수제 : 없음
저자 이능연 李能淵(1829~1898)
작성연대 1862년(철종 13)
형태사항 1책(7장) / 선장(6침) / 33.2×23.2cm
소장자 안동권씨 칠우정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27 보충 補聰

제목 표제 : 補聰,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60~1861년(철종 11~12)
형태사항 1책(10장) / 가철 / 28.2×27.4cm
소장자 반남박씨 오헌고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30 임천청액일기 臨川請額日記

제목 표제 : 臨川請額日記, 권수제 : 臨川書院請額上疏時日記
저자 류기호 柳基鎬(1823~1886)
작성연대 1864년(고종 1)
형태사항 1책(89장) / 가철 / 27.3×19.1cm
소장자 진주류씨 수정재고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28 일기제2 日記第二

제목 표제 : 日記 第二,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61~1863년(철종 12~14)
형태사항 1책(65장) / 가철 / 28.7×18.3cm
소장자 풍산김씨 참봉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31 갑자서행록 甲子西行錄

제목 표제 : 甲子西行錄,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64년(고종 1)
형태사항 1책(27장 1면) / 가철 / 21.2×20.4cm
소장자 재령이씨 존재파 간송문고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32 호남일록 湖南日錄

제목 표제: 湖南日錄, 권수제: 湖南日錄
저자 류휴목 柳休睦(1843~1898)
작성연대 1864년(고종 1)
형태사항 1책(92장) / 선장(5침) / 31.2×21.8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135 객일수록 客日隨錄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客日隨錄
저자 류기호 柳基鎬(1823~1886)
작성연대 1870~1871년(고종 7~8)
형태사항 1책(31장) / 가철 / 24.7×17.4cm
소장자 전주류씨 박실 웃덕 수정재고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33 채범곤일기 蔡範坤日記

제목 표제: 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채범곤 蔡範坤(1811~1875)
작성연대 1865~1866년(고종 2~3)
형태사항 2책(90장) / 가철 / 21.6×18.0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136 소행일기 疏行日記

제목 표제: 疏行日記, 권수제: 疏行日錄
저자 정직우 鄭直愚(1823~1880)
작성연대 1871년(고종 8)
형태사항 1책(71장) / 선장(5침) / 28×17.8cm
소장자 동산도서관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134 행정신도비수립일지 杏亭神道碑竪立日誌

제목 표제: 杏亭神道碑竪立日誌,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67년(고종 4)
형태사항 1책(10장) / 선장(5침) / 27.8×17.9cm
소장자 재령이씨 존재파 간송문고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37 화원청복소청일기 華院請復疏廳日誌

제목 표제: 華院請復疏廳日誌,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74년(고종 11)
형태사항 1책(20장) / 가철 / 16.8×28cm
소장자 경북대학교
보관장소 경북대학교 도서관



138 퇴계집개간일기 退溪集改刊日記

제목 표제: 先生文集改刊日記, 권수제: 先生集改刊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77년(고종 14)
형태사항 1책(16장) / 가철 / 32×23.2cm
소장자 도산서원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41 대계집간역시일기 大溪集刊役時日記

제목 표제: 大溪集刊役時日記, 권수제: 大溪府君遺稿刊役時日錄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84~1885년(고종 21~22)
형태사항 1책(21장) / 선장(5침) / 19×17.9cm
소장자 고성이씨 탐동종가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39 김병항일록 金秉瓚日錄

제목 표제: 曾祖考日錄, 권수제: 없음
저자 김병항 金秉瓚(1845~1914)
작성연대 1878~1886년(고종 15~23)
형태사항 2책(143장) / 가철 / 24.3~28×15.1~17.1cm
소장자 풍산김씨 영감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42 일기 日記

제목 표제: 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89~1899년(고종 26~광무 3)
형태사항 1책(22장) / 가철 / 23×28.6cm
소장자 광산김씨 유일재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40 동경일기 東京日記

제목 표제: 東京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송헌빈 宋憲斌(1841~1923)
작성연대 1881년(고종 18)
형태사항 1책(27장) / 선장(5침) / 39×21.5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43 오제승일기 吳濟承日記

제목 표제: 日記 第四, 권수제: 日記
저자 오제승 吳濟承(1877~1933)
작성연대 1891~1894년(고종 28~31)
형태사항 1책(40장) / 선장(5침) / 26.6×16.8cm
소장자 영양 함양오씨 우재공파 검재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44 창의사상언시일기 倡義事上言時日記

제목 표제: 倡義事上言時日記,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92년(고종 29)
형태사항 1책(11장) / 가철 / 29.3×21.2cm
소장자 전주류씨 정재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47 쇠록 瑣錄

제목 표제: 瑣錄, 권수제: 西行路程記
저자 김석규 金碩奎(1826~1883) 추정
작성연대 19세기
형태사항 1책(27장) / 가철 / 28.8×19.9cm
소장자 재령이씨 찬하주손가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45 죽사일기 竹史日記

제목 표제: 竹軒日記, 권수제: 竹史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94(고종 31)~1911년
형태사항 1책(15장) / 선장(5침) / 크기 29.2×21.6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48 갑신일록략초 甲申日錄略抄

제목 표제: 古筠日記, 권수제: 甲申日錄略抄
저자 김옥균 金玉均(1851~1894)
작성연대 19세기
형태사항 1책(44장) / 선장(5침) / 28.3×20.3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46 연원일록 燕輓日錄

제목 표제: 燕輓日錄, 권수제: 燕輓日錄
저자 미상
작성연대 1899년(광무 3)
형태사항 3책(125장) / 선장(5침) / 27.4×18.5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49 가세잡기家世雜記

제목 표제 : 家世雜記,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74장) / 선장(5침) / 28.8×20cm
소장자 전주류씨 정재종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52 동정잡록상東征雜錄上

제목 표제 : 東征雜錄 上, 권수제 : 東征雜錄 上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54장) / 선장(5침) / 35.8×23cm
소장자 경북대학교
보관장소 경북대학교 도서관



150 관동일록關東日錄

제목 표제 : 關東日錄,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15장) / 가철 / 27.6×19.9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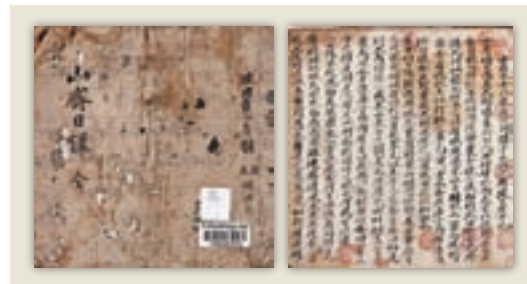
153 북유록北遊錄

제목 표제 : 北遊錄 全,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88장) / 가철 / 28.3×18.4cm
소장자 진성이씨 초초암 고택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51 동유잡기東遊雜記

제목 표제 : 東遊雜記,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29장) / 가철 / 31×19cm
소장자 풍산류씨 화경당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54 산재일록山齋日錄

제목 표제 : 山齋日錄, 권수제 :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26장) / 가철 / 23×22.5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55 서강입향시일기西江立享時日記

제목 표제: 西江立享時日記, 권수제: 西江勸建時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15장) / 선장(5침) / 32.6×20.7cm
소장자 평산신씨 판사공
보관장소 한국국학진흥원



158 수수기隨手記

제목 표제: 隨手記, 권수제: 關東四月錄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19장) / 가철 / 22×16.8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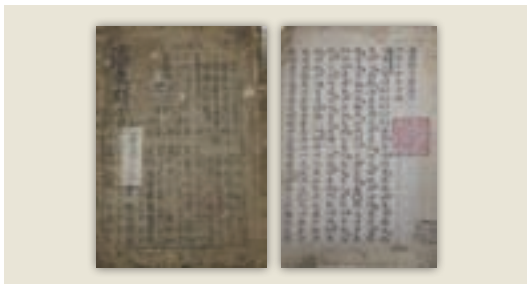
156 서산왕복西山往復

제목 표제: 西山往復,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19장) / 선장(5침) / 25.2×17.3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59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

제목 표제: 遊金剛山錄, 권수제: 遊金剛山錄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21장) / 가철 / 25.4×18.2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57 소재일기蘇齋日記

제목 표제: 蘇齋日記, 권수제: 海東野言別集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29장) / 선장(5침) / 31.2×22.1cm
소장자 계명대학교
보관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160 유서일록遊西日錄

제목 표제: 遊西日錄, 권수제: 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40장) / 선장(5침) / 24.1×15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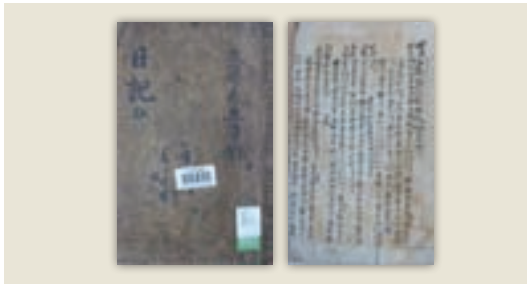
161 일기日記

제목 표제: 日記, 권수제: 日記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44장) / 가철 / 28.6×17.8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64 일기3, 4日記三, 四

제목 표제: 日記 三, 四,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2책(128장) / 선장(5침) / 31×20.5cm
소장자 경북대학교
보관장소 경북대학교 도서관



162 일기초日記抄
(문암선생일록文庵先生日錄)

제목 표제: 日記 抄,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53장) / 선장(5침) / 28.2×18.8cm
소장자 경북대학교
보관장소 경북대학교 도서관



165 일록日錄

제목 표제: 日錄,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25장) / 선장(5침) / 24.9×21.7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63 일기日記

제목 표제: 없음, 권수제: 없음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74장) / 선장(5침) / 22.7×19.6cm
소장자 개인소장
보관장소 개인소장



166 파유일록巴遊日錄

제목 표제: 三巴遊日錄, 권수제: 巴遊日錄
저자 미상
작성연대 미상
형태사항 1책(27장) / 가철 / 28.7×16.2cm
소장자 영남대학교
보관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시대 개인일기 1 - 대구·경북

Joseon Dynasty Personal Diary 1 - Daegu · Gyeongbuk

- 기획** 이난영_미술문화재연구실장
- 현지조사** 박상규_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김완호_미술문화재연구실 연구원
김남중_미술문화재연구실 연구원
장인진_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정제규_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문위원
- 편집·교정** 박상규_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김완호_미술문화재연구실 연구원
김남중_미술문화재연구실 연구원
- 원고** **미술문화재연구실**
박상규_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김남중_미술문화재연구실 연구원
- 외부필자(가나다 순)**
권연웅_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임규완_계명대학교 강사
장인진_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정석태_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연구원
정진영_안동대학교 교수
최경훈_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실 사서
- 사진촬영** 신준영_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이정훈_i스튜디오 대표
- 조사협조** **기관(가나다 순)**
경북도청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봉화군 총재박물관
상주시립 상주박물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주시립 소수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 개인**
대구·경북 거주 개인소장자
- 자료협조** 한국국학진흥원
- 사진협조** 예천군청

-
- 발행일** 2015년 11월 25일
- 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Tel. 042-860-9193 Fax. 042-861-4925
- 홈페이지** <http://www.nrich.go.kr>
- 제작** 디자인공방
Tel. 02-2285-4132 Fax. 02-2266-9821

- 발간등록번호** 11-1550011-000708-01
- ISBN** 978-89-299-0710-5 03910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2015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